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의 중국어 대응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부 가 준

2021년 2월

韓國語 教育을 위한 韓國語 連語의 中國語 對應 研究

指導教授 裴 泳 煥

傅 嘉 駿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0年 12月

傅嘉駿의 文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濟州大學校 大學院

2020年 12月

A Study on Correspondence of Korean Language
Collocation to Chinese Language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Fu-Jia Jun

(Supervised by professor Bae, Young-hwa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021.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Bae, Young-hwan, Prof.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차

<국문 초록>

I. 서론-----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2. 선행연구-----	5
3. 연구 대상과 방법-----	16
II. 연어의 개념과 유형-----	21
1. 연어의 정의 및 특성-----	21
2. 연어의 유형-----	43
III.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용 연어 목록 선정-----	51
1.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어-----	51
2. 중국에서의 한국어 연어 교육 양상-----	54
3. 선정 기준과 방법-----	60
4. '체언+용언'형 어휘적 연어 목록 구성-----	87
IV. 한국어 교육용 연어의 한·중 대조 분석-----	90
1. 한·중 연어 대조의 번역 기준 및 분석 방법-----	90
1.1. 번역 기준-----	90
1.2. 대조 분석의 방법-----	101
2. 한국어 주술관계 연어의 대응 양상-----	109
2.1. 대응적 대조 관계의 주술관계 연어-----	109
2.1.1. 완전 대응 주술관계 연어-----	109
2.1.2. 부분 대응 주술관계 연어-----	112
2.2. 비대응적 대조 관계의 주술관계 연어-----	116

2.2.1. 술빈구와의 대응-----	117
2.2.2. 상황어 중심어 구와의 대응-----	123
2.2.3. 술보구와의 대응-----	124
2.2.4. 부정구와의 대응-----	126
2.2.5. 피동구와의 대응-----	126
2.2.6. 복잡한 구와의 대응-----	127
2.2.7. 단어와의 대응-----	128
2.2.8. 성어와의 대응-----	131
3.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의 대응 양상-----	132
3.1. 대응적 대조 관계의 목술관계 연어-----	132
3.1.1. 완전 대응 목술관계 연어-----	132
3.1.2. 부분 대응 목술관계 연어-----	134
3.1.3. 완전 비대응 목술관계 연어-----	150
3.2. 비대응적 대조 관계의 목술관계 연어-----	152
3.2.1. 개사구와의 대응-----	152
3.2.2. 양사구와의 대응-----	152
3.2.3. 겹어구와의 대응-----	153
3.2.4. 피동구와의 대응-----	154
3.2.5. 복잡한 구와의 대응-----	155
3.2.6. 단어와의 대응-----	157
3.2.7. 사자성어와의 대응-----	162
4. 한국어 부술관계 연어의 대응 양상-----	162
V.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연어 습득 양상에 대한 조사와 분석-----	168
1.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연어 습득 양상에 대한 조사-----	168
1.1. 조사 방법-----	168
1.2. 조사 대상-----	171
2. 한·중 언어 대조 관점에서의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연어 오류 분석-----	172
2.1.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	175

2.2. 목표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	181
2.3. 조사의 오류-----	184
2.4. 기타 오류-----	187
VI. 한·중 언어 대조 관점에서의 한국어 연어 교육 방안-----	191
1. 교육 방법-----	191
2. 교육 모형-----	196
3. 교육 실례-----	198
VII. 결론-----	206
참고문헌-----	210
표 차례-----	215
<Abstract>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한국어 연어를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과 비교함으로써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연어를 교육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어의 정의를 재검토해 보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용 연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또,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간의 대응 양상을 비교하고, 나아가 중국인 학습자들의 연어 사용 오류에 대해 분석하여 이를 통해 효율적인 맞춤형 연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어 교육은 더 이상 어휘 교육이나 문법 교육의 측면에 그치지 않고 대조언어학과 연계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의의 출발점은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연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효과적일까?'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연어의 정의를 다시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 중에서 연어의 정의에 대해 이론적인 측면의 논의에 지나치게 집중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 연어의 특성에서 출발하여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어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었다. 연어의 어휘적 결합 관계 제약과, 연어의 공기성, 연어 의미의 투명성과 합성성, 그리고 연어 구성 요소의 선택성 등 연어의 특성을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본고에서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연어를 '두 어휘소 간의 긴밀한 통사적 결합 구성으로, 선택의 주체(언어핵)가 되는 어휘요소가 선택의 대상(언어변)이 되는 어휘요소를 제약적으로 선택하고 공기하며 통사적 의미는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구성'으로 보았다.

본고에서 내린 한국어 연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용 연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먼저 북경대 『한국어』를 비롯한 5가지의 중국 현지의 한국어 교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중국의 한국어 연어 교육 양상을 고찰하였다. 교재 분석을 통해 추출된 연어 항목을 본고에서 제기할 교육용 연어

목록으로 선정하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각 언어 항목은 본고에서 제기한 언어의 정의에 부합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에 언어 사용 빈도와 학습 난이도를 선정 기준으로 보고 『학습용 기본 명사 언어 빈도 사전』에서 고빈도 언어로 등재되며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2003))>에서 제시한 어휘로 구성하는 언어를 교육용 언어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291개의 언어를 교육용 언어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교육용 언어 항목에 대해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한국어 언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한국어 언어는 중국어로 대응할 때 주로 중국어 구, 어휘, 사자성어와 대응 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본문에서 한국어 언어의 통사 구성에 따라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대조적 관계와 비대조적 관계로 나누었다. 대조적 관계는 중국어 대응 표현의 통사 구성이 한국어 언어와 일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의미 측면에서 대조적 관계의 하위 분류는 다시 완전 대응 관계와 부분 대응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완전 대응 관계에는 한국어 언어이든지 중국어 대응 표현이든지 구성요소의 의미는 모두 기본 의미를 유지하며 1대1의 대응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와 달리 부분 대응 관계에는 한국어 언어의 구성 요소의 확장 의미로 인해 중국어에서 대응할 때 해당하는 어휘의 기본 의미로 번역하면 안 되고 한국어 어휘의 확장 의미와 일치하는 다른 중국어 어휘를 차용하여 대응시켜야 한다. 비대조적 관계는 중국어 대응 표현의 통사 구성이 한국어 언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비대조적 관계에는 중국어의 다양한 구, 어휘 및 사자성어가 포함되고 있다. 한국어 언어는 중국어와 대응할 때 다양한 대응 양상이 보인다. 완전 대응적 관계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중국어 대응 양상에 의해 한국어 언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부분 대응적 관계와 비대응적 관계에는 중국어 대응 양상이 한국어 언어와 의미나 통사 구성의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언어를 공부할 때 어렵게 한다. 이런 비대칭적인 대응 관계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 오류를 이루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한국어 언어의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에 의해 학습자들의 언어 오류를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오류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대조 분석과 오류 분석을 바탕으로 언어 교육에 대해 시사점과 효율적인 교육 방안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에 대한 대조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연어를 사용할 때 실제적으로 나타난 오류들을 분석하여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도 밝혔다. 본고에서는 번역식 문제의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연어 오류를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은 중국 현지에 있는 대학교의 한국어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36명의 학생이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총 356개의 연어 오류를 수집하였고 오류의 원인에 따라 구체적인 오류를 다시 아래와 같은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이다. 한·중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 중국어 어휘 직역으로 인한 오류 등은 이에 해당한다. 둘째, 목표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이다. 유의어의 대치 오류, 자동사와 타동사의 혼동 오류 등은 이에 해당한다. 셋째, 조사의 오류이다. 넷째, 기타 오류이다. 오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는 22.2%로 오류율이 가장 높고, 오류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조사의 오류(20.8%)이다. 목표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의 오류율은 15.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연어를 학습할 때 역시 모국어의 간섭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연어를 가르칠 때 한·중 언어에서 대응하는 연어 표현을 서로 비교하여 의미나 형태적 측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한국어 연어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여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한편, 중국어 어법 체계에 격조사가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연어를 활용할 때 구성요소인 조사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연어 구성의 통사적 특성에서 출발하여 해당한 조사를 쓰는 이유를 학습자들에게 밝혀야 한다. 비록 목표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는 이 세 가지의 오류의 유형 중에 수량이 가장 적지만 한국어 내부에 있는 유의어의 의미와 형태에 대한 변별은 역시 한국어 연어 학습의 난점이 된다. 한국어의 유의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면 특정한 연어 구성에 잘 어울리지 않는 유의어를 써서 오류를 보인다. 이런 목표어의 간섭으로 인한 연어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유의어의 의미와 형태의 차이점도 학습자들에게 학습 과정에서 강조해야 한다.

한·중 언어 표현의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연어를 공부할 때 겪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연어 교육 방안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조언어학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문법번역식 교수법과 공동체 언어 학습법의 이론을 결합시켜 '도입-번역활동-활용-마무리'와 같은 4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수업 모형을 마련하였고 등급별로 수업 실례도 제시하였다.

키워드: 언어, 대조언어학, 한국어 교육, 한·중 어휘 비교, 오류 분석.

I.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대조언어학의 이론을 활용하여 '체언+용언'형 한국어 연어를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과 비교함으로써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어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어의 정의를 재규명하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용 연어 목록을 선정할 것이다.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 간의 비교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의 연어 사용 오류에 대한 분석과 효율적인 맞춤형 연어 교육 방안 제시를 시도할 것이다.

Wilkins(1972)가 “문법이 없이는 의미가 거의 전달되지 않지만 어휘가 없이는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한 점은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어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문법 교육보다 어휘 교육에 대해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교수법을 수용하는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 활동을 진행할 때 어휘를 위해 할애하는 시간이 많지 않고 새로운 어휘를 공부할 때 해당된 개별 어휘가 중국어에서의 대응 의미만 제시하고 학습자들은 암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의사소통 능력을 목적으로 한 외국어 교육활동에서는 어휘의 형태와 의미뿐만 아니라 어휘의 구체적인 용법에 대해 더 중요시하고 있다. Richards(1976)가 한 단어를 아는 것은 그 단어의 정의를 아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며 어휘 능력은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과 더불어 그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의 종류와 의미를 아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허용(2008)에서도 어휘 교육에 있어 개별 단어의 학습뿐만 아니라 구 단위 이상의 고정 표현을 교육해야 유창하고 적절한 언어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연어는 두 어휘 요소가 습관적으로 공기하는 어휘의 결합 관계로서 개별 어휘의 용법을 배울 수

있는 취소의 단위라고 할 수도 있다. 연어는 어휘를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로서 현재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연어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어 연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 국내에서의 한국어 연어 연구는 '연어는 무엇인가?'라는 쟁점에 대해 1990년대부터 논쟁이 시작되어 최근 10여 년간에 다방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순수언어학적 연구와 응용언어학적 연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연어에 대한 순수언어학적 연구는 주로 연어의 정의, 특징, 그리고 범위를 밝히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달리 연어에 대한 응용언어학적 연구에는 말뭉치의 구축 및 분석을 비롯한 자연언어처리 측면의 연구, 사전 편찬할 때 표제어의 결합 관계를 정립하는 사전학적 측면의 연구,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연어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한국어 교육학적 연구 등 다방면의 연구가 있다. 다음 소절에서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 외에 요즘 연어 연구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는 대조언어학적 연어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어 연어와 다른 언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통해 순수언어학에서의 연어에 대한 사변 형식의 논의보다 한국어 연어의 본질적인 특징과 다른 언어와 비교할 때의 차이점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활용에도 용이하다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어휘의 결합 관계와 달리 한국어 연어 관계에는 특별한 통사·의미 측면의 제한적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연어를 배울 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먼저, 관습적으로 공기하는 연어 구조 중의 어휘 결합 관계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별도로 배우지 않으면 이런 특정한 어휘 결합 관계를 스스로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의사소통에서 활용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중 언어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연어의 대응 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연어를 사용할 때 오류도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타동사 '먹다'를 배운 후,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속에 들여보내다'라는 '먹다'의 기본 의미에 따라 '명사(목적어)+을/를(목적어 격조사)+타동사(서술어)'의 통사적 구조에서 음식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사과, 고기,

비빔밥' 등 명사를 '먹다'와 결합하여 '사과를 먹다, 고기를 먹다, 비빔밥을 먹다'와 같은 구 단위의 표현으로 자유롭게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먹다'로 구성하는 '나이를 먹다, 욕을 먹다'와 같은 연어 표현에 대해서는 학습 없이 스스로 파악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때 구 단위 중의 '먹다'의 의미는 앞에서 나오는 명사에 의해 기본 의미가 아닌, 확장된 비유적 의미로 변하여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의화된 동사 '먹다'는 중국어에서의 대응양상도 다르다¹⁾.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연어 구성을 배우는 학습에 대하여 어렵게 생각할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연어를 배울 때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 연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 한국어 교육학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허용(2013)에서 외국어를 교육하는 교사가 학습자들의 모국어와 학습 대상 언어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하고 이를 교수·학습에 이용하면 언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원극연(2014:140)에서도 '한국어 교육의 시각에서 볼 때, 국어학 측면에서 통사·의미 규칙을 설명하는 것보다 연어와 중국어 대조(對照)를 통해 연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어 교육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제언한 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관점에서 알 수 있듯이 대조언어학의 이론을 한국어 연어 교육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가치도 크다. 따라서 대조언어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구체적인 방면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모든 언어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진다. 언어가 가지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비교·대조하는 언어학의 분야에는 비교언어학, 대조언어학이 있다. 통시적 시각으로 언어의 변천을 연구하는 비교언어학과 달리 대조언어학은 공시적인 시각으로 대상이 되는 언어의 특징을 파악하고 다른 언어들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1) 한국어 타동사 '먹다'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낸다'라는 기본 의미로 중국어에서 '吃'과 대응한다. 그러나 연어 구성 중에서 동사 의미의 전이나 확장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취급하게 되면서 중국어와의 대응 양상도 달라졌다. '나이를 먹다' 중에서 '먹다'는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라는 의미로 중국어에서 '長'과 대응된다. '욕을 먹다' 중에서 '먹다'는 '욕, 편찬 따위를 듣거나 당하다.'라는 수동적인 의미로 중국어에서 '挨'와 대응된다. 이처럼 연어 구성에서 '먹다'의 예만으로도 중국어 대응 양상이 다양하고 서로 다르다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비교언어학은 이론언어학적 성격이 강하지만 대조언어학은 외국어 교육 등 실용적인 목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응용언어학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한·중 언어를 비교하면서 교육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대조언어학의 이론이다. 외국인 학습자, 특히 초급 학습자들이 학습 대상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먼저 자신의 모국어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이때 두 언어 간의 대조언어학적 지식은 오류의 생산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을 선택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조언어학적 지식은 모국어의 간섭이 심한 성인 학습자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기존의 언어 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언어 교육 목록 선정, 언어 교육방안 제시, 그리고 언어 사용 오류 분석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 중에 한국어 언어와 다른 언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비교하는 대조언어학적 연구도 있지만 논의를 통해 얻은 결과를 언어 교육 분야에서 접목시키는 연구가 많지 않다. 지금까지의 한·중 언어의 대조 연구의 상황을 보면 비록 수량이 많지 않지만 대부분 연구는 한·중 이중 언어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중국인 한국어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최순희(2005), 紀丹鳳(2009), 王曉輝(2011), 이목자(2013), 원극연 (2014), 陳晶晶(2016)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최순희(2005)는 한·중 언어 대조 연구의 첫 시도이며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점에서 가장 의의가 있는 연구이다. 王曉輝(2011)는 사전에서 수록된 언어를 가지고 대응 된 중국어와 통사적·의미적 측면에서 대조 분석을 진행한다. 하지만 대응 양상의 유형을 다소 복잡하게 분류하고 있고 통사와 의미적 두 측면의 비교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이목자(2013)에서는 한·중 언어의 대응 양상에 대해 일치하는 대응, 다 대응, 그리고 일치하지 않은 대응과 같이 분류했는데, 이런 분류 기준은 아주 단편적이고 한·중 언어의 전체적 대응 양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대응 양상의 분류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陳晶晶(2016)에서는 한국어 언어와 대조된 중국어 내용에 있어서 많은 오타와 잘못된 번역이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지금까지의 한·중 언어 대조 연구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의 네 가지 주된 문제점을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한국어 언어를 중국어와 대조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비교할 대상인 한국어 언어 목록을 추출하는 방법과 추출된 항목의 범위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둘째, 한국어 언어를 중국어와

대조 분석을 진행할 때 번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번역된 대조 내용에 오타와 잘못된 번역이 존재하고 있다. 셋째, 한국어 연어를 중국어와 대조 분석한 연구의 결과에 대한 대조 양상의 유형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연어를 중국어와 대조 분석하여 내린 결론을 한국어 교육으로 활용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중 연어 표현의 차이점으로 인해 연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하나의 난점이 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한·중 연어 대조 분석의 결과를 한국어 연어 교육에서 활용시키고 효율적인 연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한·중 연어 대조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먼저 과학적인 교육용 연어 목록을 선정한 다음에 연어 대조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더 세밀하고 객관적인 분류 기준을 세우고 유형을 나누어 정리할 것이다. 이후 연어 대조 양상을 비교한 결과를 중국 현지에서 있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연어 사용 오류 실례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활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더욱 효율적인 연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서구 언어학자 Firth가 1957년에 '연어(collocation)²⁾'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한 것을 계기로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연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에서 연어와 비슷한 개념을 최현배(1961)에서 '이은말³⁾'이라는 용어로 최초 도입했으나 연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00년대부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연어 연구는 최초 연어의 정의, 특성과 유형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부터 지금까지 자연언어 처리, 사전 편찬,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응용언

2) Firth(1957)에서는 “You shall judge a word by the company it keeps(단어의 의미는 그 것과 같이 나타나는 단어들에 의해 파악된다).”라는 말로 연어의 개념을 처음 도입하였다.

3) 최현배(1961)에서는 ‘여러 낱말이 모여서 한겹진(複雜한) 뜻을 나타내되, 아직도 온전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되지 못한 것, 곧 월은 물론이요, 아직 마디도 되지 못한 것을 ‘이은말(連語)’이라 하였다.

어학적 분야의 연구로 발전해 왔다.

주지하듯이 언어는 한국의 언어학계에서 이론적 측면으로의 논의거리가 될 만한 연구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응용언어학이 중요시하는 실용성 측면에서도 연구할 가치가 많다. 중국에는 비록 '언어(連語)'라는 개념이 없지만 언어의 범주와 비슷한 '詞語搭配(어휘적 결합)⁴⁾, 詞組/短語(구)⁵⁾'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중 언어 간 언어를 서로 비교할 가능성이 생긴다. 중국어의 통사적·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중국 언어학계에서 언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외국어 교육에서 언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국에 있는 한국어 교육자들에 의해 한·중 언어 대조 연구와 한국어 언어 교육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언어 연구를 상술한 유형별로 고찰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한·중 언어 대조 연구와 한국어 언어 교육 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기존 연구에서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본 연구의 연구 방향을 잡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어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2.1. 순수 언어학적 언어 연구

국어학에서 언어에 대한 논의는 주로 언어의 개념, 특성과 유형을 규명하는 데 집중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언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상이하여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연구는 강현화(1998, 2008), 이동혁(1998, 2004), 김진해(2000, 2007), 임홍빈(2002), 임근석(2002, 2005, 2010, 2011) 등이 있다.

강현화(1998)에서는 기존의 국어학 언어 연구에서 언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

4) 중국 언어 학자들의 詞語搭配(어휘 결합)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다. 張壽康는 『現代漢語實詞搭配詞典(현대 중국어 어휘 결합 사전)』(1996)의 서문 부분에서 '詞語搭配(어휘 결합)'를 '자성체 구조'로 비유하고 한 특정한 어휘는 어휘 간 의미적 제약으로 인해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끌어당기는 좌석의 성질'과 같이 일부분 어휘와 결합할 수 있다. 이 비유적 개념은 중국 언어학계에서 '詞語搭配(어휘 결합)'에 대한 가장 광범위적으로 인정을 받은 정의이다. 이 정의에서 언어의 성질과 같이 중국어의 '詞語搭配(어휘 결합)'도 의미적 통사적 제약을 받고 구성요소 간 서로 의존적 관계를 유지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지만 결합 구조 중의 구성요소의 의미의 확장과 전이 등 의미적 변화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5) 『현대한어사전』(2005:222)에서 '詞組'에 대한 정의는 두 개 혹은 둘 이상의 어휘의 결합관계이라고 한다. '詞組'는 '短語'라고 부르기도 한다. 詞組의 구조에 따라 '固定詞組(구정구)'와 '自由詞組(자유구)'로 나눌 수 있다. 固定詞組(구정구)는 말 그대로 구조가 비교적으로 고정적이며 관용적인 구이다. 중국어 '詞組'의 통사 구성에 따라 모두 16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있다고 지적하면서 긴밀한 공기 관계를 보이는 “체언+용언”형의 한국어 연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해당 구성요소 중의 체언이나 용언의 의미적인 전이성 여부와 제약성 여부에 따라 연어를 분류하였다. 이 연구는 연어 구성요소의 의미적·통사적 제한 요구에서 출발하여 연어의 본질적인 특성을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관용어도 연어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양자간의 한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김진해(2000)에서는 연어의 의미 관계, 특히 계열 관계를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연어의 개념, 특징과 유형 등 내용을 전반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연어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선택의 단일 방향성, 심리적 현저성, 특정 의미관련성, 구조 변형의 의존성, 경계의 모호성, 특정 언어집단 의존성 등 6가지로 귀납하였다. 이에 따라 연어는 구성요소 중의 선택어가 비선택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어휘관계라고 밝혔다. 이어서 연어의 유형을 광의적 연어와 협의적 연어로 분류하였고 협의적 연어는 다시 어휘적 연어와 형태·통사적 연어로 양분하여 어휘적 연어에 대해 전제적 연어와 관습적 연어로 세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유형연어의 동의 관계, 대립 관계, 상하위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연어의 의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국어학에서 쟁점으로 남은 연어의 정의, 특징, 유형, 의미 양상 등 내용에 대한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연구 성과로서 큰 의의가 있다.

임홍빈(2002)에서는 연어 관계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문법적 구성에 나타나는 두 어휘소 사이의 어휘적인 선택 관계라고 정의했다. 그의 정의에 따라 연어 관계는 이항적 어휘소 사이의 문제로 한정되었고 한 어휘소가 다른 한 어휘소의 선택 관계로 보고 있다. 선택하는 요소와 선택되는 요소를 구분할 때 각각 '언어핵'과 '언어변'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했다. 언어핵의 의미가 투명하고 언어변이 어휘적 유사어로의 대치가 어려우며 언어핵이 언어변을 강하게 요구하는 연어의 구성요소의 성질을 밝혔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체언+용언'형의 연어 구성에서 언어핵이 되는 것이 명사이다”라고 기술한다는 점에 대해 다소 의심스럽다. '머리를 감다, 눈을 뜨다'와 같은 구성요소 중 용언이 언어핵이 되는 '체언+용언'형 연어의 반례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임홍빈(2002)에서 언어핵을 판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다소 한계점이 있다고 본다.

이동혁(2004)에서는 연어를 구성하는 어휘소들이 어떠한 관계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의미 분절로 인하여 의미 계열이 다른 어휘소들이 맺는 직접적인 어휘관계는 연어 관계라고 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연어 표현의 표면적인 의미와 통사 구성이 아닌 연어 내부의 구성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임근석(2011)에서는 기존한 한국어 연어 연구의 전개 양상과 쟁점을 성구론적 연어 연구와 말뭉치 지향적 연어 연구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연어 정의와 범위의 문제, 어휘적 연어와 문법적 연어의 차이점, 연어핵과 연어변에 대한 구별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고 다시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통시적인 연어 연구로서 지금까지 연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필자 자신의 새로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순수언어학적 연어 연구를 보면 연어의 정의, 범위와 유형에 대해 연구자마다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연어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보다 '각 연구의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리는 결론도 다르다.'라는 생각에서 받아들이는 포용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논의 중에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연어 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용 연어'의 개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연어와 교육용 연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는 2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2. 한국어 연어 교육 연구

한국어 연어 교육 연구는 순수 언어학적 연어 연구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지만 한국어 교육학 학자들에 의해 연어 교육 목록 선정, 연어 사용 오류 분석, 그리고 연어 교육 방안 제시에 있어서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적인 연구는 문금현(2002), 한송화·강현화(2004), 김지은(2010), 이정현(2010), 김원경(2010), 송대현·윤정아(2015), 유문명(2018) 등이 있다.

문금현(2002)에서는 효율적인 교육용 연어 목록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기존 한국어 교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어의 선정 기준과 목록 제시 방법등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을 문제로 보고, 연어의 양에 대한 기준이 없고 연어에 관한 연습문제를 거의 찾을 수 없으며 연어에 대한 특별한 학습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연어 교육에서 학습자들에게 한국인 일상 생활에 사용 빈도가 높은 연어 항목을 가르쳐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나아가 고빈도 연어 목록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어 교재, 문어 자료, 구어 자료 등을 통해 연어를 추출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난 어휘 위주로 한국어 연어의 대표 목록을 작성했다. 또한 이 목록을 한국인 화자의 사용빈도를 우선하여 초·중·고급 단계로 분류했고 수업 모형과 교육 방안도 동시에 제시했다.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연어 교육에 대한 최초의 논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송화·강현화(2004)에서는 연어를 활용한 효율적인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어휘 교육은 어휘 낱말에 대한 의미 교육이 아니라 어휘의 문법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학습자들이 어휘를 사용할 때 나타난 오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어 교육의 중요성을 밝혔다. 연어를 활용한 효율적인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어사전을 이용한 연어 모으기 활동, 특정 어휘를 중심으로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어휘들을 분류하거나 쓰는 활동 등 다양한 교실 현장 활동을 제시하였다.

김지은(2010)에서는 교육할 연어 내용을 주제별, 등급별로 제시하고 연어의 교육 방안에 있어서 언어권에 따른 적당한 연어 대조 자료와 현지에 적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정현(2010)에서는 연세대 한국어 교재에서의 연어 제시 양상을 살펴보았다, 교재에서 제시된 연어의 분포 및 빈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국립국어원 &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의 연어 목록(총 9,024개)에서 동일한 명사로 만들고 빈도수가 5 이상인 명사 그룹을 추출하여(총 1,504개) 그것을 기준으로 교재에 출현한 연어를 분석하여 비교해 보았다. 교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연어 값에 따른 분포는 중고급 단계에서 좀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양의 고빈도 연어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한

언어 교육 연구로서 교재 편찬 및 현장 교육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김원경(2010)에서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언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고급 학습 단계에서는 말하기나 쓰기 영역의 주제가 되는 어휘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하는 언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맥락을 통해서 언어 항목을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맥락을 통한 언어 교육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고 실제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언어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언어를 확실하게 인지하여, 언어를 익힐 수 있다고 하였다.

송대현·윤정아(2015)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언어 교육 내용을 주제별로 구성하여 언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현행 한국어 교재에는 언어와 관련된 내용은 단편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각각의 교재별로도 제시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남호(2003)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선정 결과 보고서의 교육용 어휘와 한국에서 출간된 5가지의 한국어 교재의 내용을 참고하여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용 언어들을 선정하고 '일상생활', '여가생활', '건강', '생각과 감정', '단체생활', '대인관계', '경제활동', '사회와 문화', '자연현상'의 9개의 주제로 배열하고 교육 등급도 매겼다. 이렇게 주제별 등급별로 배열된 언어 항목들을 조직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인 언어 교육에서 언어 항목을 선정하고 주제별로 배열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문명(2018)에서는 대규모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활용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언어 오류를 언어 통사 유형, 오류 원인, 학습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언어의 통사 유형에 따라 '체언+용언'형 언어에서 오류를 많이 범한다고 하였다. 오류 양상 중에서 목술관계 언어의 오류율이 가장 높고 언어 구성 중에서 조사의 오류는 가장 많다고 밝혔다. 오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는 주술관계 언어에서 가장 많이 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어 언어의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이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학습 단계가 올라가면서 오류율이 낮아지는 점을 통해 학습자들이 언어에 대해 부단히 학습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진행할 때 오류를 점차 줄일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오류 분석을 통해 연어의 학습 양상을 살펴보는 언어 교육의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한국어 연어 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한국어 교재 분석과 교육 현장 고찰을 통해서 연어에 대한 제시 양상은 체계적이지 않고 분명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연어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 다음 효율적인 연어 학습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용 연어 목록을 추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데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각 연구에서 교육용 연어를 선정하는 기준이 일치하지 않고 연어 목록을 추출하는 방법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연구마다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교육용 연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이 연어 교육이 이루어져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어려움이 있다.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교육용 연어의 선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교육 방안과 교육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교육 현장의 교육 실태와 학습자들의 습득 양상을 파악하고 언어 교육의 실제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 방안을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2.3. 한·중 연어 대조 연구

한·중 연어에 대한 대조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먼저 대조언어학 분야에서 외국어 학습과 관련된 가설과 이론 지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조언어학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언어의 음운, 어휘, 문법 등 언어 체계를 대조하여, 대조된 부분들이 서로 대응되는지, 혹은 대응되지 않는지를 밝히는 언어 연구 분야이다. 대조언어학은 공시적인 시각으로 대조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역사적인 유연성과 관계없이 언어 체계를 대조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대조언어학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비교한다.

대조언어학은 외국어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언어는 서로 달라서 제2언어

학습자는 모국어에 나타나는 언어 현상을 목표 언어에 전이하려는 경향이 있어 모국어의 목표어 습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두 언어 체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습득이 어려운 구조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에 학습자가 오류를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 언어 달성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조언어학에서의 언어 대조와 외국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조 분석 가설이다⁶⁾. 대조 분석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이 결합된 풍토에서 생성된 이론으로 대조의 대상이 되는 두 개 이상의 언어에 나타난 음운적, 형태적, 통사적, 표현 담화적 특징을 대조해 보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외국어 습득에 대한 주요 장애물을 모국어의 간섭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외국어 학습이 어려운 것은 이러한 간섭 때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언어학자가 학습자의 모국어와 학습 대상을 과학적이고 구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양 언어의 체계적인 대조는 학습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예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외국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오류가 단순히 모국어와 학습 대상 언어와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된다는 사실로 대조 분석 가설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습자가 생산한 오류를 다방면에서 분석하는 오류 분석 가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오류 분석 가설에서 오류의 원인을 크게 '언어 간 간섭에 의한 오류, 언어 내적 간섭에 의한 오류, 그 외의 원인에 의한 오류'와 같은 세 가지로 나누었다. 언어 간 간섭은 외국어 학습 시 학습자가 모국어의 언어 체계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게 되는 오류로 특히 초급 학습자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학습자는 학습 대상 언어의 지식이 부족하므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국어 언어 체계를 대상 언어에 그대로 적용해서 범하는 오류 유형이다.

언어 내 간섭은 학습 대상 언어의 문법적인 복잡성이나 불규칙성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언어 학습자는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언어 간 간섭을 많이 일으키지만 학습 대상 언어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언어 내 간섭을 많이 일으킨다. 그 외의 원인에 의한 오류는 교과 과정이나 교재, 교사 등 학습 환

6) 대조 분석 가설 및 오류 분석 가설과 관련된 내용은 허용·김선정(2018:5~14)를 참조했다.

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류와 교실 밖의 사회적 상황이나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류를 모두 포함한다.

대조언어학의 외국어 교육 원리를 검토한 결과 본고에서 대조 분석과 오류 분석과 같은 두 부분에서 한·중 언어 대조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본고의 연구 대상은 동일 언어권에 속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이므로 구체적인 대조 분석의 단계에서 대조언어학의 어휘 대조 원리인 'True Friends와 False Friends'의 개념을 도입하여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True Friends'는 형태나 발음도 유사하고 의미도 유사한 어휘이며 'False Friends'는 형태나 발음은 유사하나 의미는 다른 어휘를 가리킨다. 이 개념은 대조 분석할 언어 항목을 분류하여 유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한·중 언어의 대조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한국어 언어 교육 현장에서 적용시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론적인 면과 실용적인 측면에 모두 의의가 있다. 그 전에 한국어 교육학 학자들, 특히 중국인 학자들에 의한 한국어 언어의 한·중 대조언어학적 연구는 비록 수량이 많지 않지만 논의의 폭과 깊이에 있어서 날로 성숙해졌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주로 최순희(2005), 紀丹鳳(2009), 王曉輝(2011), 陳晶晶(2016), 왕유가(2019) 등의 학위논문이 있고 학술논문으로는 신자영(2005), 원극연(2014), 여숙연(2017) 등이 있다. 기존 한·중 언어 대조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언어 교육을 위한 대조언어학 이론과 한국어 교육 원리를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최순희(2005)에서는 주로 동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어 언어의 중국어 대응 양상에 대해 대조분석을 진행하였다. 한국어 동사 “가다”, “보다”, “먹다”, “서다”와 결합하는 언어에 대해 동사의 의미 기능을 밝히고, 이들 동사를 각각 중국어 동사 “去”, “看”, “吃”, “立”과의 대조 속에서 대응관계 언어와 비대응관계 언어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언어적 측면에서 한·중 대응 연구의 첫 시도로서 의의가 아주 크다. 그러나 특정한 동사로 구성된 언어에 한정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紀丹鳳(2009)에서는 한국어 언어를 중국어와 대응해서 통사와 의미 두 가지 측면에서 대조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비교 대상인 언어 항목을 추출하는 방법은 기존 연구들 중 문금현(2002)과 박숙영(2005)에서 제시한 언어 목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목록 선정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선정된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그 외에 한·중 연어 대응 양상을 살펴볼 때 연어 구성 요소의 의미를 비교하고 있는데 연어 구조의 통사적 구성도 동시에 비교하는 것을 보면 대응 관계에 대한 분류 기준도 적당치 않은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연어 대조 분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연어 교육에서 활용시키고자 하였지만 제기된 교육 방법은 한국어 교육 원리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다소 주관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다.

王曉輝(2014)에서는 한국어 동사가 구성하는 연어에 대한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연어와 대응 중국어의 대응 원리를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용 기본 어휘>에 수록된 동사들 중에서 순위가 1000 이내의 동사를 중심으로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에 수록된 이들 동사와 결합하는 3474개의 연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어 목록의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방법이 적용되지만 연어 대응 양상의 유형을 나눌 때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다소 복잡하다는 점이 있다. 예를 들면, 한·중 연어의 통사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서의 대응 양상에서 동사의 경우 중국어에 대응어가 없는 상황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이로 인해 비교 분석 과정 중에 겹치는 부분이 생겨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통계 처리할 때도 번거로워진다. 이 연구에는 한·중 연어 대응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비교적 충분하였으나 한국어 교육 등 응용 분야에 있어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저자 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대상 중 현재 일상생활에 쓰이지 않는 연어 항목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실용성 역시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학에 있어서 국어 일반 연어 목록이 아닌, 교육용 한국어 연어 목록을 추출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陳晶晶(2016)에서는 중국 한국어 연어 교육 현황을 검토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과 실제 수요에 맞춰서 교육용 연어 항목을 추출하여 분류한 다음에 문화 주제별로 교육용 어휘적 연어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학습 등급에 따라 문화를 중심으로 한 연어 교육 모형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학과 대조언어학의 원리를 잘 결합시켜 연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로서 의의가 크지만 아쉽게도 연어를 대조할 때 명확하지 않은 번역 기준과 잘 못된 이해로 인

해 대응 양상 중에 오타와 오역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⁷⁾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 연구로서 언어의 정확한 의미를 제시하는 것은 가장 선결적인 조건이고 모든 연구 진행할 때의 기본이다. 한국어 연어에 대한 외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꼼꼼히 검토하지 못한다면 외국인 학습자들의 혼란을 더욱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에서의 한국어 연어의 대응양상을 살펴볼 때 명확한 번역 기준과 꼼꼼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왕유가(2019)에서는 한·중 연어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학습용 연어 구성'이라는 연어의 개념을 다시 규명하고 중국어 화자가 알고 있는 문법 체계를 바탕으로 대역어를 매개로 한·중 연어의 대응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중 연어 사전의 표제항의 선정과 사전에서의 배열 등이 포함된 연어 사전 편찬의 실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중 연어 사전 편찬할 때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 이론적 측면의 연어 대조 연구와 달리 한·중 연어 대조 분석 결과를 사전 편찬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한·중 연어 대조 측면의 학술논문을 보면 언어 간의 대응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한·중 연어 대조 연구를 진행할 때 방법론 측면에 참고할 만한 점이 많다. 신자영(2005)에서는 한국어 연어의 다국어 대조 연구는 단순히 한국어 연어의 외국어 대응형을 찾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격투, 논항구조, 어휘의미 등 의미 통사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원극연(2014)에서는 한·중 연어 대조 연구를 위한 토대 구축을 모색해 보고 한·중 연어의 관련성을 찾아 어휘적·문법적 측면에서 한·중 연어를 대조하였으며, 어휘적 연어 대조에서 어휘요소 간의 통사 결합 구성과 어휘 선택 문제를 중

7) 예를 들면 '신세를 지다'는 '(남에게) 은혜를 (입고 아직) 갚지 못하다.'라는 상용 의미로 이 논문에서 제시한 '打擾(폐를 끼치다, 방해하다)'가 아닌 '欠人情'와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고 '대꾸를 하다'는 '상대방의 말에 대한 대답'이라는 뜻이 있지만 일반적인 대답이 아닌, '남의 말을 들은 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제 의사를 나타내다'의 의미로 중국어에서의 대응양상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대답을 나타내는 '回答(대답하다)'가 적당치 않고 '頂嘴'와 대응시켜야 한다. 이는 한국어 연어와 대응관계를 형성하는 중국어의 여러 가지의 유의적인 표현을 구별하지 못해서 나타난 오역이다. 그 외에 '의지를 굽히다'를 중국어 '堅定想法(의지를 굳히다/견지하다)'로 대응시키면 원문과 정반대 의미가 된다. 적당한 대응 양상은 '意志屈服/動搖'가 해당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어 연어의 구성요소의 의미와 전체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고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의 통사적 차이를 주의하지 못해서 나타난 오역 현상이다.

심으로 대조하였다. 그 결과로 한·중 어휘적 연어에는 직접 대응, 간접 대응, 비 대응 세 가지가 있었다고 보았다. 여숙연(2017)에서는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는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타동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일대일, 일대다, 다대일 세 가지로 나누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6명을 연구 대상으로 표본적 실험을 하여 숙달도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의 목술 관계 연어의 서술어 습득 양상을 살펴보았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연어를 사용할 때 나타난 오류의 원인에 대해 주로 한국어 유의어 간 의미 차이, 다의어 의미의 다양성,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 어휘의 의미 차이 등으로 귀납하였다.

지금까지 검토한 한·중 연어의 대조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연구 대상인 연어 목록의 범위에 대해 적당한 선정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어떤 연구에서는 특정 어휘에 의하여 이루는 소범위의 연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어떤 연구에서는 연어에 대한 주관적인 판별 기준을 따르거나 빈도수를 참고하여 말뭉치 분석을 통해 연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인해 연어와 구별없이 자유결합과 관용표현도 연어 목록에서 수록하였다. 그리고 교육용 연어의 판정 기준과 양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때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다.

둘째, 한국어 연어를 중국어에서 대응시킬 때 오역과 오류 현상이 존재한다. 이는 연어에 대한 번역 작업에 있어서 일정한 번역 기준과 타당한 번역 방법이 없거나 연어의 의미에 대해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셋째, 연어 대응 양상의 유형을 나눌 때 일관적인 분류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누락하거나 중복되게 비교하는 항목도 많다.

넷째, 대부분 한·중 연어 대조 연구는 연어 대응 양상에 대한 유형화에 그칠 뿐, 연구에서 내린 이론적인 결론을 연계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시키지 못했다.

3. 연구 대상과 방법

지금까지 국어학자들이 연어의 개념, 특성, 그리고 유형에 대해 논의할 때 쟁점이 아직도 많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에 대한 대조 분석의 결과를 중국어인 한국어 학습자들에 대한 언어 교육에 시사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 언어의 개념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언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기존 국어학적 연구에서는 주로 언어 구조의 통사·의미적 특성이나 자유결합과 관용 표현 간의 차이점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언어의 정의와 대상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교육용 언어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언어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인 학습자들의 입장에 있어서 어떤 언어 항목을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완벽한 의사소통 능력을 양성하기 위해 꼭 배워야 할 언어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교육해야 할 언어 항목을 연구 대상으로 본다.

그렇다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교육해야 할 언어 항목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우선 한국어 언어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광의적 언어⁸⁾와 협의적 언어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언어 중에는 어휘적 언어와 문법적 언어를 포함하고 있다. 문법적 언어는 한국어 교육에는 보통 문법 항목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휘 교육의 범주에 있지 않다. 따라서 어휘적 언어는 본 연구의 연구 범위에 속한다. 어휘적 언어는 통사적 구조와 구성요소 간의 의미 관계에 따라 다시 주술관계 언어, 목술관계 언어, '부사어+서술어' 형 언어, '체언+ 관형격조사+ 체언'형 언어, '부사+용언'형 언어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중에서 앞에 제시한 3가지, 즉 '체언+용언'형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본다. 왜냐하면 임근석(2002)에 따라 국립국어원 350만 어절의 세종 말뭉치에서 어휘적 언어를 추출한 결과를 보면 전체 언어 중에서 '체언+용언'형 언어의 비중이 거의 78%에 달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빈도 역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들의 '체언+용언'형 언어의 실제 사용 양상을 보면 동사 대치, 그리고 격조사의 누락이나 대치는 자주 범하는 오류 현상 중의 하나이다. 다른 언어권의 학습자들에 비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어 언어와 대응 양상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하는 '체언+용언'형 언어

8) 임근석(2002)에 따라 광의적 언어는 모든 언어 단위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들이 전형적으로 결합되는 공기관계이다. 이와 달리 협의적 언어는 한 문장 안에서 어휘소 상호 간 또는 어휘소와 문법소 간에 전형적으로 결합되는 공기관계이다. 협의적 언어의 하위 유형으로서 구성 중에 문법소의 유무에 따라 어휘적 언어와 문법적 언어로 구분되어 있다.

의 오류율이 높은 편이다. 이승연·최은지(2007)에서 말뭉치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연어의 오류 유형과 빈도를 분석한 결과 ‘체언+용언’형의 결합 오류가 전체 오류의 41.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용언의 어휘적 오류가 36.9%이라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목자(2018)에서도 중국인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발견된 연어 오류들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체언+용언’형의 연어 오류는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주로 용언의 위치에서 자주 발견되고 용언의 결합적 오류는 제일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오류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연어의 사용에서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전체 오류 원인의 57.1%에 해당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연어 오류의 주요인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유문명(2018)에서는 통사 유형별 연어의 오류율을 통계 처리한 결과, 목술관계 연어의 오류율은 50.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뒤를 이어 주술관계는 36.7%를 차지하고 있고 부술관계 연어의 오류는 12.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 내용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한·중 언어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체언+용언’형 언어를 최종적인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런 연어 항목들을 교육용 연어 목록으로 구축한 다음에 구체적인 대조언어학적 비교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더 나아가 연구 결과를 한국어 연어 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겠다.

이와 같이 연구 대상 및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나서, 본 연구의 연구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먼저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 연구 중에 존재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어 교육을 대조언어학의 이론과 연계시켜 새로운 출발점에서 연구 범위를 한정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2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쟁점이 많은 연어의 개념을 다시 살펴보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연어의 정의를 내릴 것이다. 기존 연구에 있는 사변적이거나 단편적 논의와 달리 본 연구는 연어의 통사적·의미적 본질적인 특성에서 출발하여 학습자들의 실제 요구를 만족시키는 연어의 개념을 탐구할 것이다. 연어와 자유결합, 관용표현의 관별 문제도 구체적으로 논

의할 것이다.

3장에서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한·중 언어의 대조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교육용 언어 목록을 선정할 것이다. 먼저 교재 분석을 통해 중국 현지의 한국어 언어 교육의 양상을 고찰한 다음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용 언어 목록을 추출할 것이다. 언어 목록을 선정할 때 언어의 빈도수, 학습난이도 및 실용성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먼저 본 연구의 교육용 언어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중국에서 출간된 각 한국어 교재들에 수록된 '체언+용언'형 언어 목록을 추출한다. 추출된 언어의 빈도수를 확보하기 위해 『학습용 기본 명사 언어 빈도 사전』⁹⁾을 참고하여 빈도가 높은 항목을 추출한다. 그 다음에 학습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 추출한 언어 항목의 구성요소인 개별 어휘들이 <한국어 학습용 어휘>의 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교육용 언어 목록의 구체적인 선정 방법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고에서 내린 언어의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교재 분석을 통해 교재에서 제시하는 언어 항목을 추출한다. 추출된 언어의 빈도 유형은 <학습용 기본 명사 언어 빈도 사전>에서 제시하는 제1류나 제2류의 언어의 범위에 속하는 동시에 해당 언어의 구성 요소는 모두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2003)>에서 제시하는 학습 난이도 C급 이상인 어휘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의 조건에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이런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용 언어 목록이 선정되고 4장에서 한·중 대조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4장에서는 추출된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용 언어들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어와 대응시킨다. 대조언어학의 대조 분석 이론에서 대조되는 두 언어는 주로 형태적, 통사적 측면에서 대조한다. 따라서 대조 분석하기 전에 한국어 언어 항목들을 통사적 구성에 따라 주술관계 언어, 목술관계 언어, '부사어+용언'

9) 『학습용 기본 명사 언어 빈도 사전』은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2003)>에 실린 어휘 중 명사류의 언어 구성을 <현대국어 사용빈도 조사2 (2005)>에 사용된 300만 어절 코퍼스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서는 각 언어를 언어 구성의 빈도 및 결합 강도(PMI)를 바탕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1류는 빈도도 높고 결합 강도도 높은 부류이다. 제2류는 빈도는 낮지만 결합 강도가 높은 부류이다. 제3-4류는 빈도와 결합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언어 항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교재 제시 언어 항목에 대해 다시 제1류와 제2류에 해당되는 어휘 목록을 추출하고 언어 교육 목록으로 삼기로 했다.

형 연어와 같이 3가지의 유형으로 정리한다. 유형별로 대응된 중국어 표현은 의미적으로 한국어 연어 항목과 일치시켜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연어와 통사적 측면에서 대응양상을 살펴본다. 대응 양상을 살펴볼 때 대응적 연어와 비대응적 연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대조언어학의 어휘 대조 원리인 'True Friends와 False Friends'¹⁰⁾의 개념에 따라 통사 구성이 일치하는 연어 항목에 대해 의미 측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응적 연어는 'True Friends와 False Friends'의 개념에 따라 다시 완전 대응된 연어와 부분 대응된 연어로 유형화할 수 있다. 부분 대응적 연어는 주로 연어의 구성요소의 다의화¹¹⁾로 인해 한·중 언어의 표현 방식이 다른 것이다. 비대응적 연어는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표현의 의미의 일치함을 전제로 하여 통사적 구조가 서로 다른 것이다.

5장에서는 중국 현지에서 있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용 연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연어 학습 양상을 파악한다. 조사에서 나타난 오류 현상에 대해 4장에서 나오는 한·중 언어 대조 분석의 결과와 대조언어학의 오류 분석 가설을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어의 대조 비교 연구는 언어 교육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6장에서는 한·중 언어 대조 분석의 결과를 한국어 연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조언어학 관점에서의 연어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7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할 연구 과제에 대한 전망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10) 'True Friends'는 형태나 발음도 유사하고 의미도 유사한 어휘이며 'False Friends'는 형태나 발음은 유사하나 의미는 다른 어휘를 가리킨다.

11) 연어 구성 중의 적어도 하나의 어휘소의 의미는 어휘의 기본 의미가 아닌 확장되거나 전이되는 비유적 의미를 가진다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는 연어 전체의 의미적 투명성과 합성성과 직접 관련된다

II. 연어의 개념과 유형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어 연어에 대한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중 비교 대상인 교육용 연어를 선정할 것이다. 교육용 연어를 선정할 기준을 확립하기 전에 먼저 기존 연구 중에서의 연어의 개념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그 이유는 연어의 정의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용 연어의 범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연어의 정의 및 특성

1.1. 연어의 정의

영국의 언어 학자 Firth가 1957년에 “단어의 의미는 그것과 같이 나타나는 단어들에 의해 파악된다.”라는 말로 연어의 개념을 처음 도입하였다. 또한 Firth는 연어의 의미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개념적 또는 추상적 접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적 층위에서 추출된다고 하였다. Firth의 정의에서 연어가 다른 어휘적 결합 관계와 구분할 수 있는 본질적인 특징을 보이지 못하지만 연어 구성요소들이 높은 공기성을 가지고 결합한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Firth에 이어 서구 언어 학자들은 연어에 대해 좀 더 정교한 정의를 내렸다. Cruse(1986)에서 연어는 습관적으로 공기하지만 각각의 어휘 구성 성분이 의미 구성 성분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투명한 어휘 연속체라고 하였다. Cruse의 정의에서 연어의 구성 성분의 공기성뿐만 아니라, 연어 의미의 합성성이라는 의미적 속성도 동시에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Wanner(1996)에서 '주어진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어휘소 L1의 선택이 L2에

의존적이고 L2에 이 의미가 적용되면, L1과 L2는 연어 관계에 있다'라고 하며 연어의 정의를 어휘소와 어휘소의 결합에서 보여 주었다. Wanner는 어휘 관계를 통해 연어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는 언어학계의 쟁점으로 남은 연어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한국어 연어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연구자마다 관점이 달라서 역시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서구 언어학 연구 방법과 연구 추세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 언어학자들이 연어에 대해 논의할 때도 어휘의 공기 관계, 구성 요소의 의미 등 통사적, 의미적 측면에서 출발한 경향이 있다. 임근석(2010)에서는 Firth, Cruse, Wanner에 의해 정의된 연어에 대해 각각 통계적 정의, 의미적 정의, 어휘적 정의로 나누었다. 또 이 3가지에 의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종합적 정의가 포함되어 정의를 총 4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한국 언어학자들이 이 4가지의 유형에 따라 연어의 정의를 내린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시간순으로 한국어 연어의 정의를 정리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어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관찰할 것이다. 그 다음, 정리된 각 정의에서 제시하는 연어의 여러 가지의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

<표-1> 한국어 연어의 정의

연구자	연어의 정의	정의에서 제시한 연어의 특성
이희자(1995)	<p>의미적 연어: 구성 요소들의 그의 의미의 합으로 일정한 뜻을 전달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 요소들의 전의에 기초하여 습관적으로 굳어져서 쓰이게 된 것들.</p> <p>통사적 연어: 관용적 어절의 결합이 통사적 요인으로 인한 것들</p> <p>형태적 연어: 고정된 어휘 끝이나 혹은 극히 제한된 활용 끝로 나타나는 어휘론적인 현상으로 설명되는 어절들의 관계.</p>	<p>·의미 합성성</p> <p>통사적 제약</p>
홍재성(1995)	연어는 규칙적 통사관계에 의해 구성되기는 했으나,	<p>2항적 어휘 결합</p> <p>통사적 제약</p>

	어휘적 차원에서 특별히 긴밀하고 제한적인 결합관계를 보이는 두 단어의 연쇄. 두 통사 위치에서의 분포의 개방성이나 제약과 의미해석의 투명성, 합성성의 면에서, 자유로운 구성과 숙어 표현이나 합성어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보이는 것.	의미의 투명성 의미의 합성성
문금현(1996)	구성 요소들의 의미가 다의화를 거치지 않아 독자적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긴 하지만, 습관적으로 공기하는 것.	의미의 투명성 의미의 합성성 공기성
최경숙(1997)	구성 성분의 의미의 조합으로 전체 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어휘 연속체, 공기 관계를 형성하며, 의미적 긴밀성을 지니고 구성 성분의 요소는 상호 선택적이다.	의미의 합성성 공기성 구성 요소 간의 상호적 선택 관계
강현화(1998)	말뭉치에서 하나의 어휘 항목은 다른 몇 개의 어휘 항목과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러한 어휘 항목의 긴밀하고 고정적인 공기 관계. 즉 연어는 기본적으로 통사적 구성이며 다만 두 구성 요소가 긴밀한 관계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다항적 어휘 결합 공기성
이동혁(1998)	특수한 단어끼리의 관습적인 긴밀한 구 결합체이면서 연어의 구성단위 중 적어도 하나의 단어가 기본 의미가 아닌 비유적 의미로 쓰인 것.	의미의 불투명성 (확장/전이)
김진혜(2000)	특정 어휘가 다른 어휘를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어휘소들 간의 제한적 공기 관계.	구성요소 간의 단 일방향적 선택 관 계 공기성
송정근(2002)	통사론적으로 어휘 제약을 통해 서술어와 논항이 결합되고, 의미론적으로 구성 성분의 독자적 의미의 합이 아닌 전체 의미를 갖지만 구성 성분 중 독자적인 의미가	통사적 제약 의미의 투명성

	투명하게 전체 의미에 반영되어 있는 구이다.	
문금현(2002)	둘 이상의 단어가 축자의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결합관계를 형성하는 어군으로 출현 빈도가 높고 심리적인 현저성이 높다.	다항적 어휘 결합 의미의 합성성 고빈도 심리적 현저성
임홍빈(2002)	기본적으로 일정한 문법적 구성에 나타나는 두 어휘소 사이의 어휘적인 선택 관계	2항적 어휘 결합 구성 요소 간의 선택관계
임근석(2002)	<p>광의의 연어: 모든 언어 단위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들이 전형적으로 결합되는 공기관계를 보일 경우.</p> <p>협의의 연어: 한 문장 안에서 어휘소 상호간 또는 어휘소와 문법소 간에 전형적으로 결합되는 공기관계를 보일 경우.</p> <p>문법적 연어: 한문장 안에서 단어소와 문법소가 긴밀한 결합관계를 보이는 경우, 이때 문법적 연어의 구성 요소는 반드시 2개일 필요는 없다.</p> <p>어휘적 연어: 협의의 연어의 하위 유형으로서, 문장 안에서 일정한 통사적 구성을 구성하는 2개의 구성 요소가 서로 공기성이 높고, 분포의 제약이 있으며, 의미적으로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경우.</p>	<p>공기성</p> <p>2항적 어휘 결합</p> <p>의미의 투명성/반 투명성</p> <p>통사적 제약</p>
임근석(2006)	연어는 어휘소 상호간 또는 어휘요소와 문법요소 간의 긴밀한 통사적 결합 구성으로, 선택의 주체가 되는 어휘요소가 선택의 대상이 되는 어휘요소나 문법요소를 제약적으로 선택한 구성이다.	구성요소 간의 단 일방향적 선택 관 계
임근석(2010)	연어는 어휘요소 상호간 또는 어휘요소와 문법요소 간의	구성요소 간의 단 일방향적 선택 관

	긴밀한 통사적 결합 구성으로, 선택의 주체(언어핵)가 되는 어휘요소가 선택의 대상이 되는 어휘요소나 문법요소(언어변)를 선호하여 선택한다.	계
김지은(2010)	언어 핵에 의해 언어 변이 다의화하였거나 언어변의 결합이 아주 제한적이어서 하나의 의미단위로 인식 가능한 언어형식.	의미 다의화 통사적 제한 구성요소 간의 단 일방향적 선택 관 계

1.2. 언어의 특성

기존 연구에서 언어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연구는 언어 의미의 투명성¹²⁾과 합성성¹³⁾, 그리고 구성 요소 간의 공기성¹⁴⁾과 같은 언어의 특성에서 출발하여 언어의 본질을 논의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언어 의미의 투명성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홍재성(1995), 문금현(1996), 송정근(2002), 임근석(2002) 등이 있다. 언어 의미의 합성성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이희자(1994), 홍재성(1995), 문금현(1996), 최경숙(1997) 등이 있다. 구성 요소 간의 공기성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문금현(1996), 최경숙(1997), 강현화(1998), 김진해(2000), 임근석(2002) 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로 언어의 구성 요소 간의 선택 관계를 중심으로 언어를 논의한 경향이 있고 최경숙(1997), 김진해(2000), 임홍빈(2002), 임근석(2002, 2006, 2010), 김지은(2010)에서 언어의 어휘적 선택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1.2.1. 어휘적 결합 관계의 제약

12) 임근석(2010)에 따르면 언중이 특정 어휘요소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 그 어휘 요소의 의미는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때 언어를 구성된 투명한 의미를 가진 어휘소는 투명성이 있다.

13) 언어 의미의 합성성은 두 구성요소가 독자적 의미를 유지하고 언어 구조 전체의 의미는 이 두 구성요소의 독자적인 의미의 합에 해당한다.

14) 언어의 공기성은 두 구성요소가 자주 공기하여 함께 나타난다는 뜻이다.

보통 언어의 결합 관계에 대해 주로 통사론적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다. 즉, 문장은 통사적 선택을 통해 서술어와 결합할 수 있는 문법범주와 의미자질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어의 모든 어휘적 결합 관계(구, 문장도 포함됨)는 통사론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1) 가. 밥을 먹다, 고기를 먹다, 과일을 먹다, 과자를 먹다, 아이스크림을 먹다...

나. 담배를 먹다

다. 욕을 먹다

라. 겁을 먹다

마. 친구를 먹다

(1)의 '가'에서 '먹다'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라는 기본의미의 타동사로서 음식물의 명칭인 목적어를 요구한다. 따라서 '밥을 먹다, 고기를 먹다, 과일을 먹다...'등 어휘적 결합들을 통사 분석을 통해 선택적 제약 관계로 설명이 가능한 결합 관계이다. 그러나 '나'~'마'의 경우를 보면 '가'와 같이 통사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때 서술어 '먹다'는 특정한 어휘적 결합 구조에서의 의미로 볼 때 '먹다'의 기본 의미가 아닌 확장적, 전이적, 혹은 비유적 의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나'에서 '먹다'의 의미는 '담배나 아편 따위를 피우다.'라는 의미이며, '다'에서는 '욕, 핀잔 따위를 듣거나 당하다.'라는 의미이며 '라'에서는 '겁, 충격 따위를 느끼게 된다.'라는 의미로 위의 예시와 또 다른 의미이다. '먹다'의 의미의 변화는 서술어 앞에 나오는 명사에 의해 설명된다. 즉, 음식류 명사는 기본의미인 '먹다'와 결합할 수 있지만 '담배, 욕, 겁, 친구'는 '먹다'와 결합할 때 동사 '먹다'의 의미를 전이시키고 전이된 동사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선택한다. 따라서 이런 구조는 명사에 의해 동사를 선택하는 결합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이런 어휘적 결합 관계들은 동사의 가장 상용적인 기본 의미로 분석할 수 없는 특별한 결합관계이다. 동사의 기본 의미를 암기하는 방식을 통해 어휘를 개별적으로 학습한 중국인 학습자들이 (1)의 예시중 '나'~'마'의 어휘적 결합 표현을 만나게 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모국어 화자의 입장에서 위의 표현들은 모두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상 표

현이지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결합 구조를 스스로 예측하고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능숙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2) 가. 머리를 감다

*나. 머리를 씻다

(1) 중의 '나~마'는 어휘 결합 관계에 서술어 동사의 의미는 기본의미가 아니고, 선행하는 명사에 의해 결합 관계의 통사적 의미에서 의미의 전이나 확장의 과정을 겪어 비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때 일반적인 어휘적 결합 표현과 달리 특별한 어휘적 결합 관계¹⁵⁾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통사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휘적 결합 관계에는 동사의 의미가 모두 전이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2)와 (3)을 보겠다. (2)의 '가'에서는 동사 '감다'의 의미는 '머리나 몸을물로 씻다.'라는 기본 의미로 '머리'와 같이 결합하여 결합의 전체 의미는 통사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감다'의 유의어인 '씻다'는 '물이나 휴지 따위로 때나 더러운 것을 없게 하다.'라는 기본의미로 '머리+를+(동사)'의 구조 중에서 '감다' 대신 '(동사)'의 위치에서 넣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한국어에서는 아주 어색한 표현이다. 이때 유의어의 교체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 통사론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고 단지 서술어인 동사 '감다'는 제한적으로 '머리'를 요구할 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결국, (2)는 (1)과 같이 모두 통사론적 관점에서 왜 반드시 이렇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결합 관계이다. 그러나 (1)과 달리 (2)는 구성요소인 동사가 기본 의미를 유지하면서 제한적으로 명사를 요구하는 구성이다. 외국인들이 이런 특별한 어휘적 결합을 배울 때 유의어로 인해 오류를 초래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진행할 때 통구조(통 문장/구 전체)를 외우는 방법 외에는 이런 표현의 구성요소를 머리 속에 떠올리고 자유롭게 결합하여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5) 본고에서 언어의 정의를 밝히기 전에 언어에 해당되는 어휘적 결합 표현을 가리킬 때 모두 '특별한 어휘적 결합 관계'라는 용어로 부른다. 언어에 대해 더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일반적인 어휘적 결합과 차이가 있는 결합 표현에 대해서 많은 예시를 들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특별한 결합 관계에는 관용표현이 포함되지 않는다.

(3) 16) 가. 결론을 내리다

*나. 결론을 하강시키다/ 떨어뜨리다

다. 결론을 내다/ 짓다/ 맺다

(1)과 (2)에 대한 고찰을 통해 통사론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휘적 결합 관계들은 대부분 구성 요소 기본 의미의 전이 여부와 어휘적 선택 관계와 관련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3)을 살펴보겠다. (3)의 '가'에서 '내리다'는 '위에서 아래로 옮기다.'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기본의미와 달리 '판단, 결정을 하거나 결말을 짓다.'라는 비유적 의미로 쓰인다. 이런 이유로 이 결합 관계에서 '내리다'의 기본의미와 비슷한 '하강시키다, 떨어뜨리다'로 교체하면 비문이 된다. 그렇다면 이 결합 구조에는 어휘적 선택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론'에 의해 '내리다'를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내리다'는 '결론'을 선택하는 것인가? 일단 '내리다'는 (2)의 예시에서 '머리'만 선택할 수 있는 '감다'의 상황과 달리 다의화를 통해서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체언은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계단을 내리다, 버스를 내리다, 짐을 내리다, 소매를 내리다, 명령을 내리다, 판정을 내리다...' 등이 있다. 하지만 '결론' 뒤에 '판단하거나 결정하다'의 의미로 나올 수 있는 동사는 '내리다' 외에 '내다, 짓다, 맺다'밖에 없다. 따라서 이 결합 관계에 있어서 '결론'은 '내리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하는 예시들은 (1)의 '가' 외에 사실 모두 본고에서 연어로 보는 대상이다. 그리고 연어 구성 요소의 의미와 상호간의 선택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연어의 특성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언어학 논의 중의 통일시키지 못한 연어의 정의와 범위에 따라 (1) 중에서 어떤 것이 연어에 해당되고, 어떤 것이 연어가 아니냐는 것이 판정된다. 연어의 분명한 정의와 범위를 밝히기 위해 지금부터 <표1>에서 제시된 각 연구에서 내린 연어의 정의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6) 임흥빈(2001:288)에서 최초로 '결정을 내리다, 판단을 내리다, 명령을 내리다' 등의 예를 가지고 연어 관계에 있는 선택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1.2.2. 연어의 공기성

기존 연구에서의 연어의 정의를 통해 연어의 여러 가지 특성을 알 수 있다. 우선 학자들이 연어의 공기성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연어의 공기성이란 연어의 구성 요소들이 자주 함께 나타나는 특성을 말한다. 기존 연어의 정의에서 '연어의 구성 요소 간에 긴밀하고 고정적이며 제한적인 관계를 가진다. 연어의 구성 요소는 습관적으로 굳어져 쓰인다'라는 말로 연어의 공기성을 의미한다.

(4) 가. 시험을 보다/ 치다

나. 면접을 보다/ *치다

(4)를 보면 '가'와 '나'에서 '보다'는 '시험'을 뜻하는 목적어와 함께 쓰여 '자신의 실력이 나타나도록 치르다'라는 의미로 '시험'이나 '면접'과 모두 함께 나타날 수 있고 공기성이 있다. 하지만 '보다'의 유의어인 '치다'는 '시험'과 결합할 수 있지만 면접과 공기하면 어색한 표현이 된다. 따라서 용언 '치다'과 체언 '면접' 간에 공기성이 없다.

1.2.3. 연어의 이항적 구성

기존의 연어의 정의에서 연어 구성 요소의 수량에 대한 요구가 서로 다른데, 대략 2항적 어휘소의 결합 구성과 다항적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2항적 어휘소로 구성된 연어에 대해 홍재성(1995)에서는 '어휘적 차원에서 특별히 긴밀하고 제한적인 결합관계를 보이는 두 단어의 연쇄'라고 했으며, 임홍빈(2002)에서는 '두 어휘소 사이의 어휘적인 선택 관계'라는 말로 연어의 구성 요소의 수량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임근석(2002)에서는 어휘적 연어에 대해 '2개의 구성 요소'라는 말로 연어의 2항적 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강현화(1998)에서는 '말뭉치에서 하나의 어휘 항목은 다른 몇 개의 어휘 항목과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러한 어휘 항목의 긴밀하고 고정적인 공기 관계'라고 정의하였고, 문금현(2002:220)에서는 '둘 이상의 단어가 축자 의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결합관계를 형성하는 어군'이라는 정의를 통해 연어를 다항적 요소의 결합 관계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2항적 어휘적 연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5)¹⁷⁾ 가. ▲마음을 먹다 - 마음을 굳게 먹다

나. ▲겉을 먹다 - 겉을 잔뜩 먹다

다. 몸에 끼다 - ▲몸에 꼭 끼다

라. 몸에 맞다- ▲몸에 꼭 맞다

(5) 중에서 '마음을 먹다, 겉을 먹다, 몸에 꼭 끼다, 몸에 꼭 맞다'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사전』¹⁸⁾에서 수록된 연어 항목들이다. 사전에서 표제어 '먹다' 아래 '마음을 먹다, 겉을 먹다'를 동사 '먹다'로 구성된 연어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고 '마음을 굳게 먹다'와 '겉을 잔뜩 먹다'는 위의 연어 활용 시 대표적인 예문으로 들고 있다. 이 두 예문을 통해 연어 구성은 완전한 폐쇄적 구조가 아니고, 구성 요소 사이에 다른 성분을 첨가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음'과 '먹다' 사이에 부사 '굳게'를 삽입하면 연어 전체의 의미를 수식하는 역할이 있다. 부사 '굳게'를 첨가한 다음에 문장 전체의 의미를 분석하면, '그냥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결정하기로 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부사 '굳다'는 일반 문법에서 통사적 제한으로 인해 직접 동사 '먹다'를 수식할 수 없지만 연어 '마음을 먹다'의 구성요소 '먹다'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굳게'는 직접 '먹다'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연어 '마음을 먹다' 전체를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연어 '마음을 먹다'의 통사 의미는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다.'라는 것으로 동사 '결심하다, 결의하다' 한 단어의 의미와 유사하다. '굳게 결심하다'는 일반구로서 성립된 이상, '굳게'는 '결심하다'의 의미와 일치하는 '마음을 먹다'도 직접 수식할 수 있다. 다만, 부사의 성질에 따라 '마음' 앞에 나오지 않고 동사의 위치와 인접하여 '먹다' 앞에 나와야 한다. 이러한 수식 관

17) 예5 중에서 ▲로 표기된 것은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사전』에서 등재된 연어 항목이다.

18) 김하수 등(2017)

계를 볼 때, 역시 부사 '굳다'는 연어 관계에서 동사 '결심하다'의 의미에 해당된 연어 '마음을 먹다'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굳다'를 포함하여 '마음을 굳게 먹다'의 3항적 어휘 결합 구조는 연어로 볼 수 없다. 그러나 (5)의 '다, 라' 중의 '몸에 꼭 끼다, 몸에 꼭 맞다'는 연어사전에서의 제시 양상을 보면 예문이 아니라 표제어 '몸' 밑에 직접 연어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구성요소중의 부사 '꼭'은 위의 연어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고 직접 동사 '맞다', '끼다'를 수식하는 역할이 있다.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더 많은 '몸에 딱 맞다'와 '몸에 꼭 끼다'에서도 부사 '딱'과 '꼭'은 각각 '몸에 맞는 정도'와 '몸에 끼는 정도'를 수식하고 있다. 따라서 '몸에 꼭 끼다, 몸에 꼭 맞다'보다는 이항적 구성인 '몸에 끼다, 몸에 맞다'로 연어로 봐야 한다. 지금 보면 어휘적 연어에는 이항적 결합 구성으로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다.

1.2.4. 연어의 의미적 특성

기존 논의에서 연어를 의미적 측면에서 분석할 때 연어 의미의 합성성과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의미적 기준으로 연어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

1.2.4.1. 연어 의미의 투명성

일단 연어의 구성 요소의 의미에 대해 문금현(1996:29)에서 '구성 요소들의 의미가 다의화를 거치지 않아 축자적 의미를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연어 구조 속의 어휘소의 의미적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이동혁(1998:10)에서 '연어의 구성단위 중 적어도 하나의 단어가 기본 의미가 아닌 비유적 의미로 쓰인다.'라는 말로 연어의 구성요소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6)과 같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이 두 의미적 기준으로 한 정의에는 모두 문제가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 (6) 가. 눈을 뜨다, 눈을 감다
 나. 나이를 먹다, 담배를 먹다

문금현(1996)에서의 연어의 정의에 따라 (6)의 '가'는 연어에 해당한다. '눈을 뜨다/ 감다'의 연어 결합 관계에서 체언과 용언은 모두 기본 의미를 유지하고 두 어휘의 기본 의미의 합으로 축자적인 연어 통사적 의미를 생성한다. 그러나 (6)에서 '나'의 경우는 모두 대표적인 연어이지만 이러한 정의에 어긋난다. '나이를 먹다'와 '담배를 먹다' 중에서 '먹다'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 보내다.'라는 기본 의미가 아니라, 각각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와 '담배나 아편 따위를 피우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연어 구성에서 '먹다'의 의미는 기본 의미에서 다의화되어 새로운 비유적인 의미를 갖는다. (6) '나'는 바로 이동혁(1998)의 정의에 따른 연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6)에서 '가'의 경우는 이동혁의 정의에 따라 두 구성 요소의 의미는 모두 기본 의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통해 연어 결합 관계를 분석할 때 구성 요소 중 어느 하나의 의미의 투명 여부 혹은 전이 여부에 따라 연어를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

1.2.4.2. 연어 의미의 합성성

다음으로 기존 연어 정의에서 제시한 연어의 두 번째 의미적 특성인 연어의 의미의 합성성에 대해 논의하겠다. 연어 의미의 합성성은 연어의 통사적 의미는 연어의 두 구성요소의 축자적인 의미의 합으로 해당하는 뜻이다. 연어 의미의 합성에 대해 이희자(1994:333)에서 '연어의 의미는 구성 요소들의 그의 의미의 합으로 일정한 뜻을 전달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 요소들의 전의에 기초하여 습관적으로 굳어져서 쓰이게 된다'라고 하며 송진근(2002)에서 '의미론적으로 구성 성분

19) 김진혜(2007)에서도 같은 이유로 연어 관계는 '어휘적 관계'의 문제이지 구성요소의 의미 변화 여부, 의미 투명성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의 축자적 의미의 합이 아닌 전체 의미를 갖지만 구성 성분 중 축자적인 의미가 투명하게 전체 의미에 반영되어 있는 구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임근석(2002)에서는 연어의 통사적 의미는 의미적으로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송전근(2002)에서 연어 구성요소의 의미의 투명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투명한 기본 의미의 합으로 연어의 통사적 의미도 투명하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송전근(2002)을 비롯한 연구에서 연어의 통사적 의미의 성질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보면 연어의 의미는 늘 투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7) 가. 고기를 먹다, 과자를 먹다

나. 기름을 먹다, 물을 먹다

다. 미역국을 먹다, 국수를 먹다

(7)을 보면 '가'와 같은 어휘적 결합 관계에서 체언과 용언이 모두 기본 의미를 유지하면서 축자적 의미의 합으로 어군의 통사적 의미를 이룬다. 그러나 '가'에서 동사 '먹다'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라는 기본 의미로 예시 중의 '고기'와 '과자'뿐만 아니라 '불고기, 떡, 사과, 야채, 한식, 양식' 등 음식물의 명칭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7)의 '가'에서 제시한 어휘적 결합 관계는 전체 의미가 투명한 자유 결합이다. '나'의 경우는 결합 관계에서 기본 의미인 체언이 비유적, 파생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언과 결합한 다음에 생성한 연어이다. 비록 통사적 의미는 축자적 의미의 합이지만 동사 '먹다'의 전이적 의미로 합성된 것이어서 결합 구조 전체의 의미를 봤을 때 의미의 반투명성을 가지고 있다. 어휘적 결합은 의미적으로 반투명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자면 두 구성 요소 중, 하나는 기본의미를 유지하며 투명한 의미로 전이적 불투명한 의미를 가진 다른 하나의 요소와 결합하는 구성이다. 이때 결합 관계의 통사적 의미도 두 구성 요소의 축자적 의미로 인해 반투명성의 의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와 같은 결합 관계의 유형은 의미가 반투명한 연어이다. 왜냐하면 의미적 특성 외에 통사적 측면에 있어서 아주 제한적으로 공기하는 결합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기름/물을 먹다'는 '물이나 습기

따위를 빨아들이다.’라는 의미로 ‘기름’과 ‘물’ 뒤에 ‘흡수하다’와 결합하는 것보다 ‘먹다’와 결합할 때 훨씬 자연스럽다. 이런 제한적 공기관계는 통사론에 입장에서 해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름/물을 먹다’는 연어에 해당한다. 한편, (7)의 ‘다’에서 ‘미역국을 먹다’은 통사적 의미는 ‘시험에 떨어지다.’이며 ‘국수를 먹다’는 사전에서 ‘결혼식에 초대를 받거나 결혼식을 올린다.’라는 뜻이다²⁰⁾. 이런 통사적 의미는 결합 관계 중의 구성 요소의 기본 의미와 아무 관련도 없다. 따라서 이 두 어휘적 결합에서 개별 어휘소의 기본 의미는 완전히 상실되고 마치 한 어휘처럼 새로운 제3의 의미를 생성한다. 이는 구성요소의 의미가 모두 불투명하고 통사적 의미도 완전히 불투명한 관용표현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분석한 이 세 가지의 어휘적 결합관계의 통사적 의미 양상을 아래 <표-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자유결합, 연어, 그리고 관용표현의 통사적 의미 특징만 논의하였다.

<표-2> 어휘적 결합 관계의 통사적 의미 양상

	구성 요소의 의미와 결합 구성의 통사적 의미의 관계	결합 관계의 유형
가.고기를 먹다, 과자를 먹다	$A+B=AB$	자유 결합
나. 기름을 먹다, 물을 먹다	$A+B'=AB'$	연어
다.미역국을 먹다,국수를 먹다	$A+B=C$	관용 표현

자유결합, 연어, 관용표현 3자 간의 차이점과 판별기준은 국어학 연어 연구의 쟁점으로서 논의거리가 된다. 홍재성(1995:1179)에서 제시한 연어의 정의에서 ‘연어는 두 통사 위치에서의 분포의 개방성이나 제약과 의미해석의 투명성, 합성성의 면에서, 자유로운 구성과 속어 표현이나 합성어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보이는 것.’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임홍빈(2002)에서 자유 결합을 정규적인 통사적 결합으로 보고 연어와 구별된다. 그는 자유결합은 의미적 선택 제약 관계이며 연어는 어휘적 선택 제약 관계라고 지적하였다.²¹⁾ 또한, 연어가 관용 표현과 구별되는

20) ‘미역국을 먹다’와 ‘국수를 먹다’에 대해 구성 요소의 기본 의미의 합으로 이루는 의미가 투명한 자유결합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제3의 의미를 가진 결합 관계인 관용 표현을 가리킨다.

21) 임홍빈(2002:283)에서는 자유 결합을 연어라고 하는 일도 있으나 자유 결합은 정규적인 통사적 결합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 자유 결합이라고 하여 모든 가능한 요소가 완전히 자유롭게 어떤 구성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자유 결합에는 통사학의 선택 제약과 통사 제약이 적용한다. 선택

것은 의미의 투명성이나 합성성이라고 밝혔다. 본고에서 이 3가지의 어휘적 결합 구성 간의 차이에 대해 논의한 것을 다시 정리해서 아래 <표-3>와 같이 제시한다.

<표-3> 언어와 자유 결합, 관용 표현 간의 성격상의 차이

	자유 결합	언어	관용 표현
예시	밥을 먹다	육을 먹다/ 눈을 감다	미역국을 먹다
구성 요소 간의 선택 제약	통사적 제약 의미적 선택 제약	단일방향적 어휘적 선택 관계(언어핵은 언어변을 선택함)	상호적 선택 관계
구성 요소의 의미	모두 투명	하나 투명/ 둘 다 투명	모두 불투명
통사적 의미	완전 투명 축자적 의미	투명/ 반투명 축자적 의미	완전 불투명 제3의 새로운 의미

(7)에서 제시된 언어는 동사의 다의화로 인해 통사적 의미도 반투명된 예시이다. 그럼 명사에 의해 의미가 반투명한 언어가 있는가, 그리고 의미 완전히 투명한 언어는 존재하는가라는 질문도 있을 것이다.

일단 어휘 다의화 현상은 주로 동사를 위주로 발생한다. 명사는 실제적인 개체, 단체, 물질 등을 표현하기 때문에 추상적이거나 비유적인 의미는 거의 없다. 이런 명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미가 불투명한 명사에 의해 의미가 반투명한 언어를 이루는 사례가 동사의 경우보다 이루는 것에 비해 훨씬 적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물구나무를 서다'를 언어 구성 요소 중에서 선행 요소인 명사의 의미가 불투명한 예로 본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물구나무를 서다'는 동사에 의해 명사를 선택한 결합 관계가 아니라 명사 '물구나무'는 동사 '서다'를 제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물구나무'의 의미에 대해 쟁점이 된 이유는 '물구나무'의 본의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물구나무'의 기본 의미를 '손으로 바닥을 짚고 발로 땅을 차서 몸을 거꾸로 하여 서는 동작'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 이런 기본 의미를 가진 '물구나무'는 언어핵으로서 동사 '서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물구나무를 서다'는 역시 동사에 의해 의미가 반투명한 언어에 해당된다. 그러나 구성 요소의 의미는 모두 투

제약에는 의미 선택 제약과 어휘 선택 제약이 문제된다.

명하고 의미가 완전히 투명한 연어를 구성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앞에 이미 제시된 '머리를 감다'의 경우, '감다'는 '어떤 물체를 다른 물체에 맡거나 빙 두르다.'라는 기본 의미로 '머리'와 같은 유한적인 몇 개의 명사와 결합할 수 있다. 즉, 타동사 '감다'는 앞에 나오는 목적어인 명사 '머리'를 제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비록 사전에서 등재된 '머리'의 기본의미는 '사람의 목 윗부분에서 머리털이 나 있는 부분. 곧 뇌를 감싸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라고 하지만 연어 구성 '머리를 감다'에서 '머리'는 '머리에 난 털.'라는 의미로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의미가 투명한 명사로 처리한다. 따라서 이런 결합 관계에서 구성 요소의 의미는 모두 투명하고 통사적 의미도 투명하다. 따라서 '머리를 감다'는 의미가 투명한 연어에 해당한다. 아래 <표-4>에서 연어의 통사적 의미의 투명 여부에 따라 '의미가 투명한 연어'와 '의미가 반투명한 연어'로 나눌 수 있다.

<표-4> 연어의 통사적 의미 양상

의미가 투명한 연어('눈을 감다' 류)	$A+B=AB$
의미가 반투명한 연어 ('나이를 먹다' 류)	$A+B' \neq AB'$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은 의미적 관점에 따른 연어의 특성이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일단 구성요소의 의미 변화 여부, 의미 투명성 여부로 연어를 판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데도 연어의 통사적 의미는 구성 요소의 축자적 의미의 합인 합성성이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동사의 다의화 여부에 따라 통사적 의미는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1.4.5. 연어 구성 요소의 선택 관계

마지막으로 연어는 특정한 어휘 결합관계로서 어휘 간의 선택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국어학의 논의에서는 연어의 두 구성 요소 가운데 어느 것이 선택하는가를 판정하기에 쟁점이 많다. 최경숙(1997)에서 연어는 구성 요소 간의 상호적 선택 관계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반대로 김진해(2000:206)에서는 연어는

특정 어휘가 다른 어휘를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어휘소들 간의 제한적 공기 관계라고 하며 연어 어휘소 간의 선택 관계의 단일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임홍빈(2002:296)에서도 연어는 두 어휘소 사이의 어휘적인 선택 관계라고 하면 '연어핵'과 '연어변'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하여 이를 통해 연어의 선택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본고는 임근석(2006)는 임홍빈(2002)을 바탕으로 연어의 선택적 관계를 자세히 검토하였다. 임근석(2006)에서 연어는 어휘소 상호간 또는 어휘요소와 문법요소 간의 긴밀한 통사적 결합 구성으로, 선택의 주체가 되는 어휘요소가 선택의 대상이 되는 어휘요소나 문법요소를 제약적으로 선택한 구성이라고 밝혔다. 연어를 구성한 어휘소 간의 선택 관계에 대한 연구 성과를 보면 두 어휘소 상호간의 선택 관계보다는 한 어휘소가 다른 어휘소를 요구하는 단일방향적인 선택 관계로 주장한 관점이 더 많다. 그럼 연어의 두 구성요소 간의 선택성은 상호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특정한 하나의 요소에 의해 단일방향적으로 선택하는 관계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 (9) 가. 고기를 먹다
- 나. 기름을 먹다
- 다. 미역국을 먹다

(9)는 위의 표2에서 이미 제시된 자유결합, 연어, 그리고 관용 표현에 해당하는 예시이다. 먼저, '가'의 경우는 체언 '고기'는 용언 '먹다'와 결합된 자유 결합이다. 결합 구조 중에서 타동사 '먹다'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낸다.'와 같은 기본 의미로 앞에 나오는 목적어 '고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고기'뿐만 아니라 '과일, 야채, 비빔밥, 냉면, 햄버거' 등 모든 음식물의 명칭은 '먹다'의 목적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동사 '먹다'는 '고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고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고기'도 꼭 '먹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고기'는 목적어의 역할을 할 때 뒤에 나오는 동사에 대한 제한이 약하다. '먹다' 외에 '사다, 썰다, 갈다, 굽다...' 등 수많은 동사와 결합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동사 '먹다'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목적어의 위치에서 음식과 관련한 명사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고기'는 목적어를 담당할 때 요리법과 관련한 동사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사다, 재다'와 같은 요리법과 아무

관련이 없는 동사도 '고기'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유 결합은 공기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공기하는 어휘적 결합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자유결합' 류의 어휘적 결합 관계에는 선택성이 없거나 아주 약한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는 관용 표현의 상황을 살펴보겠다. '미역국을 먹다'는 '시험에 떨어지다.'라는 통사적 의미로 '미역국'과 '먹다'는 아주 제한적으로 서로를 요구하며 마치 한 단어처럼 쓰이고 있다. 이 구조에서 '미역국'을 '김치국'으로 대치하거나, '먹다'를 '드시다, 마시다' 등 유의어로 교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구조는 '미역국'을 '먹다'를 선택하는 동시에 '먹다'에 의해 '미역국'도 선택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관용 표현의 결합 관계에는 두 구성 요소는 상호적으로 선택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어인 '기름을 먹다'의 구성요소의 선택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 구조 중에서 서술어인 '먹다'는 체언 '기름'에 의해서 '물이나 습기 따위를 빨아들이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먹다' 앞에 나오는 명사가 [물체]류 '물, 기름' 따위가 아니면 '빨아들이다'와 같은 뜻이 있을 수도 없다. 반대로 만약 '먹다'가 기본의미를 유지하는 경우, '물, 기름' 따위를 앞에 나오는 목적어로 선택하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기름을 먹다' 중에서 명사 '기름'은 용언 '먹다'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를 보면, 연어는 선택 제약이 약하거나 없는 자유 결합이나 구성 요소가 상호적으로 선택하는 관용 표현과 달리 특정한 하나의 어휘소는 다른 하나의 어휘소를 요구하여 제한적으로 공기하는 어휘적 결합 관계에 해당한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연어는 구성 요소 간에 단일 방향적인 선택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자유결합, 관용어와 연어의 선택 제약을 서로 비교하면서 연어 선택 제약에 있어서 단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어의 이런 선택적 제약의 특성을 깊이 있게 입증하기 위해 아래 (10)~(13)중의 연어 관계를 통해 좀 더 살펴보겠다. 그리고 (9)의 '나'의 경우는 연어 관계에 있어서 명사에 의해 동사를 제한적으로 선택하는 예시이다. 그럼 연어 관계에는 동사가 명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의 존재 여부에 대해 아래 (10)과 (11)을 통해 논의할 것이다.

임홍빈(2002:293)에서 연어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제시하였다. 첫

째, 연어 관계는 이항적인 어휘적 의존 관계이다. 둘째, 연어 관계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선택하는 관계이다. 셋째, 선택하는 요소를 '연어핵', 선택되는 요소를 '연어변'이라 부르기로 한다. 넷째, '명사+용언'의 연어 구성에서 연어핵이 되는 것이 명사이다. 그리고 연어핵의 의미는 투명하여야 한다. 임홍빈이 제시한 연어 4가지의 성격 중에서 앞의 셋 가지의 내용은 본고에서 논의한 결과와 일치하지만 마지막에서 제기한 연어핵의 판정 문제에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단 넷 번째 특성에서 지적한 '체언+용언'형 연어는 본고의 연구 대상의 범위와 똑같지만, '체언+용언'의 구성 중 연어핵이 되는 것이 꼭 명사가 아니라고 본다. 비록 위에서 논의한 '기름을 먹다'에서 연어핵은 명사이고 의미가 투명한 '기름'에 의해 의미가 불투명한 '먹다'를 선택하지만 아래의 예시를 통해 동사도 연어핵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0) 가. 눈을 감다

* 나. 눈을 닫다

다. 눈을 붙이다/ 뜨다/ 맞추다/ 끌다

(11) 가. 머리를 감다

*나. 머리를 씻다/ 목욕하다

다. 미역/떡을 감다²²⁾

라. 머리를 자르다/ 깎다/ 다듬다/ 엇다

(10)의 '가'는 통사적 의미가 완전히 투명하고 구성 요소의 의미도 모두 투명한 연어이다. 연어 구조 중의 '감다'는 '눈꺼풀을 내려 눈동자를 덮다.'라는 기본 의미로 목적어 '눈'을 요구하고 다른 명사와 결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눈을 감다'에서 동사 '감다'를 의미가 비슷한 '닫다'로 교체하면 비문이 된다. 따라서 이 구조에서 '감다'는 '눈'을 제한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눈'은 '감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좀 무리가 된다. 왜냐하면 '눈'은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과 같은 기본 의미로 동사 '감다'와 결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에서 제시된 '붙이다, 뜨다, 맞추다, 끌다...' 등

22) 충청도와 전라도 사투리로 '미역을 감다'나 '떡을 감다'는 '목욕을 하다'의 뜻이다. 미역이란 목욕탕이 아닌 냇물에서 물장구치며 목욕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동사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어휘적 결합 '눈을 감다'는 연어핵인 '감다'가 연어변인 '눈'을 제한적으로 선택하고 공기하는 연어 관계이다. 이를 통해, 연어 구성 중의 동사도 연어핵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른 어휘소를 선택할 수 있는 사실을 밝혔다.

(11)의 '가'의 연어 구조 중에서 목적어인 명사 '머리'는 '머리에 난 털' 확장된 의미로 의미의 반투명성을 가지고 있다. 서술어인 동사 '감다'는 '머리나 몸을 물로 씻다.'라는 기본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감다'는 '머리'외에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명사는 '미역/떡' 밖에 없다. 하지만 머리카락의 뜻인 '머리'는 '자르다, 깎다, 다듬다...' 등 수많은 동사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연어 구성 '머리를 감다' 중에서 '감다'는 연어핵이고 연어변 '머리'를 제한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어핵의 판정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보면 임흥빈(2002:293)에서 '체언+용언'의 연어 구성에서 연어핵이 되는 것이 명사이다.'라는 관점은 단편적이고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명사+용언'형 연어 구성에서 연어핵이 되는 것이 명사뿐만 아니라 용언도 가능하다. 그리고 명사가 연어핵인 경우, 대부분 연어변인 동사의 전이적, 확장적 의미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동사가 연어핵인 경우, 대부분 연어변인 명사는 투명한 의미를 유지하고 있지만 확장되거나 비유적 의미로 변하는 상황도 존재한다. 다만, 연어 구성 중에서 연어핵의 의미는 항상 투명하다. 연어핵의 의미는 투명하여야 연어의 통사적 의미의 투명성이나 반투명성의 특성에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연어가 아니다.

(12) 가. 결론을 내리다

* 나. 결론을 하강시키다/ 떨어뜨리다/ 낮추다

다. 결론을 짓다/ 맺다

(13) 가. 밥을/ 고기를/ 야채를/ 과일을/ 과자를 먹다

나. 나이를 먹다

욕을 먹다

겁을 먹다

(12)의 '가'의 경우는 구조 중에서 동사 '내리다'의 의미는 '위에서 아래로 옮

기다.’와 같은 [방향 이동]과 관련된 기본 의미가 아닌, ‘판단, 결정을 하거나 결말을 짓다.’와 같은 전이적 의미이다. 이런 전이적인 의미는 ‘내리다’가 스스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어휘적 결합 ‘결론을 내리다’ 중에서 명사 ‘결론’에 의해 기본 의미와 거의 관련이 없는 전이적 의미로 변하였다. 다시 말하면, 결합 관계에서 명사 ‘결론’은 동사 ‘내리다’를 의미적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내리다’의 기본의미와 비슷한 ‘하강시키다, 떨어뜨리다, 낮추다’는 서술어의 위치에서 바꿔 쓸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유의어들은 명사 ‘결론’과 같이 이루는 결합관계에서 ‘결정하다’와 같은 전이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결론을 내리다’의 통사적 의미를 유지하려면 ‘내리다’ 외에 ‘결론’은 ‘짓다, 맺다’ 등 몇 개만의 단어와 같이 결합할 수 있다.

(13)을 통해 연어 구성 중에서 명사가 연어핵이 되는 경우를 자유결합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13)의 ‘가’의 어휘 구성에서 명사와 동사 간에 비록 공기성이 있기는 하지만 제한적으로 공기하는 관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통사적과 의미적 측면의 일반화된 문법 규칙만 만족시키면 자유롭게 수많은 어휘소와 결합할 수 있는 어휘적 결합 관계이다. 그러나 ‘나’와 같은 3개의 어휘적 결합 구성은 분명히 명사에 의해 동사를 선택하는 관계이다. 비록 ‘나이, 육, 겁’와 같은 3개의 명사는 연어 구성에서 모두 의미가 투명한 연어핵으로서 동사 ‘먹다’를 선택하고 있지만 어휘 관계에서 각각 ‘먹다’의 여러 가지의 전이적 의미를 요구하고 있다.

본고에서의 연어핵의 판정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체언+용언’형 이항적 연어 관계는 한 어휘소(연어핵:선택의 주체)가 다른 어휘소(언어 변:선택의 대상)를 제한적으로 선택하는 관계이다.

나. ‘체언+용언’형 연어 구성에서 연어핵이 되는 것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 보통 명사가 연어핵인 경우는 동사는 연어핵에 의해 다의화하였다. 동사가 연어핵인 경우는 언어 변에 선택에 있어서 더욱 제한적이다. 다만 연어핵의 의미는 항상 투명하다.

또한 연어의 높은 빈도수를 연어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보고 있는 연구가 있다. 문금현(2002:220)에서 ‘둘 이상의 단어가 축자의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결합관계를 형성하는 어군으로 출현 빈도가 높고 심리적인 현저성이 높다.’라고 하며

언어 구성의 출현 빈도가 높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말뭉치 분석을 통해 추출된 언어의 빈도수에 대한 통계 결과는 그 말뭉치의 구성과 큰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말뭉치의 규모와 구성도 언어의 출현 빈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말뭉치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언어는 의사소통할 때 사용 빈도가 높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언어 이외에 자유결합과 관용표현도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이 많다. 말뭉치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만 언어와 자유결합, 그리고 관용표현 간의 경계를 잘 구분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빈도수는 언어의 판정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지금까지 언어 구성의 통사적·의미적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언어는 다른 종류의 어휘적 결합과 구별할 수 있는 특성들에 대해 다음 <표-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5> 언어의 특성

	성질	비고
통사론적 특성	공기성	제한적으로 공기하고 긴밀한 결합 관계이다.
구성 요소의 수량의 특성	2항적 어휘소의 결합 관계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체언+용언'형 2항적 언어로 한정한다.
어휘적 결합 관계의 특성	단일방향의 선택성	선택의 주체는 언어핵이고 선택의 대상은 언어변이라고 부른다.
통사적 의미의 특성	투명성/반투명성	언어의 통사적 의미는 구성 요소의 독자적 의미의 합이다. 다만, 개별 구성 요소 의미의 투명 여부에 따른 의미가 투명한 언어와 반투명한 언어로 나눌 수 있다.
언어핵 의미의 특성	투명성	언어핵의 의미는 반드시 투명한 기본의미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언어 정의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보완하여 언어의 본질적인 4가지 특성을 밝혔다. 언어의 특성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언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 (1) 언어는 두 어휘소 간의 긴밀한 통사적 결합 구성으로, 선택의 주체(언어핵)가 되는 어휘 요소가 선택의 대상(언어변)이 되는 어휘요소를 제약적으로 선택하고 공기하며 통사적 의미는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구성이다.

2. 언어의 유형

언어의 유형을 결합하는 구성 요소들의 성분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어휘 요소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어휘적 언어와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법적 언어로 구분할 수 있다²³⁾.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어휘적 언어에만 한정한다. 그 이유는 외국어로서 한 한국어 교육에는 문법적 언어를 문장에서의 호응 관계로 보고 문법 항목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어휘적 언어의 하위 분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어휘적 언어의 유형에 대해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분류하기 때문에 의견이 상당히 많다. 최순희(2005)에서 어종, 통사 구조, 선택성, 제약성, 그리고 의미의 투명성 등 다양한 분류 기준을 종합하여 어휘적 언어를 다양하게 분류하였다. 어종에 따라 언어의 구성 요소 중에서 체언을 중심으로 하여 고유어 언어, 한자어 언어, 외래어 언어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통사 구조에 따라 주술관계 언어, 목술관계 언어, 부술관계 언어, 그리고 수식관계 언어로 분류되었다. 언어의 구성 요소의 중심, 즉 선택어(언어핵)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따라 체언

23) 어휘적 언어와 문법적 언어의 이분법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많다. 김진해(2000)는 언어 구성은 구성 요소들의 통사적 특성에 따라서 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와 같은 내용어끼리의 결합인 어휘적 언어와 내용어에 어미나 조사와 같은 기능어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통사적 언어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이때 내용어는 본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어휘 요소를 말하며 기능어는 문법 요소를 의미한다. 문금현(2002)에서도 언어를 어휘의 의미 결합에 의해 공기 관계가 형성된 어휘적 언어와 어휘 간의 문법적 결합에 의해서 공기관계가 형성된 문법적 언어로 구분하고 있다. 임근석(2006)도 광의의 언어를 통사적 기능에 따라 협의의 언어와 공기어로 분류하고 협의의 언어를 다시 어휘적 언어와 문법적 언어로 분류했다.

중심 언어, 용언 중심 언어, 수식언 중심 언어로 분류하였다. 제약성에 따라 제약 언어와 준-제약언어로 나누었다. 제약언어는 구성 요소 중 어느 하나를 유의어와 대치할 수 없거나 대치하면 언어적 의미가 변하는 언어를 말한다. 준-제약언어는 구성 요소를 유의어로 대치하더라도 언어적 의미가 변하지 않은 언어이다. 마지막에 언어의 구성 요소의 의미의 투명성 정도에 따라 투명 언어, 반투명 언어, 반불투명 언어로 분류되었다. 구성 요소가 모두 기본의미로 이루어져 언어적 의미가 투명한 언어는 투명 언어이다. 구성 요소 중 후행요소의 의미가 전이되어 언어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반투명한 언어는 반투명 언어이다. 구성 요소 중 선행요소의 의미가 전이되어 언어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언어는 불투명 언어이다. 최순희(2005)은 언어의 유형에 대해 가장 전면적·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으로서 의의가 크다.

<표-6> 최순희(2005)에서 제시한 언어의 유형

언어의 유형	하위 범주의 유형	예시
어종상 유형	고유어 언어	개가 짖다, 신을 신다, 나이를 먹다, 게으름을 부리다
	한자어 언어	결정(決定)을 내리다, 손해(損害)를 보다
	외래어 언어	붐(boom)이 일다, 스트레스(stress)를 풀다
통사 구조상 유형	주술관계 언어	동사 서술어 언어: 단풍이 들다, 짜증이 나다 형용사 서술어 언어: 배가 고프다. 오줌이 마렵다
	목적관계 언어	그림을 그리다, 사기를 치다
	부술관계 언어	마음에 들다, 사랑에 빠지다
	수식관계 언어	[의성의태어+서술어]형 언어: 짱충짱충 뛰다 [용언의 관형형+체언]형 언어: 새빨간 거짓말 [체언+의+체언]형 언어: 각고의 노력
선택성 유형	체언중심 언어	싫증이 → 나다
	용언중심 언어	개가 ← 짖다
	수식중심 언어	영영 → 울다, 빙산의 → 일각
제약성 유형	제약언어	무릎을 꿇다, 입을 다물다, 방귀를 끼다
	준-제약언어	호감이 가다/ 들다/ 생기다, 망을 보다/ 서다
의미의 투명도상 유형	투명언어	모자를 쓰다, 눈을 뜨다, 해가 뜨다
	반투명 언어	맛이 가다, 입에 맞다, 화장이 먹다, 사무를 보다
	반불투명 언어	전철을 밟다, 기업을 토하다, 물구나무를 서다

언어의 유형에 대한 연구에는 최순희(2005)를 제외하고 한 가지만의 분류 기준에 따른 언어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중에서 통사 구조상에 따른 언어의 분류가 한국어 교육에서의 언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다²⁴⁾. 그 이유는 언어의 선택성, 제약성, 그리고 의미의 투명성 등 분류 기

준보다 통사적 구성은 제일 직관적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배울 때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언어의 구성 요소 간의 선택적 제약과 의미의 확장이나 전이로 인해 언어 구성의 심리적 현저성과 연상성²⁵⁾ 등 특성에 대해 외국인 학습자들이 쉽게 공감하지 못한다. 따라서 모국어 화자가 아니면 언어를 공부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때 직관적인 통사적 구조를 통해 언어 결합 관계를 암기하는 방식을 통해 언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고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사 구조상의 언어 분류 기준을 따를 것이다.

이어서 통사 구조에 따른 언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문금현(2002)에서는 어휘적 언어를 어휘 요소의 의미 호응 관계에 따라 주술관계 언어, 목술관계 언어, 그리고 수식관계 언어와 같은 3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임근석(2002)에서도 어휘적 언어를 격틀 관계를 기준으로 주술관계 언어, 목술관계 언어, 부사어-서술어 관계 언어, 그리고 수식관계 언어와 같은 4 가지로 분류하였다. 두 연구는 언어에 대한 분류 기준은 각각 '어휘 요소의 의미 호응 관계'와 '격틀 관계'라는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지만 모두 통사적 구성의 측면에서 언어의 유형을 구분하는 공통점이 있다. 두 연구에서 언어의 유형에 대한 제시 양상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어휘적 언어 유형의 제시 양상

문금현(2002)의 분류		임근석(2002)의 분류	
어휘적 언어 유형	예시	어휘적 언어 유형	
주술관계 언어	나이가 들다	주술관계 언어	
목술관계 언어	나이를 먹다	목술관계 언어	
수식관계 언어	[부사어+용언]형	감기에 걸리다	부사어-서술어 관계 언어
	[체인+관형격조사+체인]형	불후의 명작	수식관계 언어
	[부사어+용언]형	깜짝 놀랐다	
	[용언+관형형어미+체인]형	새빨간 거짓말	
			[체인+관형격조사+체인]형
			[부사어+용언]형
			[용언+관형형어미+체인]형

24) 이에 대한 연구의 예 문금현(2002), 임근석(2002), 기단봉(2009), 장미정(2009), 김원경(2010), 허영임(2010), 왕효휘(2011), 여숙연(2017), 왕유가(2019) 등이 있다.

25) 언어의 연상성은 어휘적 결합 구성 중 선택의 주체인 선택어가 주어지면 선택의 대상인 피선택어를 쉽게 연상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문금현(2002)과 임근석(2002)에서의 어휘적 연어 유형의 제시 양상을 비교한 결과, 두 연구의 차이점은 '부사어'-에'+용언'형 연어에 대한 분류 방법에만 있다. 문금현(2002)에서는 '부사어+용언'형 연어를 수식관계 연어의 하위 범주로 보고 있으며 임근석(2002)에서 '부사어+용언'형 연어를 주술관계 연어, 목술관계 연어, 그리고 수식관계 연어와 병렬한 또 다른 한 가지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 '부사어+용언'형 연어에 대한 두 가지의 분류 방법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먼저 두 연구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식관계 연어의 예시부터 분석해 보겠다. 수식관계 연어 중에서 '불후의 명작'과 '새빨간 거짓말'은 [체언+관형격조사+체언]형 연어와 [용언+관형형어미+체언]형 연어에 해당된다. 연어 구성에서 '불후의'와 '새빨간'은 관형어로서 뒤에 나오는 명사 '명작'과 '거짓말'을 수식하고 있다. 반면에, [부사+용언]형 연어인 '깜짝 놀랐다'에서는 '깜짝'은 부사로서 '놀랐다'를 수식하고 있다. 이를 보면, 수식관계 연어에는 후행요소가 체언인 경우, 수식 성분(관형어)은 '그 체언(명사)은 어떠한 것이지'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며 후행요소가 용언인 경우, 수식 성분(부사)은 '그 용언(동사)는 어떻게 한 것인지'라는 질문을 대답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수식관계 연어의 선행요소는 후행요소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사어+용언]형 연어의 상황은 위에서 제시한 것과 다르다. '감기에 걸리다'와 같은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선행요소인 부사어 '감기에'는 후행요소인 동사 '걸리다'에 대해 이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역할이 아니다. 이는 '감기에 걸리다'와 의미가 비슷한 어휘적 결합인 '감기가 걸리다/ 들다', '감기를 앓다'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사어(체언+에)+용언]'형 연어 중 선행요소와 후행요소 간의 특수한 의미 관계이므로 수식관계 연어에서 포함되면 안 되고 수식관계와 대등하는 또 다른 하나의 유형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임근석(2002)에서 제시한 연어의 분류 방법에 따른다.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연어를 통사 구조에 따른 분류로 제시하는 게 효율적이다. 통사 구조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연어 구성 중의 어휘 및 문법 요소를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연어 구성 요소 간의 선택성, 제약성, 그리고 투명성에 따라 유형화된 연어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이런 연어의 성질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역시 한국어 교육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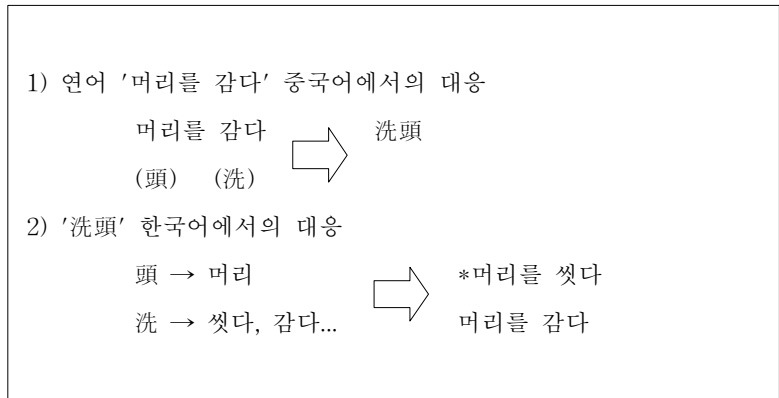
김진해(2000)는 어휘 요소의 결합이 어휘 개념 구조에 따라 특정 어휘가 내적으로 다른 어휘를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연어를 전제적 연어라 하였다. 예를 들어 동사 ‘감다’는 ‘머리나 몸을 물로 씻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머리’나 ‘땀/미역’이라는 어휘와 공기 관계를 형성한다. 이와 달리 어휘들 간의 긴밀한 결합을 어휘 개념 구조로 이해하기 어렵고, 국어 사용자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으로 공고한 공기 관계를 형성하는 연어는 관습적 연어로 부른다. 관습적 연어가 나타나는 이유는 구성 요소 중의 하나가 의미 전이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욕을 먹다’에는 서술어가 왜 ‘마시다, 드시다’ 등 다른 동사는 안 되고 반드시 ‘먹다’이어야 하는지를 어휘 개념 구조로 설명할 수 없다. 이때 ‘먹다’의 의미는 기본 의미가 아닌 ‘욕, 핀잔 따위를 듣거나 당하다.’라는 전이적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목적어 ‘욕’과 같이 관습적 연어 구조를 형성한다. 전제적 연어와 관습적 연어의 정의에서 요구하는 선택성, 제약성, 그리고 의미의 투명성 등 연어의 특성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시한다.

<표-8> 전제적 연어와 관습적 연어의 특성 차이

	전제적 연어	관습적 연어
예시	머리를 감다	욕을 먹다
선택성 특징	용언 중심 연어(동사 언어핵)	체언 중심 연어(명사 언어핵)
제약성 특징	제약 연어	준-제약 연어 (욕을 듣다/ 당하다)
의미 투명성 정도	투명 연어	반투명 연어(‘먹다’의 의미 불투명)

위와 같이 전제적 연어와 관습적 연어와 같은 연어 유형에 대한 양분법은 어종과 통사적 구성 외의 다른 연어의 특성을 문제로 보고 다루고 있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런 분류 기준에 따라 연어를 제시한다면 통사적 구성에 의한 제시 방법에 따라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연어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전제적 연어와 관습적 연어는 연어 교육에서 활용하는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표-9> 전제적 연어 ‘머리를 감다’의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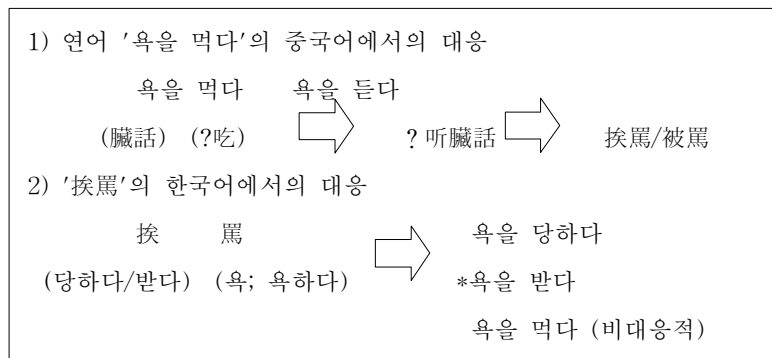


<표-9>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전제적 연어 '머리를 감다'는 중국어에서의 대응은 동빈(動賓)관계²⁶⁾ 구인 '洗頭'이다. 그러나 역방향으로 중국어의 '洗頭'를 한국어에서 대응시킬 때 특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목적어가 된 명사 '頭'는 역시 '머리'와 대응하고 있지만 서술어 동사인 '洗'는 한국어에서 '감다'보다 '씻다'를 먼저 연상할 수 있고 의미적으로 서로 대등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어 '洗'의 기본 의미는 '물로 때나 더러운 것을 없게 하다.'라는 '씻다'의 기본 의미와 완전히 대응된다. 한국어 학습 현장에서도 학습 난이도에 따라 '감다'보다 '씻다'를 먼저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洗頭'의 뜻을 한국어에서 표현하려면 '머리를 감다'보다 '머리를 씻다'와 같은 잘못된 표현을 머릿속에 먼저 떠올린다. '머리를 감다'는 전제적 연어로서 '감다'의 의미는 반드시 앞에 나오는 '머리, 떡/미역' 등 유한적 명사에 의해 '머리나 몸을 물로 씻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지금 다시 '씻다'와 비교하면 '감다'의 의미는 '씻다'보다 적용 범위가 좁으며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도 강제적 요구 제한이 있다. 그래서 중국어에는 동사 '洗'와 결합하여 목술관

26) 중국어 문법 중 동빈(動賓)관계는 한국어의 목술관계에 해당한다. 다만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는 SVO언어로서 한국어의 어순과 다르다. 그리고 한국어와 달리 목적어와 서술어 동사의 관계에 있어서 목적격조사가 필요없고 어순만에 의해 문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동빈(動賓)관계는 '동사+빈어', 즉 '서술어 동사+ 목적어'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머리를 감다'는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은 '頭洗'가 아니고, '洗頭'에 해당한다. 비록 한·중 어순의 차이가 있지만 본고에서 '머리를 감다'와 '洗頭'의 관계처럼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는 중국어에서 1대1한 경우는 완전 대응적 연어로 보고 있다.

계 구를 형성할 수 있는 명사는 '手(손), 臉(얼굴), 頭(머리) 등은 모두 가능하지만 한국어에서 대응하면 유독 '머리(頭)'는 반드시 '감다'와 결합해야 하고 '씻다'와 같이 공기하면 비문이 된다. 다시 말하면 '씻다'는 '감다'와 유의어이지만 '머리를 감다'와 같은 전제적 언어 구조에서 교체로 쓸 수 없다. 이런 전제적 언어에 대해 따로 배우지 않으면 중국어 학습자들이 쉽게 '머리를 씻다'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특정 용언에 의해 앞에 나오는 체언을 제한적으로 요구하는 전제적 언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10> 관습적 언어 '욕을 먹다'의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



<표-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어 관습적 언어 '욕을 먹다'는 중국어에서 '挨罵、被罵'이다. 어휘를 개별로 습득하는 중국 학습자들이 이런 언어 관계를 배울때 구성 요소의 의미를 따로따로 해석한 다음에 개별 의미의 합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욕을 먹다' 중에서 명사 '욕'과 동사 '먹다'는 모두 독립성²⁷⁾이 있기 때문에 중국어로 직역하면 각각 명사 '臟話'와 동사 '吃'로 대응된다. 이 두 중국어 어휘로 형성한 목술관계 어휘적 결합은 '吃臟話'인데 중국어 문법과 어휘 체계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언어의 구성 요소를 의미적으로 중국어와 일대일로 대응시킨 후 비문이 나타나는 원인은 관습적 언어의 의미적 특성 때문이다. 관습적 언어 '욕을 먹다' 중에서 명사 '욕'은 언어핵으로서 투명한 기본의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臟話'와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변에

27) 한 어휘소는 다른 어휘소에 의존할 필요없고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성질이다. 독립성이 있는 어휘를 홀로 쓰일 때 보통 기본 의미를 유지한다.

해당한 동사 '먹다'의 경우는 '욕, 핀잔 따위를 듣거나 당하다.'라는 전이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의미가 불투명할뿐더러 중국어에서 대응어를 찾기도 어렵다. 이때 '욕을 먹다'는 투명한 기본의미의 합으로 중국어에서 '吃臟話'와 대응할 수 없고 의미가 비슷한 자유 결합인 '욕을 듣다'에 의해 중국어에서 '听臟話'와 대응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听臟話'의 출현 빈도는 의미가 비슷한 피동 표현 '挨罵/被罵'보다 상당히 낮다. 따라서 '욕을 먹다'는 중국어에서 '挨罵、被罵'에 해당한다. '挨罵、被罵' 중에서 '挨'와 '被'는 중국어의 피동 의미의 표시이다. '挨'와 '被'는 한국어에서 '당하다'와 '받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挨罵'를 다시 한국어와 어휘소의 일대일적 관계로 대응시키면 '욕을 당하다, 욕을 받다'라는 대조 양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욕을 당하다'는 '욕을 먹다'와 의미가 일치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욕을 받다'는 비문이다. 이런 언어 간의 대조적 문제로 인하여 학습자들의 오류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습적 언어 구성 '욕을 먹다' 중 '먹다'의 전이 의미는 언어 간의 문화 차이로 인해 중국어에서 직접적인 대응어가 없다. 한·중 언어 체계에서의 비대응적 언어 혹은 부분 대응 언어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언어의 구성에 대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어 언어 교육에서 관습적 언어에 대한 교육도 소홀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언어의 유형에 대한 논의한 결과, 본 연구에서 언어의 유형별로 한·중 언어의 대조 양상을 제시할 때 주로 통사 구조상의 언어 유형에 따른다. 대조 언어학과 한국어 교육학을 서로 연결시키는 연구로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방법과 학습자들의 실제 수요를 감안하여 본고에서 대조연구의 진행과 교육 방안을 제시할 때 전제적 언어와 관습적 언어와 같은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Ⅲ.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용 연어 목록 선정

이 장에서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한·중 언어의 대조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교육용 연어 목록을 선정할 것이다. 먼저 한국어 교육에서의 언어의 범위를 확정하고 중국 현지에서 출간된 주된 한국어 교재 『북경대 한국어』의 내용을 분석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연어 교육의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쓰이고 있는 다른 한국어 교재와 같이 비교하여 연어 교육 내용 중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교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의 빈도수, 학습 난이도 등을 선정 기준으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육용 연어 목록을 추출할 것이다.

교육용 연어 목록의 구체적인 선정 방법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고에서 내린 언어의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교재 분석을 통해 교재에서 제시하는 연어 항목을 추출한다. 추출된 언어의 빈도 유형은 『학습용 기본 명사 언어 빈도 사전』에서 제시하는 제1류나 제2류인 고빈도 언어면서 언어의 구성 요소는 모두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2003)>에서 제시하는 학습 난이도 C급 이상인 어휘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의 조건에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이런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용 연어 목록이 선정된다.

1.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어

한국어 교육학에서 언어에 대한 논의 방식은 순수언어학적 연구와 조금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 교육을 진행하는 목적은 언어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관계인 어휘적 결합을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육학에서 언어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어휘 차원에서 어휘소 간의 선택

제약으로 제한된 결합 관계를 연어로 보고 다른 하나는 통사적 구성에서 어휘소가 서로 공기하는 빈도 양상의 관점에서 공기 빈도가 높은 구성을 연어로 보고 있다. 통계학 관점에서 결합의 빈도에 의해 연어를 판단하고 선정하는 연구는 홍종선 외(2000), 한송화·강현화(2004), 김진해(2007) 등이 있다. 연어 선정 작업에 있어서 이런 통계적 방법은 언어학적 연어 규칙이나 언어학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직관적 관찰에 의해 선정하는 방식보다 더 객관적이고 고빈도 연어 관계의 실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 방법으로 실제적으로 추출하는 어휘적 결합 관계에서는 '모르는 사람', '생각을 하다', '학교에 가다'²⁸⁾와 같은 일반구도 포함되었다. 따라서 통계적 방법에 의해 추출된 연어는 자유 결합이나 관용 표현과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교육용 연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날 수 있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통계적 방법으로 진행하는 연어의 선정 작업은 말뭉치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말뭉치의 규모, 말뭉치에서의 어휘 결합의 정확성, 난이도, 구어나 문어 등 말뭉치 자료의 성질 등 여러 가지의 요인은 선정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결국, 교육할 필요가 있는 연어 항목은 말뭉치 크기의 한계로 제외되는 문제, 말뭉치 중의 오타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연어 표현이 추출되는 문제, 학습 어휘의 범위를 넘어선 어휘소로 구성된 연어를 추출하는 문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할 때 자주 쓰이지 않는 연어를 추출하는 문제가 모두 생길 수 있다. 이런 한계점을 감안하여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어의 범위를 파악할 때 말뭉치 분석에 의한 통계적 방법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역시 국어학의 이론적 논의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두 방법 외에 최근 몇 년간에 연어의 대조언어학적 연구가 많아짐에 따라 언어 비교의 차원에서 연어의 정의와 범위를 검토해 보는 연구도 있다. 한송화·강현화(2004:299-300)는 함께 나타나는 단어들의 결합 혹은 통계적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많은 어휘들의 결합으로서 말뭉치에서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구뿐만 아니라, 모어화자가 특별한 결합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학습자가 오류를 양산해내거나 스스로 텍스트에서 유용한 연어라고 선택하는 것들도 연어로 본다. FanQihui(2010)에서 한국어 교육에서

28) 위에 세 개 예시는 각각 홍종선 외(2000), 한송화·강현화(2004), 김하수 외(2007)에서 말뭉치 분석을 통해 선정된 연어 항목의 결과이다.

다루어야 할 언어를 학습용 언어라는 용어로 외국인 학습자가 학습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거나 구사하기 힘든 것이 언어라고 정의했다. 학습용 언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국어 언어를 외국어로 번역할 때 언어의 구성요소 중 하나 또는 두 개가 외국어와 간접대응 또는 비대응 관계를 이룰 때 그 언어는 학습용 언어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 정의는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 언어 교육을 접하는 것으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의에서 제시된 학습용 언어의 범위는 분명하지 않고 모호성이 있다. 그리고 정의에서 언급한 외국어와 간접대응 또는 비대응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

한국어 언어가 외국어와 간접대응 또는 비대응 관계를 이루는 이유는 언어 간의 표현 차이와 문화 차이 등의 원인 외에 대부분 언어의 의미 전이 여부와 관련된다고 본다. 본고의 2.1에서 언어를 두 어휘소 간의 긴밀한 통사적 결합 구성으로, 선택의 주체(언어핵)가 되는 어휘요소가 선택의 대상(언어변)이 되는 어휘요소를 제약적으로 선택하고 공기하며 통사적 의미는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것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2.2에서 논의한 듯이 한국어 언어 교육에서 전제적 언어와 관습적 언어는 모두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부분이다. 전제적 언어는 선택 제약에 따라 의미자질이나 어휘류에 의해 제한된 결합을 예측할 수 있지만 한·중 대조 양상의 차이와 유의어 등의 문제로 인해 오류를 쉽게 범할 수 있다. 관습적 언어는 어휘 개념 구조에서 해석하기 힘들고 구성 요소의 내적 구조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구성 요소에 의해 언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도 없다. 김진해(2000)에서도 관습적 언어에서 의미 전이는 필수적으로 꼭 어휘의 다의화를 수반하므로 언어와 다의화의 관계를 고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언어의 구성요소가 의미 전이를 통해 다의화된 현상은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에 차이가 생기는 원인이다. 전이 의미에 의해 대부분의 한·중 간접대응이나 비대응 언어가 나타난다. 이동혁(2003)에서 전제적 언어와 관습적 언어가 서로 구분되는 이유는 의미의 전이 여부이라고 밝혔다. 전제적 언어는 기본 의미에 충실하고 관습적 언어는 기본 의미가 아닌 비유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본고에서 제시한 언어의 정의 중에서 '통사적 의미는 투명하거나 반투명함'이라는 특성과 일치한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언어의 정의는 충분히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관습적 연어와 전제적 연어를 모두 교육용 연어로 보고 연어의 대조 분석에서 연어 구성 요소 중 용언의 기본의미 유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2. 중국에서의 한국어 연어 교육 양상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연어 목록을 선정하기 전에 우선 중국 현지의 한국어 연어 교육의 실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 현지의 연어 교육의 내용과 양상을 잘 알고 있어야 중국인 학습자들이 실제로 필요한 연어 교육 내용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교재분석을 통해 중국에서의 연어 교육 현황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분석하는 교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중국 현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어 교재들이다. 이 중에는 북경대학교 한국어 교재 『한국어』, 『연세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 『신표준 한국어』, 『신시선 한국어』 등이 있다. 이 중에는 중국 현지의 교수진으로 편찬된 교재도 있고 중국에서 출간된 한국의 대표적인 한국어 교재의 중국어판도 포함되었다.

북경대학교 한국어 교재 『한국어』는 중국 북경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와 한국국립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원이 공동으로 편찬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이다. 2000년 중국에서 출간된 이래 중국 각 지역 200여개 대학교의 한국어과에서 이 교재를 주된 교재로 쓰고 있다. 『한국어』의 외적 구성은 1~4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로 한국어를 전공하는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합 한국어 교재이다. 교재는 한국어 수준 등급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난이도를 보면 그중에서 『한국어1』과 『한국어2』는 초급과 중급 수준의 교재에 해당하고 『한국어3』은 고급 수준의 교재로 볼 수 있다. 『한국어4』에는 문화와 문학에 관련된 내용이 많으며 난이도는 TOPIK시험으로 보면 6급 수준보다 더 높다. 제1권²⁹⁾ 외에 모두 15과의 분과 내용으로 구성된다. 내부 구성은 ‘본문-단어-발음-어휘 활용-어법 및 관용형-연습문제-보충단어’로 되어

29) 제1권은 모두 20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0과까지는 발음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뒤에 있는 10과는 다른 권의 내적 구성과 똑같다.

있다. 이 가운데 연어 교육 항목은 ‘단어’, ‘어휘 활용’, ‘보충 단어’ 3부분에서 명시되어 있고 본문이나 예문에서도 명시된 연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부터 권별로 북경대 교재에서 제시된 연어 항목을 정리하고 제시 양상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표-11> 『한국어1』의 연어 목록

정신이 없다, 마음에 들다, 신경을 쓰다

『한국어1』에 나타난 연어 항목은 3개 밖에 없고 제1권 전체 어휘량(1085개) 중에서 0.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 어휘들은 ‘단어’ 부분에서 개별로 제시되고 있지만 연어는 ‘어휘 활용’ 부분에서만 제시하였다. 연어 항목은 일반 어휘와 따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어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방법도 다르다. 연어를 제시할 때 해당되는 중국어 의미 해석뿐만 아니라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용법 및 예문도 동시에 제시되어 있다. 교재에서 연어 항목을 가리키는 용어는 ‘連語(연어)’ 대신에 연어 교육 항목을 모두 ‘慣用語(관용어)’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면 학습자들이 연어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관용 표현과 혼동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재에서 연어를 표시할 때 일관되고 분명한 용어가 필요하다. 한편, 교재 전체 1,000여 개 학습 어휘 중에서 연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작다. 연어와 같은 어휘적 결합에 잘 익숙하지 않으면 어휘량이 아직 부족한 초급 학습자들이 의사소통을 진행할 때 어휘 사용의 오류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연어는 어휘적 결합 관계이지만 연어의 의미적 특성으로 인하여 학습자들이 연어의 구성 요소를 예측하기에 어렵다. 따라서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유한한 어휘들로 서로 어울리지 않지만 결합 관계를 만들어 같이 쓰는 경향이 있다. 이런 잘못된 어휘의 결합 방식과 용법이 초급 단계에서 고정되면 나중에 중·고급 단계에 들어가도 연어 표현의 숙달도, 정확성 및 유창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어1』에서 초급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는 연어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12> 『한국어2』의 연어 목록³⁰⁾

*상을 차리다, 감사를 드리다, 나이를 먹다, *상처를 입다, *신경을 쓰다, 밥을 새우다, 조예가 깊다, *해를 끼치다, *고개를 숙이다, *사건이 벌어지다, 생각이 들다, *예의를 갖추다, 말씀을 드리다, 화가나다, 게으름을 피우다, 느낌이 들다, *바둑을 두다, 정이 들다, 수다를 떨다, 마음에 들다, 마음(을) 먹다, *꿈을 꾸다, 흥을 보다, 소리(를) 내다, *발걸음을 내딛다, 길이 막히다, 겁(이)나다, 예를 들다, 예절이 밝다, 예의가 밝다, 정신이 팔리다, 녹이 슬다, 사진을 찍다, 잠이 들다, 경황이 없다, 무리가 되다, 열(을) 떠다, 신이 나다, 말썽을 뿌리다, 시집을 가다, 시를 짓다, 애를 쓰다, 판단을 내리다, 전화를 드리다, 각광(을) 받다, 천대(을) 받다, 단풍이 들다, 숨이 막히다, 한숨을 짓다, 한숨을 쉬다, 일을 저지르다, 끝을 보다, 오해를 받다, 영문을 모르다, 자리를 굳히다, 느낌이 들다, 힘을 합하다, 발길이 끊이다, 재미가 붙다, 기승을 부리다, 휴식을 취하다, 더위(를) 먹다, 수다를 떨다, 후회가 들다, 미소를 짓다

『한국어2』에서 제시한 연어 항목은 65개가 있으며 제2권 전체 어휘량(2088개) 중에서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1』보다 전체 학습 어휘량에서 차지한 비중이 훨씬 높아진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연어의 양도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제시 방법과 제시 내용을 보면 역시 문제점이 있다. 연어 항목을 ‘단어’와 ‘보충 단어’부분에 제시하는 것도 있고, ‘어휘 활용’부분에서 제시한 상황도 있다. 그 차이는 구체적인 용법 설명 및 예문의 유무에 있다. 그리고 제1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어 항목을 제시할 때 ‘慣用句(관용구)’와 같은 애매한 용어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제1권에서 연어를 ‘관용어’로 표기하였다가 제2권에서 다시 ‘관용구’로 표기되면 학습자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교재 중에서 연어를 제시할 때 연어(連語연어, 固定搭配고정결합, 詞組동사구)와 같은 일관된 용어도 필요하다.

제시양상을 보면 단어장에서 연어를 마치 한 어휘처럼 구 표현을 통사적 의미와 같이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상황도 있고, 본문이나 예문 속에서 분명히 ‘명사+용언’형의 연어 관계이지만 단어장에서 이 연어의 구성요소인 명사와 동사/형용사를 나누어서 개별 어휘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통해 연어의 제시 방법을 통일시키지 못한 점을 알 수 있다. 연어를 통사적 구성이 아닌 개별 구성요소로 배우게 되면 학습자들이 그 연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스럽다.

30) <표 12>에서 별표*를 찍은 연어 항목은 교재의 본문이나 예문에서 나왔지만 단어장에서 이 연어 표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연어를 구성한 명사와 동사를 개별 어휘로 제시한다. 이에 대해 본고는 교재에서 간접적으로 제시한 연어 항목으로 본다.

그리고 제시된 연어 항목 중에 빈도가 낮은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명사 '예의'와 결합된 연어 구성인 '예의가 바르다'는 교재에서의 '예의가 밝다'보다 출현 빈도가 훨씬 높다³¹⁾. 따라서 교재에서 제시한 연어의 빈도수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늑이 슬다', '기승을 부리다'와 같은 연어의 구성 요소는 학습자의 수준과 해당된 등급의 학습용 어휘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런 학습 난이도를 넘는 연어 항목은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연어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높은 등급의 연어 학습 목록에서 넣을 필요가 있다.

<표-13> 『한국어3』의 연어 목록

갈증이 나다, 인기를 끌다, 실감이 나다, 소름이 끼치다, 마음이 놓이다, ▲인상 깊다³²⁾, 판을 치다, 구미에 맞다, 이해가 가다, △흠잡다³³⁾, 힘을 쏟다, 거리가 있다/멀다, 기가 막히다, 손을 대다, 나이가 들다, 말썽을 피우다, 정신을 차리다, 호감을 사다, 관계를 맺다, 입에 오르내리다, 생각에 잠기다, *상승세를 타다, 농사를 짓다, 짐작이 가다, 집을 나가다, 피부로 느끼다, 썸이 나다, 맘에 들다, 녀을 잃다, 녀을 놓다, 감기가 들다, △손보다, 실랑이를 벌이다, 주목을 받다, △공들이다, 물을 들이다, 흥내를 내다, ▲길 가다, 조화를 이루다, 몸살이 나다, 몸살을 앓다, 목이 타다, 가뭄이 들다, 속이 타다, 애가 타다, 시비를 걸다, △도망치다, 육을 먹다, ▲마음 놓다, 숨을 거두다, 말이 아니다, 감정을 넣다, 도둑이 들다, ▲큰맘 먹다, 기억에 남다, *시치미를 떼다, 마음을 먹다/마음먹다, 아침을 떨다, 핑계를 대다, 꾸중을 듣다, 인성을 높이다, 야단을 치다, 손꼽다, 인물이 좋다, 당직을 서다, 진심(이) 어리다, 마음이 쓰이다, 주객이 전도되다, 성에 차다, 바탕을 두다, 밥맛이 떨어지다

『한국어3』에서 제시한 연어 항목은 총 71개가 있고 제3권 전체 어휘량(1856개) 중에서 3.8%를 차지하고 있다. 연어 교육 항목의 비중은 제2권의 상황과 비슷하다. 연어 제시 양상을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은 개별 연어를 제시할 때 연어 구성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연어 구성 요소 중의 격조사를 생략하여 제시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인상 깊다', '마음 놓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이런 예시를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으로

31) 『학습용 기본 명사 연어 빈도 사전』에서 '예의가 바르다'의 빈도 지수는 7이며 비도와 결합 강도는 높은 연어에 해당한다. 반면에 '예의가 밝다'는 300만 어절에서 출현하지 않았다.
 32) <표 13>에서 ▲를 찍은 것은 연어 구성 중 격조사를 생략하여 제시된 연어 항목이다. 예를 들면, '인상 깊다'는 주격조사 '-이'를 생략하여 제시된 것이다. 연어의 완전한 통사적 구성은 '인상이 깊다'에 해당한다.
 33) <표 13>에서 △를 찍은 것은 합성어인 동사로 제시되지만 모두 '명사+동사'형 합성어라서 주술관계나 목술관계 연어로 쓰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합성어 '흠잡다'를 연어 '흠을 잡다'로 쓰일 수도 있다.

사용할 때 격조사를 흔히 생략할 수 있지만 한국어 어법 체계와 연어의 통사적 구성에 대해 생소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가장 정확한 표현을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인상 깊다’에서 명사가 주격조사와 결합하여 ‘인상이 깊다’와 같은 주술관계 연어로, ‘마음 놓다’는 ‘마음’과 목적격조사와 결합하여 ‘마음을 놓다’와 같은 목적관계 연어의 통사적 구성을 제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사를 흔히 생략할 수 있는 연어 항목에 대해 표에서 제시한 항목 중의 ‘진심(이) 어리다’와 같이 괄호를 쓰고 조사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학습자들이 직접 연어 표현을 사용할 때 연어의 구성요소인 명사와 동사의 통사적 관계를 잘 모르면 조사 부분에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제3권에서 또 다른 하나의 특이한 연어의 제시 방법은 연어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구성요소로 이루는 합성어만 제시하는 것이다. ‘흠잡다, 손보다, 공들이다, 도망치다’와 같은 합성어는 이에 해당한다. 이런 합성어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모두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로 합성된 것이다. 이런 합성어의 구성 어휘소 간에 두 어휘소의 통사적 의미에 따라 조사 성분을 삽입하면 대부분 연어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공들이다[공+들이다]’에서 목적격 조사 ‘-을’을 넣으면 연어 ‘공을 들이다’가 형성된다. 이처럼 두 어휘 요소로 연어와 합성어를 모두 형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합성어의 형태뿐만 아니라 연어 형태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합성어와 연어의 관계 제시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축자적인 의미와 공기성을 가지고 있는 연어를 마치 한 단어처럼 쓸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에 제3권은 고급 한국어 교재인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다, 마음을 먹다’와 같은 중급 수준에 해당하는 연어 항목들을 수록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교재에서 등재된 연어의 학습 난이도에 대해 학습 등급의 기준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14> 『한국어4』의 연어 목록³⁴⁾

<p>△명들다, 권세를 부리다, 경기가 풀리다, 이민을 가다, 눈치가 빠르다, ▲주눅 들다, ☆가꾸다 (몸을 가꾸다 등), 말을 걸다, 성에 차다, 손가락질을 받다/ 하다, 말이 아니다, ☆챙기다(짐을 챙기다 등), 이름을 떨치다, ☆올리다(소독을 올리다/결혼식을 올리다/무대에 올리다 등), ☆치르다(잔치를 치르다/ 대가를 치르다 등), 돈이 떨어지다, 빚더미에 앉다, 신방을 차리다, ▲주의 깊다, 혜택을 보다, ▲피눈물 나다, 자존심을 건드리다, 바람이 불다, ☆뜨이다/뜨이다(눈에 뜨다)</p>
--

등), 손을 잡다, 기세를 부리다, 양해를 구하다, ▲발 빠르다, ▲표 나다, ☆낳다(아이를 낳다/불신을 낳다 등), 비탄에 빠지다, 균형(을) 잡다, 균형(이) 잡히다, 눈길을 끌다, ☆값다(돈을 값다/신세를 값다/원수를 값다 등), 신세(를) 지다, 원수를 값다, 각이 지다, △야단맞다, △소문나다, 뜻을 펴다, △힘차다, 짝이 없다, 심혈을 기울이다, ☆일다(여론이 일다/불길을 일다 등), 인사를 나누다, 세상을 뜨다, 실의에 빠지다, 풀이 죽다, 말문이 막히다, 성을 내다, 귀를 기울이다

『한국어4』에서 제시한 연어 항목은 총 52개가 있고 제4권 전체 어휘량(3,060개) 중에서 1.6%를 차지하고 있다. 연어 교육 항목의 수량이나 비중을 봤을 때 제2권과 제3권보다 줄어들었다. 이는 연어의 학습양이 학습 단계의 등급을 높일수록 많아진다는 원칙을 어겼다. 아무리 문화·문학 주제의 교재라도 하더라도 외국어 교재로서 어휘와 표현에 대한 교육을 소홀하면 안 된다. 제4권에서 3000여 개의 어휘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문화 및 문학 분야와 관련된 전문용어이다. 연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부실하면 습득된 것으로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응용할 때의 실용성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고급 학습자들에 수준을 맞춰서 연어 항목을 더 많이 선정할 필요가 있다. 연어의 제시 양상을 보면 전3권에서의 연어 제시 양상의 문제점은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제4권에는 연어를 제시할 때 특유한 제시 양상도 있다. 일부분 연어 결합 관계에서 동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에 의해 여러 가지의 확장된 의미로 연어변이 되고 각각 명사들과 같이 관습적 연어를 생성한다. 다시 말하면, 형태가 똑같은 동사로 구성된 연어 표현들은 명사의 다름에 따라 동사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 이런 어휘 결합관계에서 수많은 명사들이 하나의 동사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연어 항목을 제4권의 단어장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과마다의 ‘어휘 활용’부분에서 해당된 동사 표제어의 여러 가지의 파생적 의미의 밑에 예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이런 방식은 연어 관계의 통사적 구성과 의미를 중시하지 않고 구성요소인 동사의 파생적인 의미만 강조한 것이다. 동사의 파생적 의미에 대해 인식할 때 그 동사만 고려하면 안 되고 그 동사로 구성하는 어휘 결합 관계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한 동사의 여러 가지의 파생 의미를 설명한 후에 관련된 연어 항목도 단어장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로 구성된 연어 항목을 체계적으로 교수할 수 있게 된다.

34) <표 14>에서 ☆를 찍은 동사들은 교재의 본문이나 예문에서 그 동사로 구성된 연어 표현이 직접 나왔지만 단어장에서 따로 제시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대신에 ‘어휘 활용’ 부분에서 이 동사로 구성하는 다른 여러 개의 연어 표현을 예문을 통해 제시해 주었다. 따라서 분고에서 이런 동사를 중심으로 형성한 연어 표현도 교재 연어 목록에 넣었다.

위와 같이 북경대 한국어 교재에 전체 8000여 개 어휘 중, 연어 항목은 총 191개(2.4%)가 있다. 권별로 연어 교육 항목의 수량은 『한국어1』에 3개만 있는 것로부터 『한국어2』와 『한국어3』으로 권마다 60~70개로 확대된다. 연어 학습량의 증가세는 학습자들의 언어 실력이 점점 올라가면서 의사소통 할 때의 다양한 표현 방식에 대한 요구를 만족할 수 있다. 하지만 난이도 가장 높은 『한국어4』에는 연어에 대한 학습량이 오히려 줄임세를 보였다. 따라서 연어 교육 목록을 선정할 때 학습량에 대한 기준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중국 현지의 가장 대표적인 한국어 교재인 북경대 교재 중에서 연어 항목의 제시 양상에 대해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연어는 본문이나 예문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지만 연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분명하지 않는 용어로 연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연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연어의 제시 방법에 있어서 연어의 통사적 구조와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개별 단어로 연어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연어 항목의 선정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어의 학습량, 사용 빈도수, 학습 난이도 등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중국어권 학습자들 위한 교육용 연어 목록을 선정할 때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어와 관련된 연습 문제가 거의 없고 연어에 대한 '맞춤형' 교수법이나 학습 방법도 제시하지 않았다. 북경대 교재는 중국 각 대학 기관에서 널리 사용되는 현지의 한국어 교재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북경대 교재에서의 연어와 관련된 내용은 중국 현지에서의 한국어 연어 교육의 현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 교재에서 제시한 연어만 가지고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지금 공부하게 되는 연어의 범위로 생각하면 다소 단편적이고 주관적이다. 따라서 다음 소절에서 구체적인 교육용 연어 목록의 선정에 있어서 북경대 한국어 교재의 연어 목록을 중국에서 출간된 다른 네 가지의 한국어 교재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중국 현지에서 현행하는 한국어 연어 목록을 추출할 것이다.

3. 선정 기준과 방법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언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교육용 언어의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인 학습들이 꼭 배워야 할 언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어떤 자료에서 교육용 언어를 추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 어휘적 결합이 말뭉치에서 실현되는 빈도에 따라 언어의 영역을 규명하는 경향이 많고 말뭉치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어휘적 결합을 교육용 언어로 선정했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통계적 관점에서 빈도수에 따라 추출된 언어 목록에는 일반구나 관용표현과의 경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이 많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언어의 범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초래한다. 말뭉치에 의한 언어 선정 방법의 결합과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언어 범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성구론 관점에서 언어를 선정할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장에서 설정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언어의 범위와 언어의 특성에 따라 교육용 언어의 선정 기준을 세우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고에서 교육용 언어로 고찰할 대상은 주로 '체인+용언'형 어휘적 언어에 속하는 관습적 언어와 전제적 언어에 해당한다. 관습적 언어와 전제적 언어가 생성된 이유는 구성 요소의 다의화 여부와 관련된다. 따라서 교육용 언어 선정 기준중의 하나는 언어 구성요소의 의미 자질의 다의화 여부로 설정할 것이다. 교육용 언어를 선정할 때 구성요소의 의미를 요구하는 것 외에 기존 연구에서 언어의 구성요소인 개별 어휘의 높은 빈도수도 요구한다. 그러나 고빈도 어휘로 구성된 언어 결합이라는 것은 언어 자체의 사용 빈도는 높다는 뜻이 아니다. 언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유창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언어 항목을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 언어 구성요소인 개별 어휘의 빈도가 아닌 언어 표현 자체의 사용 빈도를 교육용 언어의 선정 기준으로 본다. 그리고 사용 빈도에 따라 선정된 언어 항목이 한국어 교육에서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학습 난이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 등급의 학습자들에 수준에 맞춰서 검토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교육용 언어 선정의

3가지 기준을 아래 <표-15>과 같이 제시하여 선정 방법의 분과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표-15> 교육용 연어의 선정 기준

1. '명사+용언'형 언어중에서 동사의 다의화 여부에 따라 관습적 언어와 전제적 언어에 해당 되는 것
2. 언어의 사용 빈도
3. 언어의 학습 난이도

말뭉치 분석을 통해 추출된 언어 목록은 또 하나의 한계점이 있다. 말뭉치를 구성한 자료의 성격에 따라 교육자의 경험이나 직관을 배제하여 교육 범위를 넘어서는 언어 항목을 추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어는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어렵고 교육적 측면에서 실용성이 없다. 따라서 교육용 언어는 교육적 관점에서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출간된 여러 가지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고 본고에서 제시된 언어의 개념과 특성에 따라 각 교재에서 나오는 언어 항목을 추출할 것이다. 중국의 한국어 교재의 언어 목록을 통해 현행 교육용 언어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교재에서 제시된 언어 항목을 비교하면서 언어 교육 내용 설치상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 교육용 언어의 선정 기준에 따라 최종 목록을 선정하고 한·중 언어 대조 연구의 범위를 한정할 것이다. 본고의 교육용 언어 목록의 선정 기준에 대해 다시 정리해보면 언어의 성질, 빈도, 그리고 난이도와 같은 3가지의 방면에 따라 교재에서 수록된 언어 중에서 교육용 언어를 추출할 것이다. 이어서 구체적인 선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다.

3.1.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언어에 대한 분석

교육용 언어 목록의 선정에 대해 순수 통계적 관점이나 언어학적 관점에서 진행한 연구는 많지만 교재 분석을 토대로 한 연구는 문금현(2002), 이정현(2010)³⁵⁾, 송대현·윤정아(2015) 정도가 눈에 띄고 그리 많지 않다. 이 가운데 문금현

(2002)에서 연어 학습 현황을 기존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즉, 기존 한국어 교재와 문어 자료,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연어들을 찾아내어 사용 빈도와 난이도에 의해서 학습 단계별로 목록을 선정하였다. 송대현·윤정아(2015)에서 고빈도의 연어와,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연어를 선정하였다. 그 가운데 고려대 교재, 경희대 교재, 서울대 교재, 연세대 교재, 이화여대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연어를 학습용 연어로 선정한다. 즉, 학습용 어휘들로 결합된 연어 목록 중에서 고빈도의 연어만을 선택하여 사용의 실제성을 검증하고, 한국어 교재에서 중복되게 나타나는 연어를 추가함으로써 경험적 판단을 반영하도록 한다. 기존 연구에서 교육용 연어의 구체적인 선정 방법에서 반영하는 듯이 한국어 교육에서 적용하는 연어 목록이므로 순수언어학에서 진행하는 이론적이나 학문적 논의보다는 아무래도 교육 현장과 밀착된 것이다. 즉, 실용적 측면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교재 내용을 통해서 연어 교육의 실제적인 상황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교재 분석을 통해 중국 현행 교육용 연어 목록을 추출한 다음에 앞장에서 제기된 연어의 특성에 만족 여부와 사용 빈도, 학습 난이도를 검토한 후 최종적인 교육용 연어 목록을 선정할 것이다. 다만 선정 절차에 있어서 기존 연구의 검토 순서와는 순서가 다르다는 사실은 특이한 점이다. 즉, 먼저 한정적인 교재의 범위에서 교육용 연어 목록을 추출한 다음에 빈도수와 학습 난이도 등 기준에 따라 교재에서 제시한 연어의 타당성을 논의할 것이다. 기존에는 교재 분석을 토대로 한 연어 선정 연구에서 교재 자체의 내용과 범위를 분석하는 것보다 연어가 사전이나 말뭉치 등 자료에서 실현된 빈도수, 학습 등급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더 중요시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한 경향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 교재에서 제시한 연어를 검토하는 방법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추출된 고빈도 연어나 학습 등급별 연어 목록과 중복되게 나타난 것만 검토하는 것이다. 이렇게

35) 이정현(2010)에서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연어의 분포 및 빈도 양상 분석을 위해 국립국어원 &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의 연어 목록(총 9,024개)에서 동일한 명사의 빈도수가 5개 이상의 연어를 만드는 명사 그룹을 추출하여(총 1,504개) 교재에 출현한 연어를 분석할 기준을 선정하였다. 그 목록을 조남호(2003)에 따라 명사와 용언 각각을 등급 A(=1), B(=2), C(=3)로 표기하여 명사와 용언 각각을 더하여 연어 값을 매겼다.

되면 권위적인 교재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자의 경험이나 직관에 따라 선정된 언어 항목을 대부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 기존 연구의 선정 절차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본고의 연구 대상은 한국어 전체의 언어나 고빈도 언어, 혹은 기초 언어가 아니라,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용 언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어 언어 사전이나 말뭉치 자료에 의해 추출된 모든 언어를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가르치면 무리가 되고, 난이도가 낮은 고빈도 언어만 교수해도 문제가 된다. 또한 추출된 기초 자료의 다양한 종류와 범위로 인해 통일된 교육 목록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재 중의 언어 항목에서 출발하여 기존 언어 목록의 타당성을 논의하여 더욱 현실에 맞는 실용적인 교육용 언어 목록을 선정해야 한다. 본고에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라는 특정한 교육 대상이 한정된 이상 교육용 언어 내용의 범위도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우선적으로 습득해야 할 한국어 언어로 한정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 현지의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한 언어 항목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앞장에서 중국의 각 대학 기관에서 주된 교재로 쓰인 북경대 <한국어> 중의 언어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여 언어에 대한 제시 양상을 파악하였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지금 교육 현장이나 교재에서 공부할 수 있는 언어의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북경대 교재 외에 지금 중국에서 출간된 4가지의 한국어 교재의 내용을 고찰할 것이다. 이 중에서 대부분 교재는 한국 각 대학 기관이나 어학원으로 편찬된 한국어 교재의 중국어판에 해당한다. 북경대 교재와 달리 중국의 각 대학 기관이나 한국어 학원에서 듣기, 말하기, 쓰기 등 분과 수업에서 이런 교재를 활용할 경우가 많다. 검토할 교재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16> 검토한 한국어 교재의 서지사항

연세대학교 한국어어학원(2014), 『연세한국어 (중국어판)』 ³⁶⁾ , 세계도서출판사.
한국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8), 『신판(新版)한국어』 ³⁷⁾ , 외국어교육연구출판사.
김중섭 외(2006), 『신표준(新標準) 한국어』 ³⁸⁾ , 외국어교육연구출판사.
성균관대학교 성균어학원 한국어교재편찬위원회(2011), 『신시선(新視線) 한국어 듣기와 말하기』 ³⁹⁾ , 북경어언대학교출판사.

36) 『연세한국어 (중국어판)』의 외적 구성은 초급은 1과 2, 중급은 3과 4, 고급은 5과 고급 6, 총 여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 별로 각각 10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교재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재별로 추출된 연어 목록⁴⁰⁾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17> 『연세한국어 (중국어판)』 연어 목록(135개)

<p>초급 (39 개)</p> <p>1</p> <p>계획을 세우다, 구름이 끼다, 눈이 그치다, 눈이 내리다, 눈이 오다, 머리를 감다, 신호가 가다, 안개가 끼다, 약속을 어기다, 약속을 지키다, 전화를 걸다, 전화를 끊다, 전화를 받다, 전화벨이 울리다, 탁구를 치다, 핸드폰을 끄다, 핸드폰을 켜다</p> <p>2</p> <p>기대가 되다, 기억에 남다, 돈을 찾다, 마당을 쓸다, 마음에 들다, 먼지를 털다, 몸이 떨리다, 물에 빠지다, 박수를 치다, 배탈이 나다, 번호표를 뽑다, 보험에 들다, 살이 빠지다, 속이 쓰리다, 시험에 붙다, 야단을 치다, 약속을 미루다, 업살(을) 부리다, 열이 나다, 자료를 찾다, 전화가 오다</p> <p>중급 (54개)</p> <p>3</p> <p>고집이 세다, 굶을 갈다, 근육이 생기다, 능력이 뛰어나다, 김치를 담그다, 돈이 들다, 동아리에 들다, 돈을 벌다, 마음을 먹다, 마음이 넓다, 맛을 보다, 머리를 다듬다, 몸살이 나다, 수리를 받다, 수리를 요청하다, 스트레스가 풀리다, 시간을 내다, 열량을 소모하다, 이사를 오다, 인사를 가다, 인사를 나누다, 인사를 드리다, 인사를 받다, 인사를 시키다, 인정을 받다, 정이 많다, 체중이 줄다, 피로가 풀리다, 거절을 당하다, 도움을 청하다, 마중을 나가다, 문제가 생기다, 커피를 뽑다, 밥을 세우다, 부탁을 들어주다, 부탁을 받다, 기분이 상하다, 도시락을 싸다, 시간이 나다, 시간이 흐르다, 문자를 보내다, 안부가 궁금하다, 안부를 묻다, 안부를 전하다, 양해를 구하다, 오해를 사다, 용서를 빌다, 팔짱을 끼다</p> <p>4</p> <p>덕을 보다, 신경 쓰다, 귀 기울이다, 시간에 쫓기다</p> <p>고급 (42 개)</p> <p>5</p>
--

37) 『신판(新版)한국어』의 외적 구성은 총 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38) 『신표준(新標準) 한국어』의 외적 구성은 초급은 초급 상과 초급 하, 중급은 중급 상과 중급 하, 고급은 고급 상과 고급 하, 총 여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39) 『신시선(新視線) 한국어 듣기와 말하기』의 외적 구성은 초급은 1과 2, 중급은 3과 4, 고급은 5과 6, 총 여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40) 중국의 한국어 교재에서 연어인지 자유결합인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어휘적 결합, 즉 구의 형식으로 어휘란에서 제시하여 연어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교재에서 제시한 구의 단위인 항목을 다 추출하고 연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날을 잡다, 사력을 다하다, 욕심을 부리다, 의심을 사다, 한몫잡다, 눈길을 끌다, 눈에 선하다, 명복을 빌다, 신명 나다, 압도 당하다, 조의를 표하다, 초상을 치르다

6

혼란을 겪다, 판단을 내리다, 판단이 서다, 납득이 가다, 마음을 졸이다, 메달을 따다, 안간힘을 쓰다, 갈등을 빚다, 갈등을 해소하다, 갈등이 심화되다, 고민을 털어놓다, 고민을 해결하다, 고민이 생기다, 고충을 털어놓다, 고충이 따르다, 눈을 돌리다, 능력을 펼치다, 마찰을 겪다, 마찰을 일으키다, 마찰이 심하다, 경험을 쌓다, 일익을 담당하다, 전공을 살리다, 조언을 구하다, 조언을 따르다, 책임감이 강하다, 충고를 따르다, 충고를 받아들이다, 틀에 박히다, 화해를 청하다

<표-18> 『신판(新版)한국어』 연어 목록 (83개)⁴¹⁾

1 (3개)

감기에 걸리다, 구경(을) 가다, 시험을 보다

2 (22개)

(전화를) 걸다, (시단이) 걸리다, (전화를) 끊다, (담배를) 끊다, (시간이) 나다, (큰일이) 나다, (화가) 나다, (생각이) 나다, (소리를) 내다, (화를) 내다, (비가/ 눈이) 내리다, (마음에) 들다, (조건에) 맞다, (전화를) 바꾸다, (전화를) 받다, (노래를) 부르다, (차를) 세우다, (안경을) 쓰다, (전화가) 오다, (시간이) 지나다, (춤을) 추다, 한턱(을) 내다

3 (36개)

(머리를) 감기다, (머리를) 감다, 기(가) 막히다, (유리를) 깨다, (고장이) 나다, (사고가) 나다, (감기가) 낫다, (신청서를) 내다, (문제를) 내다, 눈이 높다, 도망(을) 가다, (돈이) 들다, (가방을) 들다, (생각이) 들다, (주사를) 맞다, (주사를) 맞히다, (문제를) 맞히다, (돈을) 벌다, (아이를) 보다, (시험에) 붙다, 선(을) 보다, (계획을) 세우다, 손(을) 보다, 야단(을) 맞다, (종이) 울리다, (고기를) 채우다, (아기를) 채우다, (글을) 적다, 정(이) 들다, 줄(을) 서다, (소리를) 지르다, (장난을) 치다, (야단을) 치다, (상을) 타다, (문제를) 풀다, 화(를) 풀다

4 (22개)

(돈을) 걷다, (골치가) 아프다, (귀를) 기울이다, (음식을) 내놓다, (길을) 놓다, 눈치(를) 채다, (점수를) 매기다, (약을) 바르다, (틀에) 박히다, (입을) 벌리다, 살(이) 찌다, (밤을) 새우다, 숨(이) 막히다, 신경(을) 쓰다, 싫증(이) 나다, (과일이) 열리다, (바람이) 일다, 일리가 있다, 정신(을) 차리다, (웃을) 짓다, (농사를) 짓다, (피로가) 풀리다

<표-19> 『신표준(新標準) 한국어』 연어 목록 (161개)

초급 (57개)

41) 『신판(新版)한국어』에서 연어에 대한 제시 양상은 해당 동사를 배울 때 그 동사와 어휘적 결합 제약이 있는 명사를 '()'를 찍고 같이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신판(新版)한국어』에서 연어에 대한 제시 양상을 그대로 갖고 온다.

초급-상

노래를 부르다, 담배를 피우다, 마음에 들다, 배가 고프다, 비가 오다, 사진을 찍다, 시험을 보
다, 우산을 쓰다, 책을 펴다, 돈을 찾다

초급-하

가방을 메다, 감기에 걸리다, 구두를 신다, 구름이 끼다, 기침이 나다, 꽃이 피다, 눈이/비가 내
리다, 돈을 쓰다, 머리를 감다, 머리를 깎다, 머리가 들다, 면접을 보다, 모자를 쓰다, 값을 깎다,
바람이 불다, 방해가 되다, 배탈이 나다, 불을 끄다, 비가 그치다, 비디오표를 찍다, 산책을 가다,
쌀이 찌다, 안개가 끼다, 안경을 끼다, 안경을 쓰다, 양말을 신다, 요금을 내다, 음악/텔레비전을
틀다, 잠이 들다, 장갑을 끼다, 전화를 걸다, 전화를 끊다, 전화를 받다, 주사를 맞다, 처방전을
받다, 천둥이/ 번개가 치다, 춤을 추다, 친구를 사귀다, 커피를 뽑다, 컴퓨터를 켜다, 콧물이 나
다, 키가 크다, 테니스를 치다, 피가 나다, 화가 나다, 화를 내다, 휴가를 떠나다

중급 (64개)

중급-상

말을 걸다, 눈치를 보다, 손을 대다, 바둑을 두다, 물건을 들다, 돈이 들다, 별을 따다, 술을 따
르다, 달이 뜨다, 마음에 들다, 비를 맞다, 생일을 맞다, 야단을 맞다, 적성에 맞다, 운명을 맞추
다, 높이를 맞추다, 영향을 미치다, 불이 나다, 몸이 붓다, 선을 보다, 손을 대다, 신경을 쓰다,
잠을 설치다, 전보를 치다, 줄을 치다, 컴퓨터를 치다, 상을 타다, 최선을 다하다, 불을 피우다

중급-하

간을 하다, 값이 나가다, 고집이 세다, 곤란을 겪다, 기가 막히다, 길이 막히다, (방이) 나가다,
나무를 하다, 눈을 감다, 눈을 뜨다, (김치를) 담그다, (몸을) 담그다, (영양이) 담기다, 더위를
타다, 바가지질을 쓰다, 바람을 맞다, 밤을 새우다, 빛을 갓다, 소용이 없다, 수다를 떨다, 시간을
내다, 시치미를 떼다, 머리를 식히다, 신경을 쓰다, (졸음을) 쏟아지다, 욕심을 부리다, 머리에
이다, 자리를 잡다, 전화를 주다, (마음을) 줄이다, 줄을 서다, (제사를) 지내다, 짜증을 부리다,
철이 없다, 홍수가 나다

고급 (40개)

고급-상

간을 보다, 떡을 감다, 기가 막히다, 기승을 부리다, 문을 나서다, 녹초가 되다, 눈치가 보이다,
마늘을 다지다, 대출을 받다, 불에 데다, 증명서를 떼다, 땀을 들이다, 향이 배다, 손을 베다, 양
탈을 부리다, 인기를 누리다, 파도가 일다, 음식을 चे하다, 팔자가 세다, 편잔을 듣다, 기승을 부
리다, 눈에 선하다, 밭길이 닿다, 생떼를 쓰다, 쌍벽을 이루다, 특에 박히다, 회포를 풀다

고급-하

짐을 꾸리다, 눈을 돌리다, 북을 치다, 소란을 떨다, 숨통이 트이다, 목소리가 쉬다, 곰팡이가 슬
다, 신명이 나다, 추앙을 받다, 탈이 나다, 심혈을 기울리다, 일손을 놓다, 한숨을 돌리다

<표-20> 『신시선(新視線) 한국어 듣기와 말하기』 연어 목록 (99)

초급 (17)

<1>

감기에 걸리다, 마음에 들다

<2>

<p>줄을 서다, 술을 따르다, 뚜껑을 닫다, 냄새가 나다, 담배를 피우다, 거울을 보다, 기타를 타다, 소리(를) 지르다, 기침이 나다, 주사를 맞다, 사진을 찍다, 돈을 찾다, 바람이 불다, 열이 나다, 차가 막히다</p> <p>중급 (33)</p> <p><3></p> <p>신경을 쓰다, 수다를 떨다, 짜증을 내다, 땀이 나다, 스키(를) 타다, 밥을 새우다, 목이 쉬다, 맞선(을) 보다, 밑줄(을) 치다, 입에 맞다, 살을 빼다, 살이 찌다, 약을 올리다, 용기를 내다, 청소기를 밀다/돌리다, 세탁기를 돌리다</p> <p><4></p> <p>낮을 가리다, 땀을 내다, 손을 흔들다, 책임감이 강하다, 소용이 없다, 마음에 들다, 아이를 낳다, 이해심(이) 많다, 혼란을 겪다, 바람을 피우다, 정이 많다, 손에 잡히다, 장난을 치다, 짜증(이) 나다, 공기를 쐬다, 입맛이 당기다, 끈기(가) 있다</p> <p>고급 (49)</p> <p><5></p> <p>말문을 열다, 존경(을) 받다, 무시(를) 당하다, 싸움이 잦다, 형편이 어렵다, 꿈을 이루다</p> <p><6></p> <p>벽을 뚫다, 맛장구(를) 치다, 미소를 짓다, 말을 꺼내다, 야단(을) 치다, 버릇이 없다, 관심을 기울이다, 장이 서다, 세금(을) 징수하다, 일자리(를) 창출하다, 손가락질을 받다, 도를 넘어서다, 인신(을) 공격하다, 바닥을 드러내다, 플러그를 뽑다, 금리를 인상하다, 면접을 보다, 활기(가) 차다, 눈에 띄다, 시험에 떨어지다, 야망이 크다, 생각이 짧다, 꾸중을 듣다, 잠을 설치다, 의욕을 잃다, 기운이 없다, 열풍을 하다, 인기를 얻다, 열을 올리다, 맛이 부드럽다, 가업을 잇다, 상을 휩쓸다, 맥을 잇다, 인정(을) 받다, 인심이 후하다, 최선을 다하다, 양팔을 벌리다, 몸부림(을) 치다, 치를 떨다, 가슴이 미어지다, 늪에 빠지다, 헛소문을 퍼뜨리다, 호들갑을 떨다</p>

위의 표17~표20는 북경대 교재 제외한 4가지의 중국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 추출한 연어 목록이다. 중국 각 교재의 연어 목록을 검토한 결과, 먼저 제시한 연어의 수량에는 차이가 상당히 크다. 이 가운데에서 북경대 교재에서 제시된 연어 항목은 총 191개로 가장 많다. 다만 다른 교재들과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난 연어는 가장 적은 편이다. 반면에 서울대 교재 『신판 한국어』에서 83개 연어를 제시하여 연어에 대한 학습량이 가장 적다. 그리고 학습 등급별로 연어의 제시 양상을 보면 모든 교재는 학습 단계가 올라갈수록 연어의 학습량과 난이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다른 교재를 비하여 북경대 교재 『한국어』와 서울대 교재 『신판 한국어』는 초급 단계에 제시한 연어의 양이 아주 부족하다는 점을 보면 초급 단계에서 연어에 대한 의식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어휘를 개별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둘째, 중국에서 현행 5가지의 한국어 교

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연어 항목의 비중은 상당히 작다. 이를 보면 교육용 연어의 선정은 주로 주관적 경험이나 판단, 혹은 개별 학습 어휘의 난이도나 빈도에 의한 진행한 것이다. 교육용 연어의 선정에 있어서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다. 5가지 교재에서 중복되게 나타난 연어 항목은 아래 <표-21>과 같이 제시한다.

<표-21> 중국의 교재 중 중복되는 연어 (44개)

	북경대 한국어	연세 한국어	신판 한국어	신표준 한국어	신시선 한국어
마음에 들다	O	O	O	O	O
밥을 새우다	O	O	O	O	O
신경을 쓰다	O	X	O	O	O
기가 막히다	O	X	O	O	X
돈이 들다	X	O	O	O	X
돈을 찾다	X	O	X	O	O
머리를 감다	X	O	O	O	X
바람이 불다	O	X	X	O	O
사진을 찍다	O	X	X	O	O
선을 보다	X	X	O	O	O
수다를 떨다	O	X	X	O	O
야단을 치다	O	O	O	X	X
전화를 걸다	X	O	O	O	X
전화를 끊다	X	O	O	O	X
전화를 받다	X	O	O	O	X
주사를 맞다	X	X	O	O	O
술을 서다	X	X	O	O	O
화가나다	O	X	O	O	X
기억에 남다	O	O	X	X	X
감기에 걸리다	X	X	O	O	X
귀를 기울이다	O	X	O	X	X
기침이 나다	X	X	X	O	O
기승을 부리다	O	X	X	O	X
노래를 부르다	X	X	O	O	X
담배를 피우다	X	X	X	O	O
미소를 짓다	O	X	X	X	O
몸살이 나다	O	O	X	X	X
면접을 보다	X	X	X	O	O
살이 찌다	X	X	O	X	O
상을 타다	X	X	O	O	X
소리를 내다	O	X	O	X	X
소리를 지르다	X	X	O	X	O
손을 대다	O	X	X	O	X
술을 따르다	X	X	X	O	O
시험을 보다	X	X	O	O	X
안경을 쓰다	X	X	O	X	O
야단을 맞다	X	X	O	O	X
잠을 설치다	X	X	X	O	O

전화가 오다	X	O	O	X	X
장난을 치다	X	X	O	X	O
춤을 추다	X	X	O	O	X
최선을 다하다	X	X	X	O	O
판단을 내리다	O	O	X	X	X
화를 내다	X	X	O	O	X

<표-21>과 같이 5 가지의 교재에는 669개의 연어 항목 중에서 중복되게 나타나는 연어 항목은 44개가 있다. 교재의 연어 제시 수량의 평균치인 134개에 32.8%를 차지한다. 그러나 검토한 5가지의 교재에서 모두 확인되는 연어는 '마음에 들다, 밤을 새우다' 두 개밖에 없다. 그리고 '신경을 쓰다'는 4가지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낸다. 나머지 40개 연어 중에 3가지의 교재에 모두 나타나는 연어는 15개가 있고 35개는 2가지의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교재에서 중복된 연어를 직접 교육용 연어 목록으로 선정한 것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교재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학습 자료로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연어가 교육용 연어로 보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도 교재를 비롯한 학습 자료에 의해 교육자의 경험으로 교육용 연어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동의하지만 연어 목록을 추출할 때 역시 공통적으로 나오는 연어에 국한하지 않는다. 개별 교재에서만 제시한 연어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걸치지 않아 교육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고 본다. 기존 연구에서의 이런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피하기 위해 본고에서 중국 현행 각각의 한국어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연어 외, 개별 교재에서 제시한 연어에 대해서도 점검을 통해 본고의 교육용 연어의 선정 조건에 만족한 항목을 최종적인 연어 목록에서 넣을 것이다.

중국에서 현행하는 각 한국어 교재의 연어 목록에 의해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용 연어를 추출하려면 먼저 제시 항목은 본고에서 제시한 교육용 연어의 특성과 정의에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장에서 논의한 결과, 본고에서의 교육용 연어는 어휘적 연어 중의 관습적 연어와 전제적 연어를 가리키고 있다. '체언+용언'형 관습적 연어가 생성된 원인은 대부분 용언의 다의화와 관련된다. 따라서 연어변인 용언의 의미는 확장 의미나 전이 의미인 경우 관습적 연어로 판단하면 된다. 반면에 어휘 결합에 있는 두 어휘가 모두 다의화되지 않아 기

본의미를 유지하며 어휘적 어울림에 제약이 있는 경우, 이 어휘적 연쇄체는 전제적 연어에 해당한다. 어휘적 어울림에 제약이 있는 것은 구성 요소 중 한 어휘가 다른 어휘를 전제하거나 우연히 어울릴 수 있는 어휘의 수가 제한적일 경우이다. '체언+용언'형 전제적 연어에는 대부분 용언을 전제로 하여 명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교재 연어 목록에서 관습적 연어와 전제적 연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양자 간의 차이는 용언의 의미에 있다. 기본 의미가 아닌 경우, 관습적 연어에 해당하고 반대로 전제적 연어인 가능성이 많다. 본고에서 동사의 기본 의미인지를 확인할 때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을 참조한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 동사의 기본 의미가 명시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따로 표시되지 않는다. 이우경(2007)에 따라 기본의미는 실체적이고 물리적인 대상이나 행위와 관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과 결합할 때의 용언의 의미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과 결합하지 못하는 용언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의미를 기본 의미로 삼는다. 연어 구성에서 동사의 의미는 전이적 의미이면 관습적 연어로 볼 수 있으나 기본 의미인 경우, 모두를 전제적 연어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전제적 연어를 생성하려면 어휘적 결합에 제약이 강해서 어휘 간의 결속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분 연어의 구성 요소는 모두 기본의미를 유지하고 있지만 어휘적 결합에 제약이 약하다. 아래의 예를 보겠다.

(1) 가. 눈을 감다

나. 머리를 감다. 떡을 감다

다. 세금을 징수하다, 요금을 징수하다, 회비를 징수하다, 관리비를 징수하다...

(1) '가~나' 중의 첫 번째 항목은 구성 요소가 모두 기본의미를 유지하며 교재에서 연어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가~나는 모두 본고의 연구대상인 전제적 연어로 볼 수 없다. 전제적 연어가 되는 선결 조건은 기본 의미인 동사를 전제로 하여 동사에 어울리는 아주 제한적인 명사를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관계이다. 예시 중에서 '가'의 경우는 '감다'가 '눈꺼풀을 내려 눈동자를 덮다.'라는 의미로

특정한 명사 '눈'과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용언 '감다'의 의미에서 이미 체언 '눈'의 의미를 포함한다. 따라서 용언 '감다'에 의해 '눈'과 같은 한 명사만 요구하고 있다. '나'의 경우는 '감다'가 '머리나 몸을 물로 씻다.'라는 의미로 명사 '머리'의 의미를 포함하여 '머리'를 목적어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머리' 뿐만 아니라 '땀'과 같이 결합할 수도 있다. 이때 어휘 연쇄체는 동사에 의해 요구한 명사의 수는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체적 연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의 경우는 위의 예시와 다르다. '징수하다'는 '(사람이나 단체 따위가 돈을) 내도록 하여 거두어들이다.'라는 의미로 명사 '돈'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때 '징수하다'와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동사는 '돈'이나 '세금' 뿐만 아니라 [돈] 부류의 명사 '요금, 회비, 관리비...' 등 가능하다. 이때 어휘 연쇄체에는 동사와 명사 간에 제한적인 어울림의 제약으로 생성한 결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체적 연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전체적 연어를 판별할 때 동사의 기본의미를 요구하는 조건 외에 어휘적 어울림에 있는 제한적인 제약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연어를 구성하는 한 어휘가 다른 어휘의 의미를 포함하고, 그 출현을 강제하는 경우, 전체적 연어에 해당한다. 즉, 기본의미인 용언이 체언의 의미를 포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어휘적 연어 중에서 관습적 연어와 전체적 연어를 식별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연어의 동사의 의미와 어휘적 결합의 제약성과 같은 두 가지의 기준에 따라 교재 연어 목록을 다시 검토하여 2차적 교재 연어 목록을 추출하도록 하겠다.

먼저 본고의 연구 범위에 있지 않는 연어 항목은 아래 <표-22>에서 제시하였다.

<표-22> 본고에서 제시된 연어의 정의의 범위에서 제외된 교육용 연어 목록 (96개)

가방을 들다, 간을 하다, 갈등이 심화되다, 감사를 드리다, 거리가 있다, 거울을 보다, 경황이 없다, 고민을 털어놓다, 고층을 털어놓다, 고층이 빠르다, 굽을 갈다, 균형이 잡히다, 기대가 되다, 기운이 없다, 기타를 타다, 길 가다, 끈기가 있다, 나무를 하다, 눈을 돌리다, 도시락을 싸다, 도움을 청하다, 돈을 건다, 마당을 쓸다, 마중을 나가다, 마찰을 줘다, 마찰을 일으키다, 마찰이 심하다, 말씀을 드리다, 말이 아니다, 맞선을 보다, 머리를 다듬다, 머리를 감기다, 먼지를 털다, 몸이 붓다, 무리가 되다, 문제가 생기다, 물건을 들다, 바닥을 드러내다, 바람을 피우다, 발 빠르다, 방해가 되다, 버릇이 없다, 번호표를 뽑다, 벽을 뚫다, 별을 따다, 사건이 벌어지다, 세금을

정수하다,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 손에 잡히다, 손을 잡다, 손을 흔들다, 수리를 요청하다, 시간이 지나다, 시집을 가다, 싸움이 잦다, 안간힘을 쓰다, 안부가 궁금하다, 야망이 크다, 약속을 미루다, 열량을 소모하다, 열풍을 하다, 영양이 담기다, 유리를 깨다, 음식을 내놓다, 이사를 오다, 이해심이 많다, 인사를 나누다, 인사를 드리다, 인사를 받다, 인사를 시키다, 인신을 공격하다, 인심이 후하다, 일리가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다, 자료를 찾다, 전화를 드리다, 전화를 주다, 전화벨이 울리다, 정이 많다, 정이 많다, 조언을 구하다, 조의를 표하다, 줄음을 쏟아지다, 종이 울리다, 주객이 전도되다, 주사를 맞히다, 짝이 없다, 철이 없다, 청소기를 밀다/돌리다, 춤을 추다, 충고를 받아들이다, 플러그를 뽑다, 피부로 느끼다, 한몫 잡다, 화해를 청하다

<표-22>과 같이 중국 현행 교재에서 제시된 연어 항목 중에 관습적 연어와 전체적 연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총 96개가 있다. 주로 아래와 같은 5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가. 가방을 들다, 몸이 붓다

나. 간을 하다

다. 기대가 되다, 방해가 되다

라. 머리를 감기다, 인사를 시키다

마. 일리가 있다, 소용이 없다, 정이 많다

(2) '가'는 어휘적 결합 관계에는 용언의 의미는 다의화되지 않고 본의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에 나오는 체언에 대해서도 어휘적 결합에 제한적인 제약이 없거나 약한 것들이다. 예를 들면, '가방을 들다' 외에 '물건을 들다, 책을 들다, 무기를 들다....' 등과 같이 '들다'의 기본의미와 결합하여 생성하는 어휘적 연쇄체가 많다. 이런 어휘적 결합 관계는 자유 결합으로 볼 수도 있다. '나'의 경우는 '하다'류 연어이다. '하다'류 연어를 연구 범위에서 배제한 이유는 '하다'로 구성된 어휘적 결합 관계는 같은 어휘소로 생성된 '하다'류 동사와 동일한 의미의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간을 하다'와 동사 '간하다'는 용법이나 의미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이때 '하다'류 연어가 나타나는 원인은 일부 명사나 동명사 뒤에 '하다'를 붙이면 동사를 생성할 수 있는 조어법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의 경우는 '되다'류 연어에 해당한다. '되다'가 용언으로서 생성한 연어는 '하다'류 연어와 같이 연어보다는 한 단어로 처리하는 것은 마땅하다. 단지 '되다'는 '동작이나 행동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하다' 동사와 달리 '어떤 일이 행하여'

이루어진 상태'를 설명한다. 예를 들면, '방해가 되다'는 '방해하다' 혹은 '방해를 하다'라는 구체적인 행위나 동작에 의해 얻은 결과나 이루어진 상태를 강조한다. 그 다음, '라'의 경우는 사동형 연어이다. '머리를 감기다'나 '인사를 시키다'의 원형은 '머리를 감다'와 '인사를 하다'이다. 연어 구성에서 동사의 사동형태로 인해 이루는 형태적 변화는 사동법 등 문법 문제로 처리해야 하고 새로운 연어를 생성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마지막에 '마'의 경우는 '있다, 없다, 많다' 등 상태동사'류 연어에 해당한다. 비록 '있다, 없다, 많다' 등 상태동사는 사전에서 여러 가지의 세부적 의미가 있는데 모두 [존재하다]나 [존재하지 않다]의 의미와 비슷하다. 그리고 [존재]의미의 상태동사는 앞에 나오는 명사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연어로 보기도 어렵다.

지금까지 중국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한 연어에 대해 다시 두 방면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각 교재에서 중복되게 나오는 연어 항목은 44개가 있고 이 44개 연어를 직접 교육용 연어 목록에서 넣을 예정이다. 둘째, 교재에서 제시된 연어 중에 본 연구 연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연구 범위에 있지 않는 항목은 총 96개가 있다. 검토한 결과, 중복된 연어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연어를 빼면 2차적으로 추출된 교재 연어 목록은 총 445개 항목이 있다. 다음 소절에서 이 445개 연어에 대해 사용 빈도와 학습 난이도와 같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교육용 연어로 선정 여부의 타당성을 논의할 것이다.

3.2. 교육용 연어의 사용 빈도와 학습 난이도

앞 절에서 교재 분석을 통해 중국 현행 한국어 교재의 연어 목록을 추출했으나 이런 연어를 교육용 연어 목록으로 선정하는 이유를 이절에서 따로 논의하여야 한다. 교육용 연어 선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어의 사용 빈도수와 학습 난이도와 같은 2 가지의 기준에 따라 고찰할 것이다,

먼저 연어의 빈도수에 대한 조사는 『학습용 기본 명사 연어 빈도 사전』 중에서 제시한 연어 빈도를 참조하여 진행할 것이다. 『학습용 기본 명사 연어 빈도 사전』은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2003)>에 실린 어휘 중 명

사료의 연어 구성을 <현대국어 사용빈도 조사 2(2005)>에 사용된 300만 어절 코퍼스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서는 각 연어를 연어 구성의 빈도 및 결합 강도(PMI)를 바탕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1류는 빈도도 높고 결합 강도도 높은 부류이다. 제2류는 빈도는 낮지만 결합 강도가 높은 부류이다. 제3류와 제4류는 빈도와 결합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어 항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교재에서 제시된 연어 항목 중에서 제1류와 제2류에 해당하는 고빈도 연어를 교육용 연어로 삼기로 했다.

그리고 연어의 학습 난이도에 대한 조사는 주로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2003)>⁴²⁾를 바탕으로 진행할 것이다. 보고서에서 학습용 어휘를 A, B, C 3개의 등급으로 나누었다. 본고에서 연어의 학습 난이도를 판단할 때도 A, B, C로 초급, 중급, 고급 수준에 해당하는 연어의 등급수를 매길 것이다. 연어의 학습 난이도를 판정한 방법은 연어를 구성한 두 개의 어휘소 각각의 등급을 고려하여 둘 중에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연어의 학습 등급을 매길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23>에서 제시한다. 그리고 연어의 구성요소는 한국어 학습용 어휘의 범위에 있지 않는 경우, 해당된 연어를 교육용 연어 목록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처럼 연어의 학습 난이도를 정할 때 연어를 구성하는 어휘소 중에서 연어변이나 연어핵 하나의 어휘 등급에 두지 않고 두 어휘소의 등급을 모두 고려하여 학습 등급을 매기는 방법을 취한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 어휘가 아닌 어휘소로 구성된 연어를 교육용 연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은 본고의 연구 범위를 부합하는 동시에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표-23> 연어 학습 난이도 판정 기준

체언 어휘 등급	용언 어휘 등급	연어 학습 난이도
A	A	A
A	B	B
A	C	C
B	A	B
B	B	B
B	C	C

42) 한국어 학습용 어휘(5965 개)는 국립국어원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이루어진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에서 출현 빈도가 15회 이상인 것으로 빈도 순위 10352 등 안에 든 어휘를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한국어 학습용 어휘는 여섯 명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에 의해서 어휘의 빈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고빈도 교육용 어휘 목록이다.

C	A	C
C	B	C
C	C	C

위에서 제시한 방법과 같이 중국 현행 한국어 교재 연어 목록(445개)에 대한 빈도와 난이도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24>와 같다.

<표-24> 교재 연어 목록에 대한 빈도 및 학습 난이도 분석⁴³⁾

	빈도수	PMI	빈도 유형 ⁴⁴⁾	학습 등급		언어학습 난이도	선정 결과
				체언	용언		
가뭇이 들다	5	9.82	2	C	A	C	O
가방을 메다	7	10.64	1	A	B	B	O
가슴이 미어지다	/			A	/		X
가업을 잇다	//			/	C		X
각광을 받다	//			/	A		X
각이 지다	//			/	C		X
간을 보다	2	1.91	2	C	A	C	O
갈등을 빚다	6	9.66	2	C	/		X
갈등을 해소하다	7	10.86	1	C	C	C	O
갈증이 나다	/			C	A	C	O
감기가 낫다	/			A	B	B	O
감기가 들다	2	7.82	2	A	A	A	O
감기에 걸리다	15	10.84	1	A	B	B	O
감정을 넣다	/			B	A	B	O
값을 깎다	3	9.64	2	A	A	A	O
값이 나가다	5	6.22	2	A	A	A	O
거절을 당하다	/			C	C	C	O
겉이 나다	2	8.21	2	B	A	B	O
게으름을 피우다	/			C	A	C	O
결혼식을 올리다	2	6.06	2	A	C	C	O
경기가 풀리다	/			C	B	C	O
경험을 쌓다	17	9.64	2	B	B	B	O
계획을 세우다	72	9.85	2	A	B	B	O
고개를 숙이다	90	10.46	1	B	B	B	O
고기를 재우다	/			A	C	C	O

43) 중국 현행 교재에서 제시한 연어의 빈도수는 『학습용 기본 명사 연어 빈도 사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표-24>에서 빈도수를 //로 표기한 연어 항목은 해당 체언이 빈도 사전의 표제어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 표기된 연어 항목의 경우 체언은 빈도 사전에 등재되었지만 해당 연어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연어 빈도 사전에서 일부 연어의 빈도수를 찾지 못한 원인은 코퍼스의 크기가 작아서 해당 연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교재에 제시된 연어 자체가 학습용 어휘로 구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어의 빈도수를 조사한 다음에 연어를 구성하는 어휘가 학습용 어휘의 범위 안에 있는지 그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민을 해결하다	2	7.29	2	B	B	B	O
고민이 생기다	/			B	A	B	O
고장이나다	3	9.75	2	B	A	B	O
고집이 세다	7	13.9	1	C	B	C	O
곤란을 겪다	//			C	C	C	O
골치가 아프다	3	11.69	1	C	A	C	O
곰팡이가 슬다	//			/	/		X
공기를 쐬다	3	12.29	1	B	/		X
공을 들다	2	4.17	2	/	A		X
과일이 열리다	/			A	B	B	O
관계를 맺다	50	9.84	2	B	C	C	O
관심을 기울이다	50	9.25	2	B	C	C	O
구경을 가다	2	5.47	2	A	A	A	O
구두를 신다	2	9.11	2	A	A	A	O
구름이 끼다	3	10.77	1	A	B	B	O
구미에 맞다	//			/	B		X
권세를 부리다	//			/	/		X
귀를 기울이다	12	11.16	1	A	C	C	O
균형을 잡다	8	7.37	2	C	A	C	O
근육이 생기다	/			C	A	C	X
글을 적다	/			B	A	B	X
금리를 인상하다	//			/	C		X
기가 막히다	66	12.09	1	C	B	C	O
기분이 상하다	2	8.38	2	A	B	B	O
기세를 부리다	//			/	/		X
기승을 부리다	//			/	/		X
기억에 남다	38	10.35	1	B	B	B	O
기침이 나다	/			B	A	B	O
길을 놓다	/			A	A	A	O
길이 막히다	4	6.8	2	A	B	B	O
김치를 담그다	3	11.44	1	A	B	B	O
꽃이 피다	31	11.6	1	A	B	B	O
꾸중을 듣다	8	9.11	2	C	A	C	O
꿈을 꾸다	91	12.62	1	A	B	B	O
꿈을 이루다	11	6.44	2	A	B	B	O
끝을 보다	/			A	A	A	O
나이가 들다	59	8	2	A	A	A	O
나이를 먹다	2	3.39	2	A	A	A	O
날을 잡다	/			A	A	A	O
납득이 가다	//			/	A		X
낮을 가리다	//			B	B	B	O
냄새가 나다	55	8.58	2	B	A	B	O
넋을 놓다	//			/	A		X
넋을 잃다	//			/	A		X
노래를 부르다	23	7.9	2	A	A	A	O
녹이 슬다	//			/	/		X

녹초가 되다	//			/	A		X
농사를 짓다	40	9.97	2	B	B	B	O
높이를 맞추다	/			B	B	B	O
눈길을 끌다	81	10.75	1	C	B	C	O
눈에 띄다	179	12.17	1	A	C	C	O
눈에 선하다	6	11.78	1	A	/		X
눈을 감다	161	10.77	1	A	B	B	O
눈을 돌리다	26	6.45	4	A	B	B	X
눈을 뜨다	177	10.58	1	A	B	B	O
눈이 그치다	2	5.14	4	A	B	B	X
눈이 내리다	28	7	2	A	A	A	O
눈이 높다	/			A	A	A	O
눈이 오다	12	3.81	2	A	A	A	O
눈이/비가 내리다	28	7	2	A	A	A	O
눈치가 보인다	//			/	/		X
눈치가 빠르다	//			/	A		X
눈치를 보다	//			/	A		X
눈치를 채다	//			/	/		X
느낌이 들다	118	8.87	2	B	A	B	O
능력을 펼치다	/			B	/		X
높에 빠지다	//			/	B		X
단풍이 들다	2	7.65	2	C	A	C	O
달이 뜨다	14	10.31	1	A	B	B	O
담배를 끊다	5	6.9	4	A	B	B	X
담배를 피우다	92	11.1	1	A	A	A	O
당직을 서다	//			/	A		X
대가를 치르다	5	12.13	1	C	C	C	O
대출을 받다	2	5.67	2	C	A	C	O
더위를 먹다	/			B	A	B	O
더위를 타다	/			B	C	C	O
덕을 보다	9	5.9	2	C	A	C	O
도둑이 들다	3	6.88	2	B	A	B	O
도를 넘어서다	//			C	B	C	O
도망을 가다	12	7.47	2	C	A	C	O
도망을 치다	8	9.65	2	C	C	C	O
돈을 갚다	10	8.21	2	A	C	C	O
돈을 벌다	80	10.09	1	A	B	B	O
돈을 쓰다	17	5.08	2	A	A	A	O
돈을 찾다	7	3.84	2	A	A	A	O
돈이 들다	13	5.73	2	A	A	A	O
돈이 떨어지다	4	5.17	2	A	B	B	O
동아리에 들다	4	8.82	2	B	A	B	O
땀이 나다	5	6.61	2	B	A	B	O
뚜껑을 닫다	2	11.03	1	B	A	B	O
땀을 들이다	//			/	/		X
땀을 펴다	/			B	B	B	O

마늘을 다지다	/			B	C	C	O
마음을 놓다	6	4.84	2	A	A	A	O
마음에 들다	94	8.31	2	A	A	A	O
마음을 먹다	14	4.42	2	A	A	A	O
마음을 졸이다	6	9.77	4	A	B	B	X
마음이 넓다	4	5.19	4	A	A	A	X
마음이 쓰이다	3	4.68	4	A	B	B	X
말문을 열다	//			/	A		X
말문이 막히다	//			/	B		X
말썽을 부리다	//			/	B		X
말썽을 피우다	//			/	A		X
말을 걸다	2	8.64	2	A	A	A	O
말을 꺼내다	39	6.49	4	A	B	B	X
말이 아니다	/			A	A	A	O
맛을 보다	12	4.74	2	A	A	A	O
맛이 부드럽다	/			A	B	B	O
맛장구를 치다	//			/	C		X
맥을 잇다	//			/	C		X
머리를 감다	14	11.55	1	A	B	B	O
머리를 깎다	11	8.87	4	A	A	A	X
머리를 식히다	2	8.88	4	A	/		X
머리에이다	7	11.7	1	A	/		X
명이 들다	//			/	A		X
명이 들다	//			/	A		X
메달을 따다	//			/	B		X
먹을 감다	//			/	B		X
면접을 보다	/			C	A	C	O
명복을 빌다	//			/	B		X
모자를 쓰다	4	10.81	1	A	A	A	O
목소리가 쉬다	/			B	B	B	O
목이 쉬다	7	12.99	1	A	B	B	O
목이 타다	6	9.67	2	A	C	C	O
몸부림을 치다	//			/	C		X
몸살을 앓다	//			B	B	B	O
몸살이 나다	//			B	A	B	O
몸을 가꾸다	/			A	B	B	O
몸을 담그다	6	6.98	4	A	B	B	X
몸이 떨리다	3	7.25	2	A	B	B	O
무대에 올리다	7	8.75	2	C	C	C	O
무시를 당하다	//			/	C		X
문을 나서다	10	5.79	4	A	B	B	X
문자를 보내다	/			C	A	C	O
문제를 내다	5	3.14	4	A	A	A	X
문제를 맞히다	5	9.02	4	A	/		X
문제를 풀다	38	7.59	2	A	B	B	O
물에 빠지다	29	9.28	2	A	B	B	O

물을 들이다	/			/	/		X
미소를 짓다	71	9.81	2	B	B	B	O
밑줄을 치다	//			/	C		X
바가지를 쓰다	/			C	A	C	O
바둑을 두다	//			/	B		X
바람을 맞다	3	7.03	4	A	B	B	X
바람이 불다	57	11.03	1	A	A	A	O
바람이 일다	3	7.5	4	A	/		X
바탕을 두다	//			/	B		X
박수를 치다	25	10.02	1	B	C	C	O
발걸음을 내딛다	/			C	/		X
발길이 끊기다	/			C	/		X
발길이 닿다	/			C	B	C	O
밤을 새우다	4	6.26	2	A	C	C	O
밥맛이 떨어지다	//			B	B	B	O
방이 나가다	/			A	A	A	O
배가 고프다	36	13.18	1	A	A	A	O
배탈이 나다	//			/	A		X
보험에 들다	//			B	A	B	O
부탁을 들어주다	//			B	C	C	O
부탁을 받다	//			B	A	B	O
북을 치다	//			/	A		X
불길이 일다	//			/	/		X
불신을 낳다	//			/	B		X
불에 데다	4	13.33	1	A	C	C	O
불을 끄다	26	10.57	1	A	A	A	O
불을 피우다	11	8.31	2	A	A	A	O
불이 나다	23	7.58	2	A	A	A	O
비가 그치다	6	7.38	4	A	B	B	X
비가 오다	86	7.03	2	A	A	A	O
비가/눈이 내리다	75	8.8	2	A	A	A	O
비디오를 찍다	2	7.05	2	A	A	A	O
비를 맞다	30	10.61	1	A	B	B	O
비탄에 빠지다	//			/	B		X
빗더미에 앉다	//			/	A		X
빗을 झा다	8	11.74	1	C	C	C	O
사고가 나다	24	8.14	2	B	A	B	O
사력을 다하다	//			/	B		X
사진을 찍다	55	10.92	1	A	A	A	O
산책을 가다	/			A	A	A	O
살을 빼다	4	9.79	2	B	B	B	O
살이 빠지다	3	7.34	2	B	B	B	O
살이 찌다	26	13.41	1	B	B	B	O
상승세를 타다	//			/	C		X
상을 차리다	/			B	B	B	O
상을 타다	5	11.57	1	B	C	C	O

상을 휩쓸다	2	10.57	4	B	/		X
상처를 입다	5	9.06	2	B	A	B	O
샘이 나다	//			/	A		X
생각에 잠기다	57	11.77	1	A	C	C	O
생각이 나다	79	6.4	2	A	A	A	O
생각이 들다	463	8.76	2	A	A	A	O
생각이 짧다	3	4.11	4	A	A	A	X
생떼를 쓰다	//			/	A		X
생일을 맞다	//			A	B	B	O
선을 보다	//			/	A		X
성에 차다	2	7.32	4	C	C	C	X
성을 내다	/			C	A	C	O
세상을 뜨다	8	10.89	1	B	C	C	O
세탁기를 돌리다	//			A	B	B	O
소득을 올리다	//			/	C		X
소란을 떨다	//			/	B		X
소름이 끼치다	//			/	/		X
소리를 내다	134	8.38	2	B	A	B	O
소리를 지르다	86	10.38	1	B	B	B	O
소문이 나다	21	7.87	2	B	A	B	O
속이 쓰리다	3	12.04	1	A	/		X
속이 타다	5	9.45	4	A	C	C	X
손가락질을 받다	//			/	A		X
손을 꼽다	/			A	C	C	O
손을 대다	47	8.27	2	A	C	C	O
손을 베다	/			A	C	C	O
손을 보다	10	1.37	4	A	A	A	X
수다를 떨다	//			/	B		X
수리를 받다	//			C	A	C	O
술을 따르다	19	10.38	1	A	B	B	O
숨을 거두다	18	9.11	4	B	C	C	X
숨이 막히다	31	11.34	1	B	B	B	O
숨통이 트이다	//			/	C		X
스키를 타다	3	9.81	4	A	A	A	X
스트레스를 풀다	3	8.73	4	A	B	B	X
시간에 쫓기다	7	9.24	4	A	C	C	X
시간을 내다	11	4.95	2	A	A	A	O
시간이 걸리다	40	7.38	2	A	B	B	O
시간이 나다	6	3.34	2	A	A	A	O
시간이 흐르다	/			A	B	B	O
시를 짓다	9	6.2	4	C	B	C	X
시비를 걸다	//			/	A		X
시치미를 떼다	//			/	B		X
시험에 떨어지다	2	7.38	2	A	B	B	O
시험에 붙다	/			A	B	B	O
시험을 보다	19	5.63	2	A	A	A	O

신경을 쓰다	113	9.59	2	C	A	C	O
신명이 나다	//			/	A		X
신방을 차리다	//			/	B		X
신세를 갚다	/			C	C	C	O
신세를 지다	/			C	B	C	O
신이 나다	/			C	A	C	O
신청서를 내다	2	7.67	2	C	A	C	O
신호가 가다	4	6.38	2	B	A	B	O
실감이 나다	3	9.6	2	C	A	C	O
실랑이를 벌이다	//			/	B		X
실의에 빠지다	//			/	B		X
싫증을 내다	//			/	A		X
싫증이 나다	//			/	A		X
심혈을 기울이다	//			/	C		X
쌍벽을 이루다	//			/	B		X
아기를 재우다	/			A	C	C	O
아이를 낳다	36	9.58	2	A	B	B	O
아이를 보다	7	2.89	2	A	A	A	O
아침을 떨다	//			/	B		X
안개가 끼다	4	11.22	1	C	B	C	O
안경을 끼다	3	10.31	1	A	B	B	O
안경을 쓰다	3	9.67	2	A	A	A	O
안부를 묻다	5	9.73	2	C	A	C	O
안부를 전하다	3	9.34	2	C	B	C	O
압도를 당하다	//			/	C		X
양탈을 부리다	//			/	/		X
애가 타다	4	9.76	2	C	C	C	O
애를 쓰다	61	9.13	2	C	A	C	O
야단을 맞다	8	10.13	1	C	B	C	O
야단을 치다	19	10.48	1	C	C	C	O
약속을 어기다	/			A	C	C	O
약속을 지키다	25	9.32	2	A	B	B	O
약을 바르다	2	5.7	2	A	B	B	O
약을 올리다	2	3.24	2	C	C	C	O
양말을 신다	4	11.13	1	A	A	A	O
양팔을 벌리다	//			/	B		X
양해를 구하다	//			/	B		X
엄살을 부리다	//			/	/		X
열을 띠다	/			B	/		X
열을 올리다	30	10.12	1	B	C	C	O
열이 나다	10	7.67	2	B	A	B	O
영문을 모르다	//			/	A		X
영향을 미치다	179	10.7	1	C	B	C	O
예를 들다	462	9.69	2	B	A	B	O
예의가 밝다	/			C	A	C	O
예의를 갖추다	8	10.17	1	C	C	C	O

예절이 밝다	/			B	A	B	O
오해를 받다	6	6.65	2	C	A	C	O
오해를 사다	6	8.46	2	C	A	C	O
웃을 짓다	7	5.04	4	A	B	B	X
요금을 내다	9	33.3	2	B	A	B	O
욕심을 부리다	7	10.96	1	B	/		X
욕을 먹다	5	6.16	2	C	A	C	O
용기를 내다	35	9.04	2	C	A	C	O
용서를 빌다	12	12.9	1	C	B	C	O
우산을 쓰다	11	10.73	1	A	A	A	O
운명을 맞추다	/			C	B	B	O
원수를 갚다	//			/	C		X
음식이 체하다	/			A	C	C	O
음악/텔레비전을 틀다	5	8.72	2	A	C	C	O
의심을 사다	/			C	A	C	O
의욕을 잃다	9	9.46	2	C	A	C	O
이민을 가다	3	6.25	2	C	A	C	O
이해가 가다	18	5.62	2	B	A	B	O
인기를 끌다	68	10.7	1	B	B	B	O
인기를 누리다	22	10.58	1	B	/		X
인기를 얻다	38	8.78	2	B	B	B	O
인물이 좋다	2	3.83	2	C	A	C	O
인사를 가다	/			A	A	A	O
인사를 나누다	26	7.96	2	A	B	B	O
인상 깊다	11	9.03	2	B	B	B	O
인성을 높이다	//			/	B		X
인정을 받다	//			C	A	C	O
일손을 놓다	5	9.48	2	C	A	C	O
일을 저지르다	20	7.54	4	A	C	C	X
일익을 담당하다	//			/	B		X
입맛이 당기다	3	11.76	1	C	B	C	O
입에 맞다	2	4.84	2	A	B	B	O
입에 오르내리다	12	11.59	1	A	C	C	O
입을 벌리다	22	9.93	2	A	B	B	O
자리를 굳히다	12	9.92	4	A	C	C	X
자리를 잡다	70	7.87	2	A	A	A	O
자존심을 건드리다	5	11.42	1	C	C	C	O
잔치를 치르다	2	10.07	1	B	C	C	O
잠을 설치다	9	12.13	1	A	/		X
잠이 들다	78	8.7	2	A	A	A	O
장갑을 끼다	6	12.94	1	B	B	B	O
장난을 치다	13	9.77	2	C	C	C	O
장이 서다	//			/	A		X
재미가 붙다	/			A	A	A	O
적성에 맞다	12	10.85	1	C	B	C	O
전공을 살리다	/			B	B	B	O

전보를 치다	//			/	C		X
전화가 오다	44	4.7	2	A	A	A	O
전화를 걸다	2	11.02	1	A	A	A	O
전화를 끊다	34	9.28	2	A	B	B	O
전화를 바꾸다	/			A	A	A	O
전화를 받다	66	6.61	2	A	A	A	O
점수를 매기다	/			B	/		X
정신을 차리다	44	10.94	1	B	C	C	O
정신이 팔리다	9	9.9	2	B	B	B	O
정미 들다	8	6.59	2	B	A	B	O
제사를 지내다	26	11.21	1	C	A	C	O
조건에 맞다	2	6.57	2	B	B	B	O
조언을 따르다	//			/	B		X
조예가 깊다	//			/	B		X
조화를 이루다	//			/	B		X
존경을 받다	//			/	A		X
주눅 들다	//			/	A		X
주목을 받다	//			/	A		X
주사를 맞다	6	11.59	1	B	B	B	O
주의 깊다	8	9.31	2	C	B	C	O
줄을 서다	30	7.91	2	B	A	B	O
줄을 치다	3	8.7	4	B	C	C	X
증명서를 떼다	//			/	B		X
진심이 어리다	/			C	B	C	O
짐을 꾸리다	10	10.86	1	B	C	C	O
짐작이 가다	16	7.95	2	C	A	C	O
짐을 나가다	44	7.09	2	A	A	A	O
짜증을 내다	12	9.32	2	B	A	B	O
짜증을 부리다	4	10.72	1	B	/		X
짜증이 나다	20	9.39	2	B	A	B	O
차가 막히다	2	7.07	2	A	B	B	O
차를 세우다	21	7.48	2	A	B	B	O
책을 펴다	5	6.22	2	A	B	B	O
책임감이 강하다	/			C	B	C	O
짐을 챙기다	9	9.21	2	B	B	B	O
처방전을 받다	//			/	A		X
천대를 받다	//			/	A		X
천둥이/번개가치다	/			C	C	C	O
체중이 줄다	3	10.32	2	B	B	B	O
초상을 치르다	//			/	C		X
최선을 다하다	89	12.98	1	B	B	B	O
추앙을 받다	//			/	A		X
춤을 추다	6	13.83	1	A	A	A	O
충고를 따르다	2	5.61	2	C	B	C	O
치를 떨다	//			/	B		X
친구를 사귀다	8	10.54	1	A	C	C	O

커피를 뽑다	3	7.41	2	A	B	B	O
컴퓨터를 끄다	/			A	A	A	O
컴퓨터를 치다	/			A	A	A	O
콧물이 나다	//			/	A		X
큰일이 나다	17	10.02	1	B	A	B	O
키가 크다	2	10.2	1	A	A	A	O
탁구를 치다	2	11.24	1	C	A	C	O
테니스를 치다	/			A	A	A	O
틀에 박히다	9	12.34	1	C	C	C	O
파도가 일다	/			B	/		X
판단을 내리다	13	8.13	2	B	A	B	O
판단이 서다	8	8.1	2	B	A	B	O
판을 치다	14	9.52	2	C	A	C	O
팔자가 세다	//			/	B		X
팔짱을 끼다	//			/	B		X
표 나다	/			A	A	A	O
풀이 죽다	/			B	B	B	O
피가 나다	6	5.88	2	B	A	B	O
피눈물 나다	//			/	A		X
피로가 풀리다	8	9.73	2	B	B	B	O
핀잔을 듣다	//			/	A		X
핑계를 대다	10	11.85	1	C	C	C	O
한숨을 돌리다	/			B	B	B	O
한숨을 쉬다	2	12.17	1	B	B	B	O
한숨을 짓다	3	5.02	4	B	B	B	X
한턱을 내다	//			/	A		X
해를 끼치다	16	11.5	1	C	/		X
핸드폰을 끄다	/			A	B	B	O
핸드폰을 켜다	/			A	A	A	O
향이 배다				C	C	C	O
헛소문을 퍼뜨리다	//			/	C		X
형편이 어렵다	5	7.35	2	C	A	C	O
혜택을 보다	8	4.52	2	C	A	C	O
호감을 사다	//			/	A		X
호들갑을 떨다	//			/	B		X
혼란을 겪다	//			/	C		X
홍수가 나다	6	9.02	2	C	A	C	O
화가 나다	111	9.33	2	A	A	A	O
화를 내다	79	9.7	2	A	A	A	O
화를 풀다	/			A	B	B	O
활기가 차다	/			C	C	C	O
회포를 풀다	//			/	B		X
후회가 들다	2	6.91	2	C	A	C	O
휴가를 떠나다	4	8.4	2	B	A	B	O
휴식을 취하다	29	12.05	1	C	B	C	O
흉내를 내다	26	10.32	1	C	A	C	O

흥을 보다	//			/	A		X
흥을 잡다	//			/	A		X
힘을 쓴다	26	9.08	2	A	B	B	O
힘을 합하다	13	9.49		A	C	C	O
힘이 차다	/			A	C	C	O

이처럼 중국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한 445개 연어 중에서 사용 빈도와 학습 난이도는 모두 본고의 선정 기준, 즉 선정된 연어의 빈도 유형은 『학습용 기본 명사 연어 빈도 사전』에서 제시하는 제1류나 제2류의 연어의 범위에 속하는 동시에 해당 연어의 구성 요소는 모두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2003)>에서 제시하는 학습 난이도 C급 이상인 어휘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의 조건에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291개 연어를 교육용 연어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어는 모두 한국어 학습용 어휘로 구성되고 출현 빈도가 높고 결합 강도가 강한 연어이다. 구체적인 선정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빈도수에 따라 연어 빈도 사전에서 빈도 유형이 제1류와 제2류에 해당하는 연어를 교육용 연어로 선정한다. 저빈도 연어, 즉 빈도 유형이 제3류나 제4류 연어에 해당하는 것을 배제한다. 그러나 코퍼스의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연어 사전에서 빈도수를 찾지 못한 연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어들을 단순히 저빈도 연어로 보기란 어렵다. 따라서 교육용 연어를 선정한 제2 단계는 연어의 학습 난이도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한국어 학습용 어휘의 학습 등급에 따라 연어의 학습 난이도의 등급을 매기고 만약 연어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학습용 어휘가 아닌 경우 해당하는 연어를 교육용 연어 목록에서 제외시킨다. 이어서 실례를 통하여 교육용 연어 선정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3)가. 감기에 걸리다 (빈도 유형 제1류 연어, 학습 난이도: A+B=B급)

나. 마음이 쓰이다 (빈도 유형 제4류 연어, 학습 난이도: A+B=B급)

다. 날을 잡다 (빈도 유형: 표제어 '날' 이 있지만 연어 '날을 잡다'가 없다, 학습 난이도:

44) 빈도 유형은 연어 구성의 빈도 및 결합 강도(PMI)를 바탕으로 연어 빈도 사전에서 등재된 연어에 대해 나눈 4가지 유형이다. 제1류는 빈도도 높고, 결합 강도도 높은 부류이다. 제2류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높고 결합 강도가 높은 부류이다. 제3류는 빈도는 낮지만, 결합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류이다. 제3류는 연어 사전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제4류는 빈도와 결합 강도는 모두 낮은 부류이다. 본고에서 빈도수에 따라 선정된 연어는 제1류와 제2류 연어에 해당한다. 표24에서 연어의 빈도 유형을 모두 수자만으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제1류 연어의 빈도 유형을 '1'로 표기한다.

A+B=B급

- 라. 인정을 받다 (빈도 유형: 표제어가 없다, 학습 난이도: C+A=C급)
- 마. 갈등을 빚다 (빈도 유형: 제2류 연어, 학습 난이도: C+X=X)
- 바. 주눅이 들다 (빈도 유형: 표제어가 없다, 학습 난이도: X+A=X)

(3) 중에서 '감기에 걸리다'의 빈도는 제1류 연어에 해당하고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체언 '감기'는 A급 학습 어휘이며 용언 '걸리다'는 B급 학습 어휘라서 연어 구성의 학습 난이도는 B급 중급 연어에 해당한다. 연어 '마음이 쓰이다'의 구성요소는 모두 학습 어휘의 범위에 있지만 연어 빈도가 낮은 제4류 연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용 연어 목록에서 배제해야 한다. 반면에 '날을 잡다'와 '인정을 받다'는 비록 연어 빈도 사전에서 관련된 연어의 빈도를 찾지 못하지만 연어의 학습 난이도는 적당한 정도이기 때문에 교육용 연어 목록에서 포함하여야 한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연어의 구성요소 중 하나가 학습 어휘가 아닌 이유로 제외시키는 유형이다. '갈등을 빚다'의 연어 빈도 유형은 비록 제2류 연어에 해당하지만 용언 '빚다'는 학습 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용 연어로 볼 수 없다. '주눅이 들다'는 연어 사전에서 빈도를 찾지 못할뿐더러 체언 '주눅'도 학습 어휘가 아님으로 교육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4. '체언+용언'형 어휘적 연어 목록 구성

이 절에서는 앞 절에서의 교육용 연어의 선정 결과를 등급에 따라 배열하여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연어 목록을 구성할 것이다. 등급별의 목록은 다음 <표-25~27>과 같이 제시한다.

<표-25>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초급 연어 교육 목록 (64개)

감기가 들다	눈이 오다	바람이 불다	시간을 내다	전화를 바꾸다
값을 깎다	눈이/비가 내리다	방이 나가다	시간이 나다	전화를 받다
값이 나가다	담배를 피우다	배가 고프다	시험을 보다	집을 나가다
구경을 가다	돈을 쓰다	불을 끄다	아이를 보다	춤을 추다
구두를 신다	돈을 찾다	불을 피우다	안경을 쓰다	컴퓨터를 끄다

길을 놓다	돈이 들다	불이 나다	양말을 신다	컴퓨터를 치다
끝을 보다	마음을 놓다	비가 오다	우산을 쓰다	키가 크다
나이가 들다	마음에 들다	비가/눈이 내리다	인사를 가다	테니스를 치다
나이를 먹다	마음을 먹다	비디오를 찍다	자리를 잡다	표 나다
날을 잡다	말을 걸다	사진을 찍다	잠이 들다	핸드폰을 켜다
노래를 부르다	말이 아니다	산책을 가다	재미가 붙다	화가 나다
눈이 내리다	맛을 보다	생각이 나다	전화가 오다	화를 내다
눈이 높다	모자를 쓰다	생각이 들다	전화를 걸다	

<표-26>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중급 언어 교육 목록 (115개)

가방을 메다	농사를 짓다	물에 빠지다	신호가 가다	주사를 맞다
감기가 낫다	높이를 맞추다	미소를 짓다	아이를 낳다	줄을 서다
감기에 걸리다	눈을 감다	밥맛이 떨어지다	안경을 끼다	짜증을 내다
감정을 놓다	눈을 뜨다	보험에 들다	약속을 지키다	짜증이 나다
겉이 나다	느낌이 들다	부탁을 받다	약을 바르다	차다 막히다
경험을 쌓다	달이 뜨다	비를 맞다	열이 나다	차를 세우다
계획을 세우다	더위를 먹다	사고가 나다	예를 들다	책을 펴다
고개를 숙이다	도둑이 들다	살을 빼다	예절이 밝다	짐을 챙기다
고민을 해결하다	돈을 벌다	살이 빠지다	요금을 내다	체중이 줄다
고민이 생기다	돈이 떨어지다	살이 찌다	운명을 맞추다	최선을 다하다
고장이 나다	동아리에 들다	상을 차리다	이해가 가다	커피를 뽑다
과일이 열리다	땀이 나다	상처를 입다	인기를 끌다	큰일이 나다
구름이 끼다	뚜껑을 닫다	생일을 맞다	인기를 얻다	판단을 내리다
기분이 상하다	뜻을 펴다	세탁기를 돌리다	인사를 나누다	판단이 서다
기억에 남다	맛이 부드럽다	소리를 내다	인상 깊다	풀이 죽다
기침이 나다	머리를 감다	소리를 지르다	입에 맞다	피가 나다
길이 막히다	목소리가 쉬다	소문이 나다	입을 벌리다	피로가 풀리다
김치를 담그다	목이 쉬다	술을 따르다	장갑을 끼다	한숨을 돌리다
꽃이 피다	몸살을 앓다	숨이 막히다	전공을 살리다	한숨을 쉬다
꿈을 꾸다	몸살이 나다	시간이 걸리다	전화를 끊다	핸드폰을 끄다
꿈을 이루다	몸을 가꾸다	시간이 흐르다	정신이 팔리다	화를 풀다
낮을 가리다	몸이 떨리다	시험에 떨어지다	정이 들다	휴가를 떠나다
냄새가 나다	문제를 풀다	시험에 붙다	조건에 맞다	힘을 쏟다

<표-27>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고급 언어 교육 목록 (112개)

가뭇이 들다	더위를 타다	손을 대다	오해를 받다	짐을 꾸리다
간을 보다	턱을 보다	손을 베다	오해를 사다	짐작이 가다
갈등을 해소하다	도를 넘어서다	수리를 받다	욕을 먹다	책임감이 강하다
갈증이 나다	도망을 가다	신경을 쓰다	용기를 내다	천둥이/번개가 치다
거절을 당하다	도망을 치다	신세를 갚다	용서를 빌다	충고를 따르다
게으름을 피우다	돈을 갚다	신세를 지다	음식이 체하다	친구를 사귀다
결혼식을 올리다	마늘을 다지다	신이 나다	음악을 틀다	탁구를 치다
경기가 풀리다	면접을 보다	신청서를 내다	의심을 사다	틀에 박히다
고기를 재우다	목이 타다	실감이 나다	의욕을 잃다	판을 치다
고집이 세다	무대에 올리다	아기를 재우다	이민을 가다	핑계를 대다

곤란을 겪다	문자를 보내다	안개가 끼다	인물이 좋다	향이 배다
골치가 아프다	바가지를 쓰다	안부를 묻다	인정을 받다	형편이 어렵다
관계를 맺다	박수를 치다	안부를 전하다	일손을 놓다	혜택을 보다
관심을 기울이다	발길이 닿다	애가 타다	입맛이 당기다	홍수가나다
귀를 기울이다	밤을 새우다	애를 쓰다	입에 오르내리다	활기가 차다
균형을 잡다	부탁을 들어주다	야단을 맞다	자존심을 건드리다	후회가 들다
기가 막히다	불에 데다	야단을 치다	잔치를 치르다	휴식을 취하다
꾸중을 듣다	빛을 갠다	약속을 어기다	장난을 치다	홍내를 내다
눈길을 끌다	상을 타다	약을 올리다	적성 예맞다	힘을 합하다
눈에 띄다	생각에 잠기다	열을 올리다	정신을 차리다	힘차다
단풍이 들다	성을 내다	영향을 미치다	제사를 지내다	
대가를 치르다	세상을 뜨다	예의가 밝다	주의 깊다	
대출을 받다	손꼽다	예의를 갖추다	진심이 어리다	

이처럼 선정된 교육용 연어 목록을 등급화하여 초급 64개, 중급 115개, 고급 112개, 총 291개 연어를 제시하였다. 다음 장에서 이 291개 한국어 연어를 중국어에 대응시키고 비교 분석을 통해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연어 공부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과 주의해야 할 점을 지적할 것이다.

IV. 한국어 교육용 연어의 한·중 대조 분석

1. 한·중 연어 대조의 번역 기준 및 분석 방법

1.1. 한·중 연어 대조의 번역 기준

4장에서는 3장에서 선정된 291개의 '체언+용언'형 교육용 연어와 중국어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유형을 나누어 한·중 연어의 대조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교육용 연어 목록을 중심으로 한·중 연어의 대조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한·중 연어 간의 번역 기준을 세워야 한다. 선행연구를 검토했을 때 지적한 듯이 기존 연구에서 한국어 연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명확한 번역 기준이 없고 개인의 주관적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다. 주관 개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대조 양상과 오역 현상은 대조 분석하는 결과를 유형화하는 데 큰 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중 연어의 비교 연구에서 일치하는 결론을 얻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은 번역 원칙을 따를 것이다.

첫째, 한·중 연어의 대응 표현은 주로 최초의 학습용 한·중 이중언어화사전인 『한국어-중국어 학습 사전(국립국어원, 2020)』⁴⁵⁾을 참조할 것이다. 사전에서 제시된 한·중 연어의 대응 표현은 직접 교육용 연어 목록의 대응 양상으로 사용한다.

둘째, 사전에서 한국어 연어의 중국어 대역어가 직접 제시되지 않은 경우, 직접 번역하는 방법으로 대역어 후보를 선정할 것이다.

45) <한국어-중국어 학습 사전>은 한국어 학습을 위한 기본 5만여 어휘가 실린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을 중국어로 번역한 최초의 학습용 이중언어화사전(한국어 단어 및 뜻풀이, 해당 언어 뜻풀이를 함께 제공하는 사전)이다.

언어를 직접 번역할 때도 사전의 의미를 참조할 것이다. 구체적인 번역 방법을 설명하자면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연어의 두 구성 요소와 대응하는 의미 해석에 따라 『현대한어사전(現代漢語辭典)』에서 한국어의 의미와 일치한 어휘를 선택하여 중국어로 옮긴다. 연어를 구성한 한국어 어휘가 중국어에서 여러 가지의 대역어 후보를 가지게 될 경우, 그 중에서 두 어휘가 결합한 다음에 가장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상용 표현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번역된 중국어 표현에는 한국어 연어의 통사적 구성과 일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대역어로 선정한다. 만약 통사적으로 일치한 것이 없다면 의미적으로 가장 비슷한 표현을 대역어로 본다. 구체적인 번역의 예시를 보겠다.

(1) 가. 나이를 먹다

<나이>

뜻풀이: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세상에 나서 살아온 햇수

중국어 대역어 후보: 年齡、年紀、歲數

<먹다>

뜻풀이: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

중국어 대역어 후보: 到、長、增加、增長

[최종 연어 대응 양상]: 長歲數

위의 (1)의 예시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연어 '나이를 먹다'는 체언 '나이'와 용언 '먹다', 그리고 목적격 조사 '를'로 구성된 목술관계 연어이다. 체언 '나이'는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세상에 나서 살아온 햇수'라는 뜻으로 중국어에서 '年齡、年紀、歲數'와 모두 대응한다. 용언 '먹다'는 연어 구성에서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와 같은 확장 의미라서 중국어의 '到、長、增加、增長'과 대응한다. 그러나 동사의 대응어에서 '到'의 의미는 '어떤 나이에 이르다'의 '이르다'의 역할과 비슷해서 '나이를 더하다'의 의미를 표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到'는 '먹다'의 대역어로 볼 수 없다. '到'를 제외한 후 나머지 대역어를 '체언+용언'형의 구 표현으로 결합시켜 '長歲數、年齡增長/增加、年紀增長/增加'와 같은 3개의 구 표현을 얻는다. 그러나 이 3개의 표현의 통사 구조를 분석하면 '長歲數'만 '나이를 먹다'와 같이 목술관계에 속한다. '長歲數'의

통사 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동사 '長(자르다, 더하다)'은 서술어에 해당하고 뒤에 나오는 명사 '歲數(나이)'는 '長'의 빈어(목적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국어에서 동빈(動賓)관계에 해당하는 연어는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의 통사 구성과 일치한다. 그러나 명사 '年齡、年紀'는 동사 '長'과 결합하여 '長年齡、長年紀'와 같은 목술관계 연어를 이룰 수 없다. 비록 문법상에 문제는 없지만 '長年齡、長年紀'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어색한 표현이다. 반면에 '年齡、年紀'로 '나이를 먹다'의 의미를 표현하려면 항상 동사 '增長'이나 '增加'와 결합하여 주술관계 연어인 '年齡增長/增加、年紀增長/增加'로 표현해야 한다. '年齡增長/增加、年紀增長/增加'는 앞에서 이미 제시한 목술관계 연어 '長歲數'와 의미적 측면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통사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나이를 먹다'에 가장 알맞은 대역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한 번역 원칙에 따라 '長歲數'를 '나이를 먹다'의 대역어로 선정한다.

또한, 한국어 연어의 구성요소는 의미에 따라 중국어에서 대역어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때 의역의 방법으로 중국어에서 연어적 의미와 가장 비슷한 표현을 선택한다. 그 외에 연어의 구성요소의 대역어가 있더라도 그 대역어로 생성하는 어휘 결합 관계에서 볼 때 중국어의 어법이나 사용 습관을 어기는 경우, 그 대역어를 대응 양상에서 구현하는 것보다 의역의 방법에 따라 다른 대역어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예시는 아래와 같다.

(2) 가. 더위를 타다

<더위>

뜻풀이: 여름철의 더운 기운.

중국어 대역어 후보: 熱

<타다>

뜻풀이: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을 쉽게 받다.

중국어 대역어 후보: X

[최종 연어의 대응 양상 (의역)]: 怕熱

연어 '더위를 타다' 중에서 '더위'는 '여름철의 더운 기운.'라는 기본 의미로

중국어 명사 '熱'와 직접 대응한다. 그러나 양국의 언어 표현의 차이로 인해 중국어에서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을 쉽게 받다.'와 같은 '타다'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어휘는 없다. 따라서 '더위를 타다' 중의 '타다'의 중국어 대역어를 찾기가 어렵다. 이때 '더위를 견디기 어려워하다.'라는 연어의 전체 의미에 따라 중국어로 의역하는 방법이 있다. 중국어에는 연어 '더위를 타다'의 의미와 비슷한 표현으로 '怕熱(더위를 두려워하다.)'가 있다. '怕熱'의 어휘적 구성 성분을 다시 분석해보면 '熱'는 '더위'와 직접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怕'는 비록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로 '타다'와 직접 대응할 수 없지만 연어 대응 양상에서 대응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더위를 타다'는 중국어에서의 최종적인 대응 양상은 '怕熱'이다.

셋째, 한국어 전체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연어를 구성하는 개별 어휘의 기본 의미와 어법기능도 중요시하며 번역할 것이다. 연어를 구성하는 개별 어휘의 기본 의미를 연어 구성에서의 확장 의미와 함께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들에서 어휘를 자립적으로 쓰일 때의 의미와 연어 구성에서의 의미 간의 차이를 보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 언어를 대조 분석할 때 한 언어가 일방적으로 확장된 의미로 인해 생기는 이중언어의 비대응적 현상의 원인도 정확히 밝힐 수 있다. 또한 피동 표현, 수식적 의미, 합성어의 표지 등 동사의 어휘적 기능을 중시하여 번역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해당 동사와 그의 원형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설명해 보겠다.

(3) 가. 돈을 찾다 - (找錢) - 取錢

나. 길이 막히다 - (路被堵) - 堵車

다. 짐작이 가다 - 預料到、猜想出

연어 '돈을 찾다'의 구성 중에서 '찾다'의 의미는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 살피다'라는 기본 의미가 아닌 '필요한 것을 구하다'와 같은 확장적 의미이다. 그러나 연어를 구성하는 어휘소를 기본의미에 따라 1대1로 직역하면 '找錢'이라는 표현을 얻을 수 있다. '找錢'은 글자 그대로 보면 '돈을 찾다'와 대응적 관계인 것 같지만 중국어에서 '거슬러 주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한국어 연어 '돈을 찾다'의

의미와 완전히 다르다. 이를 통해 한국어 연어는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살펴볼 때 구성 요소의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1대1로 직역하는 방식에 의해 진행된다면 안되고 반드시 연어 구성에서 어휘의 구체적인 의미를 구분하여 연어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하다. 따라서 연어 전체의 의미에 따라 '돈을 찾다'에서의 '찾다'는 중국어에서 '取'와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取錢'는 '돈을 찾다'의 대역어이다. 다만 '찾다'는 자립성이 있는 동사로서 홀로 쓰일 때 역시 중국어 '找'와 대응 관계를 이루며 '取'와 아무 관계도 없다. 이런 관점에서 '돈을 찾다'와 '取錢'의 대응 양상을 다시 보면 모두 목술관계의 연어 대응 관계이지만 구체적인 구성요소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명사만 부분 대응 관계를 이루고 동사 '찾다'와 '取'는 비대응 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에서 연어의 전체적 의미를 이해하는 동시에 연어를 구성하는 어휘소의 기본의미에 대해서도 소홀하면 안 된다.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는 어휘의 기본 의미와 구체적인 표현에서의 확장 의미를 서로 잘 구별해야 기본의미에 따라 직역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연어 교육에서 연어 구성에 있는 어휘의 의미와 그 어휘의 기본 의미 간의 차이를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길이 막히다' 중에서 '막히다'는 '막다'의 피동형에 해당한다. '막다'는 중국어에서 '堵'와 대응한다. 그러나 중국어 어휘 '堵'의 피동형은 한국어와 달리 동사 자체에 형태적 변화가 없고 피동 표지인 '被'에 의해서 실현된다. 따라서 '막히다'는 중국어에서 '被堵'와 대응 관계를 형성한다. 연어 '길이 막히다'의 전체적 의미에 따라 중국어에서 '路堵(길이 막히다)'와 같은 주술관계 연어나 '堵車(차를 막다)'와 같은 목술관계 연어 등 능동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 '路被堵住/了(길이 막혔다)'와 같은 피동 표현도 동시에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연어를 구성하는 동사의 원형과 피동형의 의미와 용법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어 '짐작이 가다' 중에서 선행요소인 명사 '짐작'이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중국어에서 동사 '預料(짐작하다)'나 '猜(맞히다)'와 대응한다. 후행 요소인 '가다'는 연어 구성에서 기능동사의 역할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동사성이 없지만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 중국어 문법 체계에서 '동작을 진행한 결과'를 나타내는 기능동사가 없지만 서술어 뒤에 나오는 보어 '到(~까지 이르다) , 出(아/어/여 나오다)에 의해

서 [결과]의 의미를 실현한다. 따라서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 '짐작이 가다'는 중국어에서 술보관계(서술어+보어) 구 '預料到、猜想出'과 대응 관계를 이룬다. 연어 구성중의 기능동사의 의미를 대응 양상에서 잘 반영하면 학습자들을 이런 추상적인 의미 기능을 가진 어휘의 용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앞에서 제시한 3가지의 한·중 연어의 번역 기준에 따라 291개의 교육용 연어를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아래 <표-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28> 교육용 연어의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

초급	
감기가 들다	得/患感冒
값을 깎다	砍价
값이 나가다	值錢
구경을 가다	去觀賞、去游玩
구두를 신다	穿皮鞋
길을 놓다	鋪路
끝을 보다	看到頭；一干到底、做到底
나이가 들다	上歲數
나이를 먹다	長歲數
날을 잡다	擇吉日、擇日、選日子
노래를 부르다	唱歌
눈이 내리다	下雪、降雪
눈이 높다	眼光高；眼界高、好眼力
눈이 오다	下雪、降雪
비가 내리다	下雨、降雨
담배를 피우다	抽烟、吸烟
돈을 쓰다	花錢
돈을 찾다	取錢
돈이 들다	花錢、費錢
마음을 놓다	放心
마음에 들다	合心意、滿意、中意、喜歡
마음을 먹다	下定決心，下決心
말을 걸다	搭訕、搭話
말이 아니다	不成樣；于理不符
맛을 보다	嘗滋味；嘗…厲害、給顏色看
모자를 쓰다	戴帽子
바람이 불다	刮風
방이 나가다	沒房間了
배가 고프다	肚子餓
불을 끄다	關燈
불을 피우다	起火、点火
불이 나다	着火

비가 오다	下雨、降雨
비디오를 찍다	拍視頻
사진을 찍다	拍照、照相
산책을 가다	去散步
생각이 나다	想起、想出；記起
생각이 들다	有想法、有念頭
시간을 내다	抽時間
시간이 나다	得空兒
시험을 보다	考試
아이를 보다	照看小孩
안경을 쓰다	戴眼鏡
양말을 신다	穿襪子
우산을 쓰다	打傘
인사를 가다	行禮
자리를 잡다	占据位置；站住脚；安定、穩定；定居、落腳
잠이 들다	入睡，睡着
재미가 붙다	產生興趣
전화가 오다	來電話
전화를 걸다	打電話
전화를 바꾸다	轉電話、轉接
전화를 받다	接電話
집을 나가다	离家出走；從家出來
춤을 추다	跳舞
컴퓨터를 끄다	關電腦
컴퓨터를 치다	打電腦、玩電腦
키가 크다	个子高
테니스를 치다	打网球
표 나다	有票
핸드폰을 켜다	開手机
화가 나다	生气、發火
화를 내다	生气、發火
중급	
가방을 메다	背書包
감기가 낫다	感冒好了、感冒痊愈
감기에 걸리다	得/患感冒
감정을 넣다	投入感情、傾注感情
겁이 나다	害怕；胆小，胆怯
경험을 쌓다	積累經驗
계획을 세우다	制定計劃
고개를 숙이다	低頭，屈服，認輸，投降；低頭致敬，敬佩，欽佩，佩服
고민을 해결하다	解決煩惱、排解苦悶
고민이 생기다	有煩惱、有煩心事
고장이 나다	出故障
과일이 열리다	結果、結出果實
구름이 끼다	烏云密布；云層聚集
기분이 상하다	心情差、不高興

기억에 남다	留在記憶中、記在腦子里
기침이 나다	咳嗽
길이 막히다	堵車；路被堵住
김치를 담그다	腌泡菜
꽃이 피다	開花
꿈을 꾸다	做夢
꿈을 이루다	實現夢想、夢想成真
낯을 가리다	認生；捂住臉
냄새가 나다	有味儿、有臭味儿
농사를 짓다	務農，种庄稼，种田，种地
높이를 맞추다	調整高度，對高度
눈을 감다	閉眼
눈을 뜨다	睜眼
느낌이 들다	有感覺
달이 뜨다	月亮升起
더위를 먹다	中暑
도둑이 들다	進小偷、招賊、被盜
돈을 벌다	掙錢
돈이 떨어지다	錢用完了、錢花光了
동아리에 들다	加入社團
땀이 나다	出汗
뚜껑을 닫다	盖盖子，合上盖子
뜻을 펴다	得志，實現胸懷大志
맛이 부드럽다	味道醇和；味道柔和
머리를 감다	洗頭
목소리가 쉬다	聲音沙啞
목이 쉬다	嗓子沙啞
몸살을 앓다	換上病痛；遭受痛苦
몸살이 나다	(急得)渾身難受；(想得)發瘋
몸을 가꾸다	打扮；保養身體
몸이 떨리다	身體顫抖、發抖、哆嗦
문제를 풀다	解題；解決問題
물에 빠지다	掉進水里、落水
미소를 짓다	微笑、面帶微笑、露出微笑
밥맛이 떨어지다	沒有胃口；倒胃口、討厭
보험에 들다	上保險
부탁을 받다	受人之托
비를 맞다	淋雨、挨淋
사고가 나다	出事故、發生意外
살을 빼다	減肥
살이 빠지다	變瘦、掉肉
살이 찌다	長肉、長膘、發胖、長胖
상을 차리다	擺桌、擺席
상처를 입다	負傷，受傷
생일을 맞다	迎來生日
세탁기를 돌리다	開動洗衣機

소리를 내다	出聲、發出聲響
소리를 지르다	呼喊、叫喊、大叫
소문이 나다	出名；傳聞傳開；走漏風聲
술을 따르다	倒酒、酌酒
숨이 막히다	窒息；不敢出氣、憋氣
시간이 걸리다	花時間、費工夫
시간이 흐르다	時光流逝
시험에 떨어지다	考試落榜、考試不及格
시험에 붙다	考上、考試合格
신호가 가다	有信號、電話打通了
아이를 낳다	生孩子
안경을 끼다	戴眼鏡
약속을 지키다	守約、遵守約定
약을 바르다	抹藥、塗藥膏
열이 나다	發燒；生氣、發火
예를 들다	舉例子、例如
예절이 밝다	懂禮貌、有禮貌
요금을 내다	交費、繳納費用
운명을 맞추다	命中注定
이해가 가다	能够理解
인기를 끌다	受歡迎、有人氣
인기를 얻다	受歡迎、有人氣
인사를 나누다	問候、打招呼
인상 깊다	印象深刻
입에 맞다	合胃口、對胃口
입을 벌리다	張開嘴
장갑을 끼다	戴手套
전공을 살리다	發揮專業特長、將專業知識學以致用
전화를 끊다	挂電話
정신이 팔리다	沉迷、迷住
정이 들다	產生感情
조건에 맞다	符合條件、滿足條件
주사를 맞다	打針
줄을 서다	排隊
짜증을 내다	不耐煩、生厭
짜증이 나다	不耐煩、生厭
차가 막히다	堵車
차를 세우다	停車
책을 펴다	翻開書
짐을 챙기다	收好行李、帶上行李
체중이 줄다	體重下降
최선을 다하다	盡全力
커피를 뽑다	打咖啡
큰일이 나다	出大事
판단을 내리다	做出判斷
판단이 서다	做出判斷

풀이 죽다	消沉、泄气
피가 나다	出血、留血
피로가 풀리다	消除疲勞、緩解疲勞
한숨을 돌리다	松口气
한숨을 쉬다	嘆息、嘆气
핸드폰을 끄다	關手机
화를 풀다	解气、消气
휴가를 떠나다	去度假
힘을 쏟다	傾力、使勁、費勁
고급	
가뭄이 들다	干旱
간을 보다	嘗咸淡；調味儿、調咸淡
갈등을 해소하다	消除矛盾
갈증이 나다	口渴
거절을 당하다	被拒絕、遭到拒絕
게으름을 피우다	偷懶
결혼식을 올리다	舉行婚禮
경기가 풀리다	經濟復蘇，經濟好轉
고기를 재우다	腌肉
고집이 세다	非常固執
곤란을 겪다	遇到困難
골치가 아프다	頭疼；傷腦筋
관계를 맺다	建立關係
관심을 기울이다	關心
귀를 기울이다	側耳傾听、洗耳恭听
균형을 잡다	保持平衡
기가 막히다	語塞、无言以對；了不起、嘆為觀止
꾸중을 듣다	被批評、受責備
눈길을 끌다	吸引目光、搶眼、引人注目、惹人關注
눈에 띄다	進入視線、眼前看到；顯眼、明顯、醒目
단풍이 들다	楓叶染紅
대가를 치르다	付出代價
대출을 받다	(得到、獲得) 貸款
더위를 타다	怕熱、不耐熱
덕을 보다	沾光、獲益、獲得幫助
도를 넘어서다	過分、超過...的度
도망을 가다	逃走、逃跑、逃亡
도망을 치다	逃走、逃跑、逃亡
돈을 갚다	還錢
마늘을 다지다	搗蒜
면접을 보다	參加面試
목이 타다	嗓子眼冒烟、口干；焦急
무대에 올리다	搬上舞台、演出、上演
문자를 보내다	發短信
바가지를 쓰다	挨宰
박수를 치다	鼓掌

밤을 새우다	熬夜
부탁을 들어주다	答應請求、接受委托
불에 데다	被燒傷, 被火燙
빚을 갚다	還債
상을 타다	得獎、獲獎
생각에 잠기다	(陷入) 沉思
성을 내다	發怒、發火
세상을 뜨다	去世、離開人世、與世長辭
손꼽다	掰手指、扳着手指算; 屈指可數、數一數二
손을 대다	(用手) 碰、摸、動; 着手、開始
손을 베다	割破手
수리를 받다	修理
신경을 쓰다	費心思、費心、注意
신세를 갚다	還人情
신세를 지다	欠人情
신이 나다	開心; 來勁、興致勃勃
신청서를 내다	提交申請、遞交申請表
실감이 나다	感同身受; 有實感
아기를 재우다	哄孩子睡覺
안개가 끼다	霧氣弥漫
안부를 묻다	問候
안부를 전하다	轉達問候、帶好兒
애가 타다	焦急、焦慮、心急如焚; 牽腸挂肚、牽挂
애를 쓰다	努力、費心、辛苦
야단을 맞다	挨罵
야단을 치다	吵鬧; 責備、訓斥
약속을 어기다	違背約定、失約、爽約
약을 올리다	招惹、氣人
열을 올리다	發火; 熱心、積極、充滿熱情; 造勢、提高氣勢
영향을 미치다	造成/產生/施加影響
예의가 밝다	講禮貌、有禮貌
예의를 갖추다	講禮貌、有禮貌
오해를 받다	被誤會、遭到誤會
오해를 사다	被誤會、引起誤會
욕을 먹다	挨罵、受辱
용기를 내다	鼓起勇氣
용서를 빌다	請求原諒、求饒
음식이 제하다	積食
음악/텔레비전을 틀다	放音樂; 打開電視
의심을 사다	被人懷疑、惹人懷疑
의욕을 잃다	喪失欲望、失去熱情
이민을 가다	移民
인물이 좋다	長得漂亮
인정을 받다	得到認可、被認可
일손을 놓다	放下活; 停住手
입맛이 당기다	勾起食欲; 吊胃口

입에 오르내리다	被人議論、成爲話柄
자존심을 건드리다	傷自尊
잔치를 치르다	擺宴
장난을 치다	開玩笑、調皮搗蛋
적성에 맞다	適合自己
정신을 차리다	蘇醒；醒悟、回過神來；清醒、打起精神、振奮精神
제사를 지내다	舉行祭祀
주의 깊다	密切關注；謹慎、慎重
진심이 어리다	真心實意
짐을 꾸리다	收拾行李、打行李
짐작이 가다	預料到、猜想出
책임감이 강하다	責任感強
천둥이/번개가 치다	打雷/打閃
충고를 따르다	聽從忠告、聽勸
친구를 사귀다	交朋友
탁구를 치다	打乒乓球
틀에 박히다	死板、照本宣科
판을 치다	囂張、橫行
핑계를 대다	找借口
향이 배다	沾上香味、香味浸透
형편이 어렵다	處境困難、生活窘迫
혜택을 보다	得到實惠；受益
홍수가 나다	發洪水
활기가 차다	充滿活力、充滿朝氣
후회가 들다	後悔
휴식을 취하다	休息
흉내를 내다	模仿、效仿
힘을 합하다	團結一致、萬眾一心
힘이 차다	有力氣、有勁兒

1.2. 대조 분석의 방법

한·중 언어의 대조 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절에서 구체적인 언어 대조 분석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앞장에서 살펴본 듯이 본고에서 연구하는 교육용 언어는 언어의 구성 요소의 통사 성분에 따라 '체언+용언'형 언어만 한정한다. 그리고 '체언+용언'형 언어의 구체적인 통사 구성에 따라 크게 주술관계 언어, 목술관계 언어, 부술관계 언어(부사어'-에'+서술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한·중 언어의 대조 양상을 분석할 때 언어의 통사 구성의 유형별로 진행하고자 한다. 한·중 언어의 대조 분석의 첫 번째 틀은 아래와 같이 제

시한다.

- A. 한국어 주술관계 연어의 중국어에서의 대응
- B.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의 중국어에서의 대응
- C. 한국어 부술관계 연어의 중국어에서의 대응

위와 같은 3가지의 통사 구성의 연어를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과 비교할 때 통사 구성이 일치하는 경우도 많지만 위의 표28에서 제시된 중국어 대응 양상을 보면 통사 구성이 일치하지 않은 중국어 구 표현, 어휘, 사자성어 등 다양한 대응 양상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특기한 대응 양상을 존재하는 사실을 감안하여 본고에서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의 통사 구성의 일치 여부에 따라 대응적 대조 관계와 비대응적 대조 관계로 나눈다. 대응적 대조 관계는 중국어에서의 대응 표현은 한국어 연어의 통사 구성과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에 비대응적 대조 관계는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은 한국어 연어의 통사 구성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a. 대응적 대조 관계
- b. 비대응적 대조 관계

먼저 대응적 대조 관계에는 연어의 구성요소의 의미에 따라 완전 대응 연어와 부분 대응 연어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유형을 이루는 원인은 어휘 의미의 확장과 관련된다. 완전 대응 연어 관계는 한국어 연어이든지 중국어 대응 표현이든지 구성요소의 의미는 모두 기본 의미를 유지하며 1대1의 대응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와 달리 부분 대응 연어 관계에는 한국어 연어의 구성 요소의 확장 의미로 인해 중국어에서 대응할 때 해당하는 어휘의 기본 의미로 번역하면 안 되고 한국어 어휘의 확장적 의미와 일치한 다른 중국어 어휘를 차용하여 대응시켜야 한다. 완전 대응 연어는 구성 요소의 의미로 분석할 때 '기본의미인 체언+기본의미인 용언'형 의미 구조의 연어에 해당한다. 부분 대응 연어는 의미가 확장된 구성 요소의 위치에 따라 아래 '기본의미인 체언 + 확장의미인 용언' 형 연어, '확장의미인 체언 + 기본의미인 용언'형 연어, '확장의미인 체언 + 확장의미

인 용언'형 언어 와 같이 3가지의 유형을 다시 세분할 수 있다. 다음에 완전 대응적 언어와 부분 대응적 언어의 구체적인 예를 보겠다.

- (1) 가. 기본의미 체언 + 기본의미 용언 : 배가 고프다
- 나. 기본의미 체언 + 확장 의미 용언 : 돈을 찾다
- 다. 확장 의미 체언 + 기본의미 용언 : 머리를 감다
- 라. 확장 의미 체언 + 확장 의미 용언 : 날을 잡다

실제로 번역된 한국어 언어의 중국어 대응어를 보면 대응적 언어 관계에서 '기본 의미인 체언 + 기본 의미인 용언'형의 완전 대응 관계와 '기본 의미인 체언 + 확장 의미인 용언'형의 부분 대응 언어가 차지한 비중은 가장 많다. 반대로 의미의 투명성과 단일성 등 특성을 가지는 체언은 항상 실질적인 물질을 가리키며 의미가 확장된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확장 의미인 체언 + 기본 의미인 용언'형의 부분 대응적 언어와 '확장 의미인 체언 + 확장 의미인 용언'형 부분 대응적 언어의 수량은 그리 많지 않다. 이어서 의미에 따른 위의 4가지 유형의 예시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배가 고프다'는 중국어에서의 대응어는 '肚子餓'이다. 중국어 형용사 구 '肚子餓'중에서 체언 '肚子'는 주어이고 용언 '餓'는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肚子餓'는 '배가 고프다'와 통사 구성이 일치한 주술관계 언어이다. 의미 측면을 분석해 보면 중국어 주술관계 언어 '肚子餓'에는 '肚子'의 의미는 '腹部(복부)'이며 한국어 주술관계 언어 '배가 고프다'에서의 '배'의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위장, 창자, 콩팥 따위의 내장이 들어 있는 곳으로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라는 기본 의미와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두 언어의 대응 양상에서 용언 '餓'와 '고프다'는 모두 '배 속이 비어 음식을 먹고 싶다'와 같은 상태를 묘사한다. 따라서 '배가 고프다'와 '肚子餓'는 통사 구성이 일치하며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의 의미도 비슷한 기본의미로 완전히 대응하는 관계이다.

'머리를 감다'와 '돈을 찾다'는 각각 선행요소인 체언의 확장적 의미와 후행요소인 용언의 확장 의미로 인해 중국어에서 부분 대응적 언어 대응 관계를 이룬다. '찾다'의 의미는 언어 구성에서 '발견하기 위해 살피다.'라는 기본의미보다 '찾아 가지다. 받다.'의 확장 의미가 더 어울린다. 따라서 중국어와 대응시킬 때

기본의미와 대응하는 '找'보다 '取'를 대역어로 보는 것은 낫다. '머리를 감다'에서 '머리'의 의미는 '사람의 목 윗부분에서 머리털이 나 있는 부분.'라는 기본 의미보다 '머리에 난 털.', 즉 머리카락만 가리킨다. 따라서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은 '머리'의 기본 의미와 대응하는 '頭'가 아닌 '머리카락'와 대응하는 '頭發'에 해당한다. 이처럼 연어 구성에서 구성 요소 중의 하나가 전이적 의미로 인해 중국어 대응어와 부분 대응적 관계를 형성한다.

'날을 잡다'중에서 '날'이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동안. 자정에서 다음 자정까지의 동안으로 24시간이다.'라는 기본 의미로 중국어에서 '天'와 대응한다. 그러나 연어 구성에서 '날'의 의미는 확장되어 중국어에서 마찬가지로 '날짜'의 뜻을 표현하는 '日子、日期'와 대응한다. 용언의 상황을 보면 동사 '잡다'는 '손으로 움키고 놓지 않다.'라는 기본의미로 중국어 동사 '抓'와 대응해야 했는데 연어구성에서 '날짜 따위를 정하다.'라는 확장 의미임으로 중국어 동사 '定'와 대응시켜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 연어 '날을 잡다'는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은 1대1로 완전 대응적 표현인 '抓天'가 아닌 '定日子'⁴⁶⁾에 해당한다. 이처럼 한국어 연어 구성에서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의 의미는 모두 확장 의미인 경우, 중국어에서 대응시킬 때 보통 통사 구성이 일치하지만 구성요소의 의미는 대응하지 않는 부분 대응 관계를 형성한다.

이어서 비대응적 대조 관계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한·중 언어에는 비대응적 연어 관계는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응어의 통사 구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이때 한국어 연어는 중국어에서 어휘, 사자성어, 구 등 다양한 대응양상으로 보인다. 한국어 연어는 중국어에서 구의 형식으로 대응될 때 주술관계 구, 목술관계 구 등과 같은 대응 형식을 이루는 것 외에 중국어 복잡한 문법 체계로 인해 다양한 구와 대응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먼저 중국어 구의 유형과 문법적 구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어에서의 구는 의미와 문법에 따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어휘들로 이루는 어휘적 결합이다. 구는 단어와 문장의 중간 사이에 있는 문법 단위이다. 중국어

46) '날을 잡다'의 연어적 의미에 따라 중국어에서 '定日子'나 '定日期'와 대응할 수 있지만 '定日期'는 중국어 어휘 체계에서 어휘적 결합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다. 따라서 '定日子'만 '날을 잡다'와 대응시킬 수 있다.

에서 단어가 구를 이루는 수단은 어순과 허사이다. 어순은 어휘를 앞뒤로 배열할 때의 순서이다. 직접 결합할 수 있는 단어⁴⁷⁾는 어순에 따라 어법적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명사구 ‘好天气(좋은 날씨)’와 용언구 ‘天气好(날씨가 좋다)’는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명사와 명사의 결합은 허사의 첨가에 의해서 실현된다. 중국어 구의 유형은 한국어 연어와 같이 여러 가지의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로 기능에 따른 분류와 통사 구성에 따른 분류가 있다. 기능에 따른 분류는 명사구와 동사구, 형용사구를 구별할 수 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체언+용언’형 연어이기 때문에 중국어 서술어 구만 검토할 것이다. 본고에서 선정한 한국어 ‘체언+용언’형 연어는 중국어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14 가지 통사 구성의 서술어 구와 대응 관계를 이룬다.⁴⁸⁾

(1) 주술구(主謂短語)

주술구는 주어와 서술어로 직접 구성하는 기술관계의 구이다. 주어는 기술되는 대상이며 서술어는 기술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陽光燦爛(햇빛이 찬란하다)’, ‘今天是周五(오늘은 금요일이다)’ 등은 이에 해당한다.

(2) 술빈구(動賓短語)

술빈구는 서술어와 빈어로 직접 구성하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구이다. 앞에 나오는 서술어는 지배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동작동사이며 뒤에 나오는 빈어는 지배를 받은 대상이다.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어순에 의해서 실현된다. 한국어는 SOV 언어이며 중국어는 SVO 언어이다, 본질적으로 한국어의 목적관계는 중국어의 술빈관계와 대응 관계를 이룬다. 예를 들면 吃飯(밥을 먹다)’, ‘喜歡你(너를 좋아하다)’ 등은 이에 해당한다.

(3) 상황어 중심어구(狀中短語)

상황어 중심어구는 수식 구의 하위 분류이며 상황어(부사어)와 중심어(용언)로

47) 중국어에서 체언과 용언 사이에 격조사가 필요없고 직접 결합하여 주술관계나 목적관계의 구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는 허사가 필요하다.

48) 한국어 연어와 대응하는 이 14 가지의 중국어 서술어 구는 <표-28>에서 제시하는 중국어 대응 양상의 통사 구성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직접 구성하는 수식 관계의 구이다. 예를 들면 '剛走(방금 갔다)', '能來(올 수 있다)' 등은 이에 해당한다.

(4) 술어보어구(中補短語)

술어보어구는 중심어(서술어)와 보어라는 두 개의 직접 성분으로 이루어진 보충관계의 구이다. 앞에 나오는 설명한 대상은 용언이며 뒤에 나오는 보충한 내용은 보어이다. 보통 용언은 보어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學得好(잘 배우다)', '看了一次(한번 봤다)' 등은 이에 해당한다.

(5) 연동구(連謂短語)

연동구는 서술어가 둘 또는 둘 이상의 동사로 구성되는 구이다. 예를 들면 '去看電影(영화를 보러 가다)' 등은 이에 해당한다.

(6) 겹어구(兼語短語)

겹어구는 두 개의 서술어 구로 이어져 형성되며 앞에 나오는 술빈구의 빈어는 뒤에 나오는 주술구의 주어를 겹하는 구이다. 예를 들면 '請他進來(그를 들어오라고 청하다)' 등은 이에 해당한다.

(7) 서술어연합구(聯合短語)

서술어연합구는 병렬, 선택 관계인 두 서술어로 이루어진 구이다. 연사 '和(하고), 并(그리고), 或(-나/이나)'에 의해서 실현되는 상황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今天和明天(오늘과 내일)', '他或者你(그 사람 혹은 너)' 등은 이에 해당한다.

(8) 상황비유구(比況短語)

상황비유구는 조사 '似的, 那樣, 一樣, 一般, 般' 등의 실사나 구 뒤에 부착되어 이루어진 상황 비유 혹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난 구이다. 예를 들면 '木頭似的站着(나무처럼 서 있다)', '小兔一樣地跳着(토끼처럼 뛰다)' 등은 이에 해당한다.

(9) 부정구(否定短語)

한국어의 부정구는 '안', '-지 않다', '못', '-지 못하다'에 의해서 이루지만 중국어 부정구는 용언 앞에서 부정구의 표지인 '不'와 '沒' 등 부정부사를 붙여서 형성한다. 예를 들면 '不喜歡(좋아하지 않다)', '沒吃(먹지 않았다)' 등은 이에 해당한다.

(10) 양사구(量詞短語)

양사구는 수사나 지시대명사 뒤에 양사를 붙이고 명사를 수식하는 구이다. 예를 들면, '兩個人(두 사람)', '那件衣服(저 옷)'는 이에 해당한다.

(11) 방위구(方位短語)

방위구는 방위사, 즉 방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명사 혹은 동사 뒤에 붙여 처소, 범위 혹은 시간을 나타내는 구이다. 예를 들면, '屋子里(방 안)'가 이에 해당한다.

(12) 개사구(介詞短語)

개사구는 보통 '개사+명사'와 같은 구성이다. 개사구는 용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동작의 도구, 방법, 원인, 지배와 피지배, 대상 등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爲健康]運動 ([건강을 위해] 운동한다)', '[꽃에] 물을 준다([給花]澆水)' 등은 이에 해당한다.

(13) 피동구 (被動短語)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피동은 중국어에서도 특수한 문형이다. 피동구의 주어는 동작주가 아닌 서술어의 동작이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은 대상이다. 피동구의 주어 뒤에 개사 '被、叫、給、讓'가 동작이나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 즉 동작주와 함께 개사구를 이루어져 서술어의 상황어가 된다. 그리고 문맥에 따라 피동구에서 동작주가 나타나지 않고 '被' 뒤에 동작 동사를 직접 연결하는 경우가 있다. 비동구는 동작의 지배를 받는 대상에 초점을 두고 동작 완성의 결과나 상태의 변화에 대해 강조하는 문형이다. 피동구의 기본 구조는 '주어+(개사 '被'+동작

주)+서술어+동작의 결과나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기타성분'인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가. 주어+(개사 '被'+동작주)+서술어
- 나. 주어+(개사 '被'+동작주)+서술어+조사 "
- 다. 주어+(개사 '被'+동작주)+술보구
- 라. 주어+(개사 '被'+동작주)+술빈구
- 사. 주어+(개사 '被'+동작주)+ 2개 이상의 동사나 동사구

(14) 복잡한 구 (複雜短語)

복잡한 구는 하나의 구 내부에 또 다른 문장 성분을 포함하는 구이다.

본고에서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의 대응 양상간의 비대응적 관계를 크게 어휘와 대응하는 것, 사자성어와 대응하는 것, 그리고 통사 구성이 불일치한 구와 대응하는 것과 같은 3가지로 나눈다. 이 중에서 중국어에서 구와 대응하는 상황은 중국어 구의 문법적 구성에 따라 14가지의 유형을 다시 세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과 같이 본고에서 한국어 연어의 중국어 대응 양상에 대해 분석할 때 통사적으로 대응적 연어와 비대응적 연어와 같은 이분법을 따른다. 대응적 연어에 대해 구성요소의 의미에 따라 다시 완전 대응 연어와 부분 대응 연어로 나눈다. 비대응적 연어에 대해 대조양상의 통사 구성의 유형에 따라 어휘, 사자성어, 그리고 구와 대응하는 경우를 나눌 수 있다. 연어는 중국어에서 구와 비대응 관계를 이룰 때 통사 구성에 따라 주술구, 술빈구, 상황어 중심어구, 술어보어구, 연동구, 겹어구, 서술어연합구, 상황비유구, 부정구, 양상구, 방위구, 개사구, 피동구, 그리고 복잡한 구와 대응하는 상황을 나눌 수 있다. 이런 대응 양상에 대한 분류 기준에 따라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용 연어 목록의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분석하도록 한다.

선정된 291개의 연어 목록 중에서 주격조사 '-이/가'가 참여하는 주술관계연어는 총 89개가 있고 목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3%에 달한다. 목적격조사 '-을/를'이 참여하는 목술관계 연어는 총 178개가 있고 목록의 연어 항목에서 62.7%를 차지한다. 부사격조사 '-에'가 참여하는 '부사어+서술어'형 연어는 가장 적게 나타나고 총 17개가 있다. 지금부터 각 통사 유형별의 연어를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 양자 간의 대응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4.2. 한국어 주술관계 연어의 대응 양상

4.2.1. 대응적 대조 관계의 주술관계 연어

4.2.1.1 완전 대응 주술관계 연어

한국어의 주술관계 연어는 중국어와 비교할 때 대응양상이 주술관계로 동일하다. 또 두 구성 요소의 기본의미가 일치하는 경우 완전 대응 주술관계 연어로 볼 수 있다. 교육용 연어 목록 중에서 완전 대응 주술관계 연어는 아래와 같이 9개가 있다.

(1) 배가 고프다 → 肚子餓

연어 '배가 고프다'은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도 주술관계 형용사구이며 구성 요소의 의미는 모두 한국어의 기본 의미와 일치한다. '肚子'는 '배'와 같이 모두 '복부'를 가리키고 '餓'의 의미는 '고프다'의 기본의미와 마찬가지로 '배 속이 비어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배가 고프다'와 '肚子餓'는 완전 대응적 주술관계 연어이다.

(2) 감기가 낫다 → 感冒痊癒、感冒好了

'감기'는 '주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걸리는 호흡 계통의 병.'의 이름으로 중국어에서 '感冒'로 표현한다. 동사 '낫다'는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라는 기본 의미로 중국어에서 '痊癒'와 대응된다. 따라서 '感冒'와 '痊癒'는 모두 기본 의미를 유지하며 축자의미로 형성된 동사구는 '감기가 낫다'와 1대1

대응 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感冒痊愈'와 '감기가 낫다'도 통사 구조와 구성 요소의 의미가 일치한 주술관계 연어의 대응 관계이다. 한편 '낫다'는 중국어에서 '痊愈'뿐만 아니라 '好'와 대응할 수 있다. '好'는 동사로 쓰일 때 '痊愈(병이 낫다. 완쾌되다.)'의 뜻도 있다. 따라서 한국어 '낫다'의 의미와 일치한다. 그러나 '感冒好'라는 표현보다는 문말에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 '了'를 붙이는 '感冒好了'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 왜냐하면 '낫다'의 의미는 중국어의 '痊愈'나 '好'와 모두 비슷하지만 세 개 어휘 간의 차이점은 '낫다'와 '痊愈'는 '병이 나아지고 완치되었다'라는 결과를 강조하지만 '好'는 결과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조사 '了'를 첨가한 후 동사 '好'의 보어로 '완치되는 결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感冒好了'는 주술 관계로 봐도 상관없지만 술보관계인 '好了'의 구성을 보면 [주어+술보구]형 복잡구로 보아도 된다.

(3) 목소리가/목이 쉬다 → 嗓音/嗓子沙哑

'목소리'와 '목'은 중국어에서 각각 '嗓音'와 '嗓子'로 대응하며 이 두 명사의 뒤에 나타나는 동사 '쉬다'는 '목청에 탈이 나서 목소리가 거칠고 맑지 않게 되다.'라는 기본 의미로 중국어에서 '沙哑'와 1대1의 대응 관계를 이룬다.

(4) 몸이 떨리다 → 身体颤抖、发抖、哆嗦

명사 '몸'은 중국어에서 '身体'와 1대1의 대응 양상을 보이며 동사 '떨리다'는 중국어에서 같은 의미로 '颤抖、发抖、哆嗦'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표현이 있다. 따라서 '身体颤抖/发抖/哆嗦'는 '몸이 떨리다'외 완전히 대응하는 축자적 의미로 형성한 주술관계의 동사구이다. 한편 중국어에서 '颤抖、发抖、哆嗦'등 동사 자체의 의미에서 '身体'라는 잠재적 주어를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주어인 '身体'를 생략하여 동사만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몸이 떨리다'는 중국어에서 한 동사와 대응하는 상황도 있다.

(5) 시간이 흐르다 → 时光流逝

'시간'은 중국어 실사 '時間'나 '時光'와 대응한다. '흐르다'는 '시간이나 세월이 지나가다.'라는 기본의미로 중국어에서 '流逝, 流走'와 대응할 수 있다. 중국어의 사용 습관에 따라 가장 어울리는 대역어는 '時光流逝'이다.

(6) 체중이 줄다 → 體重下降

한자어 '체중'은 한자와 같이 중국어에서도 '體重'와 대응한다. '줄다'는 '무게가 이전보다 작은 상태로 되다.'라는 기본의미로 중국어 동사 '下降'와 대응한다. 연어 '체중이 줄다'의 통사 구성과 의미 구성과 같이 중국어 동사구 '體重下降'도 명사와 동사의 기본의미로 형성하는 주술관계의 구이다.

(7) 골치가 아프다 → 頭疼 ; 傷腦筋

'골치'는 '머리'의 유의어임으로써 중국어에서 '頭'와 대응 관계를 이룬다. '아프다'도 연어 구성에서 '몸의 어느 부분이 다치거나 맞거나 자극을 받아 괴로움을 느끼다.'라는 기본의미로 중국어 형용사 '疼'와 대응한다. 따라서 '골치가 아프다'는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은 '頭疼'에 해당한다. 그러나 '골치가 아프다'는 문맥에서의 사용 환경에 따라 '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가 성가시거나 어렵다.'와 같은 경우를 묘사할 때 '어떤 문제가 머리를 아프게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골치가 아프다'는 중국어에서 완전 대응 관계인 주술관계 구 '頭疼'와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아프게 한다'로 이해하는 목술관계 구 '傷腦筋'와 대응할 수도 있다. '傷腦筋'의 통사 구조는 '골치가 아프다'와 다르면서 구성요소의 의미도 모두 다르다.

(8) 책임감이 강하다 → 責任感強

연어 구성 중에서 '책임감'과 '강하다'는 모두 중국어와 직접 대응하는 한자어이다. 따라서 '責任感強'와 같은 구로 한국어 연어와 직접 완전 대응하는 연어

관계를 형성한다.

(9) 향이 배다 → 香味浸透

'향'과 '香味'는 기본 의미가 완전 대응하는 명사이고 '배다'와 '浸透'는 모두 '스며들거나 스며나오다.'라는 의미인 동사이다. 따라서 '향이 배다'와 '香味浸透'는 통사와 의미에서 모두 대응하는 연어 관계이다.

4.2.1.2. 부분 대응 주술관계 연어

부분 대응 주술관계 연어는 중국어에서 주술구와 대응하지만 연어 구성에서 구성요소중의 하나의 기본의미는 중국어 대역어의 의미와 비대응 관계를 형성하는 연어이다.

(1) 눈이 높다 → 眼光高

눈: 확장 의미-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

기본 의미 - 빛의 강약 및 과장을 받아들여 뇌에 시각을 전달하는 감각 기관.

眼光: 觀察事物的能力; 觀點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 안목, 관점.)

높다: 품질, 수준, 능력, 가치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

高: 在一般標準或平均程度之上.(평균 정도 또는 일반 기준보다 높다.)

한국어 연어 '눈이 높다'와 중국어 주술구 '眼光高'는 모두 '안목이 높다'나 '정도 이상의 좋은 것만 찾는 버릇이 있다.'라는 뜻이지만 주어인 체언 '눈'은 '안목'과 같은 확장적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어휘의 기본의미로 중국어에서 '眼光'와 대응할 수 없고 '眼睛'와 대응해야 한다. 서술어인 동사 '높다'는 비록 '품질, 수준, 능력, 가치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라는 확장된 의미로 쓰이지만 '높다'의 기본의미로 대응하는 중국어 '高'도 '평균 정도 또는 일반 기준보다 높다.'와 같은 확장적 의미의 용법이 있기 때문에 두 어휘 간에 1대1의 대응관계를 형

성한다. 따라서 '눈이 높다'와 '眼光高'는 선행요소인 '눈'의 확장 의미로 인하여 부분 대응 관계를 이룬다.

(2) 키가 크다 → 个子高

키: 사람이나 동물이 똑바로 섰을 때에 발바닥에서 머리 끝에 이르는 몸의 길이.

个子: 人的身高(신장. 키).

크다: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高: 높다.

'키가 크다'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영상인 '个子高'와 비교할 때 두 표현중의 선행요소인 '키'와 '个子'는 의미적으로 완전히 대응하지만 후행요소인 '크다'와 '高'는 의미적으로 완전히 대응하지 않는다. '크다'의 기본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중국어 형용사 '高'는 '높다.'라는 기본 의미로 사람이나 사물의 높이만 묘사할 수 있고 크기, 길이 등의 정도에 대해 묘사할 때 쓸 수 없다. 따라서 '크다'의 기본의미의 범위는 '高'보다 훨씬 높다. '키가 크다'와 '个子高'는 후행요소인 형용사의 의미 범위로 인해 부분 대응 관계를 형성한다.

(3) 구름이/안개가 끼다 → 乌云密布/ 大霧弥漫

구름→云/ 안개→霧

끼다: 안개나 연기 따위가 퍼져서 서리다.

密布: 充滿;稠密分布;遮蔽整个表面.(구름 따위가) 질게 덮이다[갈리다]. 뽁뽁하게 들어차다.

弥漫: 布滿;到處充斥着.(연기나 안개가) 자욱하다. (물이) 가득 차다. 널리 퍼지다.

한국어 동사 '끼다'가 참여하는 주술관계 연어 '구름이 끼다'와 '안개가 끼다'는 중국어에서 각각 주술구 '乌云密布'와 '大霧弥漫'와 대응한다. 두 언어의 표현에는 체언은 기본의미가 완전히 대응하는 관계이지만 용언은 그렇지 않다. 한국어 동사 '끼다'는 연어에서 '안개나 연기 따위가 퍼져서 서리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중국어에는 '끼다'의 기본의미와 완전히 대응하는 어휘가 따로 없다. 의미가 비슷한 어휘는 '密布'와 '弥漫'가 있는데 어휘적 결합 관계에 있어서 '密布'는

'烏云(먹구름)'과 공기할 수 있지만 '弥漫'는 앞에 나오는 주어에 대해 '大霧(짙은 안개)'를 요구한다. 이를 보니 '密布'와 '弥漫'는 '끼다'와 비교할 때 결합 범위가 작다. 따라서 한·중 어휘의 의미와 결합 범위로 인해 부분 대응적 언어 관계를 형성한다.

(4) 기분이 상하다 → 心情差

기분 → 心情: 대상·환경 따위에 따라 마음에 절로 생기며 한동안 지속되는, 유쾌함이나 불쾌함 따위의 감정.

상하다: 확장 의미 - (마음이나 기분이 어떤 일에) 언짢아지거나 불편해지다.

差: 不好 (나쁘다. 좋지 않다.)

'기분이 상하다'의 중국어 대역어에서 '心情'는 기본의미로 '기분'과 대응하는 명사이다. 그러나 언어 구성에서 '상하다'는 '마음이나 기분이 어떤 일에 언짢아지거나 불편해지다.'라는 확장 의미로 중국어에서 의미가 대응되는 어휘를 찾지 못한다. '기분이 상하다'의 전체 의미를 보면 '기분이 나쁘다'의 뜻과 비슷하다. 따라서 중국어로 옮길 때 '나쁘다'와 대응하는 형용사 '差'를 차용하여 표현한다. 따라서 '기분이 상하다'와 '心情差' 한·중 언어 표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부분 대응적 언어 관계이다.

(5) 맛이 부드럽다 → 味道醇和

맛 → 味道

부드럽다: 술이 독하지 아니하여서 목으로 넘기기 좋다.

醇和: 순정(純正)하고 온화하다.

'맛이 부드럽다'와 '味道醇和'는 모두 술의 맛의 부드러운 특징에 대해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다. 두 표현에서 명사는 모두 '맛'의 뜻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형용사의 경우는, 한국어의 '부드럽다'는 '술이 독하지 아니하여서 목으로 넘기기 좋다.'라는 의미로 중국어에서 대응어가 찾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어에서 술의 부드러운 맛을 비유하는 다른 형용사를 차용하여 번역하여야 한다.

(6) 소문이나다 → 傳聞傳開

소문 → 傳聞 :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하여 들리는 말.

나다: 확장 의미-이름이나 소문 따위가 알려지다.

기본 의미- (어디에 안쪽의 것이) 표면 위로 나오다.

傳開: 널리 전해지다. (사방에) 퍼지다.

'소문이나다'와 '傳聞傳開'는 모두 '소문이 퍼지다.'라는 뜻이다. 체언 '소문'은 중국어 명사 '傳聞'와 대응한다. '나다'는 '표면 위로 나오다.'라는 기본 의미로 중국어에서 '出, 出現'와 대응해야 하는데 연어 구성에서 '이름이나 소문 따위가 알려지다.'라는 확장 의미로 중국어에서 '傳開'와 대응한다. 중국어의 '傳開'는 한국어에서 '퍼지다'와 직접 대응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연어 구성에 있지 않으면 '나다'와 직접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소문이나다'와 '傳聞傳開'는 동사 '나다'의 확장 의미로 인해 부분 대응 관계를 형성한다.

(7) 경기가 풀리다 → 經濟夏蘇, 經濟狀況好轉

경기[景氣] → 經濟狀況

풀리다 :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터놓다)의 피동사.

夏蘇: 被喚起, 振奮 (재생(하다). 회복(하다).)

好轉: 從衰落中恢夏 (호전(되다))

한자어 '경기'는 '때때나 거래에 나타나는 호황·불황 따위의 경제 활동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현대 중국어에서 '景氣'는 명사로 쓰이지 못하고 '경제 호황이다'라는 의미로 용언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국어의 '경기'는 중국어에서 '經濟狀況(경제 상황)'와 대응시켜야 한다. '풀리다'는 '(매이거나 감긴 것이) 제거되어 그렇지 않은 상태로 되다.'라는 기본 의미로 중국어에서 '被解開'와 대응해야 하는데 위의 연어 구성에 있어서 '경기가 불황의 상태에서부터 호황을 향해 발전된다'라는 의미로 중국어에서 '夏蘇'와 '好轉'와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가 풀리다'와 '經濟夏蘇, 經濟狀況好轉'는 어휘의 확장 의미로 인해 형성한 부분 대응적 연어이다.

(8) 형편이 어렵다 → 處境困難、生活窘迫

형편: 살림살이의 형세.

處境: 所處的境地(多指不利的情況) (처해 있는 상태·상황·환경·처지)

어렵다 → 困難, 窘迫

'형편이 어렵다' 와 '處境困難'는 모두 '살림살이의 상황이 어렵다'라는 의미지만 언어 표현을 구성한 '형편'과 '處境'의 기본 의미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부분 대응적 언어 관계를 형성한다.

이처럼 한·중 대응적 주술관계 언어는 총 16개가 있고 전체 주술관계 언어의 대응 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이다. 상당수의 한국어 주술관계 언어는 중국어에서 통사 구성이 비슷한 주술구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중국어 어휘 체계에는 한국어 자동사의 성질과 같은 동사의 양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주술구는 대부분 형용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중 대응적 주술관계 언어에는 구성요소의 의미가 완전 대응하는 언어는 9개가 있고 부분 대응적 언어는 8개가 있다. 부분 대응적 언어에는 '눈이 높다'과 '형편이 어렵다'와 같은 두 개의 선행요소의 의미가 비대응적 관계인 언어 외에 나머지 6개는 모두 후행요소인 용언의 의미는 두 언어에서 대응하지 않는 예시이다. 이는 한국어의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보다 의미가 확장되는 상황이 많고 중국어에서 기본의미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분 대응적 언어의 의미를 실제로 분석해 보면 한·중 두 언어에서 언어를 구성하는 어휘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의미의 확장, 의미의 적용 범위, 그리고 언어 간의 문화 차이와 관련된다. 이 중에서 의미의 확장은 부분 대응적 언어 관계를 형성하는 주된 요인이다.

2.2. 비대응적 대조 관계의 주술관계 언어

비대응적 대조 관계의 주술관계 언어는 주로 한국어 언어가 중국어에서 술빈구, 상황어 중심어구, 술보구, 부정구, 피동구, 복잡구, 단어, 그리고 사자성어와 대응하는 7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대응 양상에 대해 분석해 보

켰다.

2.2.1. 슬빈구와의 대응

한국어 주술관계 연어가 중국어 슬빈구와 대응하는 경우는 주로 한국어 자동사로 인해 이루는 특기한 대응 양상이다. 중국어 어휘 체계에서는 자동사의 수량이 많지 않을 뿐더러 타동사와 구분하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구는 대부분 슬빈구에 해당한다. 이런 원인으로 한국어에서 자동사로 구성된 주술관계 연어는 중국어와 대응할 때 슬빈구로 나오는 상황이 많다. 교육용 언어 목록에는 '들다', '나다', '오다', '내리다' 등 자동사로 이루는 연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어 구성에서 참여하는 구체적인 동사에 따라 분석하도록 한다.

(1) '들다'류 주술관계 연어

감기가 들다→得/患感冒

(들다: 몸에 병이나 증상이 생기다. 得/患: (병에) 걸리다. 앓다.)

나이가 들다→上歲數

(들다: 나이가 많아지다. 上: (일정한 정도·수량에) 이르다. 달하다.)

돈이 들다→花錢、費錢

(들다: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

花/費: 소비하다. 쓰다. 소모하다. 들(이)다. 걸리다.

생각이 들다→有想法、有念頭

(들다: 의식이 회복되거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다.

花/費: 소비하다. 쓰다. 소모하다. 들(이)다. 걸리다.)

잠이 들다→入睡

(들다: 잠이 생기어 몸과 의식에 작용하다. 入: 들다.)

느낌이 들다→有感覺

(들다: 의식이 회복되거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다. 有: 생기다. 나타나다.)

도둑이 들다→進小偷

(들다: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 進: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들다.)

정이 들다→產生感情

(들다: 의식이 회복되거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다. 產生: 발생(하다). 생기다. 출현(하다).)

위에서 제시한 자동사 '들다'로 구성하는 연어들에서 선행요소인 체언은 모두 중국어에서 의미가 완전히 대응하는 명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의어인 동사 '들다'는 여러 가지의 의미로 중국어에서 다양한 대응 양상을 보인다. '들다'의 중국어 대역어는 의미가 한국어와 일치하지만 동사의 성질이 자동사가 아닌 타동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들다'로 구성하는 주술관계 연어는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이 대부분 술빈구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주술관계 연어 '돈이 들다' 중에서 자동사 '들다'는 '어떤 일에 돈을 쓰이다'라는 의미로 중국어에서 '花'이나 '費'와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花'와 '費'는 타동사로서 앞에 주어가 나올 수 있지만 '돈이 들다'에서의 주어 '돈'의 대상역과 달리 행위주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동사 '花'와 '費'의 대상인 '錢'은 중국어 어법 규칙에 따라 동사 뒤에 있는 위치에서 목적어로 나와야 한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과 같이 한국어 주술관계 연어 '돈이 들다'는 중국어 술빈구(목적어관계)인 '花錢,費錢'와 통사적으로 비대응 관계를 형성한다.

(2) '나다'류 주술관계 연어

가. 시간이 나다→有時間、得空儿

(나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다. 有: 有: 생기다. 나타나다.)

나. 냄새가 나다→有味儿、有臭味儿

(나다: 소리, 냄새 따위가 밖으로 드러나다. 有: 생기다. 나타나다.)

다. 고장이 나다→出故障

(나다: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일어나다. 出: 발생하다.)

사고가 나다→出事故、發生意外

(나다: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일어나다. 出: 발생하다.)

큰일이 나다→出大事

(나다: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일어나다. 出 : 발생하다.)

라. 땀이 나다→出汗

(나다: 신체에서 땀, 피, 눈물 따위의 액체 성분이 흐르다. 出 : (표면에) 나타내다. 드러나다.)

피가 나다→出血、流血

(나다: 신체에서 땀, 피, 눈물 따위의 액체 성분이 흐르다. 出 : (표면에) 나타내다. 드러나다.)

위에서 제시한 '나다' 류 연어에서 선행요소인 체언은 모두 중국어의 명사와 1대1 관계로 대응한다. 후행요소인 동사 '나다'는 구체적인 연어 구성 중에서 다양한 의미로 부동한 중국어 어휘와 대응한다. 자동사 '나다'는 체언과 주술관계 연어를 형성하지만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은 목술관계의 통사 구성인 술빈구조로 보인다. 이런 특기한 대응 양상은 '나다'의 중국어 대역어는 모두 타동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예시 '가'에서 '나다'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라는 의미로 중국어에서 의미가 비슷한 '有(생기다)'와 대응한다. '나'에서 '나다'는 '소리, 냄새 따위가 밖으로 드러나다.'라는 의미로 중국어에서 '드러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有(나타나다)'와 대응할 수 있다. '다'에서 '나다'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일어나다.'라는 의미로 중국어에서 '발생하다.'의 의미인 '出'와 대응한다. '라'에서 '나다'는 '신체에서 땀, 피, 눈물 따위의 액체 성분이 흐르다.'라는 의미로 중국어에서 '出(안쪽에서 밖으로 나타나다)'와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흐르다'의 대역어인 '流'와 대응할 수도 있다.

(3) '오다'와 '내리다' 류 주술관계 연어

눈이 내리다, 비가 내리다→ 下雪/下雨

(내리다: 눈, 비, 서리, 이슬 따위가 오다. 下 : (비·눈 따위가) 내리다.)

눈이 오다, 비가 오다→ 下雪/下雨

(오다: 비, 눈, 서리나 추위 따위가 내리거나 닥치다. 下 : (비·눈 따위가) 내리다.)

전화가 오다→來電話

(오다: (보낸 것이) 이르러 닿다. 來 : 오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내리다', '오다'로 구성된 주술관계 연어는 중국어에서 모두 술빈구로 대응한다. 먼저, 한·중 연어 '눈이/비가 내리다', '눈이/비가 오다', 그리고 '下雪/下雨'의 연어적 의미는 모두 '(눈이나 비, 이슬 따위가) 하늘에서 떨어지다.'의 뜻이다. 그러나 용언의 대조 관계를 보면 '내리다'와 '下'의 기본 의미는 모두 '떨어지다'와 일치하기 때문에 의미가 대응한다. 그러나 '오다'의 기본 의미는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움직여 위치를 옮기다'라는 뜻으로 중국어에서 '來'와 대응해야 했는데 연어 구성에는 '내리다, 떨어지다'라는 의미로 '下'와 대응한다. 따라서 '눈이/비가 내리다'와 '下雪/下雨'는 용언의 의미가 일치하는 비대응적 연어 대응 관계이지만 '눈이/비가 오다'와 '下雪/下雨'는 용언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비대응적 연어 대응 관계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전화가 오다'와 '來電話'는 체언과 용언의 기본의미는 두 언어에서 모두 일치하지만 서로 다른 통사구성으로 인해 비대응적 연어관계를 형성하는 예이다.

(4) 기타 자동사류 주술관계 연어

a. 의미가 완전 대응하는 경우

① 고민이 생기다 → 有煩惱

생기다: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 有: 存在(있다).

② 과일이 열리다 → 結果

열리다: 열매가 맺히다. 結: 植物長果實(열매를 맺다. (열매가) 열리다.)

③ 꽃이 피다 → 開花

피다: 꽃봉오리 따위가 벌어지다. 開: 開放;舒放(벌어지다. (꽃이) 피다.)

④ 바람이 불다 → 刮風

불다: 바람이 일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다. 刮: 風吹動(바람이 불다.)

⑤ 활기가 차다 → 充滿活力/힘이 차다 → 有力气、有勁儿

차다:감정이나 기운 따위가 가득하게 되다.

充滿: 完全占滿(가득차다.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넘치다.)

위에서 제시한 한국어 연어는 모두 주술관계인 통사 구성이자만 중국어에서의

대응양상은 다 술빈구에 해당한다. 한국어 연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술빈구의 구성 요소의 의미는 연어의 구성 요소와 모두 일치한다. 따라서 이런 연어의 대응양상은 의미가 완전히 대응하는 중국어 술빈구로 보인다. 예를 들면, '꽃이 피다'는 '開花'와 대응 관계를 이룬다. 한국어 연어에서의 체언인 '꽃'은 중국어에서 '花'와 대응한다. 용언 '피다'와 중국어의 동사 '開'의 의미는 모두 '꽃봉오리 따위가 벌어지다.'라는 뜻으로 1대1적 대응 관계를 보인다. 다만 '피다'의 성질은 자동사이지만 '開'는 타동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꽃이 피다'와 '開花'는 의미가 대응하지만 통사 구성이 일치하지 않은 비대응적 언어 관계를 이룬다.

b. 용언의 의미가 비대응하는 경우

① 재미가 붙다 → 產生興趣

붙다: 확장 의미-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 생겨나다.

기본 의미- (무엇이 다른 것에) 닿아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되다.

產生: 出現(발생(하다). 생기다. 출현(하다).)

② 살이 찌다 → 長肉

찌다: 살이 올라서 뚱뚱해지다. 長: 生長, 成長(나다. 생기다.)

③ 숨이 막히다 → 憋氣

막히다: 확장 의미- 기운 따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다.

기본 의미- (도로나 뱃길, 항로 따위가) 어떤 장애로 오고가지 못하게 되다.

憋: 氣不通((숨·화·대소변 따위를) 참다. 견디다. 억제하다.)

④ 시간이 걸리다 → 花時間

걸리다: 확장 의미: 시간이 들다.

기본 의미: (물건이 어디에) 드리워지거나 달려 있다.

花: 用掉(소비하다. 쓰다. 소모하다. 들(이)다. 걸리다.)

⑤ 신호가 가다 → 有信號

가다: 말이나 소식 따위가 알려지거나 전하여지다.

有: 表示發生、出現(생기다. 나타나다.)

⑥ 예절이 밝다 → 懂禮貌、有禮貌

밝다: 생각이나 태도가 분명하고 바르다.

懂: 了解, 明白(알다. 이해하다.)

⑦ 정이 들다 → 產生感情

들다: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생겨나서 의식 속에 자리잡다.

產生: 出現(발생(하다). 생기다. 출현(하다).)

⑧ 피로가 풀리다 → 消除疲勞、緩解疲勞

풀리다: 일어난 감정 따위를 누그러뜨리다)의 피동사.

消除: 使不存在;除去 ((걱정이나 장애 등을) 제거하다. 일소하다. 없애 버리다.)

⑨ 밥맛이 떨어지다 → 倒胃口

떨어지다: 입맛이 없어지다.

倒: 位置上下前后翻轉((상하·전후의 위치나 순서가) 거꾸로 되다)

⑩ 입맛이 당기다 → 勾起食欲; 吊胃口

당기다: 입맛이 돋우어지다. 吊: 懸挂((끈 따위로 매서) 들어 올리다)

⑪ 천둥이/ 번개가 치다 → 打雷/打閃

치다: 천둥이나 번개 따위가 큰 소리나 빛을 내면서 일어나다.

打: 放出, 發出, 注入, 扎入 (쏘다. 발송하다. 보내다.)

⑫ 홍수가 나다 → 發洪水

나다: 홍수, 장마 따위의 자연재해가 일어나다.

發: 產生, 出現(발생하다. 생산하다. 생기다.)

위에서 제시한 한국어 연어는 용언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은 중국어 술빈구와 대응하는 것이다. 용언에 속하는 한국어 어휘는 중국어 대역어와 의미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다시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한국어 어휘의 확장 의미는 중국어 대역어와 일치하지만 기본의미는 중국어 대역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어와 중국어 대역어의 기본적 의미는 완전히 다르거나 관련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재미가 붙다'는 중국어에서 '產生興趣'와 대응한다. 두 표현에서 용언 '붙다'와 '產生'의 의미는 모두 '생기다'의 의미와 관련되지만 한국어 '붙다'는 자립성이 있는 동사로서 홀로 쓰일 때 '무엇이 다른 것에 닿아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되다.'라는 기본 의미로 중국어에서 '產生'가 아닌 '貼(붙다/붙이다.)'와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재미가 붙다'와 '產生興趣'는 용언의 기본의미로 인해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대응관계를 형성한다. 이와 달리 '예절이 밝다'는 중국어에서 '懂禮貌'나 '有禮貌'와 같은 술빈구로 대응

할 수 있는데 두 표현에서 용언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생각이나 태도가 분명하고 바르다.'라는 의미인 '밝다'와 '알다. 이해하다.'의 뜻인 '懂'는 거의 관련이 없는 두 어휘이다. 그러나 이런 의미상 거리가 먼 두 단어로 구성된 표현은 연어적 의미는 일치하고 한·중 두 언어에서 대응 관계를 이룬다. 그 이유는 한·중 두 언어 간의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과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시한 연어들 중에서 '예절이 밝다'외에 '살이 찌다', '신호가 가다', '정미 들다', '피로가 풀리다', '밥맛이 떨어지다', '입맛이 당기다', '천둥이/ 번개가 치다' 등은 모두 대응 관계에는 용언의 의미가 서로 다른 상황에 해당한다.

2.2.2. 상황어 중심어 구와의 대응

(1) 이해가 가다 → 能够理解

이해[理解] → 理解(동사)

가다: 어떤 일에 대하여 납득이나 이해, 짐작 따위가 되다.

能够: 表示具備某种能力 (어떤 능력을 구비하고 있거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표시)

한국어 연어 '이해가 가다'의 전체 의미는 '이해가 되다',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라는 뜻이다. '이해가 가다'의 구성 성분은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명사인 '이해'와 [능력]의 의미가 나타나는 기능동사인 '가다'가 있다. 기능동사로서 '가다'는 연어 구성 중에서 실제적인 동작이나 행위를 표현하지 않고 동사성 명사 '이해'의 정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국어에서 조동사'能够', '能'를 통해 [능력]과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해가 가다'중의 '가다'는 중국어에서 조동사 能够'나 '能'와 대응될 수 있다. 중국어의 조동사는 한국어의 기능동사와 마찬가지로 동작성이 없고 대신에 동사 앞에 나오고 동사의 의미를 보충한다. 중국어의 어법 규칙에 따라 '조동사+동사'와 같은 구성에서 조동사 '能够', '能'는 뒤에 나오는 중심어인 동사의 상황어가 될 수 있다. '이해가 가다'중의 '이해'는 중국어에서 '理解'와 대응한다. '理解'가 명사

와 동사와 같은 두 가지의 품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동사로 보는 경우 조동사 ‘能够’ 뒤에 나올 수 있다. ‘조동사(상황어)+동사’의 구성인 ‘能够理解’는 중국어의 상황어중심어 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어 주술관계 연어인 ‘이해가 가다’는 중국어에서 상황어중심어구인 ‘能够理解’와 대응관계를 형성한다.

2.2.3. 슬보구와의 대응

(1) 생각이 나다 → 想起、想出

생각:(명사)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한 기억.

想:(동사)생각하다.

나다: 생각, 기억 따위가 일다.

起: 동사 뒤에 붙어 동작이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향보어(方向補語)로 쓰임.

出: 동사의 뒤에 쓰여 ‘동작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다’ ‘나타나다’ ‘완성되다’의 뜻을 나타냄.

(2) 짐작이 가다 → 預料到、猜想出

짐작:(명사)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어림잡아 헤아림.

預料:(동사) 예상하다. 전망하다. 예측하다

猜想:(동사) 짐작하다. 추측하다.

가다: 어떤 일에 대하여 납득이나 이해, 짐작 따위가 되다.

到:(동사의 보어로 쓰여) ...에 미치다. ...에 이르다. ...을 해내다. 동작이 목적에 도달하거나 성취된 것을 나타냄

出: 동사의 뒤에 쓰여 ‘동작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다’ ‘나타나다’ ‘완성되다’의 뜻을 나타냄.

(3) 잠이 들다 → 睡着

잠:(명사) 눈이 감긴 채 의식 활동이 쉬는 상태.

睡:(동사) 잠을 자다.

들다: 잠이 생기어 몸과 의식에 작용하다.

着: 동사 뒤에 놓여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결과가 있음을 표시함.

(4) 인물이 좋다 → 長得漂亮

인물:(명사) 생김새

長: (동사) 생기다.

좋다: (무엇이) 성질이나 내용이 보통 이상이거나 우수하다.

漂亮: 예쁘다

이처럼 위의 한국어 연어는 중국어로 대응할 때 주어인 체언은 중국어에서 모두 서술어로 대응된다. 예를 들면, '생각, 짐작, 잠'은 동사성을 가지고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중국어에서 각각 '想(생각하다), 預料(짐작하다), 睡(자다)'와 대응한다. 형태론 관점에서 보면 이런 명사와 대응하는 중국어 대역어의 어휘는 모두 그 명사의 동사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연어중의 동사는 모두 기능동사이다. 기능동사는 일반적인 동사와 달리 동작이나 행위를 표현하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도 없다. 보통 앞에 나오는 동사성 명사의 상태나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어에서 한국어 기능동사의 역할을 수행한 성분은 보어라고 한다. 보어는 동사의 의미 대해 보충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중국어 동사의 뒤에 나온다. 일부분 보어는 직접 동사 뒤에 나올 수 있고 중국어 보어의 표지인 '得'를 통해서 술어와 보어를 연결하는 상황도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연어 구성 중의 기능동사는 보통 중국어에서 보어로 대응한다. 위의 예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어의 기능동사는 앞에 나오는 명사에 의해 이루는 상태 혹은 달성된 결과를 설명한다. 같은 의미인 중국어 보어는 '起(일어나다), 到(이르다), 出(나오다/나타나다), 着(들다)...' 등이 있다. 구체적인 예를 분석해 보겠다. 먼저, 한국어 연어 '짐작이 가다'는 '짐작이 되다'나 '짐작됐다' 등 비슷한 의미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짐작'은 동사성이 있는 명사임으로 중국어에서 '짐작'의 동사형인 '짐작하다'의 대역어인 '預料'나 '猜想'와 대응시킬 수 있다. '預料'와 '猜想'는 동사임으로 보통 중국어 구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앞에 논의한 것과 같이 연어 구성중의 '가다'는 기능동사로서 주로 어떤 동작이나 행위에 의해 얻은 결과 등을 표현한다. 이런 기능동사는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은 보통 서술어 뒤에 나오는 보어로 보인다. 여기에는 '가다'가 나타나는 '어떤 일에 대하여 짐작 따위가 되다.'라는 의미와 비슷한 중국어 보어는 '到(이르다) '出(나오다/나타나다)'가 있다. 따라서 동사성 명사와 기능동사로 구성된 한국어 주술관계연어 ' 짐작이 가다'는 중국어에서 '預料到、猜想出'와 같은 술보구와 대응한다.

2.2.4. 부정구와의 대응

- (1) 말이 아니다 → 不像話, 不成樣 (말을 같지 않다)
- (2) 방이 나가다 → 沒房間了 (방이 없다)
- (3) 짜증이 나다 → 不耐煩 (참지 못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의 한국어 주술관계 연어 중에는 모두 부정문의 표지인 '不(안/ -지 않다)'이나 '沒(없다/-지 않았다)'가 참여하는 중국어 부정구와 대응한다. '말이 아니다'는 중국어에서 직접 번역하면 '不是話'가 된다. 연어의 후행요소인 '아니다'는 중국어에서 '不是'와 직접 대응하는데 '不是'는 '말'과 대응하는 '話'와 같이 술빈구를 형성하면 어법 규칙에는 문제가 없지만 어휘적 결합에 있어 아주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말이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라는 연어적 의미에 따라 '是' 대신에 다른 중국어 동사를 차용하여 '不像話(말을 같지 않다)' 혹은 연어를 완전히 의역해서 '不成樣(제모습이 안 된다)'와 같은 대역어를 선택할 수 있다. '방이 나가다'와 '짜증이 나다'의 연어 구성에는 비록 부정어의 표지가 없지만 '나가다'는 '없다'의 의미로, '짜증'은 부정적인 감정에 속하는 것으로 어휘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는 이런 부정적 의미의 어휘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대역어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중국어의 부정문의 표지인 '沒'와 '不'를 의해 연어를 의역해서 부정문인 대역어를 택하는 방법이 있다.

2.2.5. 피동구와의 대응

- (1) 길이 막히다 → 路被堵住

막히다: 막다1(1. 길, 통로 따위가 통하지 못하게 하다)의 피동사.

막다→堵 막히다→被堵

이처럼 한국어의 피동 표현은 주로 동사 내부의 행태 변화에 의해 이루는데 중국어는 이런 행태적 변화보다 동사 앞에 나오는 피동의 표지인 '被'를 통해서 실현된다. 따라서 주술관계 연어 중의 피동사에 의해 중국어에서 피동구와 대응 관계를 형성한다.

2.2.6. 복잡한 구와의 대응

- (1) 달이 뜨다 → 月亮升起 [주어+술보구]
- (2) 판단이 서다 → 做出判斷 [술보구+빈어]
- (3) 단풍이 들다 → 楓叶染紅 [주어+술보구]
- (4) 돈이 떨어지다 → 錢用完了、錢花光了[주어+술보구]
- (5) 목이 타다 → 嗓子眼冒烟 [주어+술빈구]

위에서 제시한 주술관계 연어는 중국어에서 복자구와 대응하는 예들이다. 그 중에서 연어의 주어가 중국어에서 똑같이 주어로 대응하는 것은 '달이 뜨다, 단풍이 들다, 돈이 떨어지다, 목이 타다'가 있다. 이들의 중국어 대응양상 통사 구성의 차이점은 주로 서술어 뒤에 나오는 보어나 목적어 성분에 있다. 연어 구성 중의 주어가 중국어에서 빈어(목적어)로 대응하는 것은 '판단이 서다, 실감이 나다'가 있다. 그러나 이들과 대응 양상의 통사적 차이점은 주술관계와 술빈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술어 뒤에나 빈어 앞은 나오는 다른 성분도 참여한다. 위의 두 가지의 대응 상황의 구체적인 예를 분석해 보겠다. '달이 뜨다'의 주어인 체언 '달'은 중국어에서 '月亮'와 직접 대응한다. 서술어인 용언 '뜨다'는 '물속이나 지면 따위에서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물 위나 공중에 있거나 위쪽으로 솟아 오르다.'라는 기본 의미로 중국어의 동사 '升(오르다. 올라가다. 떠오르다.)'와 대응한다. 이처럼 체언 '月亮'와 용언 '升'은 한국어처럼 '月亮升'와 같은 주술관계 연어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표현은 중국어의 어법 규칙을 어

기는 것이다. 중국어 문장에서 단음절 동사가 서술어 하는 경우, 그리고 그 서술어 뒤에 목적어가 붙이지 않으면 보통 보어와 같이 나와야 한다. 다시 말하면 '月亮升'의 '升' 뒤에 보어가 나오고 '升'의 상태나 결과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升'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동작이라서 보통 방향 보어 '起'와 같이 결합한다. 이처럼 중국어 어법 규칙의 특성에 따라 한국어 주술관계 연어는 중국어의 [주어+술보구]형 복잡구와 대응관계를 형성되었다. '돈이 떨어지다'의 대역어인 '錢用完了、錢花光了'도 위와 똑같은 상황이다. '떨어지다'는 중국어에서 단음절 동사 '用'이나 '花'와 대응하기 때문에 이런 동사가 서술어를 할 때 뒤에 목적어사 없다면 '完了'나 '光了' 등 보어와 같이 쓰고 술보구를 이룬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주어+술보구]형 복잡구와 대응하는 '단풍이 들다'의 상황은 위의 예시들과 다르다. '단풍이 들다' 중에서 '단풍'이 중국어에서 '楓叶'와 대응하고 '들다'는 '물감, 색깔, 물기, 소금기가 스미거나 배다.'라는 의미로 중국어에서 의미가 완전히 일치한 동사를 찾을 수 없지만 '염색하다.'의 뜻인 '染'와 대응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하는 중국어 단음절 동사의 사용규칙에 따라 '染' 뒤에 '물들이다'의 결과를 나타내는 형용사 '紅(빨갳다/빨개지다)'가 보어로 나타난다. '판단이 서다'와 '실감이 나다'의 대응 양상도 중국어에서 '서다'와 '실감'의 의미와 대응할 수 있는 어휘가 없기 때문에 의역의 방식에 의해 복잡구로 대응되는 예들이다.

2.2.7. 단어와의 대응

- (1) 값이 나가다 → 值錢
- (2) 불이 나다 → 着火
- (3) 화가 나다 → 生气、發火
- (4) 겁이 나다 → 害怕 ; 胆小 , 胆怯
- (5) 구름이 끼다 → 多云
- (6) 기침이 나다 → 咳嗽
- (7) 살이 빠지다 → 減肥、變瘦、掉肉
- (8) 몸이 떨리다 → 發抖、哆嗦

- (9) 소문이 나다 → 出名
- (10) 숨이 막히다 → 窒息
- (11) 열이 나다 → 發燒; 生气、發火
- (12) 정신이 팔리다 → 沉迷、迷住
- (13) 풀이 죽다 → 消沉、泄气
- (14) 가뭄이 들다 → 干旱
- (15) 갈증이 나다 → 口渴
- (16) 고집이 세다 → 固執
- (17) 기가 막히다 → 語塞
- (18) 목이 타다 → 口干; 焦急
- (19) 신이 나다 → 開心; 來勁
- (20) 애가 타다 → 焦急、焦慮
- (21) 후회가 들다 → 後悔
- (22) 음식이 체하다 → 積食

위의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어휘 간에 형성한 대응 관계를 보면 주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유형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연어의 구성 요소인 체언과 용언은 중국어에서 각각 같은 성질과 의미인 체언과 용언으로 대응하는데 전체 대응 양상은 그 체언과 용언의 대역어로 형성한 연어나 구가 아니라 '체언+용언'형이나 '용언+체언'형 합성어이다. 첫 번째 대응 양상에 해당된 연어는 '값이 나가다, 불이 나다, 화가 나다, 구름이 끼다, 살이 빠지다, 소문이 나다, 숨이 막히다, 열이 나다, 기가 막히다' 등이 있다. 둘째, 한국어 주술관계 연어는 '동사성 명사+기능동사'의 구성인데 중국어와 대응시킬 때 실제적 의미가 없는 기능동사는 중국어 대역어에서 구현하지 않아도 되고 동사성 명사를 중국어의 동사로 번역하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상황에 해당한 연어는 '겉이 나다, 기침이 나다, 가뭄이 들다, 갈증이 나다, 고집이 세다, 후회가 들다' 등이 있다. 셋째, 한국어 연어의 구성요소는 중국어에서 대역어가 없거나 대역어가 있어도 그 대역어로 만들 구와 가운 표현은 중국어에 의미가 없는 표현이나 쓰지 않은 표현임으로 개별 어휘소의 의미로 대응시키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역의 방법에 따

라 중국어의 한 어휘가 연어의 대역어가 되는 경우이다. 셋 번째 대응 상황에 해당하는 연어는 '정신이 팔리다, 목이 타다, 신이 나다, 애가 타다' 등이 있다. 위와 같은 3 가지의 대응 유형의 구체적인 예를 분석해 보겠다.

먼저 한국어 주술관계 연어 '화가 나다'는 중국어 합성어 '生气'나 '發火'와 대응하는 상황이다. '生气'는 동사 '生'와 명사 '气'로 구성하는 목술관계인 합성어이고 '發火'는 동사 '發'와 명사 '火'로 구성한다. 한국어 연어 '화가 나다' 중의 동사 '나다'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로 중국어에서 '發生'와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연어를 구성하는 선행요소인 한자어 명사 '화'는 중국어에서 '火'와 대응한다. 따라서 한국어 연어 '화가 나다'는 글자 그대로 중국어에 대응하는 경우, '發生火'라는 표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發生火'는 중국어에서 쓰지 않고 의미가 없는 표현이다. 중국어에서 '화가 나다'와 의미가 같은 것은 합성어 '生气'나 '發火'이다. 이 두 어휘를 보면 구성 요소는 역시 바로 앞의 직역 방법을 통해 얻은 대역어인 '發生'와 '火'와 관련된다. 그래서 한국어 주술관계 연어 '화가 나다'는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은 연어나 구가 아닌 합성어에 해당한다.

다음에 한국어 주술관계 연어 '기침이 나다'와 '고집이 세다'는 각각 중국어 합성어 '咳嗽'와 '固執'와 대응하는 상황이다. '기침이 나다' 중에서 선행요소인 명사 '기침'은 '목감기의 주된 증상'으로 중국어에서 '咳嗽'라 부른다. 그리고 후행요소인 동사 '나다'는 연어구성에서 '병 따위가 발생하다.'라는 의미로 중국어 '發生[발생]'와 대응할 수 있다. 이처럼 연어의 구성요소를 1대1로 직접 번역하면 '發生咳嗽'와 같은 중국어 대응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發生咳嗽'는 중국어에는 아주 어색한 표현이다. '기침이 나다'를 중국어로 표현하려면 직접 동사 '咳嗽'를 써야한다. 여기에는 '나다'와 대응하는 중국어 동사 '發生'를 빼는 이유는 한국어 어휘 '기침'은 명사로서 문장으로 나타나려면 뒤에 반드시 동사가 따라와야 한다. 그러나 대역어 '咳嗽'는 동사(기침하다)와 명사(기침) 두 가지의 품사에 속한다. 문장에서 구지 '나다'의 대역어를 넣지 않아도 동사 '咳嗽' 자체가 이미 '기침이 나다', '기침 증상이 발생한다.'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한국어 연어 '기침이 나다'의 의미는 중국어 동사 '咳嗽'와 일치한다. '고집이 세다'는 중국어에서 '固執'와 대응된다. 대응 원리는 '기침이 나다'와 똑같지만 이런 방법으로 번역된

중국어 대역어가 한국어 연어의 의미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고집이 세다' 중에서 '고집[固執]'은 중국어 명사가 아닌 동사인 '固執'와 대응할 때 '세다'와 대응하는 중국어 형용사 '強'을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固執'는 '고집하다'의 의미만 있고 '고집이 세다'처럼 고집한 정도가 상당히 높다'의 뜻이 없다. 다만 간명한 번역 원칙에 따라 연어 전체의 의미를 볼 때 핵심적 의미를 영향하지 않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세다'와 같은 세부 요소를 번역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중국어 대역어로 한국어 연어 '고집이 세다'의 전체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형용사 '固執' 앞에 정도부사 '很'를 붙이면 된다. '很固執'와 같은 상황어중심어구는 연어를 직역하는 방법을 통해 얻은 '固執強'보다 중국인들의 언어 사용 습관상에 있어서 훨씬 자연스럽다.

마지막은 한국어 연어 '애가 타다'는 중국어에서 동사 '焦急'나 焦慮'와 대응하는 예이다. 한·중 언어의 문화적 차이와 표현 방식의 차이로 인해 '애가 타다'의 구성요소는 명사 '애'이든 동사 '타다'이든 의미에 따라 중국어에서 대응하는 어휘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연어 '애가 타다'의 '몹시 답답하거나 안타까워 속이 끓는 듯하다'라는 전체 의미에 따라 의역하는 방법을 통해 중국어 동사 '焦急'나 焦慮'와 대응된다.

2.2.8. 성어와의 대응

- (1) 기가 막히다 → 無言以對； 嘆爲觀止
- (2) 신이 나다 → 興致勃勃
- (3) 실감이 나다 → 感同身受
- (4) 애가 타다 → 心急如焚； 牽腸挂肚
- (5) 진심이 어리다 → 真心實意

한국어 주술관계 연어는 중국어 사자성어와 대응하는 경우, 대부분 그 연어의 구성 요소는 중국어에 대응어가 없고 의역하는 방법에 의해 형성된 대응 관계이다. 사자성어는 단어와 같이 어휘로 봐도 되는데 본고에서 성어와 대응하는 것은

따로 제시하는 이유는 사자성어는 관용표현과 속어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어휘와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3.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의 대응 양상

3.1. 대응적 대조 관계의 목술관계 연어

선정된 교육용 한국어 연어 중에서 목술관계 연어의 절반 이상은 중국어의 술빈구와 대응 관계를 형성한다. 한국어의 목술관계 연어와 중국어 술빈구는 통사 구성이 일치한 대응 관계이다. 이런 대응적 대조 관계는 구성 요소의 의미에 따라 다시 완전 대응 목술관계 연어와 부분 대응 목술관계 연어로 나눌 수 있다. 완전 대응 목술관계 연어는 한국어 연어의 구성 요소는 모두 기본 의미로 중국어 술빈구와 대응하는 것이고 부분 대응 목술관계 연어는 한국어 연어의 구성 요소 중의 하나가 기본 의미로 대역어인 중국어 술빈구의 구성 성분의 의미와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보겠다.

3.1.1. 완전 대응 목술관계 연어

- (1) 구경을 가다 → 去觀賞
- (2) 마음을 놓다 → 放心
- (3) 불을 끄다 → 關燈
- (4) 비디오를 찍다 → 拍視頻
- (5) 사진을 찍다 → 拍照、照相
- (6) 산책을 가다 → 去散步
- (7) 전화를 받다 → 接電話
- (8) 핸드폰을 켜다 → 開手機

- (9) 고민을 해결하다 → 解決煩惱、排解苦悶
- (10) 김치를 담그다 → 腌泡菜
- (11) 눈을 감다 → 閉眼
- (12) 눈을 뜨다 → 睜眼
- (13) 돈을 벌다 → 掙錢
- (14) 머리를 감다 → 洗頭
- (15) 아이를 낳다 → 生孩子
- (16) 약속을 지키다 → 守約、遵守約定
- (17) 갈등을 해소하다 → 消除矛盾
- (18) 고기를 채우다 → 腌肉
- (19) 대가를 치르다 → 付出代价
- (20) 돈을 갚다 → 還錢
- (21) 마늘을 다지다 → 搗蒜
- (22) 문자를 보내다 → 發短信
- (23) 빚을 갚다 → 還債
- (24) 안부를 전하다 → 轉達問候
- (25) 약속을 어기다 → 違背約定
- (26) 용서를 빌다 → 請求原諒、求饒
- (27) 의욕을 잃다 → 喪失欲望
- (28) 인정을 받다 → 得到認可
- (29) 친구를 사귀다 → 交朋友
- (30) 탁구를 치다 → 打台球
- (31) 약을 바르다 → 抹藥、塗藥膏
- (32) 예를 들다 → 舉例子
- (33) 신청서를 내다 → 提交申請、遞交申請表

위에서 제시한 30개의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는 모두 중국어 술빈구와 통사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구성 요소의 의미도 중국어와 완전히 대응한다. 따라서 이 30개의 연어들은 중국어와 완전 대응 목술관계 연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

빚을 갚다'중에서 '빚'은 '남에게 갚아야 할 돈. 꾸어 쓴 돈이나 외상값 따위를 이른다.'라는 기본의미로 중국어 명사 '債'와 완전히 대응한다. 연어의 용언인 '갚다'도 마찬가지로, '남에게 빌리거나 꾸는 것을 도로 돌려준다.'와 같은 기본의미로 중국어 동사 '還'와 대응한다. 이처럼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의 구성 요소는 모두 기본의미로 1대1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완전 대응 관계를 형성한다. 완전 대응 목술관계 연어는 보통 직접 번역하는 방법을 통해 중국어 대역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대응 양상 중에서 '마음을 놓다'의 상황은 다른 연어와 조금 다르다. '마음을 놓다'중에서 구성 요소의 의미는 모두 확장된 의미 용법이다. 명사인 '마음'은 연어 구성에서의 의미는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라는 기본의미가 아니고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감정이나 심리.'라는 뜻이고 동사인 '놓다'가 연어 구성에서의 의미는 '(사람이 물건을) 손으로 잡거나 쥐거나 누르고 있다가 손을 펴서 손에서 떨어지게 하다.'가 아닌 '(사람이 걱정이나 근심을) 마음속에 두지 않거나 있다.'와 같은 확장 의미이다. 어휘의 확장 의미로 형성한 연어 '마음을 놓다'는 중국어 술빈구 '放心'와 완전 대응 관계를 이루는 곳은 다른 예들과 비교해 볼 때 아주 특별한 상황이다. '마음을 놓다'의 구성요소의 기본 의미는 중국어 술빈구 '放心'의 구성요소의 의미와 완전히 일치하다. 비록 중국어 사전에서 동사 '放'와 명사 '心'에 대해 한국어 어휘 '놓다'와 '마음'와 같은 확장 의미를 제시하지 않지만 '마음을 놓다'와 '放心'는 연어적 의미와 구성요소의 기본의미에서 봤을 때 완전 대응적 관계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확장 의미와 관계없이 '마음을 놓다'와 '放心'는 기본의미로 완전히 대응하기 때문에 대응관계도 완전 대응적 목술관계 연어에 해당한다.

3.1.2. 부분 대응 목술관계 연어

부분 대응 목술관계 연어는 한국어 연어의 구성 요소 중의 하나가 기본 의미로 대역어인 중국어 술빈구의 구성 성분의 의미와 대응할 수 없고 다른 하나는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의미가 대응하는 위치에 따라 체언의 의미가 대응하고

용언의 의미가 대응하지 않는 연어와 용언의 의미가 대응하고 체언의 의미가 대응하지 않는 연어와 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목술관계 연어는 중국어와 의미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관계를 이루는 원인은 중국어 대응 양상에서 한 어휘소의 어휘적 의미는 한국어와 기본의미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중국어 대응 표현에서 어휘소의 의미는 기본 의미 여부에 따라 다시 구체적인 대응 유형을 세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값을 깎다'와 '砍价' 중에서 용언 '깎다'와 '砍'의 의미는 모두 '줄이다'라는 확장 의미이지만 어휘적 의미인 기본의미는 각각 다른 의미로 서로 대응하지 못한다. '구두를 신다'의 중국어 대역어인 '穿皮鞋'에서 '穿'는 기본의미이지만 의미의 범위가 달라서 '신다'와 역시도 대응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또한 '나이를 먹다'와 그의 대역어인 '長歲數'는 한국어 동사 '먹다'의 확장의미는 중국어 동사 '長'의 기본의미와 대응되고 있지만 반대로 '長'의 기본의미는 '먹다'의 기본의미와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부분 대응 목술관계 연어의 대응 양상을 분석할 때 의미가 대응하지 않는 위치와 비대응 요소의 기본의미와 확장의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형화할 것이다.

먼저, 한국어 연어에서 체언의 의미가 중국어와 직접 대응하고 용언의 의미가 대응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대응 표현의 의미적 구성을 보면 다시 3가지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대응 표현에서 용언의 의미는 모두 비슷한 확장 의미로 대응되지만 어휘적 기본의미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래의 예를 보겠다.

(1) 값을 깎다 → 砍价

값 → 价

깎다: 기본의미- 칼 따위로 물건의 거죽이나 표면을 얇게 벗겨 내다.

확장의미- 값이나 금액을 낮추어서 줄이다.

砍: 기본의미- (도끼 따위로) 찍다. 패다.

확장의미- 감소하다. 줄이다. 취소하다.

'값을 깎다'의 구성요소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체언 '값'과 '价'는 기본의미로

직접 대응한다. 용언 '깎다' 와 '砍'는 비록 연어 구성에서 모두 '(가격, 값을) 줄이다'와 같은 확장 의미로 대응하지만 어휘적 기본의미로 비교해 봤을 때 역시 차이가 난다. '깎다'는 '칼 따위로 물건의 거죽이나 표면을 얇게 벗겨 내다.'라는 기본 의미로 중국어에서 '砍'와 직접 대응하지 못하고 '削'와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削'는 명사 '价'와 결합하면 '削价'와 같은 술빈구로 '가격을 줄이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휘 결합 관계에는 사용빈도가 낮고 조금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따라서 한국어 연어 '값을 깎다'는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은 구성요소의 의미가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술빈구인 '砍价'이다. 두 표현에서 용언 '깎다'와 '砍' 사이에 비슷한 확장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기본의미로 인해 비대응 관계를 이룬다.

교육용 연어 목록에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한·중 연어 대응 관계는 아래와 같이 3개가 더 있다.

(2) 차를 세우다 → 停車

차 → 車

세우다: 기본의미 -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한쪽 끝을 아래로 하고 다른 쪽 끝을 위로 올려 세로로 서게 하다.

확장의미 - (사람이 움직이던 것을) 멈추게 하다.

停: 기본의미 - 멎다. 서다. 멈추다. 정지하다. 중지하다.

확장의미 - (차가) 서다. 정거(停車)하다. 정박(停泊)하다.

(3) 게으름을 피우다 → 偷懶

게으름 → 懶

피우다: 기본의미 - 꽃봉오리 따위를 벌여지게 하다. '피다'의 사동사.

확장의미 - ((일부 명사와 함께 쓰여)) 그 명사가 뜻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나타내다.

偷: 기본의미 - 훔치다. 도둑질하다.

확장의미 - 틈[시간]을 내다.

(4) 관계를 맺다 → 建立關係

관계 → 關係

맺다: 기본의미 - (사람이 실이나 밧줄을) 엮어서 매듭지게 하다.

확장의미 -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나 인연을) 이루거나 만들다.

建立: 기본의미 - 건립하다. 설치하다. 설립하다. 수립하다. 세우다. 건설하다.

확장의미 - 맺다. 이루다. 형성하다. 세우다. 확립하다

둘째,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 대응 표현에서 용언의 의미는 모두 기본의미지만 연어의 문화적 차이나 의미 범위의 한계로 인해 서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래 예를 보겠다.

(1) 구두를 신다 → 穿皮鞋

구두 → 皮鞋

신다: 기본의미 - 신, 버선, 양말 따위를 발에 꿰다.

穿: 기본의미 - (옷을) 입다. (신발·양말 따위를) 신다.

'구두를 신다'의 구성요소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한국어 체언 '구두'과 중국어 명사 '皮鞋'는 기본의미로 직접 대응한다. 그러나 한국어 용언 '신다'와 중국어 동사 '穿'는 비록 모두 착탈어이지만 각자의 의미에 따라 사용하는 범위가 다르다. '穿'와 결합할 수 있는 명사는 신발, 양말뿐만 아니라 옷, 바지 등 의류 명사도 되지만 '신다'와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명사는 신발류, 양말 등 명사만 한한다. 따라서 어휘적 의미에서 볼 때 '신다'와 '穿'는 의미 범위의 차이로 인해 비대응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한국어 연어 '구두를 신다'는 구성요소의 의미가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중국어 술빈구 '穿皮鞋'와 대응한다.

교육용 연어 목록에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한·중 연어 대응 관계는 아래와 같이 31개가 더 있다.

(2) 모자를 쓰다 → 戴帽子

모자 → 帽子

쓰다: 기본의미 -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어 덮다.

戴: (머리·얼굴·가슴·팔·손 따위에) 착용하다. 쓰다. 이다.

(3) 안경을 쓰다 → 戴眼鏡

안경 → 眼鏡

쓰다: 기본의미 - 얼굴에 어떤 물건을 걸거나 덮어쓰다.

戴: (머리·얼굴·가슴·팔·손 따위에) 착용하다. 쓰다. 이다.

(4) 안경을 끼다 → 戴眼鏡

안경 → 眼鏡

끼다: 무엇에 걸려 있도록 꿰거나 꼈다.

戴: (머리·얼굴·가슴·팔·손 따위에) 착용하다. 쓰다. 이다.

(5) 장갑을 끼다 → 戴手套

장갑 → 手套

끼다: 무엇에 걸려 있도록 꿰거나 꼈다.

戴: (머리·얼굴·가슴·팔·손 따위에) 착용하다. 쓰다. 이다.

(6) 양말을 신다 → 穿袜子

양말 → 袜子

신다: 기본의미 - 신, 버신, 양말 따위를 발에 꿰다.

穿: 기본의미 - (옷을) 입다. (신발·양말 따위를) 신다.

(1)~(6)에서 의미가 대응하지 않는 용언은 모두 착탈어에 해당한다. 한·중 착탈어의 공통점은 모두 '착용하다'와 같은 기본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穿(입다/신다)', '戴(쓰다/끼다)'와 같은 두 개의 동사를 위주로 '의류, 신발, 장신구등을 착용하다'의 의미를 표현하는 반면 한국어 착탈어는 앞에 나오는 명사의 유형에 따라 의미적으로 더 세분화된다. 따라서 중국어 착탈어의 의미와 사용 범위는 보통 한국어 착탈어보다 더 넓기 때문에 두 언어에서 비대응 관계를 형성한다.

(7) 돈을 쓰다 → 花錢

돈 → 錢

쓰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시간이나 돈을 들이다.

花: (돈,시간을) 쓰다

(8) 우산을 쓰다 → 打傘

우산 → 傘

쓰다 : 기본의미 - 우산이나 양산 따위를 머리 위에 펴 들다.

打 : 쳐들다. 펴들다. 내걸다.

(9) 컴퓨터를 치다 → 玩電腦

컴퓨터 → 電腦

치다 : 일정한 장치를 손으로 눌러 글자를 찍거나 신호를 보낸다.

玩 : 놀다. 놀이하다. 장난하다.

(10) 가방을 메다 → 背書包

가방 → 書包

메다 : 기본의미 -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

背 : 업다. (등에) 짊어지다.

(11) 높이를 맞추다 → 調整高度, 對高度

높이 → 高度

맞추다 : 기본의미 - (사람이 열이나 간격 따위를) 가지런히 하여 어긋남이 없게 하다.

調整 : 조정[조절](하다).

對 : 두 개를 맞추다[맞대다]. 접촉시키다.

(12) 뚜껑을 닫다 → 盖盖子

뚜껑 → 盖子

닫다 : 기본의미 - 열린 문짝, 뚜껑, 서랍 따위를 도로 제자리로 가게 하여 막다.

盖 : 덮다. 씌우다.

(13) 세탁기를 돌리다 → 開動洗衣機

세탁기 → 洗衣機

돌리다 : 굴리다

開動 : (기계 따위를) 가동시키다[운전하다].

(14) 소리를 내다 → 出聲、發出聲響

소리 → 聲、聲響

내다: 소리, 냄새 따위를 밖으로 드러내다. '나다'의 사동사.

出: (안에서 밖으로) 나가다[나오다].

(15) 요금을 내다 → 交費、繳納費用

요금 → 費、費用

내다: 기본 의미 - (사람이 회비나 세금 따위의 돈을) 주거나 바치다.

交: 넘기다. 건네다. 내다. 제출하다. 바치다. 주다.

繳納: 납부하다. 납입하다.

(16) 줄을 서다 → 排隊

줄 → 隊

서다: 기본 의미 - (사람이 줄 따위를) 지어 이루다.

排: 차례로 놓다. 배열하다.

(17) 대출을 받다 → 得到/獲得貸款

대출 → 貸款

받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응하여 자기의 것으로 가지다.

得到/獲得: 손에 넣다. 되다. 얻다/ 획득하다. 얻다

(18) 부탁을 들어주다 → 答應請求、接受委托

부탁 → 請求、委托

들어주다: 부탁이나 요구 따위를 받아들이다.

答應: 동의하다. 승낙하다. 허락하다.

接受: 받아들이다. 수락하다. 받다. 접수하다.

(19) 잔치를 치르다 → 擺宴

잔치 → 宴

치르다: 무슨 일을 겪어 내다.

擺: 놓다. 벌여 놓다. 배열하다. 진열하다. 배치하다.

(20) 제사를 지내다 → 舉行祭祀

제사 → 祭祀

지내다: 혼인이나 제사 따위의 관혼상제 같은 어떤 의식을 치르다.

舉行: 거행하다. 개최하다. 실시하다.

(7)~(20)는 한·중 언어 표현의 차이로 인해 언어의 용언이 중국어 대역어와 비 대응 관계를 이루는 상황이다. 이런 한국어 언어의 용언을 중국어로 직접 번역하는 방법을 통해 얻은 표현은 어색하거나 중국어 어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뚜껑을 닫다', '세탁기를 돌리다'에서 용언은 중국어로 직접 번역하면 각각 '關 (닫다)'와'轉 (돌리다)'가 된다. 그러나 이 두 동사로 이루는 중국어 표현 '關盖子' '轉洗衣機'는 문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어휘 결합에 있어서 어색하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다. 이는 한·중 언어 사이에 표현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인 구를 표현할 때 의미 차이가 있는 용언을 택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인 '關 (닫다)'와'轉 (돌리다)' 대신에 '盖子(뚜껑)'나 '洗衣機(세탁기)'와 결합하면 훨씬 자연스러운 동사 '蓋(덮다)'와'開(動)(켜다, 가동하다)'로 바뀌어야 한다.

(21) 춤을 추다 → 跳舞

춤 → 舞

추다: 기본의미 - 춤 동작을 보인다.

跳: (경충) 뛰(어 오르)다. 도약하다.

(22) 꿈을 꾸다 → 做夢

꿈을 꾸다 → 做夢

꾸다: 기본의미 - 꿈을 보다.

做: 제조하다. 만들다. 짓다.

(23) 상을 차리다 → 擺桌、擺席

상 → 桌、席

차리다: 기본의미 - 음식 따위를 장만하여 먹을 수 있게 상 위에 벌이다.

擺: 놓다. 벌여 놓다. 배열하다. 진열하다. 배치하다.

(24) 술을 따르다 → 倒酒、酌酒

술 → 酒

따르다: 기본의미 -릇을 기울여 안에 들어 있는 액체를 밖으로 조금씩 흐르게 하다.

倒: 따르다. 붓다. 쏟다.

(25) 더위를 타다 → 怕熱

더위 → 熱

타다: 몸에 독한 기운 따위의 자극을 쉽게 받다.

怕: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26) 밤을 새우다 → 熬夜

밤 → 夜

새우다: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지내다.

熬: (고통·곤란 따위를) 참고 견디다.

(27) 영향을 미치다 → 造成/產生/施加影響

영향 → 影響

미치다: 영향이나 작용 따위가 대상에 가하여지다. 또는 그것을 가하다.

造成: 조성하다. 만들다. 창조하다.

產生: 발생(하다). 생기다. 출현(하다).

施加: (압력·영향 따위를) 주다. 가하다.

(28) 오해를 사다 → 引起誤會

오해 → 誤會

사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게 하다.

引起: (주의를) 끌다. 야기하다. (사건 등을) 일으키다.

(29) 음악/텔레비전을 틀다 → 放音樂；打開電視

음악/텔레비전 → 音樂；電視

틀다: 음향 기기 따위를 작동하게 하다.

放: 놓아 주다. 풀어 놓다. 방출(放出)하다.

打開: (스위치 따위를) 넣다. 켜다. 틀다.

(30) 자존심을 건드리다 → 傷自尊

자존심 → 自尊

건드리다: 상대를 자극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기분을 나쁘게 만들다.

傷: 상하다. 다치다. 해롭다.

(31) 핑계를 대다 → 找借口

핑계 → 借口

대다: 이유나 구실을 들어 보이다.

找: 찾다. 구하다. 물색하다.

(22)~(31)에서 한국어 연어 구성 중에서 기본의미인 용언은 중국어에서 의미가 완전히 비슷한 어휘를 찾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런 용언은 보통 한국 특유의 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상을 차리다', '술을 따르다', '더위를 타다'는 이에 해당한다. 이때 연어 전체의 의미에 따라 중국어에서 다른 동사를 차용하는 것을 통해 중국어로 그 연어의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다시 말하면, 체언은 중국어에 대역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하고 용언 부분만 언어적 의미에 따라 의역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어 연어가 중국어에서 대응하는 표현에서 기본의미인 중국어 동사는 한국어 용언의 확장 의미와 일치하지만 그 한국어 용언의 기본 의미와 직접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아래의 예를 보겠다.

(1) 나이를 먹다 → 長歲數

나이 → 歲數

먹다: 기본의미-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

확장 의미-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

長: 증가하다. 증진하다.

'나이를 먹다'의 구성요소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한국어 체언 '나이'와 중국

어 명사 '歲數'는 기본의미로 직접 대응한다. 그러나 한국어 용언 '먹다'와 중국어 동사 '長'는 언어적 의미는 모두 '(나이가) 증가하다'의 뜻이지만 기본의미로 봤을 때 서로 대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나이를 먹다'와 '長歲數'는 전체 의미가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구성요소의 의미가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관계이다.

교육용 언어 목록에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한·중 언어 대응 관계는 아래와 같이 29개가 더 있다.

(2) 노래를 부르다 → 唱歌

노래 → 歌

부르다: 기본의미 - 말이나 행동 따위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확장의미 - 곡조에 맞추어 노래의 가사를 소리 내다.

唱: 노래하다.

(3) 담배를 피우다 → 抽烟、吸烟

담배 → 烟

피우다: 기본의미 - (식물이 꽃을) 벌어지게 하다.

확장의미 - (사람이 담배를) 빨아 연기를 들이마셨다가 내보내다.

抽/吸: 들이마시다. 들이쉬다. 빨아들이다.

(4) 돈을 찾다 → 取錢

돈 → 錢

찾다: 기본의미 - (사람이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 살피다.

확장의미 -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애써 구하다.

取: 가지다. 찾다. 찾아 가지다. 받다.

(5) 말을 걸다 → 搭訕、搭話

말 → 話

걸다: 기본의미 - (사람이 물건을 어디에) 드리워지게 하거나 달려 있게 하다.

확장의미 - 다른 사람을 향해 먼저 어떤 행동을 하다.

搭: 걸다. 걸치다. 널다.

(6) 맛을 보다 → 嘗滋味

맛 → 味/滋味

보다: 기본의미 -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

확장의미 - 음식 맛이나 간을 알기 위하여 시험 삼아 조금 먹다.

嘗: 맛보다.

(7) 불을 피우다 → 起火、点火

불 → 火

피우다: 기본의미 - (식물이 꽃을) 벌어지게 하다.

확장의미 - 연탄이나 숯 따위에 불을 일으켜 스스로 타게 하다. '피다'의 사동사.

点: 불을 붙이다

(8) 시간을 내다 → 抽時間

시간 → 時間

내다: 기본의미 -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일으키다. '나다'의 사동사.

확장의미 - 시간적 여유를 만들다. '나다'의 사동사.

抽: 꺼내다. 뽑다. 빼내다.

(9) 아이를 보다 → 照看小孩

아이 → 小孩

보다: 기본의미 -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

확장의미 - 말아서 보살피거나 지키다.

照看: 돌보아 주다. 보살피다. 조심하다. 지켜보다.

(10) 전화를 걸다 → 打電話

전화 → 電話

걸다: 기본의미 - (사람이 물건을 어디에) 드리워지게 하거나 달려 있게 하다.

확장의미 - 전화를 하다.

打: 남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다

(11) 전화를 바꾸다 → 轉電話

전화 → 電話

바꾸다: 기본의미 - (사람이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또는 사람이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교환하여 대신 가지다.

확장의미 - (사람이 다른 사람) 전화 통화를 넘기거나 전화를 받게 하다.
轉: (중간에서) 전하다. (우편물·전갈·상품 등을) 송달하다.

(12) 테니스를 치다 → 打网球

테니스 → 网球

치다: 기본의미 - 힘껏 때리거나 두드리다.

확장의미 - 손이나 손에 든 물건으로 물체를 부딪게 하는 놀이나 운동을 하다.

打: 때리다. 치다. 두드리다.

(13) 감정을 넣다 → 投入感情、傾注感情

감정 → 感情

넣다: 기본의미 - (사람이 물건이나 동물을 어떤 공간이나 그 속에) 들어가게 하거나 들어 있게 하다.

확장의미 - 사이에 어떤 것을 끼우거나 위에 어떤 것을 입혀 서로 어우러지게 하다.

投入: 투입하다.

傾注: 경주하다(傾注--). (정력이나 마음 따위를) 기울이다. 쏟다.

(14) 경험을 쌓다 → 積累經驗

경험 → 經驗

쌓다: 기본의미 - 여러 개의 물건을 겹겹이 포개어 얹어 놓다.

확장의미 - 경험, 기술, 업적, 지식 따위를 거듭 익혀 많이 이루다.

積累: (조금씩) 쌓이다. 누적하다. 축적하다.

(15) 계획을 세우다 → 制定計劃

계획 → 計劃

세우다: 기본의미 -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한쪽 끝을 아래로 하고 다른 쪽 끝을 위로 올려 세로로 서게 하다.

확장의미 - (사람이 계획이나 목표 따위를) 만들어 정하다.

制定: (법규·계획 등을) 제정하다. 만들다. 세우다.

(16) 문제를 풀다 → 解題；解決問題

문제 → 題 ; 問題

풀다: 기본의미 - (사람이 매듭지어진 끈이나 천을)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게 하다.

확장의미 -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답을 밝혀내다.

解: 해석하다. 해설하다. 풀다.

解決: 해결하다.

(17) 비를 맞다 → 淋雨

비 → 雨

맞다: 기본의미 - (사람이 물건에) 외부의 힘이 가해져 몸에 해를 입다.

확장의미 - (겨늘 물체가 목표에) 똑바로 닿다.

淋: (비를) 맞다. (비에) 젖다.

(18) 인기를 끌다/얻다 → 有人氣

인기 → 人氣

끌다: 기본의미 - (어떤 사람이 다른 대상을) 늘어뜨려 바닥에 닿은 채로 움직이다.

확장의미 - (무엇이 사람이나 관심, 인기를) 불러모으고 쏠리게 하다.

얻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받아 가지다. 또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하다.

有: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19) 커피를 뽑다 → 打咖啡

커피 → 咖啡

뽑다: 기본의미 - (사람이나 동물이 사물에서 박혀 있는 것을) 잡아당겨 빼내다.

확장의미 - (사람이나 기계가 어디에서 속에 들어 있는 액체나 기체를) 밖으로 나오게 하다.

打: 퍼올리다. 퍼내다. 푸다.

(20) 휴가를 떠나다 → 去休假

휴가 → 休假

떠나다: 기본의미 - (사람이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

확장의미 - (사람이 어떤 곳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나서다.

去: 떠나다. 가다

(21) 간을 보다 → 嘗咸淡；調味儿、調咸淡

간 → 咸淡、味儿

보다: 기본의미 -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

확장의미 - 음식 맛이나 간을 알기 위하여 시험 삼아 조금 먹다.

嘗: 맛보다.

調: 고루 섞다. 배합하다. (적절하게) 혼합하다.

(22) 결혼식을 올리다 → 舉行婚禮

결혼식 → 婚禮

올리다: 기본의미 - (사람이 무엇을 어디에) 높은 쪽으로 올려 위치를 옮기다.

확장의미 - (사람이 예식을) 행하여 치르다.

舉行: 거행하다. 개최하다. 실시하다.

(23) 곤란을 겪다 → 遇到困難

곤란 → 困難

겪다: (사람이 일을) 당하여 치르다.

遇到: 만나다. 마주치다.

(24) 균형을 잡다 → 保持平衡

균형 → 平衡

잡다: 기본의미 - (사람이 무엇을) 손으로 움켜쥐거나 거머쥐다.

확장의미 - (사람이 어떤 상태를) 바로 유지하다.

保持: 보지하다. 지키다. 유지하다.

(25) 눈길을 끌다 → 吸引目光

눈길 → 目光

끌다: 기본의미 - 바닥에 댄 채로 잡아당기다.

확장의미 - 남의 관심 따위를 쏠리게 하다.

吸引: 흡인하다. 빨아 당기다. 끌어당기다. 끌다. 유인하다. 매료시키다.

(26) 면접을 보다 → 參加面試

면접 → 面試

보다 : 기본의미 -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

확장의미 - (('시험'을 뜻하는 목적어와 함께 쓰여)) 자신의 실력이 나타나도록 치르다.

參加 : (어떤 모임이나 일에) 참가하다. 참여하다. 참석하다.

(27) 세상을 뜨다 → 離開人世

세상 → 人世

뜨다: 기본의미 - (사물이 물위에) 솟아오르거나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다.

비유적 의미 - 죽다, 돌아가시다

離開: 떠나다. 벗어나다. 헤어지다. 떼어 놓다.

(28) 예의를 갖추다 → 講禮貌、有禮貌

예의 → 禮貌

갖추다: 기본의미 -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

확장의미 - 지켜야 할 도리나 절차를 따르다

講: 중시하다. 주의하다. 신경을 쓰다. 따지다.

有: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29) 짐을 꾸리다 → 收拾行李、打行李

짐 → 行李

꾸리다 : 짐이나 물건 따위를 싸서 묶다.

收拾 : 거두다. 치우다. 정돈하다. 수습하다. 정리하다.

打 : 기본의미 - 때리다. 치다. 두드리다.

확장의미 - (둘둘 감아서) 묶다. 싸다.

(30) 충고를 따르다 → 聽從忠告、聽勸

충고 → 忠告、勸

따르다: 기본의미-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

확장의미-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

聽從/聽:남의 말을) 듣다. 따르다. 복종하다. 순종하다.

그 다음, 한국어 연어에서 용언의 의미가 중국어와 직접 대응하고 체언의 의미가 대응하지 않는 경우이다. 아래의 예를 보겠다. 이 경우에 대부분 한국어 연어

의 구성요소인 명사는 중국어에서 비슷한 대역어를 찾지 못하고 언어적 의미에 따라 중국어에서 다른 명사를 차용하여 표현한다.

(1) 몸살을 앓다 → 患上病痛

앓다 → 患上

몸살 : 몸이 몹시 피로하여 일어나는 병. 팔다리가 쭈시고 느슨하며 기운이 없고 오한이 난다.

病痛 : 병고(病苦). 병으로 인한 고통.

(2) 최선을 다하다 → 盡全力

다하다 → 盡

최선 : 온 정성과 힘.

全力 : 전력. 모든 힘. 혼신(渾身)의 힘.

(3) 신세를 갚다 → 還人情

갚다 → 還

신세 :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폐를 끼치는 일.

人情 : 은혜. 정의(情誼). 호의. 선심.

3.1.3. 완전 비대응 목술관계 연어

완전 비대응 목술관계 연어는 구성요소의 의미가 중국어에서 대응하는 술빈구 표현의 구성요소의 의미와 모두 직접 대응하지 못하는 표현이다. 그 이유는 어휘의 다의화나 한·중 언어 표현의 차이와 관련된다. 구체적인 예를 보겠다.

(1) 마음을 먹다 → 下定決心, 下決心

마음 : 기본의미-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

확장 의미-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

決心 : 결심. 결의. 다짐

먹다 : 기본의미-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

확장의미-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下: (의견·판단 따위를) 내리다.

(2) 뜻을 펴다 → 得志, 實現胸懷大志

뜻: 기본의미- 말이나 글 또는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내는 내용.

확장의미- 무엇을 바라거나 이루겠다고 속으로 품고 있는 마음.

志: 뜻. 의지. 소망. 목표.

펴다: 기본의미- 접히거나 개킨 것을 갖히어 벌리다.

확장의미- 생각, 감정, 기세 따위를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주장하다.

實現: 실현하다. 달성하다.

(3) 인사를 나누다 → 打招呼

인사: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에 예를 포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招呼: 인사하다. 알은체하다.

나누다: 말이나 이야기, 인사 따위를 주고받다.

打: (어떤 방법을) 쓰다. 하다.

(4) 주사를 맞다 → 打針

주사: 약액을 주사기에 넣어 생물체의 조직이나 혈관 속에 직접 주입하는 일. 또는 그 기구.

針: 기본의미- 바늘. 봉침(縫針).

확장의미- 주사

맞다: 기본의미-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가해져 몸에 해를 입다.

확장의미- 침, 주사 따위로 치료를 받다.

打: (구멍 따위를) 파다.

(5) 신경을 쓰다 → 費心思

신경: 기본의미- 신경 세포의 돌기가 모여 결합 조직으로 된 막에 싸여 끈처럼 된 구조.

확장의미- 어떤 일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心思: 생각. 염두.

쓰다: 어떤 일에 마음이나 관심을 기울이다.

費: 쓰다. 소비하다. 들이다.

4.3.2. 비대응적 대조 관계의 목술관계 연어

비대응적 대조 관계의 목술관계 연어는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이 술빈구가 아닌 다른 통사적 구성인 구이나 어휘와 대응하는 것들이다. 한·중 비대응적 대조 관계인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는 중국어에서 주로 개사구, 양사구, 겹어구, 피동구, 복잡구, 단어, 사자성어와 대응하는 7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대응 양상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3.2.1. 개사구와의 대응

(1) 손을 대다 →用手碰/摸/動

'손을 대다'는 '손으로 만지거나 건드리다.'라는 뜻이다. 언어적 의미를 보면 동사 '대다' 앞에 나오는 목적어인 명사 '손'은 동작동사 '대다'의 대상이 아니라 동작의 수단이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만약 연어 구성요소의 의미에 따라 '손'은 중국어 '手'와 대응하고 '대다'는 '碰/摸/動'와 대응한 다음에 한국어 연어의 통사 구조와 비슷한 중국어 술빈구를 만들면 '碰/摸/動手'가 된다. 그러나 '碰/摸/動手'의 의미는 '손을 대다'가 아니라, '손을 만지다/터치하다'의 뜻이다. 이는 중국어 술빈구에 있는 목적어는 항상 동작동사의 대상으로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을 대다'를 중국어로 옮길 때 연어의 전체 의미에 따라 '손으로 만지다/건드리다'의 의미와 대응하는 '用手碰/摸/動'와 같은 개사구를 얻을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용언 앞에 있는 조사 '-(으)로'를 통해 '방법,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중국어에서 체언 앞에 있는 개사 '用'에 의해 표현된다.

3.2.2. 양사구와의 대응

(1) 한숨을 돌리다 → 松(一)口气

'한숨을 돌리다'중에서 체언 '한숨'은 [수사(한)+명사(숨)]와 같은 어휘 내적 구성이고 '숨을 한 번 쉴 동안.'라는 뜻이다. 한국어에서 수사는 직접 명사의 앞에 나오고 명사의 수량을 수식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명사의 수량을 나타낼 때 항상 [수자+양사+명사]와 같은 양사구의 형식을 취한다. 이런 언어 간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어의 '한숨'은 자면적으로 대응하는 '一气'와 대응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중국어 양사구 '一口气'와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 힘겨운 고비를 넘기고 여유를 갖다.'라는 연어 전체의 의미에 따라 용언 '돌리다'를 의역해서 중국어 동사 '松(느슨하게 하다.)'와 대응시킨다. 따라서 한국어 목적어관계 연어 '한숨을 돌리다'는 중국어 양사구 '松(一)口气'와 대응관계를 형성한다.

3.2.3. 겹어구와의 대응

(1) 눈길을 끌다 → 引人注目、惹人關注

(2) 아기를 재우다 → 哄孩子睡覺

겹어구는 중국어의 한 가지 특수한 문형이다. 구에는 두 개의 동사가 있고 첫 번째 동사의 빈어(목적어)가 되는 명사는 동시에 두 번째 동사의 주어를 겸한다. '아기를 재우다'중에서 '재우다'는 중국어에 없는 어휘이다. '재우다'는 '자다'의 사동사로서 '자게 하다'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재우다'는 중국어로 대응시키면 '使...睡覺'와 같은 사동의 표현이 된다. '使'는 '...하게 하다. ...시킨다.'라는 의미인 사동사에 해당하고 '睡覺'는 동사 '자다'의 대역어이다. 이 두 어휘 사이에 항상 명사를 넣고 겹어구를 형성한다. 그리고 중국인 일상생활 속에 실제 사용 상황을 고려하여 '使'를 '哄((어린이를) 구슬리다. 어르다. 달래다.)'로 바꿔 쓰여 '哄...睡覺'라는 표현은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중국어 겹어구 '哄孩子睡覺'는

'아기를 재우다'와 대응관계를 형성한다. 중국어 겹어구와 대응관계를 형성하는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는 대부분 연어의 구성요소의 의미에 따라 중국어에서 두 개의 동사로 구성되는 구의 표현과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3.2.4. 피동구와의 대응

- (1) 비를 맞다 → 挨淋
- (2) 인기를 끌다 → 受歡迎
- (3) 거절을 당하다 → 被拒絕、遭到拒絕
- (4) 꾸중을 듣다 → 被批評、受責備
- (5) 바가지를 쓰다 → 挨宰
- (6) 야단을 맞다 → 挨罵
- (7) 오해를 받다 → 被誤會、遭到誤會
- (8) 욕을 먹다 → 挨罵、受辱
- (9) 의심을 사다 → 被人懷疑、惹人懷疑
- (10) 인정을 받다 → 被認可

한국어에서 동사의 피동형 외에 일부 동사들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당하다', '받다', '맞다' 등이 있다. 이런 동사들로 형성한 연어의 의미도 피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국어에서 피동구와 대응되는 상황이 많다. 중국어 피동구는 한국어처럼 동사의 피동형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 앞에서 피동사 '被, 受, 遭(到/受), 挨'⁴⁹⁾를 붙이고 피동의 의미를 표현한다. 예를 들면 '인정을 받다' 중에서 '받다'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거나 입다.'라는 의미로 동사정보다 피동성이 더 강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중국어의 피동사 '被'와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연어 구성에서 '인정'은 명사이지만 동사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어에서 동사와 명사 두 가

49) 중국어에서 '被, 受(到), 遭(到/受), 挨'는 모두 피동구의 표시이지만 '遭(到/受), 挨'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에서 쓸 수 없다. 따라서 '인정을 받다'를 중국어와 대응시킬 때 '被/受(到)認可'가 되지만 '遭(到/受)/挨認可'는 안 된다.

지 품사를 가진 '認可'와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피동사 '被'는 동사 '認可'와 결합한 뒤 피동구 '被認可'가 형성되며 한국어 연어 '인정을 받다'와 대응관계를 형성한다. 이 외에 중국어 피동구와 대응하는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는 한 가지 더 있다. 이때 연어를 구성되는 동사의 어휘적 의미는 피동의 뜻이 없지만 연어 전체의 의미에 따라 그 동사는 피동의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그 연어는 중국어의 비동구와 대응된다. 위에서 제시한 예들 중에서 '인기를 끌다, 꾸중을 듣다, 바가지를 쓰다, 욕을 먹다, 인정을 받다'는 두 번째 대응 상황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욕을 먹다'중에서 '먹다'의 어휘적 의미는 피동의 뜻이 없지만 연어적 의미는 '욕, 핀잔 따위를 듣거나 당하다.'라는 의미로 피동표현인 '욕을 당하다'와 유의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욕을 먹다'를 중국어에서 대응시킬 때도 피동구인 '挨罵、受辱'가 된다.

3.2.5. 복잡한 구와의 대응

- (1) 끝을 보다 → 干到底、做到底 (술보구+빈어)
- (2) 맛을 보다 → 嘗...的厲害、給...顏色看 (서술어+수식어중심어구)
- (3) 자리를 잡다 → 站住脚 (술보구+빈어)
- (4) 집을 나가다 → 离家出走 (목술구+서술어)
- (5) 낯을 가리다 → 捂住臉 (술보구+빈어)
- (6) 뚜껑을 닫다 → 合上盖子 (술보구+빈어)
- (7) 미소를 짓다 → 面帶微笑、露出微笑 (술보구+빈어)
- (8) 부탁을 받다 → 受人之托 (서술어+수식어중심어구)
- (9) 입을 벌리다 → 張開嘴 (술보구+빈어)
- (10) 전공을 살리다 → 發揮專業特長、將專業知識學以致用 (개사구+서술어)
- (11) 책을 펴다 → 翻開書 (술보구+빈어)
- (12) 짐을 챙기다 → 收好行李、帶上行李 (술보구+빈어)
- (13) 판단을 내리다 → 做出判斷 (술보구+빈어)
- (14) 도를 넘어서다 → 超過...的度 (서술어+수식어중심어구)

- (15) 손을 베다 → 割破手 (술보구+빈어)
- (16) 용기를 내다 → 鼓起勇气 (술보구+빈어)
- (17) 일손을 놓다 → 放下活; 停住手(술보구+빈어)
- (18) 혜택을 보다 → 得到實惠(술보구+빈어)
- (19) 생일을 맞다 → 迎來生日(술보구+빈어)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중국어에서 복잡구와 대응하는 한국어 연어 중에서 70% 이상은 중국어 [술보구+빈어] 형태의 복잡구와 대응한다. 중국어 [술보구+빈어] 형태의 복잡구와 대응하는 한국어 연어의 용언은 보통 중국어 단음절 동사와 대응하는 상황이 많고 그 용언 자체가 '어떤 동작에 의해서 얻은 결과 혹은 이루는 상태'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목술관계 연어 '판단을 내리다'는 중국어로 옳기면 자면적으로 대응하는 술빈구인 '做判斷'가 아니라, [술보구+빈어] 형태인 '做出判斷'가 해당한다. 왜냐하면, 연어구성에서 명사 '판단'은 중국어 명사 '判斷'와 직접 대응하지만 '내리다'는 '판단, 결정을 하거나 결말을 짓다.'라는 의미로 중국어에서 직접 대응하는 동사를 찾을 수 없다. 중국어에서 보통 '判斷'와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동사는 '做(하다)'이다. 그러나 '做判斷(판단을 하다)'는 '판단을 내리다'의 의미와 조금 차이가 있다. '판단을 내리다'는 사고와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판단의 결론을 얻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지만 중국어에서 '做判斷'는 단지 '판단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의 의미를 표현한다. 따라서 중국어에서 '판단을 내리다'처럼 판단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술빈구 구성에서 서술어와 목적어 사이에 보어 '出(나오다)'를 넣어야 한다. 보어 '出'의 의미는 '원래 없는 것을 어떤 동작이나 행위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동사 '做(하다)'와 명사 '判斷(판단)' 사이에 '出'를 첨가하면 '판단을 내리다'와 같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위의 예시를 통해서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를 중국어와 대응시킬 때, 용언이 중국어에서 단음절 동사와 대응되면 보통 그 중국어 동사 뒤에 보어를 첨가하여 [술보구+빈어] 형태의 복잡구를 형성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술보구+빈어] 형태 외에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는 다른 형태의 중국어 복잡구와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몇 개의 예시를 보겠다. '전공을 살리다'

중에서 체언 '전공'은 중국어 명사 '專業'와 직접 대응한다. 그러나 '살리다'는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거나 뚜렷이 나타나게 하다.'라는 의미로 중국어에 대응어가 없다. 이때 연어 전체의 의미에 따라 '살리다'를 중국어로 의역할 수 있다. 만약 '살리다'는 '發揮(발휘시키다)'로 번역되면 중국어 어휘적 결합의 습관에 따라 목적어인 '專業'를 '專業特長(전공의 장점)'로 바꿔야 한다. 이처럼 '전공을 살리다'는 [서술어+연합구]의 형태인 '發揮專業特長'와 대응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전공을 살리다'의 의미를 풀어서 이해하면 '이미 배웠던 전공 지식을 구체적인 분야에서 활용시킨다'와 같은 뜻을 직접 번역하면 [개사구+서술어]의 형태인 '將專業知識學以致用'와 같은 표현을 얻을 수 있다. 이 표현 중에서 '學以致用'는 '배운 것을 실제로 활용하다.'라는 의미인 사자성어이고 연어 '전공을 살리다'의 의미와 거의 비슷하다. '배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공 지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學以致用'를 용언으로 삼고 앞에서 개사구 '將專業知識'를 구 전체의 목적어로 보면 된다.

그리고 '도를 넘어서다'는 [서술어+수식어중심어구] 형태인 중국어 복자구 '超過...的度'와 대응된다. 연어 구성요소인 체언 '도'는 중국어 명사 '度'와 직접 대응되고 용언 '넘어서다'는 중국어 동사 '超過/越過'와 대응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度'와 '超過'는 한국어처럼 직접 목술관계로 결합할 수 없다. 이때 '度' 앞에서 반드시 구체적인 수식어가 나와야 한다. 따라서 '超過...的度'와 같은 표현으로 '도를 넘어서다'와 대응관계를 형성한다.

3.2.6. 어휘와의 대응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는 중국어 어휘와 대응하는 경우는 대응 양상의 유형에 따라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는 어떤 행위나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고 동사성이 있는 명사와 실제의미보다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 대해 보조적 의미가 있는 동사이나 기능동사로 구성한다. 이 연어는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은 동사 하나 뿐이다. 그 중국어 동사의 의미는 주로 연어 구성 중의 체언과 호응한다. 연어 구성

중의 용언의 의미는 중국어 대역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 (1) 시험을 보다 → 考試
- (2) 미소를 짓다 → 微笑
- (3) 인사를 나누다 → 問候
- (4) 관심을 기울이다 → 關心
- (5) 대출을 받다 → 貸款
- (6) 도망을 가다/치다 → 逃走、逃跑、逃亡
- (7) 박수를 치다 → 鼓掌
- (8) 수리를 받다 → 修理
- (9) 안부를 묻다 → 問候
- (10) 이민을 가다 → 移民
- (11) 휴식을 취하다 → 休息
- (12) 흉내를 내다 → 模仿、效仿
- (13) 장난을 치다 → 調皮、頑皮

위에서 제시한 (1)~(12)는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는 중국어 어휘와 대응하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예시이다. 이런 연어의 전체적 의미는 체언을 중심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연어를 구성하는 명사는 그 연어의 의미의 핵심이다. 예를 들면, '시험을 보다' 중에서 체언 '시험'은 중국어에서 '考試'와 직접 대응한다. 그러나 '考試'의 품사는 명사일 뿐만 아니라 직접 동사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어에서 '考試'와 같은 한 단어로 한국어 '시험을 보다'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고 한국어 연어 중에서의 기능동사 '보다'는 중국어에서 더 이상 필요 없다. 따라서 동사성이 있는 명사로 구성하는 한국어 연어를 중국어와 대응시킬 때 주로 그 명사의 의미에 따라 번역하고 동사의 의미를 대역어에서 구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미소를 짓다' 중에서 용언 '짓다'는 비록 기능동사가 아니지만 '미소'의 의미는 직접 중국어 동사 '微笑(미소하다)'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짓다'의 대역어를 생략해도 된다.

둘째,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를 구성하는 용언의 의미 자체가 이미 앞에 있는

목적어의 의미를 포함한다면 중국어로 옮길 때 목적어의 대역어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그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는 중국어 동사와 대응된다.

(13) 소리를 지르다 → 呼喊、叫喊、大叫

(14) 한숨을 쉬다 → 嘆息、嘆氣

(15) 손을 대다 → 碰、摸、動；着手、開始

위에서 제시한 (13)~(15)는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는 중국어 어휘와 대응하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예시이다. 이런 연어의 전체적 의미는 용언을 중심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연어를 구성하는 동사는 그 연어의 의미의 핵심이다. 예를 들면, '소리를 지르다'의 두 개의 구성요소는 중국어에서 각각 '聲音(소리)'와 '叫喊(지르다)'와 대응한다. 그러나 연어 중에서 '지르다'는 '목청을 높여 소리를 크게 내다.'라는 의미로 목적어인 '소리'의 의미를 이미 포함된다. 따라서 이 연어의 중국어 대역어는 한국어처럼 동사의 의미와 중복되는 명사를 목적어로 한 번 더 나타낼 필요가 없고 직접 동사 하나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한국어 연어 '소리를 지르다'는 중국어에서의 대응양상은 동사 '呼喊、叫喊、大叫(지르다)'이다. 만약 '呼喊聲音, 叫喊聲音, 叫聲音, 喊聲音'와 같이 연어의 목적어인 '소리'의 의미를 중국어 대역어에서 나온 경우, 그 표현은 중국어에서 오히려 어색한 표현이 된다. '음식을 चे하다' 등 다른 예도 마찬가지로 용언 '체하다'는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아니하고 배 속에 답답하게 처져 있다.'라는 의미로 이미 목적어 '음식'의 의미를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어 대역어에서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고 동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번역하면 된다.

셋째,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의 구성요소는 중국어에서 각각 명사와 동사와 대응되는데 그 중국어 명사와 동사로 이루는 결합체는 술빈구가 아니라 [술어+빈어] 구조인 합성어에 해당한다. 이때 그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는 중국어 합성어와 대응관계를 형성한다.

(17) 상을 타다 → 得獎、獲獎

(18) 성을 내다 → 發怒、發火

- (19) 화를 내다 → 生氣、發火
- (20) 고개를 숙이다 → 低頭，屈服，認輸，投降
- (21) 농사를 짓다 → 務農，種地
- (22) 더위를 먹다 → 中暑
- (23) 뜻을 꺾다 → 得志
- (24) 상처를 입다 → 負傷，受傷
- (25) 줄을 서다 → 排隊
- (26) 힘을 쏟다 → 傾力、使勁、費勁
- (27) 도를 넘어서다 → 過分
- (28) 약속을 어기다 → 失約、爽約

위에서 제시한 (17)~(28)는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는 중국어 어휘와 대응하는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예시이다. 이런 한국어 연어의 통사적 구성은 목술관계이지만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은 모두 [술어+빈어]형의 합성어이다. 예를 들면, '상처를 입다'중에서 '상처'는 중국어에서 명사 '傷/傷口'와 대응되고 '입다'는 연어적 의미에 따라 중국어 동사 '負, 受'와 대응한다. 그러나 '負, 受'는 앞에서 나오는 목적어가 '傷(상처)'아니면 '(상처를) 입다'와 같은 뜻을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負傷, 受傷'는 두 어휘소 사이의 관계는 술빈관계이지만 그 결합적 어휘 관계는 마치 한 어휘처럼 고정되어 더 이상 술빈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 '상처를 입다'는 중국어 합성어 '負傷, 受傷'와 대응관계를 형성한다. 마찬가지로, '고개를 숙이다'도 중국어에서 술빈관계인 내부적 구성의 합성어 '低頭'와 대응되는데 연어 전체의 의미와 실제적인 사용 환경에 따라 '屈服, 認輸, 投降'등 어휘로 의역하기도 한다. 의역하는 방법을 통해 얻은 대역어는 직역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술어+빈어]형의 합성어가 아니다.

넷째, 한국어 연어의 두 구성요소는 중국어에서 대역어를 찾을 수 있지만 그 두 개의 대역어로 결합된 술빈구가 중국어에서 어색해지는 경우, 혹은 한국어 연어의 두 구성요소는 중국어에서 대역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이면 연어 전체의 의미에 따라 연어를 중국어의 한 어휘로 의역하는 상황이다.

- (39) 자리를 잡다 → 安定、穩定；定居、落腳
- (30) 낫을 가리다 → 認生
- (31) 몸을 가꾸다 → 打扮
- (32) 살을 빼다 → 減肥
- (33) 덕을 보다 → 沾光、獲益
- (34) 세상을 뜨다 → 去世
- (35) 신경을 쓰다 → 費心、注意
- (36) 애를 쓰다 → 努力、費心、辛苦
- (37) 야단을 치다 → 吵鬧；責備、訓斥
- (38) 약을 올리다 → 招惹、氣人
- (39) 열을 올리다 → 發火；熱心、積極、；造勢
- (40) 정신을 차리다 → 蘇醒；醒悟；清醒
- (41) 판을 치다 → 囂張、橫行
- (42) 몸을 가꾸다 → 保養身體

위에서 제시한 (29)~(42)는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는 중국어 어휘와 대응하는 네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예시이다. 구체적인 예를 분석해 보겠다. '신경을 쓰다' 중에서 체언 '신경'은 어휘적 의미에 따라 중국어 명사 '神經'와 대응하고 용언 '쓰다'는 '用'이나 '花'와 대응한다. 그러나 이 두 대역어로 구성된 술빈구 '用神經, 花神經'는 중국어에서 쓰이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는 표현이다. 따라서 직역하는 방법으로 연어를 번역하면 안 되고 연어적 의미에 따라 연어를 의역해야 한다. 따라서 '신경을 쓰다'는 '(사람이 상황이나 대상에) 몹시 세심하게 살피거나 마음을 쓰다.' 혹은 '사소한 일일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로 중국어에서 '費心(신경/마음을 쓰다)'이나 '注意(주의하다, 유의하다)'와 대응할 수 있다. 연어 '판을 치다'의 경우는 두 개의 구성요소가 중국어에서의 대역어를 모두 쉽게 찾지 못한다. 이때 '판을 치다'의 전체적 의미, 즉 '어떤 일이나 장소에 마음껏 극성을 부리다.'라는 의미로 중국어 동사 '囂張(날뛰다)、橫行(제멋대로 행동하다. 횡포한 짓을 하다. 횡행하다)'와 대응할 수 있다.

3.2.7. 사자성어와의 대응

- (1) 운명을 맞추다 → 命中注定
- (2) 귀를 기울이다 → 側耳傾聽、洗耳恭聽
- (3) 힘을 합하다 → 團結一致、萬眾一心

중국어 사자성어와 대응하는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는 주로 중국어로 직역하면 어색한 경우가 많고 연어의 의미를 완전히 풀어서 번역하는 것보다 중국어에서의 의미와 구성하는 어휘 등을 고려하여 가장 비슷한 사자성어를 찾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귀를 기울이다'는 '주의를 집중하여 성심껏 잘 듣다.'라는 의미로 중국어 사자성어 '洗耳恭聽(귀를 씻고 공손하게 듣다,)'와 대응할 수 있다. 두 표현의 구성에서 모두 어휘소 '귀(중국어로 하면 '耳'이다)'가 포함되고 의미적으로 모두 '집중하여 듣다.'와 같은 뜻을 표현한다.

4. 한국어 부술관계 연어의 대응 양상

중국어에는 '-에'의 의미와 문법기능과 같은 조사가 없기 때문에 '-에'가 포함된 '부사어(체언+에)+용언'형 연어는 중국어에서 통사적으로 일치하게 대응할 수도 없다. 따라서 '부사어+서술어'형 한국어 연어는 중국어에서의 대역어와 모두 비대응적 대응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한국어 조사 '-에'의 용법이 많아서 '체언+에'로 구성된 부사어의 구체적인 의미에 따라 '-에'가 포함된 연어는 중국어에서도 다양한 대응 양상을 보인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한국어 조사 '-에'의 용법과 의미에 대해 고찰할 필요하다.

<표-29> 한국어 조사 '-에'의 의미와 용법

-에
조사

(체언 뒤에 붙어)

1.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옷에 먼지가 묻다.
2. 앞말이 시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나는 아침에 운동을 한다.
3.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동빈)
학교에 가다.
4. 앞말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피동)
바람에 꽃이 지다.
5. 앞말이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나는 그의 의견에 찬성한다.
6. 앞말이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개사구)
나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7. 앞말이 목표나 목적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개사구)
몸에 좋은 보약.
8. 앞말이 수단, 방법 따위가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개사구)
우리는 햇볕에 옷을 말렸다.
9. 앞말이 조건, 환경, 상태 따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냈니?
10. 앞말이 기준 되는 대상이나 단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11. 앞말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그 아버지에 그 아들.
12. 앞말이 말아보는 자리나 노릇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개사구)
반장에 그가 뽑혔다.
13. 앞말이 제한된 범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방위)
포유류에 무엇이 있지?
14. (('관하여(관한)', '대하여(대한)', '의하여(의한)', '있어서' 따위와 함께 쓰여)) 앞말이 지정하여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개사구)
이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오시오.
15. 앞말이 무엇이 더하여지는 뜻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방위)
국에 밥을 말아 먹다.

<표-29>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한국어 조사 '-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15가지의 의미 해석이 있다. 부동한 '에'로 이루는 동사구나 연어는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의 유형도 서로 다르다. 의미 해석 중에서 1, 2, 13, 15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중국어에서 방위구와 대응한다. 왜냐하면 1, 2, 13, 15 번째 항목에서 '-에'의 의미는 모두 '처소, 시간, 범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중국어에서 방위를 나타내는 명사 '中(속), 里(안), 入(-에 들어감), 上(-로 올림)' 등에 의해서 방위구인 대역어를 생성한다. 3, 5, 9, 10, 11의 의미로 이루는 연어는 중국어에서 술빈구와 대응하고 6, 7, 8, 12, 14는 개사구와 대응한다. 왜냐하면 3, 5, 9, 10, 11 번째 항목의 의미에 따라 조사 '-에' 앞에 나오는 명사를 모두 동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중국어 문법에는 동작의 대상은 항상 동사 뒤에 나오고 동사와 같이 술빈구를 형성한다. 따라서 연어 구성 속의 '-에'의 의미는 3, 5, 9, 10, 11 번째 항목에 해당할 때 중국어에서 술빈구와 대응한다. 6, 7, 8, 12, 14 번째의 의미 해석에 따라 '-에'는 중국어에서 각각 '給, 對, 用, 爲, 關於/有關'등 개사와 대응하고 연어의 다른 성분의 중국어 대역어와 같이 개사구를 이룬다. 4번째 해석 항목은 피동의 의미인 '-에'로 형성된 연어는 보통 중국어에서 피동구와 대응한다. 본고에서 선정한 교육용 연어 중에서 '부사어+체언'형 연어들은 대부분 중국어에서 방위구나 술빈구로 대응한다. 구체적인 예를 보겠다.

(1) 방위구와의 대응

기억에 남다 → 留在記憶中、記在腦子里

동아리에 들다 → 加入社團

물에 빠지다 → 掉進水里

눈에 띄다 → 進入視線、映入眼簾

무대에 올리다 → 搬上舞台

생각에 잠기다 → 陷入沉思

위에서 제시한 조사 '-에'가 참여한 '부사어+용언'형 연어는 중국어에서 모두 방위구로 대응된다. 이런 연어 속에서 조사 '-에'의 역할은 '-에'를 포함하는 앞말은 뒤에 있는 동작이나 사건이 발생하거나 진행되는 장소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때 '장소'를 나타내는 한국어 조사 '-에'는 중국어에서 '中(속), 里(안), 入(-에 들어감), 上(-로 올림)' 등 방위사와 대응한다. 이런 방위사는 연어를 구성하는

체언과 용언의 중국어 대역어와 같이 방위구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기억에 남다'에서의 명사 '기억'과 동사 '남다'는 모두 기본 의미로 각각 중국어에서 명사 '記憶'와 동사 '留'와 직접 대응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연어 '기억에 남다'의 전체적 의미에 따라 명사 '記憶'와 동사 '留'는 직접 결합할 수 없다. 만약 조사 '-에'의 의미적 기능을 중국어 대응 양상에서 구현하지 않는다면 이 두 대역어로 직접 생성되는 표현은 술빈구에 해당되는 '留記憶(기억을 남다)'이다. 그러나 '기억에 남다'의 뜻에 따라 동사 '남다'의 대상은 '기억'이 아니라, 동사 '남다'는 '기억'이라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에'는 연어 구성에서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서 중국어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방위사 '中/里'등과 대응한다. '-에'의 대역어인 '中/里'는 꼭 '留'와 '記憶' 사이에 끼어들어야 정확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부사어+용언'형 연어 '기억에 남다'는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은 방위구에 해당된 '留在記憶中'이다.

(2) 술빈구와의 대응

- 마음에 들다 → 合心意
- 감기에 걸리다 → 得/患感冒
- 보험에 들다 → 上保險
- 입에 맞다 → 合胃口、對胃口
- 조건에 맞다 → 符合條件、滿足條件
- 적성에 맞다 → 适合自己

위에서 제시한 '부사어+용언'형 연어는 중국어에서 모두 술빈구와 대응한다. 교육용 연어 목록에서 '들다, 맞다, 걸리다' 등 동사로 구성하는 연어는 이런 대응 양상을 보인다. 왜냐하면 이런 연어 구성 속에서 체언은 항상 그 동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조건에 맞다'에서 '-에'는 앞말이 기준 되는 대상이나 단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역할을 한다. 중국어에서 동사와 동사의 대상의 관계는 항상 술빈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어 연어 '조건에 맞다'에서 명사 '조건'은 기본의미로 중국어 명사 '條件'와 대응하고 동사 '

맞다'는 확장 의미로 중국어 동사 '符合'나 '滿足'와 대응할 수 있다. '-에'의 의미적 기능에 따라 '조건에 맞다'는 중국어에서 술빈구에 속하는 '符合條件/滿足條件'와 대응 관계를 형성한다. 중국어에서 술빈구는 주로 동사와 명사의 배열 순서에 따라 실현된다. 따라서 '-에'의 의미를 구지 글자로 번역하지 않아도 어순에만 의해 체언과 용언의 대역어인 '條件'와 '滿足'로 '조건에 맞다'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조건에 맞다'에서 '-에'는 앞말이 기준 되는 대상이나 단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다'는 직접 중국어 술빈구인 '符合條件/滿足條件'와 대응된다.

(3) 주술구와의 대응

시험에 떨어지다 → 考試落榜、考試不及格

시험에 붙다 → 考試合格

위의 연어를 구성하는 명사 '시험'은 중국어에서 명사 '考試'와 대응한다. 동사 '떨어지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다.'라는 기본 의미로 중국어에서 자동사인 '掉, 落'와 대응하고 '붙다'는 '맞닿아 떨어지지 아니하다.'라는 기본 의미로 중국어에서 타동사인 '貼, 粘'와 대응한다. 그러나 연어 구성에서 명사 '시험'은 기본 의미를 유지하지만 용언의 의미는 확장되었다. 연어 구성에는 '시험에 떨어지다'는 '시험, 선거, 선발 따위에 응하여 뽑히지 못하다.'라는 의미이며 '붙다'는 다시 '시험 따위에 합격하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떨어지다'와 '붙다'의 기본 의미로 대응하는 중국어 동사 '掉, 落', '貼, 粘'는 한국어와 같은 확장 의미의 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에서 이런 확장 의미와 비슷한 동사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중국어에서 시험의 결과를 나타내는 형용사 '合格, 及格(합격하다)', '不及格(불합격하다)'를 차용하여 연어의 대응 양상을 만든다. '合格, 及格'와 '不及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보통 앞에 나오는 명사는 문장의 주어를 한다. 따라서 '부사어+용언'형 연어 '시험에 떨어지다/붙다'는 중국어에서 주술구인 '考試不及格/及格'와 대응한다.

(4) 피동구와의 대응

불에 데다 → 被燒傷, 被火燙

입에 오르내리다 → 被人議論、成爲話柄

연어 '불에 데다' 중에서 '-에'는 앞말의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로서 그 원인은 항상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어에서 보통 개사 '被'를 통해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연어를 구성한 명사 '불'은 중국어에서 '火'와 대응하고 동사 '데다'는 '燙'와 대응한다. 따라서 '-에'의 의미를 '被'로 이해하게 되면 연어는 중국어에서 피동구인 '被火燙'와 대응한다. 혹은 연어를 의역해서 '被燒傷'와 같은 표현도 된다.

(5) 어휘와의 대응

틀에 박히다 → 死板、照本宣科

마음에 들다 → 滿意、中意、喜歡

눈에 띄다 → 顯眼、明顯、醒目

위의 연어 구성에는 '-에'의 의미적 기능은 모두 첫 번째 대응 상황과 같이 동작을 발생하는 장소를 나타낸다. 이때 해당하는 연어를 중국어의 방위구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중국어에는 그 연어와 비슷한 의미인 어휘나 사자성어도 따로 있다. 복잡한 구 표현보다 번역된 내용의 간결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어휘로 직접 한국어 연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제창할 만하다. 예를 들면, '눈에 띄다'는 연어적 의미에 따라 '映入眼睛里'와 같은 방위구로 번역되는 것보다 '顯眼、明顯、醒目'등 유의어로 번역하는 것은 훨씬 간단명료하고 효율적이다. 따라서 중국어에 연어의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있다면 구의 형식보다 단어를 대역어로 선택한다.

V.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연어 습득 양상에 대한 조사와 분석

1.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연어 습득 양상에 대한 조사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해 효율적인 한국어 연어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먼저 학습자들의 연어 습득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연어 사용 오류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한국어 연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의 차이를 찾아내어 이런 언어적 차이로 인해 이루는 연어 사용 오류의 원인을 밝힐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오류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연어를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조사 방법

연어 사용 오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의 연어 습득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면 먼저 분석 대상 자료의 범위를 확보해야 한다. 분석 대상 자료의 유형에 따라 분석 결과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중국인의 연어 오류 연구 중에서 정숙향(2007), 이목자(2013)는 학습자들의 작문 과제를 통해서 연어 오류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작문 과제는 학습자마다 개인의 주관적 의식과 연어 사용 습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연어 학습과 활용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면 일부러 회피하는 학습자가 많다. 이로 인해 수집 가능한 연어 오류의 양이 줄어드는 동시에 오류의 빈도와 비중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또한 학습자별로 작문 과제에서 너무 개인적이고 전형적이지 않은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 오류 양상도 보이지 못한다. 이목자(2013)에서는 이백여 편의 작문을 분석하였는데 추출한 연어 오류는 결국 108개밖에 없다고 하였다. 오류의 양이 많다고 하기 어렵고 오류 분석

을 하면 객관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것이 작문 자료에 의해 언어 오류를 분석하는 한계점으로 봐야 한다. 이외에 유문명(2018)에서는 문어 및 구어의 학습자 말뭉치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언어 오류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재나 과제 등 학습 자료보다 말뭉치의 규모가 크다보니 이미 정한 언어의 범위에서 오류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말뭉치 중의 모든 오류를 도출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본고에서는 연구할 언어의 범위를 이미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용 언어 목록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이미 한정된 범위를 더욱 큰 범위인 말뭉치에서 오류를 수집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지금 논의하는 것과 같이 작문 과제나 학습자 말뭉치를 본고에서 언어 오류를 분석하는 데의 기초 자료로 보는 것은 적당치 않다. 한편, 작문 과제와 학습자 말뭉치 외에 설문조사를 통해 언어 오류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 유열영(2015), 여숙연(2017)에서 설문조사의 방법을 택한다. 여숙연(2017)에서 <세종 전자사전>을 참고하여 사용 빈도에 따라 서술어 타동사 33개를 선정하였고 이 33개 타동사에 대응하는 중국어 '서술어+목적어' 연어를 한국어 '목적어+서술어'로 번역하라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오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오류의 원인은 주로 모국어 영향과 목표어 영향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어를 구성하는 서술어를 30개의 타동사만 한정하게 된 것은 이 실험 연구의 한계점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본고의 4장에서 논의하는 것과 같이 한국어 '목적어+서술어'연어는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은 반드시 '서술어+목적어' 연어가 아님으로 이 두 가지의 구성인 연어만 서로 대조하는 것은 언어 대조 양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본고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언어 학습 양상을 파악할 것이다. 구체적인 실험 방법은 4장에서 제시된 '교육용 언어 목록'중의 대표적인 항목을 뽑고 학습자들에게 각 언어의 중국어 대응 표현을 보고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사 방법이 갖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런 설문조사의 실험 방법을 채택하는 이유는 먼저 언어 번역 테스트를 통해 학습자들이 작문, 회화 등 과제에서 언어의 사용을 회피하는 현상을 피할 수 있고 언어의 오류를 보다 쉽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수의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작문 과제 자료와 넓은 범위에서 언어의 오류를 산발적으로 나

타내는 말뭉치 자료보다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용 언어 목록'에 있는 언어 항목을 겨냥하여 진행되는 언어 번역 테스트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미 배웠던 언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더욱 목적성이 있게 조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 번역 테스트를 통해 한국어 언어의 중국어와의 대응 관계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학습자들이 이런 대응 관계를 언어 학습 과정에 잘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번역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은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닌 역방향으로 번역하는 것인데, 기존 방식으로는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보고 언어의 의미를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기 어렵지만 중국어 대응적 표현을 보고 다시 한국어 언어로 번역하라는 방식을 통해 학습자들의 습득언어, 즉 목표어인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하는 정도를 알 수 있다. 또한 오류 분석을 통해 모국어인 중국어가 한국어 습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설문지 질문은 '아래 중국어 표현을 한국어 '체언+용언'형 언어로 번역해 보세요.'라고 구성하였다. 설문지에서 선택한 표현들은 언어가 중국어에서 대응되는 모든 양상을 포함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언어 수준에 따라 초급 학습자들에게 1~12번째 문제로 설문을 실시하고 중국 학습자들에게 1~30번째 문제, 고급 학습자들에게 1~40번째 문제로 조사를 진행한다. 각 학습 단계의 언어 학습 난이도에 맞춰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언어 학습 양상을 더욱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설문지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 | |
|----------------------|----------------------|
| 1.下雪、降雪 (눈이 오다) | 2.想起、想出 (생각이 나다) |
| 3.入睡、睡着 (잠이 들다) | 4.个子高 (키가 크다) |
| 5.生气、發火(화가 나다) | 6.抽烟、吸烟 (담배를 피우다) |
| 7.取錢 (돈을 찾다) | 8.下定決心, 下決心 (마음 을먹다) |
| 9.關灯 (불을 끄다) | 10.考試 (시험을 보다) |
| 11.穿袜子 (양말을 신다) | 12.合心意、喜歡 (마음에 들다) |
| 13.害怕; 胆小(겁이 나다) | 14.開花 (꽃이 피다) |
| 15.月亮升起 (달이 뜨다) | 16.長肉、長胖 (살이 찌다) |
| 17.花時間、費工夫 (시간이 걸리다) | 18.背書包 (가방을 메다) |

- | | |
|---------------------|----------------------|
| 19.積累經驗 (경험을 쌓다) | 20.實現夢想 (꿈을 이루다) |
| 21.閉眼 (눈을 감다) | 22.中暈 (더위를 먹다) |
| 23.洗頭 (머리를 감다) | 24.負傷, 受傷 (상처를 입다) |
| 25.排隊 (줄을 서다) | 26.停車, 泊車 (차를 세우다) |
| 27.得/患感冒 (감기에 걸리다) | 28.掉進水里 (물에 빠지다) |
| 29.考試落榜 (시험에 떨어지다) | 30.合胃口、對胃口 (입에 맞다) |
| 31.楓叶染紅 (단풍이 들다) | 32.嗓子眼冒烟、口干 (목이 타다) |
| 33.嘗咸淡; 調味儿 (간을 보다) | 34.被拒絕 (거절을 당하다) |
| 35.怕熱、不耐熱 (더위를 타다) | 36.造成/施加影響 (영향을 미치다) |
| 37.欠人情 (신세를 지다) | 38.挨罵 (욕을 먹다) |
| 39.找借口 (핑계를 대다) | 40.被燒傷, 被火燙 (불에 데다) |

1.2. 조사 대상

본고에서는 중국 현지 대학교에 있는 한국어 학과에서 학습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연어 습득 양상을 살펴보고 그 오류의 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조사 대상은 중국 현지에 있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36명이다. 이들은 주로 북경대 <한국어>를 종합 교재로 삼고 한국어를 학습하지만 본고에서 교육용 연어 목록을 선정할 때 제시한 5가지의 교재를 듣기, 말하기, 쓰기 등 단과 과정에서 보조적 교재로 쓰고 있다. 피조사자는 한국어의 숙달도에 따라 초급 학습자 10명, 중급 학습자 13명, 고급 단계 학습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실험자의 대체적인 인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30> 피실험자 구성

	순	소속	학년	TOPIK등급
초급(10명)	1	북경어언대학교 한국어과	1학년	초급 1명
	2-10	대외경제무역대학교 한국어과	1학년	무
중급(13명)	11-12	북경어언대학교 한국어과	2학년	중급 1명
	13-23	대외경제무역대학교 한국어과	2학년	중급 2명
고급(13명)	24-26	북경어언대학교 한국어과	3학년	중급 1명, 고급 1명
	27-30	대외경제무역대학교 한국어과	3학년	고급 1명
	31-32	북경어언대학교 한국어과	4학년	고급 2명
	33-36	대외경제무역대학교 한국어과	4학년	고급 4명

2. 한·중 언어 대조 관점에서의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연어 오류 분석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구조주의 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대조분석 가설은 오류를 모국어의 '간섭'으로 이해하였으며 빨리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오류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모국어와 목표어 언어 대조표를 작성하여 문제를 예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⁰⁾ 따라서 두 언어 간의 구조적 차이점을 비교하는 대조분석 가설을 통해서 언어 간 차이로 야기되는 언어 학습의 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연어 오류에 대해서 대조분석 가설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분석하겠다.

오류의 원인을 밝히고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류를 판정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조분석 가설에서는 모국어와 목표어의 체계가 다른 경우 부정적 전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면서 모국어의 간섭을 강조하였다. Lado(1957)는 외국어 어휘를 습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모국어 어휘라고 보고, 형태, 의미, 분포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외국어 어휘 습득의 난이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연어 오류들을 오류의 원인에 따라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와 목표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로 나눈다.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는 주로 모국어와 목표어의 체계가 다를 때 부정적 전이 현상이 일어난 것을 가리키고 목표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는 이정희(2003)에 따라 다시 과잉 적용과 불완전 적용과 같은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다. 과잉 적용 오류는 한국어의 규칙이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형태만을 기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조사나 어미가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를 달리할 때도 이러한 과잉 적용은 일어난다. 또한 일반적 규칙을 따라 예외적인 현상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달리 불완전 적용 오류는 한국어의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 규칙을 부분적으로만 적용시키는 경우이다.

기존의 연어 오류 분석 연구는 이목자(2013), 주가문(2016), 여숙연(2017), 유문

50) 이정희(2003:58)에서 재인용.

명(2018) 등이 있다. 각 연구 중에서 언어 오류에 대한 분류 방법을 살펴보면 주가문(2016) 외에 모두 모국어나 목표어의 영향으로 인해 오류를 언급하였고 대조 분석 가설의 맥락과 일치한다. 주가문(2016)에서 주로 언어 구성 내부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오류의 유형을 나누고 대치, 생략, 첨가 등 구체적인 오류 현상에 따라 세부적인 오류 분류의 기준을 세웠다. 이런 언어 오류의 분류 기준에 따라 위치나 형태로 오류의 유형을 쉽게 판정할 수 있으나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을 쉽게 밝힐 수 없다. 이와 달리 여숙연(2017)에서는 언어 오류의 유형에 대해 모국어 영향과 목적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와 같은 이분법을 취하고 모국어 영향은 한국어 어휘의 의미를 몰라 중국어 직역으로 범한 오류와 중국어와 한국어 어휘 간 의미 차이로 범한 오류이고 목표어 영향은 한국어에서 유의어나 다의어의 의미를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구별하지 못해서 나타난 오류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목자(2013)에서는 모국어나 목적어의 영향으로 이루는 두 가지의 오류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상의 오류도 포함시킨다. 유문명(2018)에서도 '언어 전이에 의한 오류, 목표어 내부 전이에 의한 오류, 그리고 학습 환경에 의한 오류'라는 용어로 이 3가지의 오류를 나누었다. 이처럼 대조분석 가설에서 출발하여 언어의 오류를 분석하면 언어 오류의 원인을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조 언어학 관점에서 언어 간의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수 방법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학습의 난점을 극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본고에서 연구할 언어의 오류는 언어를 구성하는 체언과 용언의 오류에 제한하지 않고 언어의 전체적 구성을 유지해주는 조사의 오류도 포함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언어 오류에 대한 분류 방법은 <표-31>과 같이 제시한다.

<표-31> 언어 오류의 유형 분류

어휘적 오류 (체언과 용언의 오류)	오류 원인에 따른 오류 분류	언어 오류의 유형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	목표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
중국어 어휘 직역으로 인한 오류		
통사적 오류	조사의 오류	유의어의 대치 오류
		자동사와 타동사의 혼동 오류

먼저 36명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번역식 문제의 설문조사

를 통해서 총 356개의 연어 오류를 수집했고 전체 학습자들의 오류율은 16.6%에 달했다. 학습 등급별로 통계된 오류율을 보면 초급 학습자의 오류율은 29.3%로, 중급 학습자의 오류율은 28.4%로, 고급 학습자의 오류율은 23%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연어의 오류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 시간과 학습 난이도의 증가됨에 따라 학습자들이 연어 지식에 대해 점차적으로 익숙해지고 연어를 활용할 때 어법이나 표현의 실수나 오류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학습 단계의 연어 오류율은 수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연어는 역시 학습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의 난점이 된다. 학습 등급에 따른 연어 오류율 통계 결과는 아래 <표-32>와 같이 제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32> 학습 등급에 따른 연어 오류율 통계

학습 등급	오류 빈도	오류율
초급	88	29.3%
중급	148	28.4%
고급	120	23%
전체	356	16.6%

그리고 연어 구성에서 오류의 위치에 따라 통계된 결과를 보면 체언의 오류율은 13.8%로 가장 낮은 편이고 용언의 오류율은 44.9%로 나타났다. 다른 연어 성분의 오류율과 비교했을 때 수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용언은 연어 구성에서 오류가 가장 많은 부분이다. 그리고 연어의 구성요소인 조사의 오류율도 적지 않은데 20.9%로 나타난다. 본고에서 조사를 잘못 쓰거나 생략하는 상황을 모두 조사의 오류로 보았다. 또한 피시험자들이 번역 문제로 제시된 중국어 표현을 한국어 연어가 아닌 어휘로 번역하는 경우, 혹은 답을 잘 몰라서 아무 것도 쓰지 않는 경우, 그리고 맞춤법, 음운적 오류 등 문제를 기타 오류(20.5%)로 보았다. 오류의 위치에 따른 연어 오류율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3> 문장 성분에 따른 연어 오류율 통계

오류 위치	오류 빈도	오류율
체언의 오류	49	13.8%
용언의 오류	160	44.9%

조사의 오류	74	20.9%
기타	73	20.5%

언어 오류 중에서 용언의 오류가 체언의 오류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용언의 의미와 형태적 변화는 체언보다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언어에서 용언의 사용에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중국어에는 없는 격조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도 문제가 많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장성분에 따른 오류 분석만으로 언어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지 못한다. 언어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조분석 가설에서 출발하여 한·중 대역어를 서로 비교하면서 언어 전체의 의미와 언어 내부에 있는 구성요소의 의미, 기능, 형태, 그리고 결합 관계 등을 분석해야 한다. 지금부터 대조언어학 관점에서 언어의 오류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겠다.

2.1.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

대조분석 가설에서는 모국어와 목표어의 체계가 다른 경우 부정적 전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면서 모국어의 간섭을 강조하였다. Brown(2000)에서는 언어 간 전이는 모든 학습자 오류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특히 제2언어 학습 초기 단계에 모국어로부터의 언어 간 전이, 즉 모국어 간섭이 특히 많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는 제2언어 체계에 익숙해지기 전에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학습에 끌어들이 수 있는 언어적 체계는 모국어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휘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어 어휘에는 중국어의 한자어를 차용하는 것이 많다. 모국어인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자어를 만날 때 그 한자어가 중국어와 발음, 형태, 의미 등 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권 학습자들보다 더욱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한자어 중에 중국어와 의미가 일치하거나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의 축소, 확장, 전이 등 변화 과정을 거쳐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변한 것도 많다. 이런 한자어에 대해

중국어 학습자들이 쉽게 생각하고 중국어 어휘와 일대일적 관계로 대응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본고에서 이런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언어 오류를 다시 한·중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와 중국어 어휘 직역으로 인한 오류로 분류하여 논의하겠다.

(1) 한·중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

한·중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는 언어를 구성하는 한자어가 의미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한국어에서 다르게 쓰이는 경우를 말한다. 현대 중국어 어휘와 의미가 다르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런 한·중 어휘 대응 관계에 대해 중국어와 같은 의미로 착각해서 범하는 오류를 가리킨다. 한·중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는 주로 한자어의 의미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설문 조사를 통해서 집계된 오류 중에서 한자어의 한·중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는 모두 5개가 있고 전체 오류 유형에서 1.4%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오류의 예는 아래와 같다.

- (1) 가. 欠人情 *인정빚을 지다, *인정을 빚지다, *인정을 받다 (√신세를 지다)
 나. 造成/產生/施加影響 *영향을 조성하다(√영향을 미치다)

'가'는 체언인 한자어가 한·중 두 언어에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이다. '欠人情' 중에서 '人情'의 형태와 발음과 일치하는 한국어 한자어는 '인정[人情]'이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人情'와 '인정[人情]'의 의미에 대해서도 쉽게 1대1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 명사 '人情'는 '은혜, 정의(情誼), 호의, 선심.'라는 의미로 동사 '欠(빚지다)'와 결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거나 도움을 받다'의 뜻을 표현한다. 그러나 한국어 한자어 '인정'은 보통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심정.'을 가리키는 것임으로 중국어의 '人情'처럼 '은혜'의 의미를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인정빚을 지다'와 '인정을 빚지다'와 같은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오류가 나타난 원인은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의미가 서로 다른 한자어 명사인 [人情]의 차이를 잘 몰라서 완전 대응적 의미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용언인 한자어가 한·중 두 언어에서 의미가 부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이다. 중국어 원문 '造成影响' 중에서 '造成'의 형태와 발음을 그대로 대응하는 한국어 한자어는 '조성[造成]하다'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의미적 측면에서 '조성하다'를 '造成'와 똑같이 생각하면 '영향을 조성하다'와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중국어에서 '영향(影響)'과 '조성(造成)'이 같이 결합하여 호응 관계를 이룰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한·중 두 언어에서 한자어 '[造成]'의 의미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두 언어에서 '[造成]'은 모두 '무엇을 만들어서 이루다.'라는 의미가 있다. 중국어에서만 '(좋지 않은 사태 따위를) 발생시키다. 야기하다. 초래하다.'와 같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중국어에서 '造成'는 '影響'와 결합해 '나쁜 영향을 끼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와 같은 뜻을 표현할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 '영향을 조성하다'와 같은 표현은 어색한 표현이다.

(2) 중국어 어휘 직역으로 인한 오류

중국어 어휘 직역으로 인한 오류란 중국어 표현을 한국어로 표현하려고 할 때 중국어의 의미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 중국어의 발음이나 의미를 직역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런 오류 중에 중국어의 발음이나 형태 그대로 한국어 한자어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어의 의미에 따라 그 의미와 비슷한 한국어 고유어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어 어휘를 한국어 한자어로 직역한 데서 비롯된 오류는 앞에서 제시한 한·중 한자어의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와 달리 직역된 한자어는 한국어 사전에 존재하지 않거나 의미의 순화를 거쳐 현재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류가 형성된다. 또한 중국어 어휘를 한국어 고유어로 직역한 데서 비롯된 오류는 주로 특정한 의미를 표현할 때 한국어와 중국어의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이다. 이때 학습자들이 번역 과정에서 선택한 한국어 고유어 어휘는 한국어 화자의 언어 체계와 사유 방식에 있는 어휘가 아니라 자기의 모국어의 표현 방식이나 의미와 비슷한 한국어 고유어로 직역하는 것이다.

설문 조사를 통해서 집계된 오류 중에서 중국어 어휘 직역으로 인한 오류는 모두 74개가 있고 전체 오류 유형에서 20.8%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오류의 예는

아래와 같다.

- | | |
|----------------|------------------------------------|
| 가. (1) 抽烟、吸烟 | *연을 피다 (√담배를 피우다) |
| (2) 关灯 | *등을 끄다 (√불을 끄다) |
| (3) 害怕; 胆小, 胆怯 | *담이 작다 (√겁이 나다) |
| 나. (1) 取錢 | *돈을 가져가다, *돈을 갖다, *돈을 꺼내다 (√돈을 찾다) |
| (2) 关灯 | *등을 단다, *불을 단다 (√불을 끄다) |
| (3) 背書包 | *배낭을 엮다, *가방을 엮다 (√가방을 메다) |
| (4) 洗頭 | *머리를 씻다 (√머리를 감다) |
| (5) 停車, 泊車 | *차가 멈추다, *차를 멈춘다 (√차를 세우다) |
| (6) 掉進水里、落水 | *물에 떨어지다 (√물에 빠지다) |
| (7) 怕熱、不耐熱 | *더위를 무서워하다 (√더위를 타다) |
| (8) 找借口 | *핑계를 찾다 (√핑계를 대다) |

위에서 제시한 오류의 예시 중에 '가'는 학습자들이 중국어와 대응하는 한국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 중국어 어휘의 발음이나 형태에 따라 직역해서 한국어에 없는 한자어를 만들어내는 것들이다. 한국어 어휘 체계에는 한자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상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목적어인 한국어로 문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어휘의 발음이나 형태를 그대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국어를 한국어 한자어로 직역하는 오류도 적지 않다. '나'는 학습자들이 중국어 표현을 한국어 연어로 번역할 때 중국어 용언과 가장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 중국어 어휘의 의미에 따라 의미가 비슷한 한국어 고유어로 직역하는 것들이다. 의미에 따라 연어를 직역하는 번역 방식으로 인해 용언 의미의 범위, 유의어 의미의 내부적 차이, 그리고 한·중 표현 방식의 차이 등 세부적인 정보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언과 어울리지 않는 용언로 연어를 형성하는 오류가 많다. 위의 두 가지 오류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가'의 경우, '抽烟, 关灯, 胆小'와 같은 중국어 구 표현 중에서 체언은 각각 '烟, 灯, 胆'에 해당한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명사 '烟, 灯, 胆'와 대응하는 한국어 고유어 어휘를 잘 모르면 쉽게 한자어 '연(煙), 등(燈), 담(膽)'과 대응시킨다. 따라서 중국어 의미에 대응하는 한국어 용언을 결합하여 '연을 피우다', '등을 끄다', '담이 작다'와 같은 표현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한자어 '연(煙), 등

(燈), 담(膽)'은 아직 중국어 한자의 뜻을 남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진 고유어 '담배, 불, 겁'처럼 독립성이 있는 명사로 쓰이지 못하고 용언 '피우다, 끄다, 나다'와 결합 관계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오류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정확한 한국어 어휘를 이해하지 못해 중국어 한자의 발음에 따라 한국어와 대응하여 사전에 없거나 현실 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어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나'중에서 (1),(7),(8)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특정 의미를 한국어로 표현하려고 할 때 한·중 언어의 표현 방식이 다른 점도 불구하고 단순히 중국어의 의미에 따라 직역해서 나타난 오류이다. (2)~(6)는 한·중 유의어 간의 의미 범위나 구체적인 용법의 차이를 잘 몰라서 이루는 오류이다. '取錢'와 대응하는 한국어 연어는 '돈을 찾다'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어 용언 '찾다'는 중국어에서 '取'가 아니라 '找'와 의미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보면 '돈을 찾다'의 의미를 표현할 때 한국어로 하면 '找錢'인데 중국어에서 '取錢'에 해당한다. 한·중 두 언어로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지만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取錢'의 의미를 표현할 때 '찾다'와 같은 대역어를 연상하기가 어렵다.

보통 중국인 학습자들은 단순히 '取'의 의미에 따라 한국어 용언 '가지다, 꺼내다'로 직역하는 경향이 많다. 이처럼 '돈을 가지다/가져가다/꺼내다'와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取錢'와 '돈을 찾다'의 경우는 똑같은 의미를 표현할 때 한·중 두 언어에서 의미가 서로 다른 용언을 선택해서 표현 방식의 차이가 나타난 예이다. 그러나 '怕熱'와 '더위를 타다', '找借口'와 '핑계를 대다'는 한국어로 특정 의미를 표현할 때 그 의미에 맞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지만 중국어에서 그 용어에 대응하는 어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비슷한 다른 용어를 차용하여 표현하는 경우이다. '이유나 구실을 들어 보이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낼 때 한국어 용언 '대다'로 표현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대다'와 대응하는 어휘가 따로 없고 '找'((이유/핑계 등을) 찾다) '로 표현한다. 따라서 한국어와 표현 방식이 다른 중국어 표현인 '找借口'를 직역하면 '핑계를 찾다'와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한·중 유의어 간의 의미 범위나 구체적인 용법의 차이로 인한 오류들은 다음과 같다. 중국어 동사 '關'는 한국어 용언 '닫다'와 '끄다'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닫다'는 '열린 문짝, 뚜껑, 서랍 따위를 도로 제자리로 가게 하여 막다.'라는 의미로, '끄다'는 '전기나 동력이 통하는 길을 끊어 전기 제품

따위를 작동하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로 의미가 서로 다르다. 중국어 '關'의 의미는 '닫다'와 '끄다'보다 넓기 때문에 '關'로 '關門(문을 닫다)'와 '關灯(불을 끄다)'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 중국어 '關'의 의미 범위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초급 학습 단계에서 먼저 '문을 닫다'를 배워서 '닫다'를 '關'와 1대1 관계로 대응하는데 그 후에 '關灯'를 표현하려고 할 때 '關灯'의 '關(끄다)'를 쉽게 동사 '닫다'와 대응하여 '불을 닫다'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背書包'의 '背'는 한국어에서 의미가 서로 다른 동사인 '업다(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등에 대고 손으로 붙잡거나 무엇으로 동여매어 붙여 있게 하다.)'와 '메다(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가방을 메다'가 아닌 '가방을 업다'와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洗頭' 중의 '洗'는 한국어에서 '감다'와 대응해야 하는데, 그러나 '감다'의 용법보다 '洗'는 '씻다'와 대응하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洗'의 대역어를 '씻다'로 생각해서 '머리를 씻다(洗頭)', '옷을 씻다(洗衣服)' 등 직역으로 인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연어 '차를 세우다'로 '주차하다'의 뜻을 표현하고 '차를 멈추다'로 '정차하다'의 뜻을 표현하지만 중국어에서 '停車'만으로 두 의미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어 동사 '停'는 한국어 '정거(停車)하다. 정박(停泊)하다.'과 같은 '세우다'의 의미와 '정지하다. 중지하다.'라는 '멈추다'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어 표현의 의미와 대응하는 한국어 대역어를 잘 구분하지 않으면 쉽게 '停車, 泊車'를 '차가/를 멈추다'와 대응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연어의 오류는 크게 한·중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와 중국어 어휘 직역으로 인한 오류와 같은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다. 한·중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는 주로 한·중 한자어는 의미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의미가 서로 다르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를 역시 같은 의미로 착각해서 나타난 오류이다. 중국어 어휘 직역으로 인한 오류는 중국어 표현을 한국어로 표현하려고 할 때 중국어의 의미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를 잘 몰라서 그냥 중국어의 발음에 따라 잘못된 한자어로 직역하거나 중국어의 의미에 따라 체언과 어울리지 않는 고유어로 직역하는 오류 현상이다. 한자어의 직역 오류는 한국어 사전에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 쓰이지 않는 한자어로 번역하는 것에 해당한다. 고

유어의 직역 오류는 한·중 어휘의 의미 범위나 표현 방식의 차이를 몰라서 잘 못 번역하는 것을 가리킨다. 통계 결과를 보면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는 역시 연어 오류의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이고 오류 중에서 한·중 한자어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보다 중국어 어휘 직역으로 인한 오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2. 목표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

언어 간 오류 외에 제2언어 학습에서 목표어의 영향이 오류의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이정희(2005)에서 한국어 오류 현상 중에서 목표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에 대해 과잉 적용 오류와 불완전 적용 오류로 분류하였다. 과잉 적용 오류와 불완전 적용 오류는 복잡한 한국어 음운 규칙이나 문법 규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오류의 원인으로 본다. 그러나 본고에서 검토한 연어 오류는 어법 규칙의 문제보다 어휘 체계 내부의 의미와 형태에 대한 구분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낫다. 따라서 본고에서 목표어의 영향으로 인한 연어 오류는 유의어의 대치 오류와 자동사와 타동사의 혼동 오류와 같은 두 가지로 분류하겠다.

(1) 한국어 유의어의 대치 오류

한국어 유의어의 대치 오류는 한국어 유의어 간의 미세한 의미 차이나 용법 차이를 변별하지 못해서 범하는 오류이다.

설문 조사를 통해서 통계된 오류 중에서 한국어 유의어나 다의어의 대치 오류는 모두 49개가 있고 전체 오류 유형에서 13.8%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오류의 예는 아래와 같다.

- | | |
|---------------|------------------------------------|
| (1) 穿袜子 | *양말을 <u>입다</u> (√양말을 신다) |
| (2) 月亮升起 | *달이 <u>오르다</u> (√달이 뜨다) |
| (3) 挨罵 | *욕을 <u>받다</u> (√욕을 먹다/당하다) |
| (4) 被拒絕、遭到拒絕 | *거절을 <u>받다</u> (√거절을 당하다) |
| (5) 下定決心, 下決心 | * <u>결정</u> 을 내리다(√결심을 내리다/마음을 먹다) |

'(1)'은 '신다'와 '입다'의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 범하는 오류이다. 비록 '신다'와 '입다'는 모두 착탈어로서 '의류를 몸의 어느 부위에 꿰다'와 같은 공통된 의미가 있지만 '신다'는 '발에 꿰다.'라는 의미로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목적어는 신, 버선, 양말 따위 밖에 없다. 그러나 '입다'는 '옷을 몸에 꿰거나 두르다.'라는 의미로 앞에 나올 수 있는 목적어에 대해 상의나 하의류 명사만 한정한다. 따라서 '양말을/구두를 입다'와 같은 오류는 유의어의 구분 문제를 비롯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의 '穿'는 한국어에서 '입다'와 '신다'와 모두 의미적 대응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나 학습 순서와 사용 빈도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들이 '穿'를 '입다'만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양말/신발을 입다'와 같은 오류를 더 쉽게 범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2)'는 '뜨다'와 '오르다'의 사용 범위를 구분하지 못해서 범하는 오류이다. 비록 이 두 단어는 의미 측면에 모두 '아래에서 위쪽으로 움직이다.'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으나 '해나 달, 별 따위가 위로 돌아 오르다.'와 같은 특정한 의미를 표현할 때 '뜨다'만을 쓸 수 있다. 이런 특정 의미적 환경에 대해 잘 익숙하지 않으면 '달이 오르다'와 같은 어류를 쉽게 범할 수 있다.

'(3)~(4)'에서 피동 의미를 가진 중국어 용언을 모두 '받다'로 오역된 예시들이다. 중국어 피동의 표시인 '被, 受, 挨'는 한국어에서 용언 '당하다'나 '받다'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피동 의미가 있는 연어를 번역할 때 '받다'를 써야 하는지 역시 앞에 나오는 체언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환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비록 '받다'와 '당하다'는 모두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거나 입다.'라는 의미가 나타나지만 보통 '당하다'는 좋지 않은 일 따위를 직접 겪거나 입는 경우, 혹은 해를 입거나 놀림을 받는 부정적인 상황에 쓴다. 따라서 '받다'는 '욕'과 '거절' 등 부정적 의미를 가진 명사와 어울리지 않고 '당하다'와 같이 결합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5)'은 유의어 관계인 명사 '결심'과 '결정'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해서 범하는 오류이다. '결심'과 '결정'은 형태적으로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의미 측면에서 모두 '어떤 일을 정함'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심'의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함. 또는 그런 마음.'라는 의미를 '결정'의 '행동이

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함. 또는 그렇게 정해진 내용.’라는 의미와 비교할 때 역시 차이가 크다. 비록 이 두 어휘는 모두 의미가 상대적으로 순수한 한자어이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도 특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쉽게 혼동하여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한국어 유의어의 대치 오류의 예시를 보면 이런 오류가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유의어의 의미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오류들 중에서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한 의미를 표현하려고 할 때 난이도가 높고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어보다 초급 단계에 더욱 일찍 배우거나 의미와 형태가 더 쉬운 단어로 중국어와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穿鞋子’중의 ‘穿’의 대역어를 찾을 때 정확한 표현인 ‘신다’보다 먼저 배웠던 ‘입다’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月亮升起’의 ‘升’를 표현할 때 중급 어휘 ‘뜨다’보다 ‘오르다’를 ‘달’와 같이 결합하면 어색한 표현으로 만든 상황이 많다. 둘째, 유의어로 인한 연어 오류의 구체적인 원인은 개별 어휘들 간의 사전적 의미의 차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휘 자체의 감정 색깔, 사용 환경, 그리고 함께 공기하고 자연스러운 어휘적 결합 관계를 생성할 수 있는 어휘가 뭐가 있는지 등 여러 방면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한국어 내부에 있는 유의어로 인한 연어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강사는 학습자들에게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강조하는 동시에 유의어 간의 용법의 차이도 강조해야 한다.

(2) 자동사와 타동사의 혼동 오류

외국인 학습자들이 형태가 유사하고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는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해 쉽게 혼동할 수 있다. 설문 조사를 통해서 통계된 오류 중에서 한국어 자동사와 타동사의 혼동 오류는 모두 7개가 있고 전체 오류 유형에서 1.9%를 차지한다. 자동사와 타동사의 혼동으로 인한 연어 오류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 | | |
|-------------|-------------------------------------|
| (1) 抽烟、吸烟 | *담배를 <u>피다</u> (√담배를 <u>피우다</u>) |
| (2) 花時間、費工夫 | *시간을 <u>걸다</u> (√시간이 <u>걸리다</u>) |
| (3) 得/患感冒 | *감기를/에 <u>걸다</u> (√감기에 <u>걸리다</u>) |

'(1)'는 '흡연하다'의 뜻을 표현하면 목적어 '담배' 뒤에 타동사 '피우다'를 써야 했는데 자동사 '피다'를 쓴 상황이다. 한국어에는 '피우다'의 의미로 '피다'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피우다'만 표준어로 삼는다. '피다'는 자동사로 목적어가 필요 없으므로 목적어를 쓰는 경우에는 '피우다'를 써야 한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2)와 (3)는 학습자들이 '걸다'와 '걸리다' 간의 관계를 자동사와 타동사의 관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두 어휘의 관계는 의미가 서로 다른 부동한 어휘이다. '걸리다'는 '어떤 물체가 떨어지지 않고 벽이나 못 따위에 매달리다.'와 같은 특정한 의미가 나타날 때 '걸다'의 피동사로 하여 '걸다'와 유의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3)와 (4)의 중국어 표현에서 용언의 의미에 따라 '걸리다'만 쓸 수 있고 '걸다'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서 중국어의 의미를 표현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리한 목표어의 영향으로 인한 연어 오류의 예시를 보면 한국어 유의어로 인한 대치 오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유의어 오류 범주 중에서 용언의 오류는 체언의 오류보다 훨씬 더 많다. 체언의 오류를 고치려면 학습자들에게 단어 간의 의미의 차이를 강조하면 되지만 용언의 유의어 오류에 대해 유의어 관계인 용언의 의미만 알려주면 안 되고 그 의미의 감정 색깔, 사용 환경, 그리고 그 용언과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명사가 보통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정보를 동시에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자동사와 타동사, 피동사와 동사 원형에 대해 제대로 구분할 줄 알면 목적어 형태의 유사점으로 인한 연어의 오류도 피할 수 있다. 결국에는 문맥에서 연어를 배우게 되면 연어를 구성하는 어휘의 형태,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휘의 구체적인 용법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목표어의 간섭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2.3. 조사의 오류

연어 구성의 내부적 문제로 인한 오류는 모국어나 목표어의 간섭 등 원인으로 이루는 오류 외에 조사의 오류도 있다.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는 격조사가 없고 체언과 용언은 일정한 어순에 따라 직접 결합하면 구나 문장을 이룰 수 있다. 이

런 한·중 언어 어법의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연어를 배울 때 연어를 구성하는 체언과 용언보다 조사를 쉽게 소홀히 할 수 있다.

설문 조사를 통해서 통계된 연어의 오류 중에서 조사의 오류는 모두 74개가 있고 전체 오류 유형에서 20%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오류의 예는 아래와 같다.

- | | |
|------------|---|
| (1)想起、想出 | *생각 <u>나</u> 다, 생각_나다 (√생각 <u>이</u> 나다) |
| (2)入睡, 睡着 | *잠 <u>에</u> 들다, 잠을 들다 (√잠 <u>이</u> 들다) |
| (3)生气、發火 | *화 <u>를</u> 나다, 화 <u>간</u> 내다 (√화 <u>간</u> 나다, √화 <u>를</u> 내다) |
| (4)積累經驗 | *경험 <u>이</u> 쌓다, 경험 <u>을</u> 쌓이다 (√경험 <u>을</u> 쌓다, √경험 <u>이</u> 쌓이다) |
| (5)花時間、費工夫 | *시간 <u>을</u> 걸리다, 시간 <u>이</u> 들이다(√시간 <u>이</u> 걸리다, √시간 <u>을</u> 들이다) |
| (6)考試落榜 | *시험 <u>이</u> 떨어지다, 시험 <u>을</u> 떨어지다(√시험 <u>에</u> 떨어지다) |
| (7)合心意、喜歡 | *마음 <u>이</u> 들다, 마음 <u>을</u> 들다 (√마음 <u>에</u> 들다) |

위에서 제시한 연어 구성에 있는 조사의 오류를 보면 (1)~(5)는 격조사와 관련된 오류이고 (6)~(7)은 조사 '-에'와 관련된 오류이다. 중국어에는 격조사와 비슷한 개념이 없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격조사가 참여하는 연어를 활용할 때 격조사를 생략하여 구성이 불완전한 연어를 쓰거나 아예 합성어의 형식으로 연어와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오류는 언어 사용의 규범화의 문제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와 달리 학습자들이 연어 구성에서 주어가 되는 체언 뒤에 목적격 조사를 쓰거나 조사 '-에'를 써야 하는 데 격조사를 쓰는 경우를 모두 연어 구성 중의 체언과 용언 간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조사를 잘못 쓰는 오류로 봐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모국어인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중국어 어순에 따라 한국어 연어 중의 체언이 주어인지, 아니면 목적어인지를 함부로 판단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목표어인 한국어의 영향을 받아 연어 구성중의 용언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혼동해서 격조사를 잘못 선택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1)'은 중국어 '想起、想出'와 대응하는 연어는 '생각이 나다'인데 학습자들이 격조사 '-이'를 생략해서 '생각 나다'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어법 규칙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라서 웬만하면 오류로 보지 않아도 되는데 구어나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 외에 역시 '생각이 나다'를 표준어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

어를 제대로 쓰려면 조사에 대해서도 소홀하면 안 된다. 또한 연어 '생각이 나다'의 의미와 구성요소가 똑같지만 형태만 다른 합성어 '생각나다'가 있다. 합성어 '생각나다' 자체가 틀리지 않지만 연어 번역 테스트에서 합성어가 나타난 것을 보면 학습자들이 역시 연어와 합성어의 경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사의 참여 여부에만 차이가 있는 연어와 합성어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에서 '잠'과 '들다'는 주술관계인데 학습자들은 이들 사이에서 주격조사 '-이'를 대신에 목적격 조사 '-을'을 쓰거나 조사 '-에'를 쓴다. 이 오류를 유발한 원인은 모국어의 간섭이다. 중국어 동사 '入'는 단어의 기본 의미에 따라 보통 한국어에서 '들어가다', '진입하다' 등 동사와 대응한다. 따라서 '入'로 구성된 중국어 표현은 한국어에서 대부분 '-에 들어가다', '-에 들어오다', '-에 진입하다'와 같은 표현으로 옮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入'와 함께 나타난 체언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분없이 '잠에 들다', '잠에 들어가다'와 같은 오류를 쉽게 범할 수 있다.

'(3)~(4)'는 형태가 비슷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해당된 동사와 어울리는 조사도 제대로 쓰지 못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화를 나다'와 '화가 내다'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사인 '나다' 앞에서 목적격 조사 '-를'을 쓰는 것과 타동사 '내다' 앞에서 주격 조사 '가'를 쓰는 것은 모두 동사의 성질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이루는 오류이다. 학습자들이 자동사를 타동사로 여기면 동사 앞에서 나오고 주어를 담당하는 체언을 목적어로 오판할 수 있다. 반면에 타동사를 자동사로 생각하면 조사의 오류가 수반하기 때문에 원래 동작의 대상이 행동주로 변할 수도 있다. 이를 보니 연어 구성에 있는 조사의 오류는 단지 조사의 문제만 아니라 구 전체의 통사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문제라서 특별히 중시해야 한다.

'(5)'는 중국어의 의미와 대응하는 한국어 연어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다양한 연어 표현을 헷갈려서 연어 구성 중 조사의 오류를 일으키는 예이다. 예를 들면 '花時間'와 대응하는 한국어 연어는 '시간이 걸리다'와 '시간을 들이다', '시간을 쓰다' 등이 있다. '시간이 걸리다' 중의 '걸리다'는 자동사로서 명사 '시간'과 결합하면 주격조사 '-이'를 써야 한다. 반면에 '시간을 들이다' 중

의 '들이다'는 동사 '들다'의 사동형으로서 명사 '시간'과 결합한 경우 목적격 조사 '-을'를 써야 한다. 그러나 중국어에는 자동사, 타동사, 사동사 등 동사 유형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격조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의미가 똑같은 이 두 '체언+용언'형 연어의 유일한 차이점은 조사에 있다. 그러나 조사의 사용은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과정에는 쉽게 소홀한 부분이다. 이로 인해 이 두 표현을 혼동해서 조사를 함부로 쓰는 상황도 많다.

'(6)~(7)'은 조사 '-에'와 관련된 연어 조사의 오류이다. '시험에 떨어지다'와 '마음에 들다'는 모두 '체언+에+용언'형의 연어이다. 이 두 연어중의 체언과 용언 사이에 있는 '-에'를 다른 격조사를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두 연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볼 때 '考試落榜'는 주술관계이고 '合心意'는 목술관계이다. 중국어에서 체언과 용언 간의 관계는 어순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중국어 표현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모국어 어순의 영향을 받아 중국어와 대응하는 한국어 연어중의 체언과 용언의 관계도 중국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술관계인 '考試落榜'와 대응하는 한국어 연어는 '시험이 떨어지다'가 되고 목술관계인 '合心意'와 대응하는 한국어 연어는 '마음을 들다'가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연어의 조사 오류는 단순히 '어법 규칙에 따라 정확한 조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순이나 용언의 의미 등 중국어의 간섭과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 등 한국어 내부의 간섭 등 영향을 받아 나타난 문제이기도 한다. 따라서 조사와 관련된 연어의 오류를 해결하려면 역시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2.4. 기타 오류

연어의 기타 오류는 주로 맞춤법, 찰자의 문제와 관련된 오류들이다. 이런 오류는 모두 67개가 있고 전체 오류 중에서 18.8%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맞춤법, 찰자 문제와 관련된 오류는 역시 연어 내부의 문제로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 기타 오류를 대표적인 연어의 오류로 보지 않는다. 기타 오류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기가 크다/ 담배를 비운다 / 살이 지다/ 물에 떨어지다/ 가방을 매다
- (2) 양마를 신다
- (3) 불을 꺼다
- (4) 빼치다/ 무섭다/ 다치다

(1)에서 모두 발음이 유사한 자음이나 모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루는 철자의 오류이다. 예를 들면 격음 'ㄱ'과 평음 'ㄱ'을 구분하지 못해서 '키'를 '기'로 표기하여 '기가 크다'와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또한 경음 'ㅈ'과 평음 'ㅈ'을 구분하지 못해서 '찌다'를 '지다'로 표기하여 '살이 지다'와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그 외에 쌍모음 'ㄱ'과 'ㄱ'을 구분하지 못해서 '매다'를 '매다'로 표기하여 '가방을 매다'와 같은 오류가 난다.

(2)는 학습자들이 단어의 정확한 표기법을 소홀하고 발음 그대로 단어를 적은 습관 때문에 나타난 오류이다. 연어 '양말을 신다'를 발음할 때 연음 현상이 이루어져서 [양말을신다]와 같이 발음한다. 따라서 이 발음 그대로 적은 결과는 '양말을 신다'와 같은 표현이 된다.

(3)은 동사의 기본형과 활용형을 구분하지 못해서 나타난 오류이다. '불을 끄다'중에서 동사 '끄다'는 만약 어미 '-어'를 붙이면 해당한 활용형이 '꺼'가 된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단어를 외울 때 동사의 기본형 '끄다'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활용형 '꺼'와 혼동하여 '끄다'를 '꺼다'와 같이 표기한다. 이로 인해 연어 '불을 끄다'를 활용할 때도 '불을 꺼다'와 같이 쓴다.

(4)는 중국어 원문의 의미에 따라 한국어에서 의미가 대응하지만 연어 구성과 아무 관계도 없는 어휘로 번역하는 경우이다. 이런 오류는 학습자들이 해당된 연어를 잘 몰라서 연어를 대신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문제의 요구를 유의하지 않아서 단어로 적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연어 오류의 원인에 따라 4 가지의 오류 유형으로 정리했다. 설문 조사를 통해 통계된 356개의 오류 중에 이 4 가지의 오류 유형 외에 아무것도 적

지 않고 대답하지 않은 문제는 80개가 있고 전체 오류 중에서 22.8%를 차지한다. 답안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로 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무의미한 통계 결과로 삼고 전체 오류에서 빼면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중국어 표현과 대응하는 한국어 연어를 잘 몰라서 답안을 적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오류 양상을 통해 학습자들이 연어 지식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연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한·중 언어 대조 관점에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연어 오류들을 분석하는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한다.

<표-34> 한·중 언어 대조 관점에서의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연어 오류율

오류의 유형	오류 빈도 (개)	오류율 (%)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	79	22.2%
목표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	56	15.7%
조사의 오류	74	20.8%
기타 오류	67	18.8%
대답하지 않은 문제의 비율	80	22.8%

<표-34>에서 볼 수 있듯이 연어 내부의 문제가 아닌 기타 오류와 응답하지 않은 문제 외에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는 22.2%로 오류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오류율이 두 번째로 높은 조사의 오류(20.8%)이다. 목표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의 오류율은 15.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연어를 배울 때 역시 모국어의 간섭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연어를 가르칠 때 한·중 언어에서 대응하는 연어 표현을 서로 비교하여 의미나 형태적 측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한국어 연어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여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고 중국어 어법 체계에 격조사가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연어를 활용할 때 구성요소인 조사에 대해 아직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연어 구성의 통사적 특성에서 출발하여 해당한 조사를 쓰는 이유를 학습자들에게 밝혀야 한다. 만약 연어의 구성 요소가 연어 구성에서 담당하는 격이 중국어 표현과 다른 경우, 두 언어 사이에 격의 차이도 학습자에게 알려줘야 격의 차이로 인한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비록 목표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는 이 세 가지의 오류의 유형

중에 수량이 가장 적지만 한국어 내부에 있는 유의어의 의미와 형태에 대한 변별은 역시 한국어 연어 학습의 난점이 된다. 한국어의 유의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면 특정한 연어 구성에 잘 어울리지 않은 유의어를 써서 오류를 형성한다. 이런 목표어의 간섭으로 인한 연어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유의어의 의미와 형태의 차이점도 학습자들에게 학습과정에서 강조해야 한다.

VI. 한·중 언어 대조 관점에서의 한국어 연어 교육 방안

대조언어학은 외국어 교육을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앞에서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서로 비교하여 그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연어를 사용할 때 범한 오류 현상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이런 대조언어학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한국어 연어 교육을 촉진시키는 것은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1. 교육 방법

기존 연구에서 연어 교육 방안과 모형을 설계할 때 방법론 측면에서 주로 '제시-연습-산출'과 같은 3단계의 PPP모형과 '관찰-가설-실험'과 같은 3단계의 OHE모형의 이론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나 PPP모형을 바탕으로 한 연어 교육 방안은 학습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연어 지식을 제시해 줄 수 있으나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수업 방식이라서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연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김지은(2010)에서 PPP모형을 이용한 교육은 사전에 결정된 학습 내용을 교사가 중심이 되어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음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종은(2005)에서도 PPP모형에서 교사 중심으로 한 수업의 특징과 문제점으로 인해 학습자의 개념과 인지를 바탕으로 한 학습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OHE모형의 수업에서 학습자의 참여를 중요시하지만 개념과 인지 중심의 학습을 강조하여 연어의 사용에 대한 다양한 활동이 없기 때문에 역시 연어 교육에 적당치 않은 면이 있다. 특히 OHE모형에 따른 연어 교육은 연어 항목을 명시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목표어인 한국어의 연어 지식이 아직 부족한 학습자들이

스스로 연어 구성을 관찰하여 연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연어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사용방법을 내재화하게 하는 것도 역시 무리가 된다. 이처럼 두 가지의 전통적인 교수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어 연어 교육에서 Larasen-Freeman(1991)이 PPP모형을 수정·보완하여 '도입-제시-연습-사용-정리'와 같은 5단계의 교육 방법론을 바탕으로 연어 교육의 수업 모형을 설계하는 연구자도 적지 않다. 김지은(2010), 진정정(2016)에서 '도입-제시-연습-사용-정리'와 같은 5단계의 교육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어 교육의 수업 모형을 설계하였다. 문금현(2002)에서도 이와 비슷한 '도입-전개-연습-점리활용-점검'와 같은 5단계의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널리 사용하는 이 수업 모형은 수업 시간이 1시간 ~ 2시간짜리의 종합 한국어 수업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어휘 교육의 한 부류인 연어 교육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어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논의할 여지가 없더라도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종합한국어와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어법을 포함한 단과 수업을 모두 설치되었지만 유독 어휘 과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 수업을 진행할 때도 어휘, 특히 연어를 위해 할애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어휘 교육의 실제 상황을 감안하여 '도입-제시-연습-사용-정리'와 같은 5단계의 교육 모형을 바탕으로 한 연어 주제 중심의 수업은 현실화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위의 3 가지의 수업 모형에서 본고의 연구 방향인 대조언어학의 이론을 활용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한·중 언어를 비교하면서 한국어 연어를 더욱 효율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이론과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어 연어와 관련된 교육법에 대해 검토한 결과와 본고에서 추구하는 대조언어학 관점에서의 한국어 연어 교육의 실제 수요와 결합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연어 교육이 방법론 측면에서의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연어 항목을 학습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교사 중심의 수업 방식에 대해 이미 익숙해진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연어를 가르칠 때 어학 지식에 대한 설명과 활용에 대한 지도 등 교사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의사소통에서 연어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수업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참여도 끌어가야 한다.

셋째, 연어 교육을 위해 수업에서 할애하는 시간이 적절해야 한다. 전체 수업 내용의 일환인 연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론도 교육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연어 교육에서 대조언어학의 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법을 찾아야 한다.

기존 연어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지만 대조언어학과 연계하는 교육 방안을 아직 찾기가 어렵다. 위에서 제시한 연어 교육 방법론 차원의 실제 수요에 따라 본고에서 문법번역식 교수법과 공동체 언어 학습법⁵¹⁾의 이론을 서로 결합하여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연어 수업 모형을 설계하도록 한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학습 내용을 목표어에서 모국어로 그리고 모국어에서 목표어로 상호 번역하는 연습을 주로 하는 교수법이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테두리에서 수업은 전적으로 모국어로 진행되고 교재의 각 장은 상당한 분량의 이중 언어 어휘 목록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학습해야 할 많은 어휘들이 목록화되어 함께 제시된다. 이때 교재에서 나온 어휘뿐만 아니라 유의어, 반의어도 함께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어휘를 가르칠 때에는 맥락화시킬 필요없이 고립형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문법번역식 교재에서는 '문장'을 언어 학습과 가르침의 기본 단위로 삼아 단어를 문장으로 만드는 규칙들을 제공하였고, 문법 규칙들은 교재에서 직접 발췌하여 교재 내에서의 맥락에 맞게 제공되었다. 교사는 문법 규칙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가르쳤다. 이런 방법으로 습득된 문법은 단어를 조합하는 규칙을 제공한다. 그리고 수업은 단어의 형식이나 굴절에 초점을 두고 번역 연습을 통해 심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어는 어휘와 문법으로 결합된 구의 단위이므로 연어 교육에서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다. 번역 연습을 통해 학습자가 목표어와 모국어 사이의 연어 표현의 차이를 학습하는 데 시간이 적게 걸린다. 반면에 이 교수법에서는 읽기·쓰기에 초점을 둔 번역 활동이 주된 수업이었기 때문에 말하기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점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연어를 단순히 번역식 교수법에 의해 가르치게 되면 학습자들이 의사소통할 때, 특히 구어에서 연어를 활용하는 능력에 대해 의심스러울 수

51) 문법번역식 교수법과 공동체 언어 학습법과 관련된 내용은 박덕재·박성현(2011)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인용한 것이다.

도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외국어로서 한 한국어 교육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에서는 번역식 교수법은 역시 효용성이 있고 널리 사용하고 있는 교수법이다. Larsen-Freeman(1986)에서 제시한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수업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35>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수업 모형

	단계	비고
1	제시	문학에서 발췌한 내용을 목표어에서 모국어로 1:1 번역
2	내용 이해 문제 풀이	특정한 정보 찾기, 추론, 개인적 경험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
3	어휘 학습 1	유의어 · 반의어 찾기
4	어휘 학습 2	대조언어학 측면에서 언어간 유사성과 차이점 학습
5	목표 문법을 목표 언어로 연역적 설명	문법의 규칙·불규칙을 이해하고 새로운 예에 적용
6	연습 문제	특정한 문법 형태의 항목이나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기
7	유의적 활동	목표어를 사용하여 주제에 맞게 작문하기

위에서 제시한 번역식 교수법의 수업 모형중의 어휘 학습 단계에서 대조언어학 측면에서 언어간 유사성과 차이점 학습하는 것을 보면 이 교수법은 대조언어학의 이론을 수용하고 언어 교육에서도 확실히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장점을 살려 교수법의 단점을 보완할 것이다. 그 방법은 바로 공동체 언어 학습법과 서로 융합시키는 것이다.

공동체 언어 학습법은 기존의 문법번역식 교수법에 비하면 상당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교수법이었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에 따른 교사 중심의 수업 형식의 단점을 극복하고 교사와 학습자들의 역할을 조정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을 자유롭게 이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수업 내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모국어로 말하고 교사는 그 말을 목표어로 학습자들에게 번역해 준다. 학습자는 그 목표 문장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반복하면서 말하기 연습이 이루어진다. 이때 교사는 수업을 녹음하여 학습자들과 함께 이 녹음을 들어보며 새 언어의 언어 규칙이나 문법 항목에 대한 정보와 학습자들의 모국어를 목표어로 번역할 때 발생하는 미묘한 차이점을 귀납적으로 설명한다. 공동체 언어 학습법에 따른 수업은 학습자들의 구어의 유창함을 얻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교수 목표와 서로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모

국어와 목표어간의 발음, 어휘, 문법적인 차이점과 문화적인 상호작용 등 폭넓은 분야의 영역 속에서 차이점을 확인하고 내재화하는 데에 공동체 언어 학습법에 따른 학습의 본질이 있다. 따라서 공동체 언어 학습법의 이론을 밑바탕으로 한 한국어 연어 학습은 한·중 연어 표현 간의 의미적, 형태적 차이를 발견하고 분석하여 연어 지식을 내재화하여 활용하는 데에 아주 유익하다. Richards&Rodgers(2001)에서 제시한 공동체 언어 학습법의 수업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36> 공동체 언어 학습법의 수업 모형

	단계	비고
1	토의 도입	※과제 주제와 관련된 정보 제시
2	토의 시작	※학습자가 모국어로 메시지 전달 ※교사는 메시지를 목표어로 번역 ※학습자의 반복 ※녹음
3	목표 문법 및 의미 설명	※녹음 내용 재생 ※내용을 판서하거나 좀 더 확장하여 제시 ※의미, 문법, 기능 등에 대한 설명 ※질의 응답 시간
4	복습	※학습된 내용에 대해 재확인 ※올바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움
5	마무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체 언어 학습의 성공 여부는 교사의 목표어와 모국어의 이중언어 구사 능력에 달려 있다. 학습자가 목표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모국어로 이야기 한 내용을 목표어로 번역해 주고 '따라하기' 등 말하기 연습을 통해 학습 내용을 내재화시킨다. 이런 교육 방식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모국어에서 출발하여 표현하려는 내용은 목표어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조합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지와 이해의 과정에서는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표현의 차이를 발견하여 인식을 심화하고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해 오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대조언어학 이론을 활용하는 두 가지의 교육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문법번역식 교수법과 공동체 언어 학습법은 각자의 장점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문에서 이 두 가지의 교육 이론을 결합시켜 언어 교육

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2. 교육 모형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대조언어학 관점에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연어 교육의 수업 모형은 '도입-번역활동-활용-마무리'와 같은 4단계로 제시하겠다. 이 중에서 대조언어학의 이론을 한국어 연어 교육에서 충분히 활용하는 '번역활동' 단계는 연어 교육 과정에는 핵심적인 단계이다. '번역활동' 단계는 구체적으로 '번역을 통한 연어 항목 제시' 및 '번역 과제 수행'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각 교육 단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입' 단계에서는 교사는 학습자들의 모국어로 수업의 주제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학습할 연어 항목은 어떤 주제에 관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수업 주제와 관련된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주제에 관한 연어를 목표어로 표현하는 데 흥미를 유발시켜야 한다.

'활동' 단계는 구체적으로 '번역을 통한 연어 항목 제시' 및 '번역 과제 수행'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번역을 통한 연어 항목 제시' 단계는 주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이론을 살리며 여러 가지의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학습할 주요 연어 항목을 학습자들에게 직접 제시한다. 특히 문맥에서 연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해당 연어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고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목표 연어 항목을 제시하고 난 후, 한-중 번역 연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연어의 기본 의미와 용법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을 확인하고 오류에 대한 교정 과정을 거쳐서 학습자들에게 연어의 정확한 의미, 형태 구조 및 기능을 가르치고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에 대한 제시를 통해서 한·중 연어 표현의 차이도 알려준다. 이때 목표연어와 관련된 유의어, 반의어 표현도 동시에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요 학습 목표 연어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나서 수업 주제와 관련된 다른 보충 연어를 계속 학습할 것이다. 학습자들의 어휘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고 수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충 연어 항목을 공동체 언어 학습법에 따라 배울 것이다. 학습의 수단은 바로 '활동' 단계의 두 번째 분과인

‘번역 과제 수행’이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먼저 학습자들에게 토의 주제를 제시한다. 토의 주제는 학습자들이 가급적으로 주제와 관련된 연어를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회화 과제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모국어로 회화 내용을 생각해 보고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다시 한국어로 옮긴다. 이 과정에서 앞에서 학습자들은 이미 배웠던 연어 지식을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표현하고 싶지만 아직 공부하지 못한 연어 항목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는 한국어 언어 지식을 운용하여 모르는 연어를 표현하려는 첫 시도를 진행할 수 있다. 물론 학습자들이 스스로 연어 표현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범할 수 있으나 이런 방식을 통해 교사가 이미 정한 연어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실제로 궁금하고 쓰고 싶은 연어 표현도 공부하게 된다. 그리고 오류 교정의 과정을 통해 직접 제시하여 공부하는 방식보다 오류가 나타난 연어 항목에 대해 오히려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이해가 더 심화시킬 수 있다. 학습자들이 직접 준비한 대화 내용을 발표하는 동시에 교사는 발표 내용을 녹음한다. 녹음 파일을 재성하여 학습들에게 다시 한 번 들려주고 들은 내용 중에서 연어 표현을 찾게 한다. 만약 녹음 내용에는 연어의 사용 오류가 있다면 교사는 정확하게 고쳐준 다음에 그 연어 표현과 중국어에서 대응양상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연어 자체의 정확한 의미와 용법을 가르친다. 마지막으로 연어가 들어가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학습자들이 암기시킨다. 만약 녹음 나중에는 학습자들이 말하는 연어가 문제가 없다면 그 연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직접 말하기 연습을 진행할 수 있다.

‘활용’ 단계에서는 다양한 연어 연습 활동을 통해서 이미 배웠던 연어 항목을 내재화하여 의사소통할 때 해당 연어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심화 연습을 통해서 더 나아가 학습들이 연어 지식을 구조화하여 자신의 한국어 언어 인지 체계에서 연어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활용’ 단계에서는 진행되는 연어 연습 활동은 크게 ‘기계적인 연습’과 ‘의사소통 능력의 연습’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계적인 연습’은 특정한 의사소통의 상황이 없이 일정한 패턴과 어휘 항목만이 주어진 상황에서 진행한다. 대표적인 예는 ‘연어 찾기’, ‘연어의 짝을 맞추기’ 등 연어에 대한 초보적인 인지 활동이 있다. ‘의사소통 능력의 연습’은 학습자들이 주어진 의사소통의 상황에 대한 이해 바탕으로 연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과제를 수행한다. 대표적인 예는 '언어로 문장을 완성하기', '주어진 언어로 주제 회화/작문 과제 수행' 등이 있다. 여러 가지의 연습 활동은 학습자들이 언어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로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실용적인 측면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

마지막의 '마무리' 단계에서 교사는 수업에서 학습한 목표 언어를 다시 정리하여 언어의 의미, 용법, 한·중 표현의 차이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가능한 한 수업 내용을 학습자들이 그전에 이미 습득된 언어 지식과 결합하여 어휘장 등 매개를 통해 학습자들의 언어 지식을 구조화하도록 한다.

3. 교육 실례

이처럼 위에서 대조언어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도입-번역활동-활용-마무리'와 같은 4단계인 언어 교육 모형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지금 이 교육 모형을 바탕으로 '강의실 시설 이용'과 '학습 용품 사용'을 수업 주제로 하여 '문을 닫다, 문을 열다, 불을 끄다, 불을 켜다' 등의 학습 언어를 포함하는 초/중급 언어 교육 수업 실례를 전시한다.

<표-37> 기본 수업 절차 및 수업 실례

학습 단계:	초급~중급 학습자		
학습 목표:	강의실 시설의 이용 및 학습 용품 사용 등 주제와 관련된 언어에 대한 학습을 통해 실제적인 의사소통에서 해당 언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목표 언어:	주요 언어: 문을 닫다, 문을 열다, 불을 끄다, 불을 켜다 보충 언어: 책을 덮다, 책을 펴다, 가방을 메다, 컴퓨터를 끄다/켜다, 타자를 치다 그 외에 학습자들이 궁금하고 표현하고 싶은 언어들		
수업 방안:			
단계	과정 및 활동	시간 (총35)	수업 실례 내용 (수업 진행 언어)

		분)	
도입	수업 주제 제시	2분	<p>교사: 지금 강의실에 다양한 시설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의 학습 용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강의실 시설 이용과 학습 용품 사용과 관련된 용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머리 속에서 미리 생각해 보세요. (중국어로 수업 진행)</p>
번역 활동: 번역을 통한 언어 항목 제시 및 번역 과제 수행	(1)목표 언어와 해당된 중국어 대응양상을 직접 제시	20분 (5분 + 15분)	<p>(1)번역을 통한 언어 항목 제시: (중국어로 수업 진행)</p> <p>교사: 자, 먼저 본고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밖에 너무 시끄러워서 왕단 씨는 강의실의 문을 닫았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A,B,C씨는 번역해 보세요.</p> <p>학생A/B/C: (한 → 중 번역)</p> <p style="padding-left: 40px;">外面太吵, 王丹就把門關上了。 因為外面吵, 所以王丹關了門。</p> <p>교사: 번역 잘했어요. 이 문장에는 '문을 닫다'라는 언어가 있다. 여러분 번역한 것과 같이 이 목술관계 언어는 중국어에서 바로 동빈 구조인 '關門'와 대응한다. 두 표현의 형태구조와 의미를 비교해 보면 모두 똑같아서 여러분 이 언어를 쓸 때도 별로 어렵지 않지요? 근데 명사 '문'과 동사 '닫다' 사이에 조사 '-을'을 넣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p> <p>자, 이제 질문 하나 물어볼게요. '關門'는 '문을 닫다'와 대응하는데 '開門'는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p> <p>학생: (대답: 중→ 한 번역)</p> <p style="padding-left: 40px;">문을 열다/ 문이 열리다/ 문을 열리다.</p> <p>교사: 네. 맞아요. '문을 열다'은 바로 '開門'의 뜻입니다. 이외에 다른 답도 있네요. 같이 한 번 볼까요? (판서) '문이 열리다'와 '문을 열리다' 다 쓸 수 있어요? '문을 열다'와 차이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p> <p>학생: '문이 열리다'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열리다'</p>

	<p>(2) 토의 과제를 통해 연어 항목을 간접적 제시</p> <p>※과제 주제 제시</p> <p>※대화를 모국어로 만들어 본다</p> <p>※대화 내용을 한국어로 옮긴다</p> <p>※교사가 해당 중국어 표현에 대</p>	<p>는 '열다'의 피동형이기 때문에 주어 '문' 뒤에 주격주사 '-이'를 써야 합니다.</p> <p>교사: 잘 설명해 주었어요. 전자는 '문을 열다'의 피동형입니다. 그러나 후자 '문을 열리다'에서 조사가 틀렸어요. 그럼 '문을 닫다'의 피동형은 무엇일까요?</p> <p>학생: '문이 닫히다'예요.</p> <p>교사: 잘했어요. 이번에 조사도 제대로 쓰고 있네요. 다음 연어 항목을 학습해 볼까요? 아까 '關門' 와 '開門'와 대응하는 한국어 연어 '문을 닫다'와 '문을 열다'를 배웠는데 그럼 '關灯'와 '開灯'와 같은 중국어 표현은 한국어에서 대응하는 연어가 무엇이에요?</p> <p>학생: '불을 닫다'와 '불을 열다'가 맞아요?</p> <p>교사: 불을 닫다'와 '불을 열다'는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비록 '關門'에서 동사 '關'와 대응하는 한국어는 '닫다'이지만 '關灯'에서의 '關'는 '닫다'가 아닌 '끄다'와 같은 특정한 한국어 동사를 통해 표현한다. 따라서 '關灯'를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 '불을 끄다'이다. 마찬가지로 '開灯'도 '불을 열다'로 직역하면 안되고 정확한 표현인 '불을 켜다'를 써야 한다. 이러한 한·중 표현의 차이점을 잘 모르면 여러번 쉽게 위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꼭 주의하세요.</p> <p>(2) 번역 과제 수행 (한국어로 수업 진행)</p> <p>교사: 본고에서 나오는 연어를 다 배웠어요. 자, 이제 여러분 책을 덮어 주세요.</p> <p>학생: (지시대로 행동하기)</p> <p>교사: 여러분 모두 선생님의 말을 잘 이해했나봐요. 아까 선생님 말한 말 중에는 '책을 덮다'라는 연어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연어를 이용하여 옆에 있는 친구를 부탁을 해서 강의실에 있는 시설을 한 번 써 보라는 요청이나 가지고 있는 학습용품을 사용해 보라는 요청을 해보세요. 상대방은 '문을 닫</p>
--	--	---

	<p>응하는 언어 표현을 제시한다</p> <p>※한·중 표현의 유사점과 차이점 가르친다</p> <p>※반복 연습을 통해 인식 심화 시킨다</p>		<p>아 주세요.', '불을 켜주세요.'등과 같은 말을 듣고 직접 행동해 보세요. 자, 잘 생각해 보고 시작합니다.</p> <p>학생: (예상한 오류가 있는 대화 내용만 제시) 책을 열어 주세요. (*'펴다'의 오류) 가방을 업어 주세요. (*'메다'의 오류) 컴퓨터를 닫아 주세요. (*'끄다'의 오류)</p> <p>교사: (정확한 언어 번역 양상 제시,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설명과 교정, 언어의 의미와 용법 제시)</p> <p>교사: 자, 아까 여러분의 대화 내용에 나타난 언어를 다시 듣고 따라해 볼까요? 책을 펴다(반복 연습) 가방을 메다(반복 연습)</p> <p>.....</p>
활용	<p>기계적인 연습 + 의사소통 연습</p>	10분	<p>'언어 찾기', '언어의 짝을 맞추기', '언어로 문장을 완성하기', '주어진 언어로 주제 회화/작문 과제 수행' 등 다양한 언어 연습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p>
마무리	<p>학습한 내용에 대한 정리</p>	3분	<p>목표 언어의 의미, 용법, 한·중 표현의 차이 등 중요한 정보를 재강조하고 학습자들의 언어 지식 체계를 구조화시킨다.</p>

이어서 기사 번역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관심', '눈길', 그리고 '꾸중'으로 구성된 학습 언어에 대한 고급 언어 교육 수업 실례를 제시한다.

<표-38> 기본 수업 절차 및 수업 실례2-고급 언어 교육 실례

학습 단계:	고급 학습자
학습 목표:	기사 번역 활동을 통하여 명사 '관심', '눈길', 그리고 '꾸중'으로 구성된 학습 언어 항목을 교육시킨다.

<p>주요 연어: 관심을 기울이다, 눈길을 끌다, 꾸중을 듣다 (교재 제시)</p> <p>보충 연어: 관심을 갖다, 관심을 주다, 관심을 끌다, 관심을 모으다, 관심이 쏠리다...; 눈길을 주다, 눈길을 모으다, 눈길이 가다...</p>												
<p>수업 방안:</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과정 및 활동</th> <th>시간 (총35분)</th> <th>수업 실례 내용 (수업 진행 언어)</th> </tr> </thead> <tbody> <tr> <td>도입</td> <td>수업 주제 제시</td> <td>2분</td> <td> <p>교수자는 신문 기사를 통해 학습자들에 학습 목표 연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직접 제시한다.</p> <p>관심을 기울이다 - 關心; 關注; 感興趣 눈길을 끌다 - 搶眼; 受到關注; 引人矚目 꾸중을 듣다 - 受到批評; 受到責備; 挨罵</p> </td> </tr> <tr> <td>번역 활동: 번역을 통한 언어 항목 제시 및 번역 과제 수행</td> <td> <p>(1) 한·중 번역을 통해 목표 연어를 직접 제시함</p> <p>(2) 중·한 번역 과제를 통해 언어 항목을 간접적 제시함</p> <p>※번역 문제 제시</p> </td> <td>20분 (10분 + 10분)</td> <td> <p>(1) 학습자들이 기사 번역 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목표 연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관계를 이숙해지고 연어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p> <p>기사 원문: <평양 공연 마친 이선희, 과거 정치 활동에도 ‘눈길’>52)</p> <p>예술단 평양공연을 마친 가수 이선희가 화제인 가운데 이선희의 과거 이력에도 <u>관심이 쏠리고</u> 있다.</p> <p>이선희는 27세였던 지난 1991년 최연소 서울시 시의원으로 당선돼 4년 동안 정치인 활동을 했다.</p> <p>이씨는 정치인의 삶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불운한 청소년과 이웃을 돕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학창시절 할머니와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칠판 끝에 항상 육성희미 안 낸 친구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그 친구에게는 정말 상처였을 텐데 지우면 지운 친구가 <u>꾸중을 들었다</u>”고 말했다.</p> </td> </tr> </tbody> </table>	단계	과정 및 활동	시간 (총35분)	수업 실례 내용 (수업 진행 언어)	도입	수업 주제 제시	2분	<p>교수자는 신문 기사를 통해 학습자들에 학습 목표 연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직접 제시한다.</p> <p>관심을 기울이다 - 關心; 關注; 感興趣 눈길을 끌다 - 搶眼; 受到關注; 引人矚目 꾸중을 듣다 - 受到批評; 受到責備; 挨罵</p>	번역 활동: 번역을 통한 언어 항목 제시 및 번역 과제 수행	<p>(1) 한·중 번역을 통해 목표 연어를 직접 제시함</p> <p>(2) 중·한 번역 과제를 통해 언어 항목을 간접적 제시함</p> <p>※번역 문제 제시</p>	20분 (10분 + 10분)	<p>(1) 학습자들이 기사 번역 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목표 연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관계를 이숙해지고 연어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p> <p>기사 원문: <평양 공연 마친 이선희, 과거 정치 활동에도 ‘눈길’>52)</p> <p>예술단 평양공연을 마친 가수 이선희가 화제인 가운데 이선희의 과거 이력에도 <u>관심이 쏠리고</u> 있다.</p> <p>이선희는 27세였던 지난 1991년 최연소 서울시 시의원으로 당선돼 4년 동안 정치인 활동을 했다.</p> <p>이씨는 정치인의 삶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불운한 청소년과 이웃을 돕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학창시절 할머니와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칠판 끝에 항상 육성희미 안 낸 친구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그 친구에게는 정말 상처였을 텐데 지우면 지운 친구가 <u>꾸중을 들었다</u>”고 말했다.</p>
단계	과정 및 활동	시간 (총35분)	수업 실례 내용 (수업 진행 언어)									
도입	수업 주제 제시	2분	<p>교수자는 신문 기사를 통해 학습자들에 학습 목표 연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직접 제시한다.</p> <p>관심을 기울이다 - 關心; 關注; 感興趣 눈길을 끌다 - 搶眼; 受到關注; 引人矚目 꾸중을 듣다 - 受到批評; 受到責備; 挨罵</p>									
번역 활동: 번역을 통한 언어 항목 제시 및 번역 과제 수행	<p>(1) 한·중 번역을 통해 목표 연어를 직접 제시함</p> <p>(2) 중·한 번역 과제를 통해 언어 항목을 간접적 제시함</p> <p>※번역 문제 제시</p>	20분 (10분 + 10분)	<p>(1) 학습자들이 기사 번역 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목표 연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관계를 이숙해지고 연어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p> <p>기사 원문: <평양 공연 마친 이선희, 과거 정치 활동에도 ‘눈길’>52)</p> <p>예술단 평양공연을 마친 가수 이선희가 화제인 가운데 이선희의 과거 이력에도 <u>관심이 쏠리고</u> 있다.</p> <p>이선희는 27세였던 지난 1991년 최연소 서울시 시의원으로 당선돼 4년 동안 정치인 활동을 했다.</p> <p>이씨는 정치인의 삶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불운한 청소년과 이웃을 돕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학창시절 할머니와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칠판 끝에 항상 육성희미 안 낸 친구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그 친구에게는 정말 상처였을 텐데 지우면 지운 친구가 <u>꾸중을 들었다</u>”고 말했다.</p>									

	<p>※문장 내용을 한국어로 옮긴다</p> <p>※교사가 해당 중국어 표현에 대응하는 언어 표현을 제시한다</p> <p>※한·중 표현의 유사점과 차이점 가르친다</p> <p>※반복 연습을 통해 인식 심화 시킨다</p>		<p>또 “시의원을 4년간 할 때는 너무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었는데 끝날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조용히 끝났다”고도 했다...</p> <p>(2)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 항목을 학습한 다음에 다양한 번역 과제를 통하여 '관심', '눈길', 그리고 '꾸중'와 관련된 다양한 언어를 이해하도록 한다.</p> <p>언어 번역 연습 문제: (예상 오류 제시)</p> <p>1) 關心時事 (시사에 관심을 갖다)</p> <p>*시사를 <u>관심하다</u></p> <p>*<u>시사에 대해 관심하다</u></p> <p>*시사를 관심을 기울이다/갖다</p> <p>2) 引起關注 (관심을 끌다/모으다)</p> <p>* 관심을 <u>일으키다</u></p> <p>* <u>주목을 끌다/모으다</u></p> <p>3) 引人矚目, 吸引目光、眼球 (눈길을 끌다/모으다)</p> <p>* <u>눈빛을 끌다</u></p> <p>4) 挨批評, 被責罵 (꾸중을 듣다)</p> <p>*꾸중을 <u>받다/당하다</u></p>
활용	기계적인 연습 + 의사소통 연습	10분	'언어 찾기', '언어의 짝을 맞추기', '언어로 문장을 완성하기', '주어진 언어로 주제 회화/작문 과제 수행' 등 다양한 언어 연습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마무리	학습한 내용에 대한 정리	3분	목표 언어의 의미, 용법, 한·중 표현의 차이 등 중요한 정보를 재강조하고 학습자들의 언어 지식 체계를 구조화시킨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문법번역식 교수법과 공동체

언어 학습법의 교육 원리를 활용하여 '도입-번역활동-활용-마무리'와 같은 4단계인 언어 교육 모형을 바탕으로 초급~고급의 언어 교육 실례를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이 다양한 번역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 활용 측면에도 도움이 된다. 교수자는 먼저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연어 항목을 직접 제시하고 해당 연어의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도 동시에 알려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연어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을 형성하도록 한다. 다음에 다양한 번역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연어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는지 재확인할 수 있다. 번역 과정에서 모국어나 목표어의 간섭 등 원인으로 인한 학습자들의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때 교수자는 바로 학습자의 오류를 규정해야 하고 오류의 원인도 밝혀야 한다. 예를 들면 중국어의 간섭으로 학습자들이 '關灯','關心'에 대해 각각 '불을 단다'와 '관심하다'와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중 언어 표현의 차이를 잘 몰라서 한국어 연어를 중국어로 직역해서 나타나는 오류이다. 중국어에서 '關'는 '關灯(불을 끄다)'의 '關(끄다)'과 '關門(문을 단다)'의 '關(닫다)'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중국어의 '關'와 대응하는 어휘는 '닫다'와 '끄다'와 같은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차이를 잘 모르면 중국인 학습자들이 '불을 끄다'를 '불을 단다'로 오역할 수 있다. 또한 '관심을 갖다/기울이다', '관심이 많다'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關心'는 중국에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동사로서 뒤에 직접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 이런 한·중 어휘의 구성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쉽게 '關心+빈어'의 구조를 한국어에서 '~을/를 관심하다'와 대응한다. 위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교육 과정 중의 번역 활동에서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 오류를 보다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 활동을 통한 언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과 대조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활동 단계에서 다양한 언어 연습 문제를 통해 학습 목표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서 이들과 유의어, 반의어인 관계의 다른 보충 언어도 동시에 알려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언어 교육 목록에 대해 한·중 대조 분석한 결과와 오류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언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조언어학적인 방법은 한·중 언어 표현의 차이로 인한 중국인 학습

자들의 오류를 줄이면서 한국어 연어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방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언어 대조를 통해 얻은 교육 방안은 역시 실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정밀화되고 검증될 필요가 있다.

VII.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하나의 난점인 연어를 가지고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한국어 연어를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과 비교함으로써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연어를 가르칠 때 고려되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어 교육을 하나의 어휘 교육이나 문법 교육의 측면으로만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조언어학과 연계하여 새로운 시도를 해 보았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연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어 개념에 대해 재검토하고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용 연어 목록을 다시 선정하였다. 선정된 교육용 연어 항목을 대조언어학의 이론을 활용하여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연어에 대한 한·중 언어 대조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연어를 사용할 때 실제적으로 나타난 오류들을 분석하여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도 밝혔다. 한·중 언어 표현의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연어를 공부할 때 겪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연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대조언어학 이론의 큰 틀에서 연어 개념의 재규명, 교육용 연어 목록의 선정, 한·중 언어의 대조 분석, 연어 오류 분석, 연어 교육 방안 제시와 같은 5개의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이중언어 대조연구 중에서 연어에 대해 비교적 전면적이고 계통적으로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각 부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장에서는 연구목적을 밝히고,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대해 검토하였고 본 연구의 독보적인 면에 대해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는 연어의 개념을 다시 살펴보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연어의 정의를 내렸다. 본고에서는 '두 어휘소 간의 긴밀한 통사적 결합 구성으로, 선택의 주체(연어핵)가 되는 어휘요소가 선택의 대상(연어변)이 되는 어휘요소를 제약적으로 선

택하고 공개하며 통사적 의미는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구성'을 연어로 보았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연어, 즉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체언+용언'형 전체적 연어와 관습적 연어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3장에서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용 연어 목록을 선정했다.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북경대 『한국어』를 비롯한 5가지의 중국 현지의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하는 연어 항목을 추출했다. 교재 분석을 통해 추출된 연어 항목을 본고에서 제기할 교육용 연어 목록으로 선정함에 있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각 연어 항목은 본고에서 제기한 교육용 연어의 개념에 대한 부합 여부를 검토한다. 그다음에 연어 사용 빈도와 학습 난이도를 선정 기준으로 보고 『학습용 기본 명사 연어 빈도 사전』에서 고빈도 연어로 등재되며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2003))>에서 제시한 어휘로 구성된 연어를 교육용 연어로 선정했다. 이처럼 본고의 선정 기준에 만족하는 291개 연어를 교육용 연어로 선정했다.

4장에서는 선정된 291개의 '체언+용언'형 교육용 연어의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 형태, 통사, 의미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유형을 나눠서 한·중 연어의 대조 분석의 결과를 정리했다. 먼저 한·중 이중언어화사전인 『한국어-중국어 학습 사전(국립국어원(2020))』에서 제시한 한·중 대응 양상을 참조하여 대역어를 찾아 한국어 연어를 중국어로 옮겼다. 이어서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서로 비교할 때 통사 구성에 따라 한국어 '체언+용언'형 연어를 다시 주술관계 연어, 목적관계 연어, 부술관계 연어(부사어'-에'+서술어)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대조 연구를 진행했다. 이 3가지 통사 구성의 연어에 대한 한·중 대조 분석의 하위분류는 한·중 대응 양상 간의 통사 구성의 일치 여부에 따라 대응적 대조 관계와 비대응적 대조 관계로 나눈다. 대응적 대조 관계는 중국어에서의 대응 표현이 한국어 연어와 통사 구성이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에 비대응적 대조 관계는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이 한국어 연어와 통사 구성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대응적 대조 관계에는 연어의 구성요소의 의미에 따라 다시 완전 대응 연어와 부분 대응 연어로 나눌 수 있다. 완전 대응 연어 관계는 한국어 연어이든지 중국어 대응 표현이든지 구성요소의 의미는 모두 기본 의미를 유지하며 1대1의 대응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와 달리 부분

대응 언어 관계에는 한국어 연어의 구성 요소의 확장 의미로 인해 중국어에서 대응할 때 해당 어휘의 기본 의미로 번역하면 안 되고 한국어 어휘의 확장적 의미와 일치한 다른 중국어 어휘를 차용하여 대응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비대응적 대조 관계이다. 한·중 언어에는 비대응적 언어 관계는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응어 통사 구성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이때 한국어 연어는 중국어에서 어휘, 사자성어, 구 등 다양한 대응양상으로 나타난다. 한국어 연어는 중국어에서 구의 형식으로 대응될 때 주술관계 구, 목술관계 구 등과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것 외에 중국어의 복잡한 문법 체계로 인해 다양한 구와 대응하는 경우도 많다. 비대응적 대조 관계인 주술관계 한국어 연어는 중국어에서 주로 술빈구, 상황어 중심어구, 술보구, 부정구, 피동구, 복잡구, 단어, 그리고 사자성어와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7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한·중 비대응적 대조 관계인 한국어 목술관계 연어는 중국어에서 주로 개사구, 양사구, 겹어구, 피동구, 복잡구, 단어, 사자성어와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7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체언+에+용언'형 한국어 부술관계 연어의 대응 양상은 모두 비대응적 대응 관계이다. 중국어에는 '-에'의 의미와 문법기능과 같은 조사가 없기 때문에 '-에'가 참여하는 '부사어(체언+에)+용언'형 연어는 중국어에서 통사적으로 일치하는 대응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부사어+서술어'형 한국어 연어는 중국어에서의 대역어와 모두 비대응적 대응 관계를 형성한다. 한·중 비대응적 대조 관계인 한국어 부술관계 연어는 중국어에서 주로 방위구, 술빈구, 주술구, 피동구, 그리고 어휘나 성어와 같은 5가지의 유형으로 대응한다.

5장에서는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역어를 대조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연어 사용 오류를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식 문제의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연어 오류를 수집했다. 조사 대상은 중국 현지에 있는 대학교의 한국어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36명의 학생이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총 356개의 연어 오류를 수집했고 전체 학습자들의 오류율은 16.6%에 달했다. 학습 등급별로 통계된 오류율을 보면 초급 학습자의 오류율은 29.3%로, 중급 학습자의 오류율은 28.4%로, 고급 학습자의 오류율은 23%로 나타났다. 오류의 원인에 따라 구체적인 오류를 다시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이다. 한중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 중

국어 어휘 직역으로 인한 오류, 중국어 어휘적 결합의 습관으로 인한 오류 등은 이에 해당한다. 둘째, 목표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이다. 유의어의 대치 오류, 자동사와 타동사의 혼동 오류 등은 이에 해당한다. 셋째, 조사의 오류이다. 넷째, 기타 오류이다. 오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는 22.2%로 오류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오류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조사의 오류(20.8%)이다. 목표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율은 15.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연어를 배울 때 역시 모국어의 간섭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연어를 가르칠 때 한·중 언어에서 대응하는 언어 표현을 서로 비교하여 의미나 형태적 측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한국어 연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형성시키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고 중국어 어법 체계에 격조사가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연어를 활용할 때 구성요소인 조사에 대해 아직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연어 구성의 통사적 특성에서 출발하여 해당 조사를 쓰는 이유를 학습자들에게 밝혀야 한다. 만약 연어의 구성 요소가 연어 구성에서 담당하는 격이 중국어 표현과 다른 경우, 두 언어 사이에 격의 차이도 학습자들에게 알려줘야 이로 인한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비록 목표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는 이 세 가지의 오류의 유형 중에 수량이 가장 적지만 한국어 내부에 있는 유의어의 의미와 형태에 대한 변별 역시 한국어 연어 학습의 난점이 된다. 한국어의 유의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면 특정한 연어 구성에 잘 어울리지 않는 유의어를 써서 오류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목표어의 간섭으로 인한 연어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유의어의 의미와 형태의 차이점도 학습자들에게 학습과정에서 강조해야 한다.

6장에서는 교육용 연어 목록에 대한 대조 분석의 결과와 오류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연어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대조언어학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문법번역식 교수법과 공동체 언어 학습법의 이론을 결합시켜 '도입-번역활동-활용-마무리'와 같은 4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수업 모형을 마련하였고 수업 실례도 제시하였다. 물론 언어 대조를 통해 얻은 교육 방안은 실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검증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저서

- 강현화 외(2016), 『한국어 교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성란(2012),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언어 대조연구』, 역락.
- 김재욱 외(2010), 『한국어 교수법』, 형설출판사.
- 박덕재·박성현(2011), 『외국어 습득론과 한국어 교수』, 박이정.
- 심재기 외(2016), 『국어 어휘론 개설』, 박이정.
- 이정희(2003),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박이정.
- 임근석(2010), 『한국어 연어 연구』, 월인.
- 최현배(1961), 『우리말본』, 정음사.
- 한재영 외(2010), 『한국어 어휘 교육』, 태학사.
- 허용·김선정(2018), 『대조언어학』, 소통.
- 허용 외(200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 박이정.
- 홍중선 외(2001), 『한국어 연어 관계 연구』, 월인.
- 黃伯榮·廖序東(2009), 『現代漢語』, 高等教育出版社.
- 周新玲(2016), 『辭語搭配研究与對外漢語教學』, 上海大學出版社.

학술논문

- 강현화(1998), 「[체언+용언]꼴의 연어 구성에 대한 연구」, 『사전편찬학연구』 8,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원, pp.191-224.
- 강현화(2008),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연어의 유형에 대한 고찰-기초 어휘의 연어 관계를 중심으로-」, 『응용 언어학』 24, 한국응용언어학회, pp.197-217.
- 김규훈 외(2013), 「연어(collocation)의 어휘 교육적 활용 방안 탐색」, 『새국어 교육』 95, 한국국어교육학회, pp.521-555.
- 김석기(2010), 「중국에서의 한국어 어휘 교육연구 현황 및 과제」, 『한국(조선)어교육연구』 7, 중국한국 조선어교육연구학회, pp.32-60.

- 김원경(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 교육 방안」, 『漢城語文學』 29, 한국언어과학회, pp.211-231.
- 김진해(2000), 「언어의 계열 관계 연구」, 『국어학』 35, 국어학회, pp.199-222.
- 김진해(2007), 「언어 관계의 제자리 찾기-국내의 이론적 논의에 대한 제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pp.229-260.
- 문금현(2002),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언어(連語) 학습 방안」, 『국어교육』 109,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pp.217-250.
- 송대현·윤정아(2015),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 교육 내용 연구-‘일상생활’과 관련된 어휘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64, 국제어문학회, pp.323-348.
- 신자영(2005), 「한국어 언어의 다국어 대조 연구」, 『이중언어학』 28, 이중언어학회, pp.185-203.
- 여숙연(2017), 「숙달도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언어 습득 연구-목술관계 중심으로-」, 『한국어와 문화』 22,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pp.43-66.
- 원극연(2014), 「한·중 언어 대조 연구를 위한 토대 구축 연구」, 『한어문교육』 30,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pp.139-161.
- 유문명(2018),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언어 사용 오류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49,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pp.175-195.
- 이동혁(2003), 「언어 표현의 유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pp.131-161.
- 이정현(2010), 「한국어 교육에서의 언어 교육 양상 연구-연세대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16, 한국중원언어학회, pp.205-224.
- 이희자(1995), 「현대 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대동문화연구』 43,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pp.411-444.
- 임근석(2011), 「한국어 언어 연구의 전개와 쟁점에 대하여」, 『국어학』 61, 국어학회, pp.359-387.
- 임병준(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 교육」, 『한어문교육』 11,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pp.97-112.

- 임홍빈(2002), 「한국어 연어의 개념과 그 통사·의미적 성격」, 『국어학』 39, 국어학회, pp.279-312.
- 한송화·강현화(2004), 「연어를 이용한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15-3,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pp.293-316.
- 홍재성(1995), 「어휘함수 개념에 의한 한국어 어휘기술과 사전편찬」, 『해방50주년 세계 속의 한국학』,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339-362.
- Brown(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fourth edition, New Jersey.
- Brown(2000), 『Teaching by Principles. second edition』, New Jersey.
- Cruse, D.A(1986), 『Lexical Semantics. In the series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rth. J.R.(1957), 『Papers in Linguistics 1934-1951』,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Larsen-Freeman(2000), 『Techniques and principles in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 Lado(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pplied linguistics for language teacher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Richards, J. C.(1976), 「The Role of Vocabulary Teaching」, 『TESOL Quarterly』 10-1, TESOL.
- Richards&Rodgers(2001),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kins. D. A.(1972),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London :Edward Arnold.

학위논문

- 기단봉(2009),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어 대조 연구-목술관계 연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2010), 「한국어 연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금현(1996), 「국어의 관용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정근(2002), 「명사와 동사 결합 구성의 유형론과 기계 번역」,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정은(2010), 「한국어 연어 교육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유가(2010), 「코퍼스 기반 한 중 절대동형동의 한자어의 연어관계와 대역양상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유가(2019), 「한중 연어 사전 편찬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왕효휘(2011), 「한국어 연어의 중국어 대응 양상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열영(2015), 「한국어 동사구 연어 교육 방안 연구-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혁(1998), 「국어의 연어적 의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혁(2004), 「국어 연어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목자(2013),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 연어 교육 연구-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근석(2002), 「현대국어의 어휘적 연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근석(2006), 「한국어 연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진정정(2016), 「중국인을 위한 문화 주제 중심 한국어 어휘적 연어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경숙(1997), 「연어 구성의 기능동사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순희(2005), 「한·중 연어 비교 연구-한국어 연어의 중국어 대응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영임(2010), 「한국어 교육용 연어 선정 연구-[체언+용언]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FanQihui(2010), 「중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본 한국어 연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사전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

연구원.

국립국어원(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2020),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국립국어원(2020), <한국어-중국어 학습 사전>: <https://krdict.korean.go.kr/chn>

왕단 외(2015), 『한·중 연어사전』, 박이정.

한영균(2016), 『학습용 기본 명사 연어 빈도 사전』, 한국문화사.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2016), 『現代漢語辭典(第7版)』, 商務印書館.

교재

北京大學校 朝鮮文化研究所(2008), 『韓國語』, 民族出版社.

成均館大學校 成均語學院 韓國語教材編纂委員會(2011), 『新視線韓國語』,
北京語言大學校出版社.

韓國서울大學校 言語教育院(2008), 『新版韓國語』, 外國語教育研究出版社.

金重燮 外(2006), 『新標準韓國語』, 外國語教育研究出版社.

延世大學校 韓國語語學院(2014), 『延世韓國語 (中國語版)』, 世界圖書出版社.

표 차례

<표-1> 한국어 연어의 정의-----	22
<표-2> 어휘적 결합 관계의 통사적 의미 양상-----	34
<표-3> 연어와 자유 결합, 관용 표현 간의 성격상의 차이-----	35
<표-4> 연어의 통사적 의미 양상-----	36
<표-5> 연어의 특성-----	42
<표-6> 최순희(2005)에서 제시한 연어의 유형-----	44
<표-7> 어휘적 연어 유형의 제시 양상-----	45
<표-8> 전제적 연어와 관습적 연어의 특성 차이-----	47
<표-9> 전제적 연어 '머리를 감다'의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	47
<표-10> 관습적 연어 '욕을 먹다'의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	49
<표-11> 『한국어1』의 연어 목록-----	55
<표-12> 『한국어2』의 연어 목록-----	56
<표-13> 『한국어3』의 연어 목록-----	57
<표-14> 『한국어4』의 연어 목록-----	58
<표-15> 교육용 연어의 선정 기준-----	62
<표-16> 검토한 한국어 교재의 서지사항-----	64
<표-17> 『연세한국어 (중국어판)』 연어 목록-----	65
<표-18> 『신판(新版)한국어』 연어 목록-----	66
<표-19> 『신표준(新標準) 한국어』 연어 목록-----	67
<표-20> 『신시선(新視線) 한국어 듣기와 말하기』 연어 목록-----	68
<표-21> 중국의 교재 중 중복되는 연어-----	69
<표-22> 본고에서 제시된 연어 정의의 범위에서 제외된 교육용 연어 목록 -----	72
<표-23> 연어 학습 난이도 판정 기준-----	75
<표-24> 교재 연어 목록에 대한 빈도 및 학습 난이도 분석-----	76
<표-25>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초급 연어 교육 목록-----	87
<표-26>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중급 연어 교육 목록-----	88

<표-27>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고급 언어 교육 목록-----	88
<표-28> 교육용 언어의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	95
<표-29> 한국어 조사 '-에'의 의미와 용법-----	163
<표-30> 피실험자 구성-----	171
<표-31> 언어 오류의 유형 분류-----	173
<표-32> 학습 등급에 따른 언어 오류율 통계-----	174
<표-33> 오류의 위치에 따른 언어 오류율 통계-----	174
<표-34> 한·중 언어 대조 관점에서의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언어 오류율---	189
<표-35>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수업 모형-----	194
<표-36> 공동체 언어 학습법의 수업 모형-----	195
<표-37> 기본 수업 절차 및 수업 실례-----	198
<표-38> 기본 수업 절차 및 수업 실례2-고급 언어 교육 실례-----	201

<Abstract>

A Study on Correspondence of Korean Language Collocation to Chinese Language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Fu-Jia Ju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educating Chinese Korean-learners in collocation by comparing Korean collocation with corresponding aspects in Chinese Language from a viewpoint of contrastive linguistics. For this, a definition of collo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was reexamined and a list of collocation for systematic education for Chinese Korean-learners was selected. And corresponding aspects between Korean language collocation and Chinese language were compared and furthermore, an education plan of effective customized collocation education by analyzing Chinese learners' errors of using collocation.

Collocation education in the study did not stay at aspects of lexical education or grammar education and was examined from a new viewpoint by connecting it with contrastive linguistics. This discussion began from a fundamental question of 'how should collocation education for Chinese Korean-learners effectively be done?'. In order to find a solution to this, this thesis developed the following progress of discussion.

First, the definition of collocation was reexamined. Because the existing studies focused obsessively on discussing theoretical aspects of the definition of collocation, there was a limit to apply this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sidering this point, the thesis began from the

characteristics of collocation and gave a new definition of collo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ollocation including restrictions of lexical combination relationship of collocation, collocative co-occurrence, transparency and compositionality of the collocative meanings, and selectivity of collocative elements enough in the sit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t considered collocation as the syntactic combinatorial construction between two lexemes, selected and co-occurred the lexical elements of the main agent of choice (Base) which become a subject of choice (Collocate) selectively in practical terms, and regarded the syntactical meanings as the transparent or semitransparent composition.

Based on Korean language collocation defined in the thesis, a list of educational collocation for Chinese Korean-learners was selected. First, Chinese collocative educational aspects of Korean language were studied through a survey on 5 Chinese local Korean language textbooks including 『Korean Language』 by Peking University. In order to secure the validity that collocative items extracted through an analysis of the textbooks are selected as a list of educational collocation to be raised in the thesis, it first checked if each collocative item corresponds to the definition of collocation done in it or not. Next, considering frequent use in collocation and learning difficulty as criteria for selection, collocation composed with vocabularies very frequently registered in 『Basic Noun Collocation Frequency Dictionary for Learning』 and presented in <Result Report for Selecting Vocabularies for Learning Korean Language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03))> was selected as educational collocation. Finally, 291 collocations were selected as educational collocation through this.

For the selected educational collocation item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n collocation and corresponding aspects in

Chinese language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from the viewpoint of contrastive linguistics. Korean language collocation mostly has a corresponding relationship with Chinese phrases, vocabularies, and four character idioms when corresponding to Chinese. Therefore, corresponding aspects in Chinese language were divided into contrastive and noncontrastive relationships according to syntactic construction of Korean language collocation. The contrastive relationship indicates that the syntactic construction of corresponding expressions of Chinese language accords with Korean language collocation. And the subclassification of the contrastive relationship in an semantic aspect can again be divided into complete and partial corresponding relationships. The complete corresponding relationship keeps the basic meanings and forms 1:1 corresponding relationships in components of Korean language collocation and Chinese corresponding expressions. Unlike this, in the partial corresponding relationship, Korean language should not be translated into the basic meanings of the applicable vocabularies when corresponding to Chinese language due to the extended meanings of the collocative elements but correspond to it by borrowing other Chinese vocabularies which accord with the extended meanings of Korean vocabularies. The noncontrastive relationship indicates that syntactic construction of corresponding expressions of Chinese language does not accord with Korean language collocation. The noncontrastive relationship includes various phrases, vocabularies, and four character idioms of Chinese language. Korean language collocation shows various corresponding aspects when corresponding to China. The complete corresponding relationship is helpful for Chinese learners in understanding and utilizing Korean language collocation more easily by the corresponding aspect of Chinese language. However, the partial and noncorresponding relationships make learners have difficulty in studying

allocation because there are a lot of differences between Chinese responding aspects and collocation and the semantic or syntactic construction of Korean language. This noncontrastive corresponding relationship becomes a factor of Chinese Korean-learners' errors of using collocation. Therefore, learners' collocation errors can easily be expected and analyzed by the corresponding aspects of Korean language collocation in Chinese language. Furthermore, implications for collocation education and efficient educational plants can be raised based on the contrastive and error analys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ntrastive analysis on the corresponding aspects in Korean language collocation and Chinese language, causes of Chinese learners' errors were established by analyzing the errors that practically appeared when they use Korean language collocation. The thesis collected Chinese learners' collocative errors through a survey on translation questionnaires. The subject of the survey was 36 students who study Korean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in a local Chinese university. Total 356 collocation errors were collected through the survey. And according to the causes of the errors, the specific errors were divided into 4 types as follows:

First, it's errors due to effects of the native language. Errors due to differences of meanings between Korean and Chinese languages and errors due to literal translation of Chinese vocabularies into Korean ones are applicable to this. Second, it's errors due to effects of target languages. Substitution errors of synonyms, errors of confusing intransitive and transitive verbs, etc. are applicable to this. Third, it's errors of postpositional particles. Fourth, it's other errors. The result which analyzed the errors have found as follows: The errors of the native language have found that the error rate is highest as 22.2%, followed by the errors of postpositional particles (20.8%). The error rate

of the errors due to the effects of target languages is relatively low as 15.7%. This has found that Chinese learners receive much interference from their mother language when learning collocation. Therefore, a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emantic or morphological aspects of collocative expressions that Korean language corresponds to Chinese language should be emphasized by comparing them with each other, education should be done to make learners utilize Korean language collocation by recognizing it exactly.

On the other hand, Chinese learners are not familiar with postpositional particles, the element used when utilizing collocation because there are no any case-making postpositional particles in the Chinese grammar system. Therefore, the reason to use applicable postpositional particles should be given to learners by beginning from the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collocation. Even though it's the lowest number of errors due to effects of target languages among these three error types, semantic and morphological distinction of synonyms in Korean language becomes difficulties in collocative learning of Korean language. If Korean synonyms are not well distinguished from one another, errors have been found by using synonyms which do not match specific collocation. In order to solve collocative errors due to interference of these target languages, semantic and morphological differences of Korean synonyms should be emphasized to learners in the learning process.

In order to overcome difficulties that Chinese learners study Korean language allocation due to differences in Korean and Chinese expressions, efficient educational plans of collocation were suggested from the viewpoint of contrastive linguistics. A new instructional model composed of 4 stages of 'Introduction-Translation activity-Utilization-Finish' was prepared by combining the grammar-translation teaching method which well reflects contrastive linguistics with the theory of the learning method

of community language and examples of classes by grade were suggested.

Key words: Collocation, Contrastive linguistics, Korean language education, Comparison of Korean·Chinese vocabularies, Error analysis.